

언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넓은벌 동쪽끝으로 옛이야기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언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
- ② 겸손한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해.
- ③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
- ④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는 과정이 필요해.
- ⑤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해.

2. (물음) 이 강의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와 어른의 성대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 ② 소리의 진폭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③ 변성기 남녀의 성대 길이는 어떻게 다른가?
- ④ 남녀의 목소리는 언제부터 달라지는가?
- ⑤ 목소리의 높낮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3. (물음) 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1점]

그림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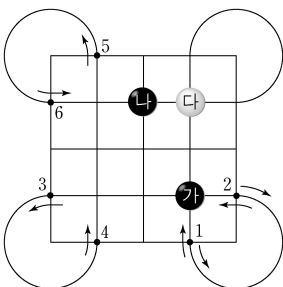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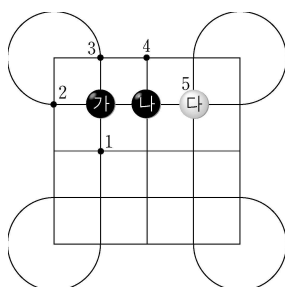


그림 B



- ① '가'를 '1'로 ② '가'를 '2'로 ③ '가'를 '3'으로
- ④ '나'를 '4'로 ⑤ '나'를 '5'로

4. (물음) 여학생이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지목했을 나라는?

국 가	국민 총소득 [단위: 십억 달러]	1인당 국민 총소득 [단위: 달러]	1인당 공적 개발 원조액 [단위: 달러]
한 국	682	14,193	9
① 미 국	11,711	39,644	67
② 캐 나 다	976	30,565	81
③ 독 일	2,752	33,309	91
④ 포르투갈	175	16,809	100
⑤ 파키스탄	97	627	-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전래 동요의 특징이 아닌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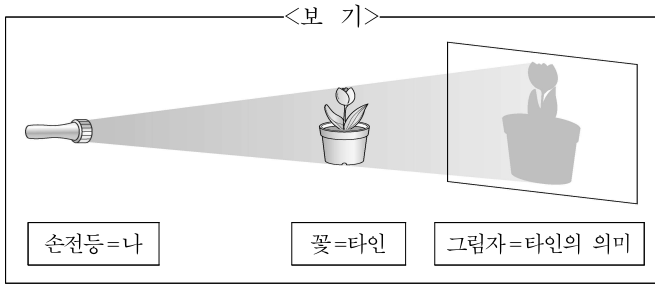
- ① 말하듯이 부른다.
- ② 놀이와 어우러져 있다.
- ③ 아이들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 ⑤ 같은 노래라도 사람에 따라 달리 불린다.

6. (물음) 방송에서 이어질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 굽어 못 간다/등 굽으면 길마/길마는 네 구멍/네 구멍은 시루/시루면 검지
- ② 동무 동무 어깨동무/어디든지 같이 가자/천릿길도 멀지 않고/만릿길도 멀지 않다
- ③ 철뱅이 뽕뽕/얹을뱅이 뽕뽕/얹은 자리 얹거라/십 리 밖에 나가면/니 모가지 떨어진다
- ④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아이야 아이야 주워라/할배야 할배야 먹어라
- ⑤ 개똥불아 개똥불아/번쩍번쩍 개똥불아/이리 와서 나와 놀자/그리 가면 더웁단다/이리 오면 서늘하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인간관계’에 대하여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은 발상을 하였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전등의 빛을 꽃에 비추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상대방이 내게 의미 있게 된다.
- ② 손전등이 꽃에 가까워지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진다.
➡ 타인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하면 상대방의 의미가 더욱 객관화된다.
- ③ 손전등의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가 더욱 또렷해진다.
➡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상대방은 내게 더욱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
- ④ 손전등의 렌즈에 얼룩이 묻으면 그림자가 왜곡된다.
➡ 타인을 대할 때 편견이 개입하면 상대방을 참된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 ⑤ 손전등을 비추는 방향이 바뀌면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진다.
➡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상대방은 내게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8. 시의회에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쓰고자 한다.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독자 분석】 • 시의회는 지역을 위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시민들의 청원을 심사·처리한다. • 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p>
<p>【전략 수립】 •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론과 관련 법률을 활용하고, 시의회의 역할을 환기한다. ①</p>
<p>【자료 수집】 • ‘통학 중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사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설문 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자료로 활용한다. ②</p>
<p>【내용 선정】 • 자전거 분실 문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를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다. ③ •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가 시민 교통안전,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를 제시한다. ④ •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한다.</p>
<p>【조직】 • ‘사례를 활용한 문제 제기 - 요구 사항 - 기대 효과 - 촉구’의 순서로 구성한다.</p>
<p>【표현】 • 공식적인 글에 걸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정중하게 표현한다. ⑤ • 요구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분명한 어조로 표현한다.</p>

9.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자기 점검을 해 보았다. 수정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 문제 제기
- II. 재래시장 침체의 실태와 그 원인
 - 1. 실태 ㉠
 - 가. 매출액 감소
 - 나. 빈 점포 증가
 - 2. 원인
 - 가. 편의 시설 미비
 - 나. 서비스 의식 미흡 ㉡
 - 다. 대형 유통점 및 전자 상거래 중심으로의 유통 구조 변화
- III.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1.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대체 ㉢
 - 2. 서비스 의식 강화
 - 3. 특성화 전략 강구 ㉣
 - 가. 지역 특산물 시장 육성 및 지원
 - 나.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된 판매 행사 개최
- IV. 재래시장의 가치 강조 및 활성화 대책 촉구 ㉤



점검 사항	수정 사항
① 불충분한 내용은 없는가?	㉠의 하위 항목에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넣어야겠어.
②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가?	㉡은 삭제해야겠어.
③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을 ‘접근성과 편의성을 살린 시설 마련’으로 바꿔야겠어.
④ 하위 항목을 포괄하고 있는가?	㉤을 ‘지역 전통문화 발전 전략 강구’로 바꿔야겠어.
⑤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	㉤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 촉구’로 바꿔야겠어.

10. 다음은 ‘사회 변화에 대비한 복지 정책’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자료를 결합하여 해석하고 주제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항 목	1995년	2000년	2005년
ㄱ. 여성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 비율 [단위: 백분율]	11.4	14.0	17.5
ㄴ.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 [단위: 명]	1.65	1.47	1.08
ㄷ. 전체 인구 중 30대 미혼 인구 비율 [단위: 백분율]	1.71	2.40	3.75
ㄹ. 평균 수명 [단위: 세]	72.2	74.6	76.8

자료	해석	주제
① ㄱ+ㄴ	출산보다는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미혼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② ㄱ+ㄷ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날수록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약해지고 있다.	독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③ ㄱ+ㄹ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전문·관리직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보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④ ㄴ+ㄹ	어린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요구된다.
⑤ ㄷ+ㄹ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11. <보기>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보기>에서 언급한 소재의 속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반박하는 댓글을 쓰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않은 것은?

<보 기>

<p>[제목] 소를 닮은 사람들</p> <p>우리 주변에는 소를 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일이 아니면 소 닭 보듯 무관심하게 대한다. • 무슨 일을 하든 소처럼 느려 터져서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 •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두 고두고 지난 일에 연연해한다. • 황소고집이어서 자기의 생각을 좀처럼 꺾는 법이 없다. • 남이 충고하면 소가 느닷없이 뿔로 들이받듯 과격하게 반응한다. <p>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해로운 존재이다.</p>	<p>[제목] 소를 닮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p> <p>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 타인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① •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② •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이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③ •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뜻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④ • 쇠뿔을 단김에 빼듯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도 필요하다. ⑤ <p>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소중한 존재이다.</p>
---	---

12. 소비자 보호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기를 위한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려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상담 신청

물품명	휴대 전화	모델명	GJN-9510
하자 및 불만 사항	<p>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전화기를 두 번이나 수리를 받았는데 또 같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서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 항의했지만, 그제야 본사로 보내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하더군요. 전화기를 맡긴 뒤, 약속한 날이 되어 찾으러 갔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며칠 뒤에나 다시 오랍니다. ㉡ 전화기 고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성의 없는 서비스 태도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서 이와 같은 처사에 ㉢ 어케 열받지 않겠습니까?</p>		
요구 사항	<p>㉣ 어제는 제 친구도 같은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신속히 제품을 ㉤ 수리하거나 교환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달여 동안 낭비한 시간과 영똥하게 들인 수리비도 보상받고 싶습니다.</p>		

- ① ㉠은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항의했더니’로 고쳐야겠어.
- ② ㉡은 전체를 개괄하는 진술이므로 글의 맨 앞으로 옮겨야겠어.
- ③ ㉢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비속어이므로 ‘어찌 화가 나지’로 바꿔 써야겠어.
- ④ ㉣은 ‘요구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해야겠어.
- ⑤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도록’으로 고쳐야겠어.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 ‘극비리’,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건설 + -되다 ¹ → 건설되다	못 + -되다 ² → 못되다
발견 + -되다 ¹ → 발견되다	참 + -되다 ² → 참되다
평가 + -되다 ¹ → 평가되다	막 + -되다 ² → 막되다
처리 + -되다 ¹ → 처리되다	영광 + -되다 ² → 영광되다
(용례)	(용례)
· 다리가 <u>건설</u> 되었다.	· <u>못된</u> 장난을 치다니.
· 유물이 <u>발견</u> 되었다.	· <u>영광된</u> 자리에 서다.

- ① ‘-되다¹’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¹’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¹’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¹’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란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बे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 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꾼이었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③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들었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⑦ 뻔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뻔뻔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뉘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지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⑤ 졸이며 혼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뒀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① 등줄기를 호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싶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이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테 얹치고 덜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빛도 다 못 ② 가릴 모양. 예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 물러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④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웅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너럭히 거뒀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벼를 잘못 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걸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⑥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댓 말 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개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을 입어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쭈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눈독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진인지 뭔지 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부어 뺑소니를 ㉠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버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눈독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떨어져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견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맛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뺨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
이 북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테통스러이 내뺨고는 비틀비틀 눈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 김유정, 「만무방」 -

- * 장리 :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 * 도지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 색초 :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ㄴ.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ㄹ. [A]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개인이었다가 [B]에서는 사회로 확대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7. ‘응칠’의 행동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토대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응칠이는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다.
 ㄴ. 응칠이는 담판을 지으려고 지주를 만난다.
 ㄷ. 응칠이는 지주의 뺨을 때린다.
 ㄹ. 응칠이는 눈에 가서 도적을 기다린다.
 ㅁ. 응칠이는 도적을 잡기 위해 다짜고짜로 달려든다.

- ① ㄱ, ㄴ을 통해 동생을 생각하는 응칠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② ㄱ, ㄹ에서 응칠이가 동생을 찾아온 일이 도적과 관계됨을 알 수 있어.
- ③ ㄴ, ㄷ, ㅁ을 통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칠이의 성격을 알 수 있어.
- ④ ㄴ, ㄹ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칠이의 의지를 볼 수 있어.
- ⑤ ㄹ, ㅁ은 응칠이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한 행위일 수 있어.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실한 농군’의 행위인 점에 비추어, 의도가 단순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노동의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 ③ ㉢: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된다.
- ④ ㉢: 싸움 중에 잠시 찾아온 침묵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
- ⑤ ㉢: 뜻밖의 상황을 당해 당혹스러워 하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19.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알아주는 ② ㉡: 태우며
- ③ ㉢: 갚을 ④ ㉢: 거칠게
- ⑤ ㉢: 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혹은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 언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나)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다)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제도적 조치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

(라) 전통적으로 대중 매체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수용자의 반응, 즉 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제3자 효과 이론은 매체의 영향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 성향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 검열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도 짐작하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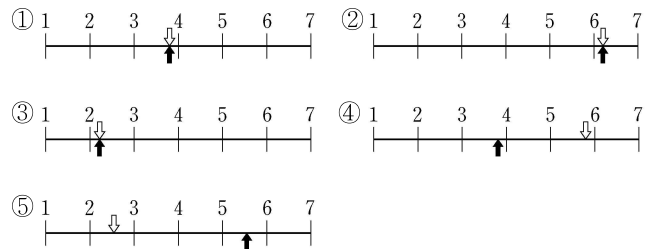
(마) 제3자 효과 이론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은 대중 매체의 전달 내용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고립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20.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제3자 효과 이론의 등장 배경
- ② (나): 제3자 효과의 개념
- ③ (다): 제3자 효과 이론의 유형
- ④ (라): 제3자 효과 이론의 의의
- ⑤ (마): 제3자 효과 이론의 응용

21.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 중, 제3자 효과가 나타난 것은? [1점]

<일러두기>
 (자신: ↓, 타인: ↑)
 1: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7: 영향을 많이 받는다.



2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돈을 얻을 곳이 또 어디 없을까?
- ② 책에서 얻은 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
- ③ 여행 중에 얻은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다.
- ④ 발언권을 먼저 얻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⑤ 늘그막에 자식을 얻더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23.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 ② 대중 매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③ 유해한 내용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검열과 규제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대중 매체에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찍이 경제학자 클라크는 산업을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거나 생산하는가, 그 원료를 가공하는가, 가공된 원료를 유통하는가에 따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가령,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 통신 산업은 어디에 속할까? 이처럼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해졌고, 실제로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산업분류가 있다. 이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생산자의 관점에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정의한다. 대분류, 중분류 등 모두 다섯 단계로 구성된 이 분류 방법은 주로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연구 개발 투자가 많은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본다.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 개발 집약도’를 사용하며, 그 평균이 4% 이상이면 그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 방법은 첨단 기술 산업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산업의 평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로는 첨단 기술 산업이지만 그 안에 얼마든지 저급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기술이 진보한 결과 새로운 기술 영역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등장한 기술 영역은 신속한 실용화의 요구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 기술에서 비롯된 정보 기술 산업은 이미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환경 기술 등도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의 변화는 기술 이외에 시장 수요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령, 인구 구성과 소비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수많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 산업, 실버산업, 레저 산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에 나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산업을 정의하거나 분류할 때에는 고정된 기준이나 체계보다 신축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구매력을 가진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면 새로운 산업이 ㉠ 생겨나고 오래된 산업이 ㉡ 사라지는 현상도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 산업의 정의나 분류도 유연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기술 진보의 정도를 반영한다.
- ② 표준산업분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연구 개발 집약도가 4% 이상인 산업이라도 그 안에 저급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다.
- ④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시장 수요의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 분류가 가능하다.

25. <보기>의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학교는 기존의 어느 학과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그 학문의 명칭을 사용한 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로봇공학을 가르치기 위해 로봇공학학과를, 분자생물학을 가르치기 위해 분자생물학과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학문의 명칭을 그대로 학과 명칭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 글에서 설명한 기준이나 관점 중에 [A]과 유사하다.

- ① 클라크의 기준
- ② 표준산업분류의 기준
-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
- ④ 기술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
- ⑤ 시장 수요를 고려하는 관점

2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기존의 분류로 파악하기 힘든 산업의 실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 ②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 ③ 다양한 산업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 ④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를 찾기 위하여
- ⑤ 동일한 산업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27.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가 ㉠ : ㉡와 다른 하나는? [1점]

- ① 태어나다 : 자라다
- ② 들어가다 : 나오다
- ③ 올라오다 : 내려가다
- ④ 떠오르다 : 가라앉다
- ⑤ 나아가다 : 물러나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흰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흰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29.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0.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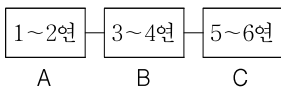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③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31.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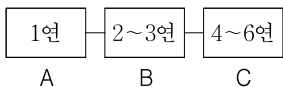
<보 기>

선생님: (나)와 (다)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



(다)



이제 두 시를 자세히 읽고, 시상의 전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되고 있어요.
② (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숭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③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④ (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⑤ (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32.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④ ‘윈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던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던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 이루어진 것이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 + 3 = 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 $2 + 3 = 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알[知]’이란 어떤 능력이나 정보의 소유를 의미한다.
- ② 절차적 지식은 다른 지식 유형의 기반이 된다.
- ③ 표상적 지식은 특정한 수행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 ④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 ⑤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험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34.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 $2 \times 4 = 8$ ’은 모른다.
-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紧张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35.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36.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천명(闡明)되기도 ② ㉡: 습득(習得)한
- ③ ㉢: 의거(依據)하여 ④ ㉣: 형성(形成)된
- ⑤ ㉤: 별개(別個)의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많은 미술가들은 대중 매체를 조각이나 선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중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샌들은 ㉠ 「자유를 위한 힘찬 일격」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힘찬 몸짓으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작품만으로 작가가 왜 이처럼 분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비전 수상기 몇 대가 부수어진들 대중 매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기에, 이 힘찬 조각은 오히려 무력해 보이기도 한다.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소위 ㉡ 「근본주의 회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경향의 미술가들은 회화 예술만의 특성, 즉 「회화의 근본」을 찾아내려고 고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결국 회화에서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 그것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를 부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물의 이미지와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그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대중 매체라는 위압적인 경쟁자에 맞서 회화가 택한 절박한 시도였다. 그 결과 회화는 대중 매체와 구별되는 자신을 찾았지만, 남은 것은 회화의 빈곤을 보여 주는 텅 빈 캔버스뿐이었다.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한 경우는 없었을까? 「팝 아트」는 대중문화의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특히 ㉢ 영국의 초기 팝 아트에서 두드러진다. 그들은 ㉣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것을 ㉤ 맥락이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 비판적 의도를 표출했는데, ㉧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비판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리히텐슈타인이 대중문화의 하나인 만화의 양식을 본떠 제작한 ㉨ 「파광!」과 같은 작품이 그 예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색이나 묘사 방법 같은 형식적 요소들 때문에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화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가 전쟁을 다룰 경우, 전쟁의 공포와 고통은 밝고 경쾌한 만화의 양식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된다. 「파광!」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전 장면을 4미터가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이 점에서 「파광!」은 추상화처럼 형식

에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내용도 역시 작품의 감상에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 관람객들이 「파광!」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3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으로는 전면적인 거부가 가장 효과적이다.
- ② 근본주의 화가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 ③ 영국의 팝 아트는 미국에 비해 비판적 시각이 부족했다.
- ④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 ⑤ 리히텐슈타인의 미술은 근본주의 회화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은 대상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반전(反戰)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대상의 이미지가 사라진 추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그리는 방식이 주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작품의 의미가 공허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9. ㉠~㉥ 중, <보기>의 사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영국 미술가 해밀턴은 1964년 당시 영국의 정치가 휴 게이츠켈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영화 속 괴물 휴 게이츠켈의 초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이 정치가의 확대된 얼굴 사진을 놓고 그 일부를 공포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처럼 바꾸어, 이 정치가가 비인간적 면모를 감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0. 관람객의 입장에서 「파광!」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명랑한 색감과 만화적 재현 방식 사이의 부조화
- ② 확대된 크기와 다른 형식적 요소들 간의 충돌
- ③ 밝은 색채와 세밀한 묘사 방법 간의 불협화음
- ④ 폭력적 주제와 비판적 의도 간의 불일치
- ⑤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푸루 날아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저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움쭙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어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밟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 큰 장기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 우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트리 앓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 귀촉도 귀촉도 붙여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춘비 노략한때로구나, 소텅 소텅 저 흥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폐전이 어인 일고, 입뺨쪽 입뺨쪽 저 뺨쪽새. 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까 가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쑥국 쑥쑥국. (중략)

㉠ 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곱의 팔, 녹포염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른다?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동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닫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텅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텅기령 베고, ㉣ 백송골이 펄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적벽가(赤壁歌)」 -

* 주유: 조조의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대장군.

* 공명: 제갈량(諸葛亮).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촉나라의 군사(軍師).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봄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욱과 단둘이 도망가고 있다.
- ③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 ⑤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2. (나)와 (마)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짜기가 살아나고 있다.
-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44.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새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름난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면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적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상황에 얽힌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에 이어지는 '귀축도 귀축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축'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흥년새가 '소텡 소텡' 하고 우는 것은 '소뎡(솔뚜껑)'이나 '솔이 텡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삐죽새가 '입삐죽 입삐죽' 하고 우는 것은 '삐죽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 ③ '피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피'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회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쑥국 쑥쑥국'이라는 울음소리는 '쑥'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4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94년, 화성에 고도로 진화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화성의 지도들에 나타난, '운하'라고 불리던 복잡하게 얽힌 선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화성의 '운하'는 1878년에 처음 보고된 뒤 거의 30년간 여러 화성 지도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19세기 후반에 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한 화성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1877년 9월은 지구가 화성과 태양에 동시에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의 표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보였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포르투갈의 마테이라 섬으로 가서 13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해서 화성을 보이는 대로 직접 스케치했다. 그린은 화성 관측 경험이 많았으므로 이전부터 이루어진 자신의 관측 결과를 참고하고,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한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나오면서 이 지도의 정확성이 도전받았다. 그린과 같은 시기에 수행한 관측을 토대로 제작한 스키아파렐리의 지도에는, 그린의 지도에서 흐릿하게 표현된 지역에 평행한 선들이 그물 모양으로 교차하는 지형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아파렐리는 이것을 '카날리(canali)'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해협'이나 '운하'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였다.

①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린의 스키아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아파렐리는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테이라 섬보다 대기의 청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승리는 스키아파렐리에게 돌아갔다. 그가 천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천문학자였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형을 지도에 그려 넣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스키아파렐리의 지도는 지리학의 채색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린의 지도보다 호소력이 강했다. 그 후 스키아파렐리가 몇 번 더 '운하'의 관측을 보고하자 다른 천문학자들도 '운하'의 존재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후 더 많은 '운하'들이 화성 지도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단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관측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망원경의 성능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중시되던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기 어려웠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는 종종 '운하'가 보이지 않았는데, ㉠ 놀랍게도 '운하' 가설 옹호자들은 이것에 대해 대형 망원경이 높은 배율 때문에 어떤 대기 상태에서는 오히려 왜곡이 심해서 소형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명'하곤 했던 것이다.

46.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천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화성 지도
- ② 설명과 해명: 그린과 스키아파렐리
- ③ 과학의 신화: 화성 생명체 가설
- ④ 과학사의 그늘: 화성의 운하
- ⑤ 과학의 방법: 경험과 관찰

47.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림
- ②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함
- ③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함
- ④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를 반영함
- ⑤ 관측 조건이 더 양호한 곳에서 관측함

48. 위 글의 사례와 <보기>의 유사점이 아닌 것은?

—<보 기>—

17세기 초 갈릴레이는 당시로서는 배율이 가장 높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달을 관측한 뒤, 달에서 산과 계곡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갈릴레이는 이 발견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믿어 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도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달은 천상계의 물체이므로 완전한 구형이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갈릴레이의 망원경이 달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는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이 개발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무너질 때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 ① 망원경에 대한 불신이 개입된 점
- ②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논란이 된 점
- ③ 관측 결과의 수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 ④ 천체의 지형에 대한 관측을 소재로 한다는 점
- ⑤ 권위자의 주장이 오류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점

49.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측에서 사용하는 과학 장비의 우수성이 논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② 과학적 관찰 결과가 이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
- ③ 어떠한 표현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과학적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 ④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 차이로 인해 과학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군.
- ⑤ 지금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 이론도 미래에는 틀린 것으로 밝혀질 수 있겠군.

50.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 드러나도록 ㉠을 바꾸어 쓴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경이롭게도 ② 굉장하게도
- ③ 기발하게도 ④ 갑작스럽게도
- ⑤ 어처구니없게도

[51~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空山鬪虜)*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 가없는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베갯머리.
-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삼(挿)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 위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나.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동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지니와,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돌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㉔ 그리하여 기나긴 겨울밤은 어느덧 밝을 녘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는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㉕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 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길이 떠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히던 장죽, 노변(爐邊)의 ㉖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 양주동, 「질화로」 -

- * 목불식정: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삼한죽: 의문을 제기하니.
- * 고담 책: 옛날이야기 책.
- * 구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
- * 표박: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5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작품의 바탕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 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5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53. (가)의 ‘꿈’과 (다)의 ‘추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추억’에는 모두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꿈’의 내용이 현실적이라면, ‘추억’의 내용은 환상적이다.
 - ③ ‘꿈’과 ‘추억’ 모두 화자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꿈’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면, ‘추억’은 다양한 대상과 연관된다.
 - ⑤ ‘꿈’과 ‘추억’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4.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
 - ② ‘공산 추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 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입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입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⑤ ‘침변에 시드는’은 입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55. ㉑~㉔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
 - ② ㉒: 화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군.
 - ③ ㉓: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 ④ ㉔: 겨울밤이 무척이나 길고 무료했다는 뜻이군.
 - ⑤ ㉕: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56.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
- 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 어처럼 지속적으로 ㉢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종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왜 우리는 ㉤ 위험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의 수와 연관이 있다.
- ②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 ③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 매체도 영향을 미친다.
- ④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 ⑤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58.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관점이 다른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 ③ 대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기대고 있다.
- ④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59. 위 글의 논지에 비추어 <보기>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보 기>

영어에는 1인칭 복수로 we 한 가지만 있으나, 자이세 어에서는 청자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núy*와 *níy*로 구별되고, 체로키 어에서는 ‘화자+청자’를 가리키느냐 ‘화자+제3자’, ‘화자+복수의 타인’, ‘화자+청자+복수의 타인’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 ① 언어가 발전해 가면서 구분 체계도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 ② 언어 간의 차이는 인류의 언어 능력이 풍부함을 보여 준다.
- ③ 문법적으로 더 세밀히 구분을 하는 언어일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 ④ 국제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언어 간의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
- ⑤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더 널리 쓰이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60. ㉠~㉤ 중, 문맥상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②	2	16	②	2	31	③	2	46	④	1
2	⑤	2	17	②	3	32	④	1	47	②	2
3	②	1	18	④	2	33	②	1	48	②	2
4	④	2	19	④	1	34	③	2	49	④	2
5	④	1	20	③	2	35	③	2	50	⑤	1
6	①	2	21	⑤	1	36	①	1	51	②	2
7	②	2	22	②	1	37	④	1	52	①	1
8	③	2	23	①	2	38	④	3	53	④	2
9	③	2	24	①	2	39	⑤	2	54	⑤	2
10	④	3	25	④	2	40	⑤	1	55	④	2
11	⑤	2	26	①	1	41	④	1	56	③	1
12	②	1	27	①	1	42	③	2	57	②	1
13	①	2	28	⑤	2	43	③	2	58	③	2
14	⑤	2	29	①	1	44	④	2	59	②	2
15	①	1	30	⑤	2	45	①	1	60	③	1

제 1 교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너 았은 그 자리가 바로 희망 꽃자리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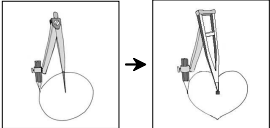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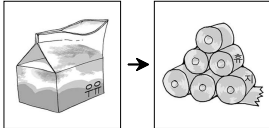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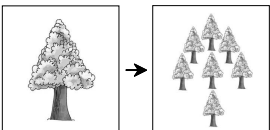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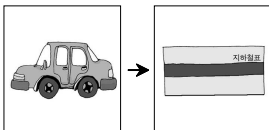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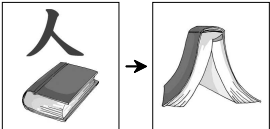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은? [1점]

- ① 겸손한 자세
- ② 협력하는 자세
- ③ 동료를 아끼는 태도
- ④ 서로를 격려하는 태도
- 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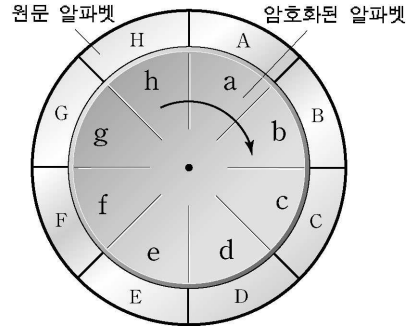
2. (물음)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선택했을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께 사는 삶 
- ② 재활용 
- ③ 숲 가꾸기 
- ④ 대중교통 이용 
- ⑤ 독서하는 사람 

3. (물음)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보부상은 신분증을 지니고 다녔다.
- ② 보부상에게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었다.
- ③ 보부상은 전국의 장을 돌아다니며 장사했다.
- ④ 보부상은 일부 상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했다.
- ⑤ 보상과 부상은 취급하는 물품이나 운반 방법이 달랐다.

4. (물음) 교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 ① fb
- ② fc
- ③ ga
- ④ gh
- ⑤ hd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장면 이전에 최 교수가 발언했을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유명 브랜드 선호는 자아 표현의 방식이다.
- ② 유명 브랜드 선호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
- ③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한다.
- ④ 유명 브랜드 선호의 부정적 측면은 소비자 교육으로 극복된다.
- ⑤ 유명 브랜드 선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6. (물음) 사회자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유머를 통해 부드러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 공정한 토론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 ③ 주의를 환기하며 쟁점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에 동참하고 있다.
- ⑤ 토론자의 말실수를 지적하며 보다 분명한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의 그림을 보면서 ‘효과적인 독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재생’을 ‘독서’라고 가정하고 연상했을 때, ㄱ~ㅍ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시 정지 정지 빨리 감기 재생 되감기 녹음

ㄱ. 빨리 감기: 독서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건너뛰며 읽을 수도 있다.
 ㄴ. 되감기: 다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도 한다.
 ㄷ. 정지: 독서를 하다가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만둘 수도 있다.
 ㄹ. 일시 정지: 독서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기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
 ㅍ. 녹음: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ㅍ

8. ‘신발 선택’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의 개요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I. 서론
 1. 건강에 대한 최근의 관심
 2. 신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II. 신발 선택의 일반적 기준과 문제점
 1. 일반적 기준
 가. 유행
 나. 모양새
 2. 잘못된 신발 선택의 폐해
 가. 질병과 사고 발생
 나. 능률 저하
 다. 교통비 증가

III. 신발 선택의 바람직한 기준과 이점
 1. 신발 선택의 바람직한 기준
 가. 건강
 나. 용도
 2. 건강과 용도에 따른 신발 선택의 이점
 가. 건강 증진
 나. 능률 향상

IV. 결론: 건강과 용도를 고려한 신발 선택 강조

- ① ‘I-1. 건강에 대한 최근의 관심’과 ‘I-2. 신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순서를 바꾼다.
 ② ‘II. 신발 선택의 일반적 기준과 문제점’을 ‘II. 신발 선택의 합리적 기준’으로 바꾼다.
 ③ ‘II-2-다. 교통비 증가’를 삭제한다.
 ④ ‘III-2-다’를 새로 설정하여 ‘혈액 순환 촉진’을 추가한다.
 ⑤ IV를 ‘결론: 걷기 운동의 생활화’로 바꾼다.

9. ‘이야기 속의 개와 고양이’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 중에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바르게 묶는다면?

연상 대상	국가	긍정적 연상		부정적 연상	
		비율	대표적인 연상	비율	대표적인 연상
개	한국	76.9%	충직하다, 순종적이다, 쓸모 있다	5.8%	더럽다, 거칠다
	일본	55.7%	순종적이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영리하다, 믿음직스럽다	8.7%	더럽다, 시끄럽다
고양이	한국	13.6%	빠르다, 예민하다	63.8%	차갑다, 교활하다, 믿을 수 없다
	일본	22.4%	부드럽다, 친근하다, 깨끗하다	48.3%	제멋대로다, 게으르다, 변하기 쉽다

*기타 연상은 제외

<보 기>

ㄱ. 한국인은 개에 대해 긍정적인 연상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이야기에는 개가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겠군.
 ㄴ. 일본인에게 개는 긍정적인 연상 대상이고, 고양이는 부정적인 연상 대상이므로, 일본의 이야기에는 개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등장하겠군.
 ㄷ. 고양이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표적인 연상’의 내용은 차이가 있으므로, 고양이의 이미지는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를 수 있겠군.
 ㄹ. 고양이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적인 연상 비율이 개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인 연상 비율보다 높으므로,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양이를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지역 신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글을 투고하고자 한다. <보기>의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제목: 등·하굣길 어린이의 교통안전
- 예상 독자: 지역 주민
- 내용 및 의도
 -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실태
 -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 실천 가능한 예방책 제시

- ①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례를 소개하여 등·하굣길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부각시켜야겠어.
- ②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자고 제안해야겠어.
- ③ 다른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④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해야겠어.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밝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정한 취지를 강조해야겠어.

[11~12] 다음은 체험 학습을 다녀온 학생이 쓴 글이다. 11번과 12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산 △△사를 다녀와서

지난 주 토요일에는 △△사의 대웅전과 불상, 석탑을 살펴 보고 ○○산을 오르는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전나무 숲길을 걸어 오르기 시작한 지 40분쯤 지나 당간지주에 이르렀고, 조금 더 올라가 절에 도착했다. ㉠ 돌다리 위에서 종루 너머로 보이는 대웅전은 팔작지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절 입구에는 타원형의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는 대웅전 쪽으로 돌다리가 놓여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때로는 ㉡ 완만하게 때로는 급하게 보이는 지붕의 경사에서 다양한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시간이 되어 공양 둘러 가는 스님들을 뒤로 하고 등산로를 따라가니, 얼마 가지 않아 언덕 위의 석탑이 나를 반긴다. [A]

다시 정상을 향해 30분쯤 더 오르자 10m는 훨씬 넘을 듯한 폭포가 나타난다. 기묘한 모양의 암석들과 그 틈에 비스듬히 자란 소나무들 사이로 장쾌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에 가슴 속까지 시원해진다. 폭포를 바라보며 도시락을 먹고 나서 비탈길을 오른다. 오르락내리락 한 시간 남짓 걸어가자, 드디어 정상! ㉣ 산 아래의 풍광을 내리 굽어보려니 옛 시인이 시구로 표현한 말처럼 신선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든다.

11.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앞뒤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② ㉡은 ‘모가 난 데 없이 부드럽다’는 뜻인 ‘완만하게’로 고쳐야겠어.
 - ③ ㉢에는 글 전체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불상’에 관한 견문과 감상을 추가해야겠어.
 - ④ ㉣은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절을 떠날 시간이 되어’로 고쳐야겠어.
 - ⑤ ㉣은 어법에 맞고 간결하게 ‘풍광을 굽어보니, 옛 시인의 말처럼 신선이라도 된 듯하다.’로 고쳐야겠어.

12. [A]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의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의인법과 직유법을 사용할 것.
○ 대상에 대한 공감을 드러낼 것.

- ① 석탑은 해맑은 동자승의 미소를 띠고 다정한 친구처럼 내게 말을 건넨다.
- ② 높이가 어른 키 세 배는 되어 보이는 석탑은 오래된 돌담에 둘러싸여 있다.
- ③ 온갖 세파에도 초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석탑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 준다.
- ④ 석탑의 상륜부는 잘 깎은 연필처럼 뾰족하고, 기단부는 거인의 어깨처럼 단단해 보인다.
- ⑤ 부드럽고 욕심 없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석탑 앞에서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에 잠긴다.

13.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대상 어휘]
틈, 겨를, 사이

[분석 방법]

1. 주어진 문장의 { }에 있는 단어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어 앞에 *를 표시한다.
2.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단어의 의미 특성을 파악한다.

[1차 분석 결과]

- ㄱ.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쉴 {틈, 겨를, 사이}이/가 없다.
- 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벽의 갈라진 {틈, *겨를, *사이}에서 물이 새요.
- ㄷ. 서울과 인천 {*틈, *겨를, 사이}에 신도시가 들어섰다.
- ㄹ. 언니와 나는 {틈, *겨를, *사이}만 나면 싸웠다.

- ① ㄱ을 보면 ‘틈’, ‘겨를’, ‘사이’는 모두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② ㄴ과 ㄷ을 종합하면 ‘틈’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③ ㄱ과 ㄷ을 종합하면 ‘사이’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④ ㄷ과 ㄹ을 종합하면 ‘사이’와 ‘틈’은 [시간]의 의미를 세분해야 구별할 수 있어.
- ⑤ ㄱ~ㄷ을 종합하면 ‘겨를’은 [시간]의 의미만 지니고 있어.

14.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머니에는 단돈 십 전, 그도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 딸에게서 사오십 전씩 얻어 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 보내고 말던 최후의 십 전, 안 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내었다. 백통화 한 푼을 엮은 ① 야윈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 참위(徐參尉)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잘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전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 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낮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쳐 보려니 믿어졌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장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 나 내려다볼 때는, 으레 엄지손가락이 앞뿔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래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재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①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야, 쟈—장.” 하고 연습 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 보낼 돈이면서도 그 십 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 가게로 나갔다.

이 복덕방에는 흔히 세 늙은이가 모였다.
 언제 누가 와 집 보러 가질지 몰라, 늘 갓을 쓰고 앉아서 행길을 잘 내다보는, 얼굴 붉고 눈방울 큰 노인이 주인 서 참

위다. 참위로 다니다가 합병 후에는 다섯 해를 놀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력저력 심심파적으로 갖게 된 것이 이 가옥 중개업이었다.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팔구 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오고, 그런데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 다옥정(茶屋町) 같은 중앙 지대에는 그리 고옥만 아니면 만 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그 판에 봄가을로 어떤 달에는 삼사백 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에 수십 칸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는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 회사가 생겨서 당자끼리 직접 팔고 사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준 셈이다. 그러나 이십여 칸 집에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서 참위의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 값에 줄릴 형편은 아니다.

②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이야…….”

서 참위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때는 한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개와 오늘의 자기, 한낱 가괘(家儻)*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작부 따위가 사글세 방 한 칸을 얻어 달래도 네에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③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위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중략)

박희완 영감이란 세 영감 중의 하나로 안 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쓸쓸히 놀러 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代書業) 운동을 한다고 「속수국어독본(速修國語讀本)」을 노상 끼고 와 그 ④ 「삼국지, 읽던 투로,

“간—상 도쿄-에 유키이마스카.(김 선생, 어디 가십니까.)”
 어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국어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총독부편찬(朝鮮總督府編纂)이란 ⑤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엮은 가져 뭘 하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 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독본」을 툭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건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

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
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 이태준, 「복덕방」 -

- * 장전 : 장롱과 찬장을 파는 가게.
- * 가괘 : 부동산 중개인.

15. <보기>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
은? [1점]

<보 기>

- ㄱ.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 ㄴ.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
- ㄷ.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된다.
- ㄹ.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16. <보기>와 같이 자료 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드팀전 : 베, 비단, 무명 같은 온갖 천을 팔던 가게. 인조 직
물과 신식 상점의 등장으로 점차 퇴조함.
- ㉡ 참위 : 대한제국기(1897~1910)의 장교 계급.
- ㉢ 대정 팔구 년 : 1919~20년. 대정(大正)은 일본 국왕의 연호.
- ㉣ 속수국어독본 : 총독부가 일본어 보급을 위해 펴낸 책자. 제목
의 ‘국어’는 ‘일본어’를 뜻함. 당시 우리말은 ‘조선어’로 불렸음.
- ㉤ 유성기 : 축음기. 전축. 당시 유성기는 신문화와 부(富)의 상징.

- ① ㉠을 보니 ‘드팀전’은 근대화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안 초시’는 실패를 자기 운수 탓으로만 돌리
고 있군.
- ② ㉡를 보니 ‘서 참위’의 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 이 점이
그의 처지와 심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군.
- ③ ㉢를 통해 구체적인 연도와 상황을 알 수 있어. 1920년대에
도 서울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 흥미롭군.
- ④ ㉣의 맥락을 몰랐다면 ‘국어’가 우리말인 줄 알았을 거야.
대서방을 차리기 위해 일본어를 익히고 있는 ‘박희완 영감’
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어.
- ⑤ ㉤를 통해 ‘딸’은 가난한 ‘안 초시’와는 달리 부자임을 알 수
있어.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안 초시’의 희생
덕분이었겠군.

17. <보기>는 1930년대 후반 ‘금광 투기 열풍’의 세태를 묘사한 글
이다. 이런 세태에 대한 안 초시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금’ ‘금’ ‘금’ 금값의 폭등이 잔칫집같이 조선을 발끈 뒤
집어 놓았다. 그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물론 금광
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수도룩하니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
도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하다못해
몇 천 원짜리의 부자가 수도룩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더
잘 눈에 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소위 ‘경기’라는 것도 무척
좋아졌다.

지금 한 괴물이 조선 천지를 횡행한다. ‘금’이라는 놈이다.

- ① 나도 금광으로 큰돈 한번 벌어 봐야겠군.
- ② 복덕방으로 벌어 봤댔자 금광 부자에 비할까.
- ③ 내 손 안의 백통화 한 푼이 금광 열 개보다 낫지.
- ④ 나도 금광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화투패부터 떼 보자.
- ⑤ 금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디서 구해 볼 길이 없
을까.

18.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 ① ㉠ : 죽음을 앞둔 안 초시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② ㉡ : 자신의 못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해 자탄하고 있다.
- ③ ㉢ :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 ④ ㉣ : 일본어 억양과 어울리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 ⑤ ㉤ : 책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19. ㉠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 ② 산 입에 거미줄 치랴.
- ③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 ④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 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헌샘 주시경은 국어학자이면서 국어 교육자이다. 그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통해 국어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켰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맞춤법의 통일 같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국어학자로서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국어학 연구에서, 그는 ㉠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법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순수 고유어를 사용하여 학술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특히 ‘늦씨’와 ‘속뜻’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어를 뜻하는 ‘씨’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늦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이더라’를 ‘이~더라’처럼 늦씨 단위로 분석했다. 이는 그가 오늘날 ‘형태소’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1930년대에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또한 그는 숨어 있는 구조인 ‘속뜻’을 통해 겉으로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을 분석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의 계층적 구조는 그림을 그려 풀이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언어학의 분석적인 연구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주시경은 국어학사에서 길이 기억될 연구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언어를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았으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말과 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교육에 온 힘을 다하였다. 여러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국어 강습소를 만들어 장차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그의 국어학 연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면, 주시경은 ‘한글’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맞춤법을 확립하는 정책에도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어 맞춤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1907년에 설치된 ‘국문 연구소’의 위원으로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도 일찍이 주시경이 취했던 형태주의적 입장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20. 중심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서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중심 화제의 위상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의 의의를 권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21. 주시경의 국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고유어를 활용하여 학술 용어를 창안했다.
- ② 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 ③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의 구조를 밝히려 했다.
- ④ 단어보다 더 작은 문법 단위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 ⑤ 단어의 의미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려 했다.

22. 위 글에 근거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시경이 국어 문법을 가르친 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이유도 있었겠구나.
- ② 주시경이 국어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까닭은 서구 언어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겠구나.
- ③ 주시경이 국어 보급에 앞장선 까닭은 국어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구나.
- ④ 주시경의 연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까닭은 당시에 과학적 국어 연구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겠구나.
- ⑤ 주시경이 선구적인 인물인 까닭은 그가 독자적으로 문법 체계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의 연구가 후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겠구나.

23.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체인과 조사를 구별하여 ‘집이’, ‘집을’처럼 적는다.
- ② 불규칙 용언 ‘돕다’의 경우 ‘도와’, ‘도우니’처럼 적는다.
- ③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경우 ‘소나무’, ‘바느질’처럼 적는다.
- ④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잘막하다’, ‘널따랑다’처럼 적는다.
- ⑤ ‘-이’나 ‘-음’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경우 ‘마개’, ‘마감’처럼 적는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슬란드는 지진과 화산 분출 같은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한 화산섬이다. 동서로 약 540 km, 남북으로 약 350 k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일부 지역이 지난 2만 년 동안 쌓인 용암으로 뒤덮여 있다. 활발한 지각 변동 덕분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화산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온천수로 작물을 재배하며, 화산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인 위치는 매우 특수하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인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의 해저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은 북극해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남쪽 끝까지 긴 산맥의 형태로 뻗어 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아이슬란드는 서쪽은 북아메리카 판, 동쪽은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판의 경계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육지 위에서 두 판이 확장되는 희귀한 지역이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판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암석이 생성되면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른 판의 경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지질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갈라져 있는 틈이 매년 약 15cm 씩 벌어지고 있다. 이 벌어지는 틈으로 해양 지각의 하부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해양 지각은 멀어져 가는 판의 일부가 되어 이동한다. 그 결과로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은 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판에 대한 유라시아 판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추정하여 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낸 판의 이동 속도는 이동하는 판 위에서 이동하는 다른 판의 속도를 잴 것이다. 이는 한 판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의 속도, 즉 상대 속도이다. 과학자들은 상대 속도를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판의 절대 속도, 즉 지구의 기준점에 대해서 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고자 했다. 판의 절대 속도를 ㉠ 구하기 위해서는 판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맨틀 깊숙이 위치한 마그마의 근원지인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0여 개의 열점을 찾아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슬란드에 있다.

24. 위 글로 보아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판이 확장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ㄴ. 판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ㄷ.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ㄹ. 판의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슬란드는 지열 산업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② 아이슬란드의 크기는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이다.
 ③ 북아메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다.
 ④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출은 판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26. 위 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② 아이슬란드는 어떤 판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③ 아이슬란드의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④ 확장되지 않는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지질 현상이 일어날까?
 ⑤ 과학자들은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2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귀성 차표가 매진되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다.
 ② 농사철에는 일꾼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③ 그는 한 시간 내에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④ 철수는 영수의 동의를 구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답을 구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28~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香丹)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배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올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_____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_____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어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짙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_____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_____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_____ [B]
시빨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_____
함께 답새라 _____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_____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_____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뜻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뎛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 하얗: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러: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뎛더라: 약았더라.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9.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0.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보 기>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1.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가)의 지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3.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 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에 포착한다.

34.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할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④ '먼 피'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진술은 다양한 물질의 감광성에 대한 길고도 지루한 실험의 토대 위에서 출현하였다. 상(像)을 정착시키는 기술의 선구자인 니에프스와의 공동 연구 이후 다케르는 1837년에 동판 위에 감광성 물질인 요오드화은을 정착시키고 암상자 속에서 빛에 노출시킨 다음, 수은 증기를 쬐어 세부 묘사가 대단히 정밀한 상을 얻어 내었다. 한편 영국인 톨벗은 1835년에 최초의 '감광 소묘'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염화은으로 감광성을 띠게 한 종이 위에 물건이나 식물을 놓고 산출한 음화(陰畫)였다. 그 직후 그는 작은 암상자를 이용하여 사물의 영상을 종이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거친 종이 면에

정착된 돌렛의 영상은 매끈한 다게르 동판의 선명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나) 1839년에 두 기술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게르는 ‘다게레오타입’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기술을 프랑스 정부에 인도하는 대가로 거액의 종신 연금을 약속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게레오타입의 제작 비결을 공개했고 이로써 저작권이 없어진 이 기법은, 다게르가 특허를 낸 영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서나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게레오타입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다) 한편 돌렛의 기법은 후대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돌렛은 계속된 연구를 통해 1840년에 암상자에서 얻은 음화를 현상하여 여러 장의 양화(陽畵)를 인화하는 음화-양화 기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다게레오타입은 한 번의 촬영으로 단 한 장의 사진만을 얻을 수 있었으나 돌렛의 새 기술은 여러 장의 똑같은 종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사진을 다량으로 복제하는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돌렛은 자신의 새로운 기법을 ‘칼로타입’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돌렛이 칼로타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그 기술에 대해 많은 사용료를 ㉠ 요구하는 바람에 이 기술의 확산에는 제동이 걸렸다.

(라) 사진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 준 분야는 초상 사진이었다. 정밀한 세부 묘사를 장점으로 하는 다게레오타입은 초상 사진 분야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여러 곳에 사진관이 들어서서 영구적인 초상을 금속판에 남기는 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었던 칼로타입은 초상 사진보다는 풍경·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허에 묶여 있었던 칼로타입이 그나마 퍼질 수 있었던 곳은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화가와 판화가들은 칼로타입이 흑백의 대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판화와 유사함을 발견하고 이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마) 사람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설득으로 돌렛은 1852년에 초상 사진 영역을 제외하고 칼로타입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 이 기법을 유행시키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다. 1850년대 초에 콜로디온을 유리에 발라 선명한 음화를 얻고 그것에서 원하는 대로 양화를 얻을 수 있는 콜로디온 기법이 특허권 없이 공개되면서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은 모두 퇴조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36. 위 글에 따라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을 비교하여 만든 표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게레오타입	칼로타입
① 용도	인물 사진	풍경·정물 사진
② 사진판의 재질	동판	종이
③ 주요 보급 지역	프랑스, 미국	프랑스
④ 영상의 특징	정밀한 세부 묘사	다양한 중간색
⑤ 복제 가능성	복제 불가능	다량 복제 가능

37. (가)~(마)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다게르와 돌렛은 다른 감광 물질을 사용했었군.
- ② (나): 프랑스 정부는 기술의 공공화에 기여했군.
- ③ (다):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야.
- ④ (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초상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았겠어.
- ⑤ (마): 콜로디온 기법은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의 장점을 모두 가졌었군.

38. ㉠의 ‘-는 바람에’와 의미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함께 늙어 가는 마당에 가릴 것이 뭐가 있소?
- ②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교실에선 공부를 못 하겠다.
- ③ 이 일이 들통 나는 날에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 ④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으니 참는 길에 더 참아 봅시다.
- ⑤ 경찰에서 풀려나는 길로 나는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 격차가 있듯이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도입 초기에는 ㉡ 매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물론 정보 격차에 관한 비판적 관점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매체 접근의 차이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보 격차는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접근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설득력이 ㉢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 격차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감소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증가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격차가 해소되면서

35. 위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초기 사진술의 원리
- ② 초기 사진술의 장점과 단점
- ③ 초기 사진술의 보급과 쇠퇴
- ④ 발명과 창의적 발상의 관계
- ⑤ 특허가 기술 보급에 미치는 영향

또 다른 정보화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 격차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크게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이용의 자주성은 상황에 알맞게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이용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 디지털 시스템의 운용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겪는 열등감도 문제이다. 나아가 디지털 매체에서 획득한 정보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 문제 해결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이용의 자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이를 풍부하게 활용하기가 힘들다.

(라) 사용 여건의 공평성은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이용 기회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매체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도 주변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정보 격차는 지속된다.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 활용법을 열심히 습득하였지만 자신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용 기회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디지털 매체의 이용 방법을 알고 활용을 원할지라도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보 격차는 발생한다.

(마)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정보 격차의 새로운 측면들은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역,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은 인구 사회적 변인과 결합된다. 이것은 보다 세부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보 활용의 질적 차이를 낳아서, ㉣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개인이 처한 상황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보 격차의 존재와 유형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적일 수 있다.

41. 문맥을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사무소나 우체국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 ② ㉡: 컴퓨터 사용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 ③ ㉢: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다.
- ④ ㉣: 컴퓨터 자격증이 여럿 있지만 직장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
- ⑤ ㉣: 인터넷 검색법을 배우고 나서 유용한 자료를 더 빨리 수집하게 되었다.

42. ㉠의 관점을 수용해서 '공연 문화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공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 ② 공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연 문화 학교를 운영하자.
- ③ 우수 공연 작품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 ④ 다양한 관객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공연 작품을 기획하자.
- ⑤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가 저렴한 공연장을 많이 만들자.

3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논의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논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새로운 관점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④ (라): 새로운 관점과 기존의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⑤ (마): 논의 대상의 향후 전개 양상을 전망하고 있다.

40. 위 글로 보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 단위의 인터넷 동호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②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
- ③ 노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따로 묶어 노인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든다.
- ④ 디지털 매체의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 ⑤ 정보화 낙후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진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43. ㉠은 <보기 1>에서 보듯이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과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이 다르다. <보기 2>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보기 1>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떨어지다	올라가다	(설득력이) 떨어지다 ↔ (설득력이) [높다]

<보기 2>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ㄱ. 풀다	묶다	(감정을) 풀다 ↔ (감정을) []
ㄴ. 주다	받다	(검을) 주다 ↔ (검을) []
ㄷ. 열다	닫다	(입을) 열다 ↔ (입을) []
ㄹ. 빨다	삼키다	(말을) 빨다 ↔ (말을)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4~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남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 후에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봉차를 찾으러 간 데 없었지라. 괴이하게 여겨 세상을 내어 살펴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너를 죄 주었다. ㉠

이때 사향이 들어오며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오?”
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숙향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세상을 뒤지더니 무엇인가 치마 앞에 감추어 가지고 자기 침방으로 갔으니 수상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숙향의 빙옥 같은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사향이 말하기를,
“숙향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당신의 세상을 장만하노라 그러하온지 가장 부정함이 많습니다. 어쨌든 숙향의 세상을 뒤져 보십시오.” ㉡
부인이 또한 의심하여 숙향을 불러 말하기를,
“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숙향이 말하기를,
“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하고 그릇을 내어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 지라.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네 아니 가져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 있느냐?”

하고 승상께 들어가 말하기를,
“숙향을 친딸같이 길렀으나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 함 속에 넣고 중시 몰라라 하다가 제게 들켰사오니,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니 이상하지 않으나 장도는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그 일이 가장 수상합니다. 어찌 처치하면 마땅하겠습니까?” ㉢

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요사이 숙향의 거동을 보오니 혹 글자도 지으며, 외인이 자주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승상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제 나이가 참음에 필연 외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을 것이니 빨리 쫓아내십시오.”

(중략)

숙향이 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하기를,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 나리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며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가더라. ㉣

한 곳에 다다라 문득 보니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을 헤매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었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집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지라 모두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더라.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삐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들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려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침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 금봉차: 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비녀.
- *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식용 칼.
- *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 * 소아: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 * 적강: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 * 태을: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45.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ㄱ~ㄴ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인물	역할	사건의 내용
사항	(ㄱ)	도둑질의 누명을 씌움
		(ㄴ)의 누명을 씌움
승상	심판자	(ㄷ)
숙향	피해자	(ㄹ)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공모자 | 부정한 행실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② 공모자 | 내통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 ③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입증함 |
| ④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⑤ 음해자 | 부정한 행실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46.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향의 적강은 당시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군.
- ② 용녀의 보은은 당시 독자들에게 인과응보의 이치를 알리곤 했던 것이군.
- ③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을 증대시키려는 것이군.
- ④ 옥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들이 타고난 운명을 비판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군.
- ⑤ 숙향과 태율이 만나는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안정된 현실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47. ㉠에 나타난 숙향의 처지를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③ 혈혈단신(孑孓單身) ④ 사고무친(四顧無親)
- ⑤ 진퇴유곡(進退維谷)

48. <보기>의 ‘전기수’처럼 위 글을 읽다가 멈추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보 기>—

전기수(傳奇叟)는 ‘숙향전’, ‘소대성전’ 등과 같은 국문소설을 장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책을 읽어 가다가 사람들이 꼭 더 듣고 싶어 할 만한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 전기수의 이런 수법은, 한 장회를 끝낼 때 새로운 사건의 첫 부분만 짧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소설의 장회 나누기 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 어떤 그룹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의 전통적 시각이나,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또 예술은 형식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 동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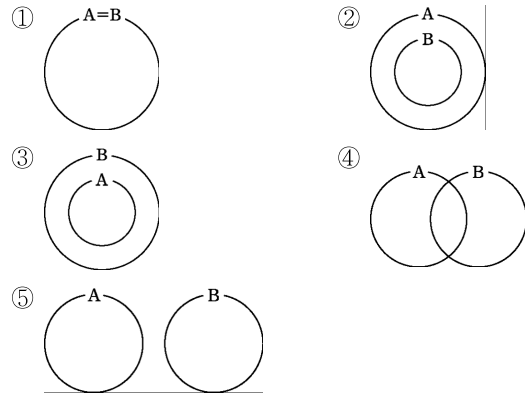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계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의 실일 수 있다.

미학자 와이즈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에게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 있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즈는 표현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고 주장한다.

51.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A)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52. ㉠에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 ㉡~㉣ 중, 문맥상 이질적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마니 짜는 둔한 기계 소리에 막이 열리면—

명서 (편지 쓰느라고 다른 정신 없이)

사이.

명서의 처 (소리만 후어! 후어! 저놈의 닭들 봐라! 예구 속상해!

명서의 처, 좌편 입구에서 등장. 호미와 바구니를 든 것을 보면 그가 들에서 일하고 오는 것이 분명하다. 나이에 비하면 아직 기력이 좋아서 능히 자기의 노동을 분담하는 것이다.

명서의 처 (들어오면서) 예구 세상이 약으니까 닭들까지 약아서 사람 소리를 겁을 내야지. (금녀에게) 얘야 집에 있으면서 닭이나 좀 좇으려무나.

금녀 집에 있으면 누가 노우 어머니도 참. 밭이나 다 매고 왔소?

명서의 처 (몸을 털면서) 아랫밭은 다 매고 왔다……. (남편을 보고) ㉠ 당신은 여태 들고 앉았수. 오늘도 끌을 못 내구. 아이구 편지 한 장에 며칠이 걸린단 말이오.

4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숙한 사례를 통해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 ②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타인의 견해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유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50. 위 글을 읽고 와이즈 예술론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은? [3점]

- ① 와이즈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 개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지.
- ② 와이즈는 예술의 본질은 없다고 본 거야. 예술이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둘 다 예술이면서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
- ③ 와이즈는 무엇이 예술인가와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같아. 열린 개념이라고 해서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니야.
- ④ 현대 예술은 독창성을 중시하고 예술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예술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어. 와이즈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잘 부합하는 예술론이야.
- ⑤ 영화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지. 미래의 예술이 그런 것들도 포괄하게 될 때, 와이즈 이론은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어.

명서 ㉠…….

명서의 처 그렇게 친절만 쳐다보고 눈만 까무락거리면 무엇이 나오우? 얼른 쓰세요. 일본 가는 삼조가 금방 올 텐데—. 금녀야 내 없는 동안에 삼조가 왔다 가지 않았니?

금녀 아뇨 아직 안 왔어요.

명서의 처 아까 들에서 누가 그러는데 벌써 보통이를 들고 나가드란다……. (부에게) 금년 안에는 꼭 나오라죠 그리 썼어요? 그리고 나올 때에는 돈 좀 가지고 나오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좀 허리를 펴죠…….

명서 왜 이 수선이야 정신 시끄럽게!

명서의 처 얼른 쓰세요. 삼조가 곧 온답니다.

명서 편지란 것은 그리 쉽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야.

명서의 처 대관절 이 편지 들고 앉은 지가 오늘까지 며칠인 줄 아우? 오늘이 사흘째예요. 사흘.

금녀 ㉡어머니 누가 오나 봐! 개가 짖어요.

삼조, 빙긱빙긱 기쁜 듯이 등장. 시골 청년. 보통이를 들고 색 난 양복에 작업화를 신었다.

삼조 안녕하세요.

명서의 처 ㉢아이구 훌륭하다. 양복에다 모자를 쓰고 그렇게 차리고 오니까 개도 몰라보고 짖는 거지.

삼조 저는 일본 갑니다.

명서의 처 아이, 이것 보세요. 내 말이 그런가! 시방 떠나니?

삼조 그럼요 방금 떠나는 길이에요. 명수에게 부칠 게 있다고요?

명서의 처 동장에게나 맡겼으면 벌써 되었을 걸, 돼지 꼬리 같은 글씨를 부비대다가 그만 좋은 인편을 놓쳐 버리지.

삼조 아직 다 안 쓰셨구먼요.

명서 ㉣거진 다 되어 가는데—.

명서의 처 그 ‘거진’이 또 며칠을 끌 ‘거진’이에요.

금녀 그럼 입으로나 전하시죠. 어머니.

명서의 처 그러는 수밖에 없다. 삼조야, 좀 올라오렴.

삼조 (초조하게) ㉤바빠요.

명서의 처 바빠도 이리 좀 걸터앉거나 해라. 우리집 형편을 네가 좀 소상히 듣고 가서 잘 전해 주어야겠다……. 사람이란 별것이 아니구나. 너도 그렇게 꾸미니까 훌륭한 면주사 나오리 같구먼은.

삼조 면주사? 그야 뭘 일본 가서 곤니찌야 곤방야*나 좀 배우고 구두 신을 줄이나 알면 그까짓 면주사 짚이야 부러울 것 없겠지요.

㉢ 일동 힘없는 웃음.

- 유치진, 「토막」 -

* 곤니찌야 곤방야: 일본어 인사말.

53. 위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한 것 중, 분명하게 참인 것은?
- ①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명서의 처’이다.
 - ② ‘금녀’는 처음부터 ‘명서’가 편지를 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 ③ ‘금녀’는 ‘명수’의 귀국을 바라는 심정을 편지에 담고 싶어 했다.
 - ④ ‘삼조’는 ‘명서’의 집에 오기 전에 ‘명수’에게 전할 것이 있음을 알았다.
 - ⑤ ‘명서’는 ‘삼조’가 일본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기 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54.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할 때,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명서의 처’는 원망하는 투로 ㉠을 말하세요.
 - ② ㉢에서 ‘명서’는 ‘명서의 처’를 보지 말고 시선을 위로 향하세요.
 - ③ ‘명서의 처’는 ‘삼조’를 바라보면서 ㉣을 말하세요.
 - ④ ‘명서’는 ㉡을 말하면서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세요.
 - ⑤ ‘삼조’는 ㉤을 말하면서 마루에 걸터앉으세요.

5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서의 처’는 ㉡를 듣고 경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 ② ㉡는 음향 담당자가 효과음을 넣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를 통해 ‘금녀’는 ‘명서의 처’에게 사실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관객은 ㉡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⑤ ‘삼조’ 역을 맡은 배우는 ㉡를 근거로 등장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

56. <보기>가 ㉢의 상황에 있는 ‘금녀’의 내면 심리라고 할 때, 위 글로 보아 <보기>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보 기>

삼조 씨가 가면 오빠 소식을 알 수 있겠지. 어떻게 된 걸까 오빠는? 혹 우리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찌지? 다 잘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 ① ‘삼조’는 양복을 입고 있다.
- ② ‘삼조’는 일본에 가려고 한다.
- ③ ‘삼조’와 ‘명수’는 아는 사이이다.
- ④ ‘금녀’는 ‘명수’의 소식을 모르고 있다.
- ⑤ ‘명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사 연구에서 임진왜란만큼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연구 주제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즉,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만 제시되면서, 그 이면의 다양한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의병의 봉기 원인은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 전쟁 중에 보였던 조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한 ㉢ 한자투성이 격문의 내용을 백성들이 얼마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의병의 주축을 이룬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병장의 참여 동기도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의병장들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러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 의병장들이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유교적 명분론과 결합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군의 잇단 패배로 의병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관료가 되어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관직 임명은 의병장들에게 큰 매력이 되었다.

57.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1점]

- ① 의병의 참여 동기 ② 의병장의 이념적 기반
- ③ 의병장과 조정의 관계 ④ 의병의 전투 활동 실태
- ⑤ 의병 활동의 공간적 범위

58. ㉠~㉤ 중, <보기>의 역사 자료 ㄱ과 ㄴ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 기>—

ㄱ.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을 떠나기 위해 먼저 평양성을 나섰다. 이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 들고 그 길을 막으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봉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ㄴ.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홀륭하지 않으랴!”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9. [A]의 내용에 근거하여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심경을 추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관군에 들어가느니 의병이 낫고말고.
- ②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 ③ 사랑하는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 ④ 내 고장에 왜놈들을 들여놓을 수야 있나.
- ⑤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으니 싸울 힘이 나는군.

60. ㉢의 접미사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1점]

- ① 사냥-꾼 ② 동갑-내기 ③ 대장-장이
- ④ 벼슬-아치 ⑤ 잠-꾸러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1	①	16	⑤	31	③	46	③
2	①	17	③	32	⑤	47	①
3	④	18	④	33	④	48	⑤
4	③	19	②	34	③	49	②
5	④	20	⑤	35	④	50	①
6	②	21	⑤	36	④	51	④
7	⑤	22	②	37	③	52	②
8	③	23	①	38	②	53	④
9	②	24	②	39	④	54	⑤
10	②	25	③	40	②	55	①
11	②	26	②	41	③	56	①
12	①	27	⑤	42	⑤	57	④
13	④	28	①	43	①	58	③
14	②	29	④	44	③	59	②
15	③	30	①	45	⑤	60	⑤

제 1 교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꿈은 힘든 생활을 헤쳐나가는 힘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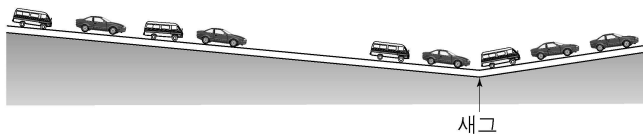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학생이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 ① 사막화의 정의 ② 사막화로 인한 피해
 - ③ 사막화의 발생 원인 ④ 사막화가 심한 지역
 - ⑤ 사막화의 해결 방안
2. (물음)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학생이 했을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열차를 타하며 발로 기둥을 찰 것 같아.
 - ② 투덜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것 같아.
 - ③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며 음료수를 마실 것 같아.
 - ④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열차를 기다릴 것 같아.
 - ⑤ 부끄러워하며 이리저리 사람들의 시선을 살필 것 같아.
3. (물음) 시인이 낙타풀에게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시인: 낙타풀아! 너는 ()
- ① 신중하게 처신하는구나.
 - ② 친절한 마음을 가졌구나.
 - ③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응했구나.
 - ④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구나.
 - ⑤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구나.

4. (물음) 강연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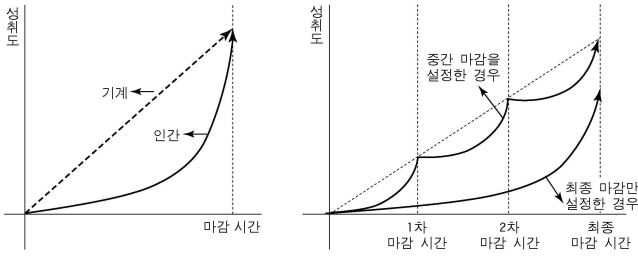
- ㄱ. 주행 중, 내리막길의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지는 경우
- ㄴ. 주행 중, 내리막길이 끝나고 평탄한 길로 접어드는 경우
- ㄷ. 주행 중, 오르막길의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지는 경우
- ㄹ. 주행 중, 오르막길이 끝나고 평탄한 길로 접어드는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대답을 듣고 난 뒤 음악을 감상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 ①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한다.
 - ②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안다.
 - ③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한다.
 - ④ 연주자에 따라 감상법을 다르게 한다.
 - ⑤ 자기 나름의 느낌을 가지고 의미를 형성한다.
6.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의문을 제기하며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⑤ 개인적 일화를 소개하여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다음 그래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부’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 ㄱ. 꾸준히 노력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없다.
- ㄴ. 중간에 가끔씩 쉬면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다.
- ㄷ.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다.
- ㄹ.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해서 공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8. <보기>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건의문의 서두이다. 이어서 쓸 내용을 구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존경하는 학교 운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학교 급식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은 학생 수에 비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식사를 끝내는 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립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급식실로 다투어 뛰어갑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 ① 급식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해야겠어.
- ② 급식실로 뛰어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학생의 사례를 언급해야겠어.
- ③ 학교 환경 개선이 쾌적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해야겠어.
- ④ 점심을 빨리 먹고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도서관의 자리도 부족함을 건의해야겠어.
- ⑤ 식사를 늦게 해서 점심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오후 수업 시간에 졸았던 학생의 경험을 소개해야겠어.

[9~10] 다음은 ‘국제 교류 연합 동아리’에서 연구 발표를 위해 공동 작성한 개요이다. 잘 읽고 9번과 10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 (㉠)

- I. 청소년 국제 교류의 필요성
- II. 청소년 국제 교류의 실태와 문제점
 - 1. 열악한 재정 지원
 - 2. 주관 기관의 모호성
 - 3. 관련 법규의 비실효성
 - 4.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의 미비
- III.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
 - 1. 기금 조성을 통한 재정 확충
 - 2. 관련 기관의 유기적 관계 확립
 - 3. 법과 제도의 정비
 - 4.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IV.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

9. 이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청소년 국제 교류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되어 왔다는 보도 자료
- ② 관련 기관마다 상이한 시행 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 국제 교류 경험담
- ③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소견
- ④ 청소년 국제 교류 유형과 국가별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최근 통계 자료
- ⑤ 청소년 국제 교류 관련 법규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보고서

10.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 ②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③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④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 ⑤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1.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내용: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의도를 담는다.
발상: 사물의 현상이나 속성을 뒤집어 봄으로써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거꾸로 생각하기' 발상을 한다.
표현: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 ①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 되는 세상, 유토피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 ② 바다는 깊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당신의 열정이 더 깊습니다.
- ③ 작은 것이 더 큼니다. 현혈은 큰 상처를 낫게 하는 작은 상처입니다.
- ④ 함께 웃는 우리 사회,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⑤ 산은 에베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습니다.

12.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나라 소나무를 멸종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잎이 마르면서 생육이 부진해져 ㉠ 자멸하고 만다. 소나무 재선충은 자체 이동 능력이 떨어지지만, 감염된 목재의 이동이나 숙주인 솔수염하늘소의 매개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 나간다.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상태에서 다른 소나무로 날아가 솔잎을 갉아먹는 동안, 솔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기생해 있던 소나무 재선충이 나와서 그 소나무를 감염시킨다. ㉡ 그러고 나서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면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솔수염하늘소는 3km 이상 날아갈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는 감염 지역 주위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 내는 방법을 쓴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으로는 ㉣ 나무를 베어서 소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베어 낸 나무를 동강 내어서 약품을 뿌린 후 비닐로 싸 두는 훈증법이 많이 쓰인다. 또 다른 방법은 감염된 나무를 잘게 조각내 소나무 재선충이나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모두 ㉤ 제거할 수 있다.

- ① ㉠은 '자멸'이라는 어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고사'로 바뀌야겠어.
- ②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므로'로 바뀌야겠어.
- ③ ㉢은 논지 전개에 일관성을 위해 셋째 문장 뒤에 넣어야겠어.
- ④ ㉣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감염된 나무를'로 바뀌야겠어.
- ⑤ ㉤은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거하는 것이다.'로 바뀌야겠어.

13.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 기>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¹-', '-답²-'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1. '-답¹-'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²-'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2. '-답¹-'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²-'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3. '-답¹-'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²-'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 | |
|---|-------------------|-------------------|
| | -답 ¹ - | -답 ²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러는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무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이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닦기도 하리

㉡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나)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것하오

- 김상옥, 「사향(思鄕)」 -

(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_____ [A]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_____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_____ [B]
 ㉣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_____

울엄매야 울엄매,
 별발은 또 그리 멀리 _____ [C]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_____

진주 남강 맑다 해도 _____ [D]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_____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_____ [E]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_____
 - 박재삼, 「추억에서」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② (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고향을 그리고 있다.
- ③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⑤ (가)에 비해 (다)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16. ㉠~㉡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18.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보 기>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 ②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③ 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군.
- ⑤ 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19. <보기>는 (다)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축축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의 하나이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우리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에 입문할 수 있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기호학 이론에 따르면 ‘소비 행위’는 이런 ㉠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옷 가게의 쇼윈도에는 마네킹이 멋진 목걸이를 한 채 붉은색 스커트를 날씬한 허리에 감고 있다. 환한 조명 때문에 마네킹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길을 걷다가 환한 불빛에 이끌려 마네킹을 하나씩 살펴본다. 마네킹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 이야기를 시작한다. ‘참 날씬하고 예쁘기도 하네. 저 비싸 보이는 목걸이는 어디서 샀을까. 짧은 스커트가 눈부시네……. 나도 저 마네킹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곧 옷 가게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소비자가 쇼윈도라는 공간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 텍스트는 세 개의 층위(표층, 심층, 서사)로 존재한다. 표층 층위는 쇼윈도의 장식, 조명, 마네킹의 모습 등과 같은 감각적인 층위이다. 심층 층위는 쇼윈도의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층위이다. 서사 층위는 표층 층위와 심층 층위를 연결하는 층위로서 ㉢ 이야기 형태로 존재한다.

서사 층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 작용을 한다. 생산자는 텍스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야기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소비자는 이야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해독한다. 이런 소비의 의사소통 과정은 소비자의 ‘서사 행로’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서사 행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때 소비자는 쇼윈도 앞에 멈추어 공간 텍스트를 읽을 준비를 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을 꼼꼼히 관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와 쇼윈도의 구성물들을 감상한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부여된 가치를 해독하

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 텍스트에 내재된 가치들을 읽어 내게 된다. 네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이 네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사 행로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상품이 꼭 필요한지, 자기가 그 상품을 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쇼윈도는 소비자를 소비 공간으로 유인한다.
- ② 소비자는 서사 행로를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책을 읽는 능력은 공간 텍스트 해독에 도움을 준다.
- ④ 마네킹을 통해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의사소통을 한다.
- ⑤ 공간 텍스트에는 생산자가 부여한 의미가 담기게 된다.

21. 위 글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②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③ 현상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힌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 ⑤ 특정한 이론에 따라 현상을 분석한다.

22.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시지를 담고 있다.
- ②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 ③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한다.
- ④ 특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
- ⑤ 공연 예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3. ㉡, ㉢의 뜻을풀이를 <보기>에서 찾으려면? [1점]

—<보 기>—

이야기 ㉡ ㉠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 ㉤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게 하는 말. ㉥ 소문이나 평판.

- | | | |
|---|-----|-----|
| | (a) | (b)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홀연 보니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안개 자욱이 끼며 용궁 사신 행렬의 깃발이 공중에서 날아오며 사자(使者) 내달아 아뢰되,

“동정호 용왕이 원수의 남해 태자 깨침과 공주 구하심을 듣고 친히 궁전에서 축하하려 한대 스스로 맡은 땅에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고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가 원수를 청하여 옥도시더라도 잠깐 임하시게 하시고 겸하여 공주를 궁중에 돌아오시게 하시더이다.”

원수 왈,

“내 바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마주하고 있고 동정호가 여기서 만 리 밖이라 비록 가고자 한들 어이 얻으리오.”

사자 왈,

“이미 수레를 갖추어 여덟 용이 끌고 있으니 만나절만 하면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양 원수 용녀와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니 신령한 바람이 수레바퀴에 불어 공중에 오르니 이미 인간 세상에서 몇 천리를 떠난 줄 알지 못하되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덮은 양을 불려라. 잠깐 사이 동정호에 다다르니 용왕이 맞아 주인과 손님의 예법과 위용이 자못 엄숙하더라.

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절당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복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용왕 왈,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만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옥을 당할 때 유(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A]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용왕 왈,

“유의는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용왕이 원수를 궐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뿔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이 뿔 이름을 무엇이랴 하나니이까. 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뿔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원수 이 뿔을 모르시리이다. 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원수 왈,

“어이 하면 저 뿔을 보리이까.”

용왕 왈,

“날이 아직 늦지 아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뿔 아래 이르렀더라. 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겨워 흐르는 절경이지만, 불 겨를이 없는지라, 한탄하여 가로되,

㉠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쫓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배하소서.”

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營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원수 장졸을 모으고 문 왈,

“너희들 밤에 무슨 꿈이 있느냐.”

㉡ 모두 답 왈,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졸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장수를 생포하였나이다. 이 필연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원수 크게 기뻐 자신의 꿈을 이르고 장졸을 거느려 백룡담 위로 가 보니 고기 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 흘러 내가 되 었더라. 원수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 물을 떠 마시고 또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낫거늘, 그제야 군병과 전마를 일시에 먹이니 즐겨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적병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항복코자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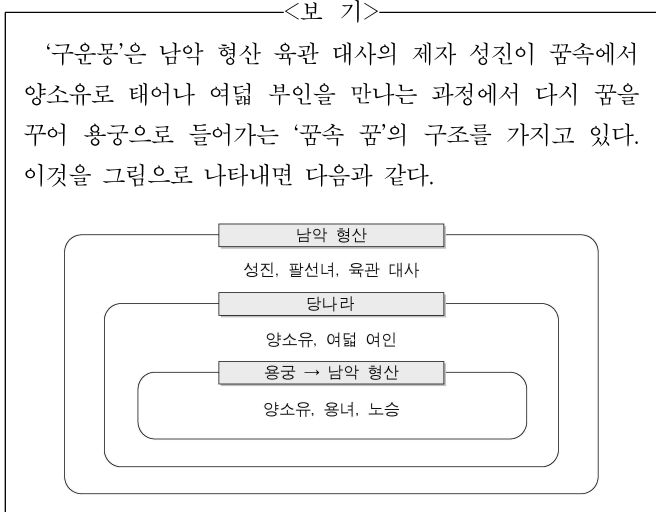
- 김만중, 「구운몽」 -

* 유의: 중국 당나라 소설 '유의전'의 주인공.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25.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닫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의 식을 갖게 하는군.

26. [A]는 ‘유의전’의 이야기를 빌려와 쓴 부분이다. ‘구운몽’과의 대응 구조를 표로 나타낼 때, ㉠, ㉡에 알맞은 것은? [1점]

	유의전	구운몽
구출자	㉠	양소유
적대자	경하강 용왕의 아들	㉡
구출 대상	동정호 용왕의 맏딸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

- | | |
|--------------|------------|
| ㉠ | ㉡ |
| ① 육관 대사 | 남해 태자 |
| ②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 ③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 |
| ④ 동정호 용왕 | 남해 태자 |
| ⑤ 동정호 용왕의 아우 | 남해 태자 |

27. ㉠에 담긴 양소유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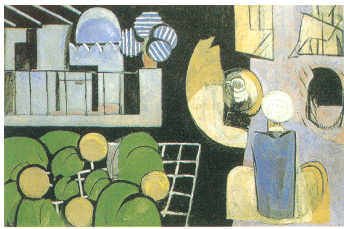
- ① 귀거래(歸去來) 귀거래 말뿐이요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떨꼬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 ②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놀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 ③ 강산 좋은 경(景)을 힘센 이 다들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어 얻을쏘냐
진실로 금(禁)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殊常)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 ⑤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 흘러들어
반 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

28.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 ②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동방적(oriental) 주제에 대한 동경과 동방의 미술 전통 속에서 확정한 장식적·평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교차하면서 탄생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이 그림은 1911년과 1912년에 이루어진 모로코 여행의 추억에서 구상되었다. 여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그려진 작품과는 달리 이미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려진 이 작품에서, 모로코의 추억은 마티스의 머릿속에서 조형적으로 소화되어 거의 추상적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 그려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고 온갖 논의가 벌어졌다.



화면의 왼편 위쪽에 그려진 회색의 형태가 테라스에서 본 이슬람 사원이고, 테라스의 난간 한쪽 끝 트머리에 있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네 개의 원이 남국의 어떤 식물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데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아래 ㉠ 흰 선의 격자 위에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미술사학자는 이것을 모로코 사람들이 타일을 깔 바닥 위에 이마를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 황색의 원은 터번을 두른 아랍인의 머리가 되고, 녹색의 형태는 아랍 특유의 민소매 긴 옷이 된다. 반면에 다른 비평가는 ‘기도하는 모로코 사람들’을 ‘푸른 잎사귀에 싸인 네 개의 멜론’으로 해석한다.

각각의 모티프가 멜론인지 모로코 사람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애초에 마티스의 마음속에는 아마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을 터이지만, 완성된 작품에서 그것은 추상적으로 승화되었다. ㉢ 황색의 원형은 오른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인물의 머리와 호응하고, 나아가 뒤편의 파란 꽃과 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과 어우러지면서 화면에 부드러운 리듬을 자아내고 있다. 이 원은 멜론이나 아랍 사람의 머리이기에 앞서 화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기하학적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황색과 녹색 외에 ㉣ 화면 오른편 아래쪽의 장방형에는 청색이, 바탕에는 옅은 보라색이 각각 칠해져 있다. 한편 화면 왼편에는 화분에 핀 꽃의 청색과 건물의 회색, 그리고 전체의 바탕에 깔린 검정색이 등장한다. 색 그 자체는 화려하다거나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화면에서는 분명히 남국의 창을 생각나게 하는 밝음이 느껴진다. 야수파 시기의 격렬한 색채의 혁명을 거친 마티스는 화면의 밝음,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코 튜브에 들어 있는 물감 색의 생생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그는 “하나의 색은 단순한 물감에 불과하다. 두 개의 색이야말로 화음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스에게 색채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그 조화와 울림에 있었던 것이다. ‘모로코 사람들’에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검정색은 어두운 느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국의 투명한 밝음을 느끼게 해 준다. 마티스 자신도 이 검정을 가리켜 ‘빛의 색’이라고 했는데, 본래 어둠의 색인 검정을 ‘빛의 색’으로 변모시킨 것에 ㉤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의 비밀이 있다. ㉥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그런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 주는 걸작이다.

29. ‘모로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마티스는 이 그림에서 야수파 시기의 격렬하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다.
- ② 모로코 여행 직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모로코의 풍광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 ③ 마티스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특정 모티프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 ④ 이 그림이 밝게 보이는 주된 이유는 화가가 즐겨 사용하는 물감의 생생함 때문이다.
- ⑤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해석이 이 그림 이해에 중요한 요소이다.

30. <보기>에 제시된 미술 비평 단계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의 성격을 판단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일반적으로 미술 비평은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기술과 분석의 단계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소재)들의 목록이 작성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해석의 단계는 전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파악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선행 단계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31. ㉤가 내포하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1점]

- 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물감 혼합법을 사용했다.
- ② 검정색만으로 화면에 신비스러운 효과를 연출했다.
- ③ 검정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남국의 밝음을 표현했다.
- ④ 검정색이 주위 색과의 조화를 통해 밝은 느낌을 주었다.
- ⑤ 어둠의 색인 검정색이 흰색과의 혼합으로 ‘빛의 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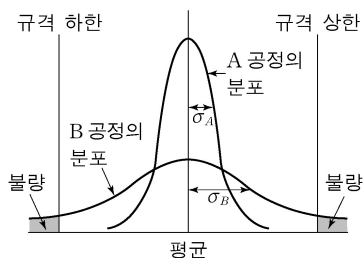
32. 마티스의 문하생이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 그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슬람 사원과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마치 사진처럼 세밀하게 그렸다.
- ② 보기 좋게 배치된 멜론을 분명한 윤곽선과 멜론 고유의 노란색을 이용해 그렸다.
- ③ 연속된 동심원의 형태와 수수한 색채를 통해 화사한 봄별의 느낌을 울동감 있게 그렸다.
- ④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그를 감동시킨 음악가의 초상화를 그리되, 악보를 그려 나가는 그의 손을 강조해 그렸다.
- ⑤ 인류에게 조화로운 삶을 강조했던 성인(聖人)의 일화를 안정된 삼각형 구도 속에서 차분한 색채와 웅장한 형태를 통해 감동적으로 그렸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 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σ)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왼편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 B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 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 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6시그마 수준이 성취되면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서 3.4개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도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6시그마 수준은 새로운 품질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6시그마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시그마 경영은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특정한 공정을 바꾸는 것처럼 ㉢ 부분적인 처방보다는 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6시그마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아예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기도 한다. 6시그마를 도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품질 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33.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②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③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불량률이 적은 우수한 공정으로 판정하게 된다.
- ④ 6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⑤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시그마 상태에 있다.

34.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요즘 그가 바빠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 ② 그 사람은 까다로워 대하기가 어렵다.
- ③ 선생님의 소설은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 ④ 어려운 살림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 ⑤ 그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냈다.

35. <보기>의 과정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 ㉡의 정보가 생성되는 단계는? [1점]

<보 기>

가. 정의 단계: 중요한 품질 특성들 가운데 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나. 측정 단계: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현재 품질의 상태를 측정한다.
 다. 분석 단계: 현재 품질의 상태와 그 영향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라. 개선 단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다.
 마. 통제 단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라 |
| ③ | 나 | 다 |
| ④ | 나 | 라 |
| ⑤ | 나 | 마 |

36.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때, 강사가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시그마 수준	면적	비용	시간	거리
3 시그마	동네 슈퍼마켓	270만 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5개월 100년	미국 대륙 횡단 거리
4 시그마	가정집 거실	63,00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2.5일 100년	고속도로 45분 거리
5 시그마	공중전화 박스	57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0분 100년	가까운 주유소까지의 거리
6 시그마	다이아몬드 반지 알	2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6초 100년	네 걸음

- ① 시그마 수준에 따른 규격의 변화
- ② 시그마 수준에 따른 불량률의 크기
- ③ 시그마 수준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장소
- ④ 시그마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정의 분류
- ⑤ 시그마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억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개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
- * 척촉: 철쭉.
-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雨)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 백척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컸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
 에 벌였어라
 ㉤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양정가」 -

- * 산람: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 경궁요대: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 옥해 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다) 아이! 덕보(德保)*는 만사에 통달하고 명민하며, 겸손하고 고아하며,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였다. 특히, 율력(律曆)에 정통하여 그가 만든 혼천의(渾天儀) 등 여러 기구들은 깊이 생각하고 오래 연구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제작한 것들이다. 애초 서양인은 땅이 둥글다는 것만 말하고 회전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덕보는 일찍이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논했는데 그 이론이 미묘하고 심오하였다. 이에 관한 책을 미처 쓰지는 못했지만, 만년에 이르러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더욱 자신하였다.

덕보를 흠모하는 사람들조차도 ㉞ 그가 일찍부터 과거를 단념한 채 명리(名利)를 생각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앉아 좋은 향을 피우거나 거문고를 타며 지내는 것을 보고는 ‘덕보가 담박하게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백사(百事)를 두루 잘 다스리고, 문란하고 그릇된 일을 척결하며, 나라의 재정을 맡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갈 만하며, 군대를 통솔하여 나라를 방어하는 데 뛰어난 책략을 지녔다는 것을 통 알지 못했다. 하지만 덕보는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한두 고을의 수령을 지낼 때에도 그저 관아의 장부를 잘 정리하고,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며, 아전들을 공손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따르게 함이 고작이었다.

덕보는 서장관(書狀官)인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 갔을 때, 유리창*에서 육비, 엄성, 반정군을 만났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고향이 전당(錢塘)으로 문장과 예술에 능한 선비들이었고, 사귀는 이들도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덕보를 큰선비로 떠받들며 그에게 심복(心服)하였다. 덕보는 그들과 수만 글자의 필담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경전의 취지, 사람에게 천명이 부여된 이치, 고금의 인물들이 살아간 도리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웅대하고 결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번 헤어지고 나면 천고에 다시 만나지 못할 테지요. 지하에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러운 일이나 없도록 합시다.”

-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洪德保墓誌銘)」 -

* 덕보: 홍대용(洪大容)의 자(字).
* 유리창: 중국 북경의 거리 이름.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38.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치 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39.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조출한 술상을,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 ② (가)는 구슬프게, (나)는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요.
-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④ (가)는 밤을 위주로, (나)는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⑤ (가)는 한옥의 뜰을, (나)는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② ㉡: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풍경의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 시·창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⑤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1. (가)의 ㉠과 (다)의 ㉡의 거문고 연주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과 ㉡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자신을 위해, ㉡는 타인을 위해 연주하고 있다.
- ④ ㉠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⑤ ㉠은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는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42.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보’가 취한 평소의 생활 자세를 그리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비교하여 ‘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적인 어조로써 ‘덕보’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예를 들어서 ‘덕보’의 인물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전’ 하면 흔히 ‘ㄱ, ㄴ, ㄷ’ 순으로 배열된 국어사전을 떠올리지만, 인간의 머릿속에도 사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머릿속 사전’이라 부른다. 그런데 책으로 된 종이 사전과 머릿속 사전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이 사전은 한글 자모 순서로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이 표준이다. 머릿속 사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말실수를 할 때 한글 자모 순서상 가장 근접해 있는 단어가 선택될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그 단어를 열른 생각해 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진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전에서 그 다음에 배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진선’이 선택되는 식이다.

[A]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의 하나로 단어 연상 실험을 들 수 있다. 이 실험은 자극어를 준 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 보게 하거나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극어로 ‘바늘’을 제시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어는 ‘실, 핀, 날카롭다, 꿰매다’ 등이다. 이는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어가 머릿속에서 자극어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한다. 우리는 ‘하늘’이라든가 ‘공부’와 같이 ‘바늘’과 상관이 없는 반응어를 기대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상이라는 것이 비록 언어의 규칙 기반적인 다른 측면들처럼 명쾌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주로 ㉠ 등위적, 배열적, 상위적,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위적 연결은 ‘나비 - 나방’처럼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과 ‘왼쪽 - 오른쪽’처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배열적 연결은 ‘소금 - 물’처럼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어들의 연결을, 상위적 연결은 ‘나비 - 곤충’처럼 하위어와 상위어의 연결을, 동의적 연결은 ‘배고프다 - 굶주리다’처럼 뜻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이들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것들의 연결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덧붙여 실어증 환자들에 관한 실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어떤 환자는 부엌 용구의 이름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과일 이름은 모두 잊어버렸고, 어떤 환자는 의복 이름은 났을 수 있었지만 옷감의 종류는 말하지 못했다. 이는 ‘부엌 용구, 과일 이름, 의복 이름, 옷감 이름’ 등이 모두 독립된 장(場)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위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 머릿속 사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하나의 장을 이루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단어들 사이의 연결 정

도는 그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모여 있는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각 장들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의 장이 다른 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 ② 단어 연상 실험으로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자극어와 반응어는 머릿속에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 ④ 실어증 환자들의 사례는 단어들이 장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반응어는 깊은 사고를 통해 나오므로 머릿속 사전의 연결 방식을 잘 반영한다.

44. [A]의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어-, 출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 ② “그는 상당한 언어 곤경, 아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 ③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동시에 떠올라) “곰 사합니다.”
- ④ 갑: (하늘의 별을 보려고) “거기 현미경 좀 가져와 봐.”
을: “망원경 말하는 거야?”
- ⑤ 갑: “그거 있잖아, 그……. 생각이 날 듯한데. 장어, 쟁어, 정어, 정우 그게 뭐더라.”
을: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45. <보기>의 예들을 ㉠의 구분에 따라 알맞게 나열한 것은? [1점]

〈보 기〉		
㉠. 고무 - 줄	㉡. 잠자리 - 채	㉢. 두껍다 - 얇다
㉣. 남자 - 사람	㉤. 북쪽 - 남쪽	

	등위적 연결	배열적 연결	상위적 연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46.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국어사전을 머릿속 사전의 조직 원리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기획 회의를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 보 기 >

오릉(五陵) ㉠ 『고적』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에 있는 다섯 능묘. 사적 제172호.

오리¹ ㉡ 『동물』 오리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오리²(汚吏) ㉢ 청렴하지 못한 벼슬아치.

오리³ ㉣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

오리-가리 ㉤ 여러 가닥의 오리나 갈래로 갈라지거나 썩진 모양. ㉥ 가리가리.

- ① ‘오릉’, ‘오리’, ‘오리가리’처럼 한글 자모 순서로 배열하지 말고, 의미 및 주제를 고려해서 재배열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 ② ‘오리’은 ‘오리’와 분리해서 ‘동물’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묶어 제시하면 좋겠어.
- ③ ‘오리’은 ‘오리발’, ‘오리걸음’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는 데, 이 단어들의 관련성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 ④ ‘오리가리’도 ‘오리’와 형태적 유사성이 있어. 이 단어도 ‘오리’와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 ⑤ ‘가리가리’처럼 보통 사전에는 ‘유의어’가 제시되는데, 그러한 방식은 그대로 따라도 좋을 것 같아. 필요하다면 반의어도 제시하면 좋겠어.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평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7.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평주의의 종류 ② 공평주의의 적용 방식
 - ③ 도덕적 정당성의 의미 ④ 공평주의의 개념과 의의
 - ⑤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
48. ㉡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
- ① 철수가 형을 놓아주었다면 그는 누구라도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 ②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철수가 놓아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④ 철수가 공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철수가 형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4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순이’가 ㉠이라고 할 때, ‘순이’가 취할 행동과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순이는 오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중 한 분을 하루 동안 간병하기로 했다. 연세가 더 많으신 외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친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외에 두 분이 처한 상황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가까웠던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 ① 두 분 다 소중하므로 누구를 도와도 상관없다.
- ②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 ③ 친할머니께서 더 젊으시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④ 친할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⑤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더 많으시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50.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효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A: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B: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A: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거야.
-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 ⑤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51. 문맥으로 보아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각별한 ② 고유한 ③ 독특한
- ④ 상이한 ⑤ 특이한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이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이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 ㉠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향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뜬을 서성이 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만호제력)’ 녀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썩어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친하태평)’ 녀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녀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듯, 그제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는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는들 그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 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날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흠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장거리에 나앉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 고죽은 아직도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름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아버님, 김 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 모를 회상에서 깨나게 하였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초헌(草軒)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晩得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사람이 무던하다거나 이렇다할 요구 없이 일 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러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行書)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點劃結構)도 모르면서 초서(草書)며 전서(篆書)까지 그려 대는 요즈음 젊은이들답지 않게 초헌은 스스로 정서(正書)로만 삼년을 채웠다. 또 서력(書歷) 칠 년이라고는 하지만 칠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의 고죽 문하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폭을 수줍게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충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

- * 소재: 청나라 학자 옹방강의 호.
- * 금시조: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
- * 향상: 상상의 큰 꼬끼리.

5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5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석담'의 집착을 못마땅해 하는 '고죽'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② ㉡: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대해 회의하는 '고죽'을 '석담'이 나무라고 있다.
- ③ ㉢: 재주는 많으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 '고죽'을 '석담'이 질책하고 있다.
- ④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렸던 '석담'에 대한 '고죽'의 원망이 되살아나고 있다.
- ⑤ ㉢: '초헌'이 훗날 대가로 성장하리라는 '고죽'의 예감이 담겨 있다.

54. ㉠~㉢ 중, <보기>를 근거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1점]

—<보 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 한국 독자들에게까지 소개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 받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5.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이 갖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군.
- ②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예술가로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헤어짐을 작가는 극적으로 그려 내었군.
- ④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작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군.
- ⑤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군.

56. '요즈음 젊은이들'을 두고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우물에 가 승능 찾는다.
- ②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③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한다.
- ④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리굽쇠는 굽기가 일정한 금속 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기둥을 ㉠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소리굽쇠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낸다. 원래 소리굽쇠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존 쇼어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굽쇠가 건반악기의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굽쇠로 악기를 조율하였기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다. 소리굽쇠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1834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 세어졌다 ㉢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Hz(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샤이블러의 실험에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악기의 A 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굽쇠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굽쇠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Hz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2번 소리굽쇠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8Hz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다.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굽쇠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4\text{Hz} \times 55$, 즉 220Hz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이고 그 차이는 220Hz이므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Hz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의지하여 샤이블러는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건반의 A 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으로 한 동안 널리 쓰였다.

57. 샤이블러의 업적을 바르게 말한 것은? [1점]

- ① 맥놀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 ② 악기의 기준음의 정확한 진동수를 구하였다.
- ③ 음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수도 커짐을 발견했다.
- ④ 악기의 조율에 사용하기 위해 소리굽쇠를 발명했다.
- ⑤ 소리굽쇠를 음향학 연구를 위한 실험 도구로 채택했다.

5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샤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 실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20Hz 일 것이다.

ㄷ.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50개일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59. ㉣이 도입된 곳에서 일어났을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악보의 형태가 바뀌었을 것이다.
- ② 음악 애호가들이 증가했을 것이다.
- ③ 낮은 음을 쓰는 곡이 많아졌을 것이다.
- ④ 맥놀이에 대한 실험 연구가 증가했을 것이다.
- ⑤ 음악가들이 표준 소리굽쇠를 요구했을 것이다.

60. ㉠, ㉡, ㉢의 의미 관계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런 배열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점]

<보 기>

단단하다 ←반의 관계→ 약하다 ←반의 관계→ 세다

- ① 어리다 ↔ 젊다 ↔ 늙다
- ② 나쁘다 ↔ 좋다 ↔ 싫다
- ③ 받다 ↔ 주다 ↔ 빼앗다
- ④ 밟다 ↔ 굽다 ↔ 거칠다
- ⑤ 밀다 ↔ 당기다 ↔ 늦추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1	⑤	16	②	31	④	46	④
2	③	17	②	32	③	47	⑤
3	①	18	②	33	②	48	②
4	③	19	④	34	①	49	④
5	⑤	20	③	35	④	50	②
6	③	21	③	36	②	51	①
7	⑤	22	⑤	37	②	52	④
8	④	23	②	38	②	53	④
9	④	24	⑤	39	②	54	③
10	⑤	25	②	40	③	55	④
11	③	26	⑤	41	④	56	③
12	③	27	①	42	④	57	②
13	④	28	①	43	⑤	58	①
14	①	29	③	44	⑤	59	⑤
15	⑤	30	④	45	②	60	①

언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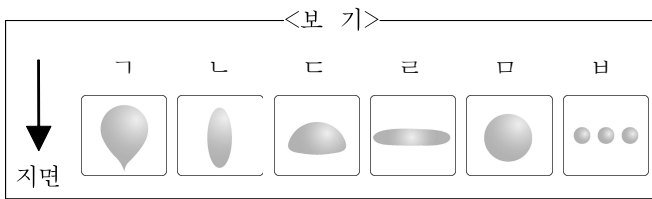
수험 번호

홀수형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교사가 설명한 빗방울의 모양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1점]



- ① ㄱ → ㄷ → ㄹ → ㅂ ② ㄱ → ㅁ → ㄴ → ㅂ
- ③ ㅁ → ㄴ → ㄱ → ㅂ ④ ㅁ → ㄴ → ㄹ → ㅂ
- ⑤ ㅁ → ㄷ → ㄹ → ㅂ

2. (물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해 청취자가 평가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능이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존심도 잃지 않고 살았군.
- ② 통념과 관습을 거부하는 독특한 연주법으로 후대 예술가의 본이 되었군.
- ③ 자기 수양을 통해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여 예술가로서 일가를 이루었군.
- ④ 부단한 정진을 통해 부족한 재능을 뛰어넘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군.
- 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과 결별하고 세상을 조롱하며 살았군.

3. (물음) 대화에서 여학생의 마지막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년 왜 ()

- ① 관련이 없는 것을 끌어다 말하니?
- ② 남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말하니?
- ③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말하니?
- ④ 다른 사람의 생각을 확대해서 말하니?
- ⑤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판단해서 말하니?

4. (물음) 발표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둘째 자리			● ●	● ● ●
첫째 자리		● ●	▬	▬▬▬

- ① 60 ② 75 ③ 80 ④ 85 ⑤ 90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좌담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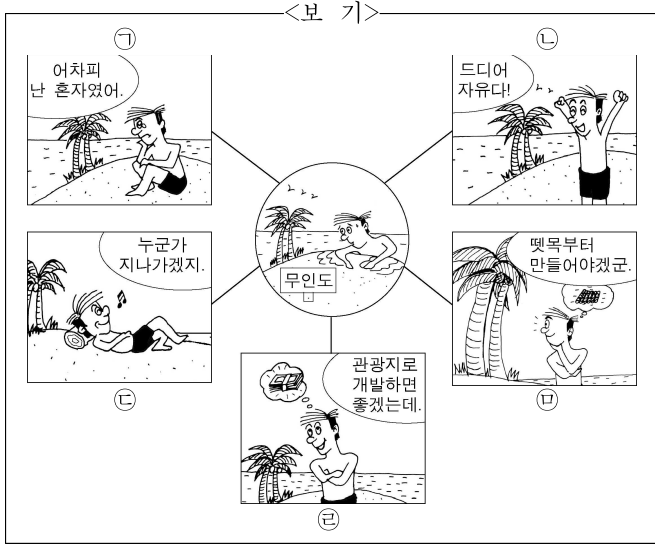
- ① 협약의 의미
- ② 협약의 채택 배경
- ③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 ④ 협약에 규정된 분쟁 조정 절차
- ⑤ 협약이 우리 문화 산업에 미칠 영향

6.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위자의 이론에 기대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③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상대방에게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여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삶'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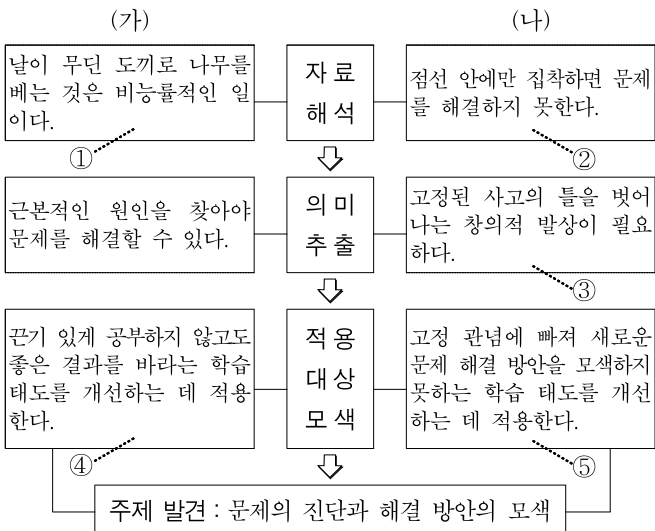
- ① ㉠: 현대인은 소통의 단절을 겪으며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 ② ㉡: 현대인은 일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 ③ ㉢: 현대인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한다.
- ④ ㉣: 현대인은 자연을 이룬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⑤ ㉤: 현대인은 적극적인 자세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능률적인 학습 방법 모색'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구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한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갈수록 힘만 들고 나무는 잘 베어지지 않았다. 도끼날이 무더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나무꾼은 힘겹게 나무를 계속 베다 그만 지쳐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 *펜을 떼지 말고 점선을 모두 이으시오. (단, 이미 지난 선은 다시 지날 수 없음.)
(점선 안에 집착) (점선 밖을 생각)



9. <보기>와 같이 '해의 한국학 육성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방안이나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 한국학 강좌를 대학에 개설한 국가 수의 증가 ㉠
- 해의 한국학 육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의 필요성

II. 본론

1. 해의 한국학 육성의 의의
 -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학문적 연대 증진 ㉡
 - 세계 속의 한국 위상 제고
2. 해의 한국학 발전의 장애 요소
 -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연구 재정 지원 부족
 - 한국학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 부족 ㉢
 - 한국학을 연구할 전문 인력의 부족
3. 해의 한국학 지원 및 육성 방안
 - 연구 재정의 투명한 관리 ㉣
 - 한국학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등을 통한 관심 환기
 - [] ㉤

III. 결론

- 해의 한국학의 전망

- ㉠: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인국 대학등의 정확한 실태를 통계 수치로 제시한다.
- ㉡: 각국의 문화재 보존 현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 한국학에 대한 인지도가 일본학, 중국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 'II-2'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 확대 및 민간 기업의 기부 활성화'로 수정한다.
- ㉤: 공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한국학 연구자 육성을 위한 장학 제도 마련'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독서'와 관련한 표어를 쓰려고 한다. <보기 1>의 관점과 <보기 2>의 표현법을 모두 살린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기 1>

“트집을 잡거나 반박하려고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인정할 생각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이야깃거리나 설교 자료를 구하려고 읽지도 마라. 다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
- 베이컨 -

<보기 2>

- 보고 지고 보고 지고
- 새가 울고 꽃이 핀다.

- | | |
|---------------------------|-------------------------|
| ① 책 속에서 나를 찾고 책 속에서 지혜 얻자 | ② 책 속의 선인 지혜 계승하여 나를 찾자 |
| ③ 바다같이 넓은 독서 깊어지는 나의 지혜 | ④ 행복 주는 책임기가 행복 사회 가져온다 |
| ⑤ 읽고 읽어 바로 알자 세상의 옳고 그름 | |

11. '탈춤'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한다. 제작 계획서 내용 중, <보기>의 제작 회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 제 목 : 탈춤 체험의 기록임을 드러낼 것.
- 주 대상층 : 탈춤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예상 시청자로 함.
- 내 용 : 실제 경험을 통해 탈춤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 주면서, 탈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것.
- 구성 방식 : 간단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할 것.
- 전달 방식 :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

<영상물 제작 계획서>

제 목	'기획 특집-탈춤 속으로 떠나는 10일간의 여행'	①	
제작 의도	- 젊은 세대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인 탈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킨다.	②	
전체 구성	중심 알개	- 대학생이 우리 문화 체험을 위해 탈춤이 전승되는 마을로 가는 상황을 설정한다. - 탈춤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여 마지막 날에 공연으로 마무리한다는 줄거리로 구성한다.	③
	보조 알개	- 탈춤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구성하여 중간 중간 삽입한다.	
전달 방식	해설	- 내레이션을 통해 탈춤에 대한 학술적 이견들을 깊이 있게 제시하여 탈춤에 조예가 깊은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상 편집	- 탈에 대한 정보를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 탈춤의 종류,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그래픽 자료를 보여 준다. - 탈춤의 연습과 공연 장면을 현장감 있게 보여 준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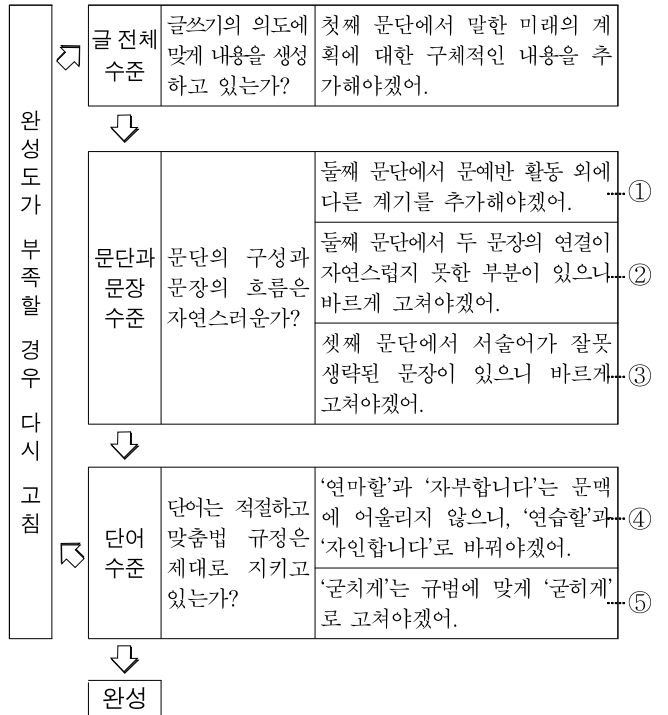
12. 고쳐 쓰기의 절차에 따라 '자기 소개서' 초고를 다듬으려고 한다. 고쳐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도 컸고,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 왔으며,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 국문학과에서 제 소질과 능력을 연마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국어 국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년 동안 문예반 활동을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 작품을 읽고 제 자신이 직접 창작도 해 보면서 우리 문학의 우수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국어 국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말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도 잘 알아야 하고, 우리글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분야에 대한 교양서적들을 널리 읽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국어 국문학에 대해 깊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13. <보기 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뚝이(x) → 오뚝이(○), 쌍둥이(x) → 쌍둥이(○)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부조(扶助)	부주	~돈, ~금
사둔(査頓)	사둔	밭~, 안~
삼촌(三寸)	삼촌	외~, 처~

- <보기 2>—
-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의 '깡충깡충'을 '깡충깡충'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둥이', '흰둥이'였겠군.
- ③ ㉢의 '삼촌' 대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군.
-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14.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보기 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뛰었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걷다’이지만 “물가(物價)가 뛰었다.”에서는 ‘떨어지다’가 된다.

<보기 2>

단어	예 문	반의어
서다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u>서</u> 서 왔다.	↔ 앉다
	고장이 나서 시계가 <u>서</u> 버렸다.	↔ [A]
	[B]	↔ 깎이다
	기강이 <u>서</u> 야 사회가 안정된다.	↔ [C]

- | | | |
|------|--------------------|------|
| [A] | [B] | [C] |
| ① 가다 | 가족에게 위신이 서서 기뻐다. | 내리다 |
| ② 가다 | 토끼의 귀가 쫑긋 섰다. | 내리다 |
| ③ 가다 | 회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다. | 무너지다 |
| ④ 죽다 | 바지의 주름이 잘 섰다. | 무너지다 |
| ⑤ 죽다 | 친구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했다. | 벗어나다 |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긴: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 달력.

(나)

㉠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 동 동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 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붙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붙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띄어 울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 총총 달려도 와 줄 ㉤ 붙이 고운 나의 사람.

㉥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 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16.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익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옥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과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음.
-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②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③ ‘덩그럭 불이 / 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하얗다’를 ‘하이얗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17. (나)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이다.
- ③ ㉠는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해 주는 존재이고, ㉡는 화자와 반목하는 존재이다.
- ④ ㉠는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존재이고, ㉡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이다.
- ⑤ ㉠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고, ㉡는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18. (나)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1점]

<보 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다)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 ④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한다.
-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일의 발명가 루돌프 디젤이 새로운 엔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얻은 것은 1892년의 일이었다. 1876년 오토가 발명한 가솔린 엔진의 효율은 당시에 무척 떨어졌으며, 널리 사용된 증기 기관의 효율 역시 10%에 불과했고, 가동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디젤의 목표는 고효율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훨씬 더 높은 압축 비율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기화기에서 공기와 연료를 먼저 혼합하고, 그 혼합 기체를 실린더 안으로 흡입하여 압축한 후,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 동력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는 압축 정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만일 기화된 가솔린에 너무 큰 압력을 가하면 멋대로 점화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엔진의 노킹 현상*이다.

공기를 압축하면 뜨거워진다는 것은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디젤 엔진의 기본 원리는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을 흡입하여 피스톤으로 강하게 압축시킨 다음, 그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저절로 착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젤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 없는 대신, 연료 분사기가 장착되어 있다. 또 압축 과정에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최대 12:1의 압축 비율을 갖는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높은 25:1 정도의 압축 비율을 갖는다. 압축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연료의 특성도 다르다.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 증발하는 속도도 느리다. 왜냐하면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원자가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솔린은 5~10개, 경유는 16~20개의 탄소를 가진 탄화수소들의 혼합물이다. 탄소가 많이 연결된 탄화수소물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탄소 수가 적은 탄화수소물로 분해된다. 한편, 경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1갤런의 경유는 약 1억 5,500만 줄(Joule)**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솔린은 1억 3,200만 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료의 특성들이 디젤 엔진의 높은 효율과 결합되면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좋은 연비를 내게 되는 것이다.

[A]

발명가 디젤은 디젤 엔진이 작고 경제적인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전에는 크고 육중한 것만 만들어졌다. 하지만 ① 그 후 디젤의 기술적 유산은 이 발명가가 꿈꾼 대로 널리 보급되었다. 디젤 엔진은 원리상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고장도 덜 난다. 디젤 엔진은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지 않고 연료의 소비 면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나 오늘날 자동차 엔진용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환경론자들이 걱정하는 디젤 엔진의 분진 배출 문제도 필터 기술이 나아지면서 점차 극복되고 있다.

* 노킹 현상: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폭발.
** 줄: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

23. ㉠의 이유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되어 보다 작고 경제적인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 ① 개조(改造) ② 개선(改善) ③ 진보(進步)
- ④ 향상(向上) ⑤ 발전(發展)

[24~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霜天月照夜河明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客子思歸別有情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厭坐長宵愁欲死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忽聞隣女擣衣聲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聲來斷續因風至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지도 멈추지 않네 夜久星低無暫止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自從別國不相聞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今在他鄉聽相似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지는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압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 나도 입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 내 몸의 지은 죄 죄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 설위 풀쳐 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글란 생각 마오 맏힌 일이 있어이다
임을 피셔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뒤라서 되셨는고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다)
그날 황혼 전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 홀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늪다란 판장(板障)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뽕 천 평 이상의 ㉡ 명실상부의 공지가 아닌가.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 ②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 ③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분진을 많이 배출한다.
 - ④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다.
 - ⑤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높은 압축 비율을 가진다.

21. <보기>에서 디젤 엔진에 없는 부품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 | | |
|--------|-----------|-----------|
| ㄱ. 기화기 | ㄴ. 피스톤 | ㄷ. 점화 플러그 |
| ㄹ. 실린더 | ㅁ. 연료 분사기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22. [A]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손으로 만지면 경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끈적끈적할 거야.
 - ② 가솔린과 경유를 섞으면 가솔린이 경유 아래로 가라앉을 거야.
 - ③ 특별한 공정을 거치면 경유를 가솔린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 ④ 주유할 때 차체에 연료가 묻으면 경유가 가솔린보다 더 빨리 증발할 거야.
 - ⑤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면 가솔린이 경유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야.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으로 덮인 실로 ㉠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을 퐁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

인마(人馬)의 발자취가 끊인 지—아니 그건 또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오랜 이 공지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회롱한다. 정말 공지—참말이지 이 세상에는 인제는 공지라고는 없다. 아스팔트를 깐 뺨질한 길도 공지가 아니다. 질퍽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유답이요, 아무개 소유의 산꿏**이요, 아무개 소유의 광산인 것이다. 생각하면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나 공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치대로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 일 보의 반 보를 어찌 옮겨 놓으리오. 오늘 우리가 제법 교외로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 묵허(默許)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뺨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봄이 왔다.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盆)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이 튼다. 그 닷곱 한 되도 [B] 안 되는 흙 위에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를 뺨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

-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

* 목산: 눈으로 어림셈함.
** 산꿏: 산갓. 산림의 의미.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25. (가)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과 ‘은하수’는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
 - ② ‘다듬이 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③ ‘바람’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④ ‘별이 낮도록’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 준다.
 - ⑤ ‘서로 비슷하네’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첩됨을 드러낸다.

26. (나)를 상소문이라고 가정할 때, (나)의 ㉠~㉣ 중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상소문은 여러 경우에 쓰는데, 그 중에는 개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전말을 밝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 ② [A], [B]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 [B]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④ [A]에는 공간적인 이동이, [B]에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⑤ [A]는 반어적인 표현을,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28. <보기>를 통해 (다)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인이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어 간다.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울화의 불길이다.

- ① 도시적 삶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려 헤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전통적 가치가 배척되는 근대 사회를 보고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
- ④ 도시 문명에서 도피하여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다.
- 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다.

29. (다)의 a~e 중, 같은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0. (다)의 ‘퐁기는’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키로 까불러서 검불을 퐁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 ② 이국의 정취가 퐁기는 아름다운 거리를 한없이 걸어갔다.
 - ③ 진한 향기를 퐁기는 붉은 해당화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
 - ④ 총소리가 풀숲에 숨어 있던 새들을 퐁겼다.
 - ⑤ 시골 길로 버스가 지나가자 먼지가 퐁겼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테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나의 조국을 알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노라.” 하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에 없는 문법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때로는 한국어의 고유성에 대한 재확인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 “철수가 축구를 하였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문장으로는 화자가 ‘철수가 축구한 것’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들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토속어인 투유카 어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장치가 있다. 화자의 목격 여부가 동사에 형태적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 ‘증거법’이라고 부른다.

- diiga apéwi (그가 축구한 것을 내가 보았다.)
- diiga apéti (그가 축구한 것을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
- diiga apéyi (그가 축구한 것을 내가 알지만 보지는 못했다.)
- diiga apéyigi (그가 축구한 것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 diiga apéhiyi (그가 축구한 것을 나는 짐작했다.)

○ 증거법의 구성 요소 = {wi=시각적, ti=비시각적, yi=명백함, yigi=전해 들음, hiyi=짐작함}

(다) 위 예문들의 공통 의미는 ‘그가 축구를 하였다’이다. 그런데 투유카 어의 문장으로 이 의미만을 표현할 수는 없다. 투유카 어는 증거법의 형태들이 문장에 필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증거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 형태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단어나 문장 등 다른 차원의 언어적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어로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과 투유카 어의 그것이 다름을 보여 준다.

(라)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한가? 한국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 ‘높임법’이다.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말에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다. 한국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묵시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당신은 청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면 높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높임법을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외국어는 자국어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언어 간의 대조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 방식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유카 어의 증거법을 이해한 한국인들은 문장 속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산업화의 정도나 사용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름

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착민의 언어든 문명국의 언어든 서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그림’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3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점]

- ① 문명국일수록 언어 체계도 우수하다.
- ② 언어는 언중이 세상을 대하는 사고 방식과 무관하다.
- ③ 외국어를 통해서 자국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④ 언어 간의 접촉을 통하여 언어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 ⑤ 언어 간의 대조를 통하여 언어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3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인용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나): 예시를 통하여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 대조를 통하여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유추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비유를 통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사건에 대한 화자의 목격 여부를 드러낸다.
- ② ㉠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문법 범주이다.
- ③ ㉡를 통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과 ㉡는 모두 문장에 형태적으로 표시된다.
- ⑤ ㉠보다 ㉡가 개별 언어의 고유성을 더 잘 드러낸다.

34. 위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과 상통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언어는 본능의 일종이지만, 문자 언어는 본능이 아니다.
- 스티븐 핑커 -

ㄴ. 인간은 유한한 문법 장치로 무한한 문장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
- 노암 촘스키 -

ㄷ. 어떠한 언어도 혼자만으로는 인간이 이루어 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 에즈라 파운드 -

ㄹ. 세계는 여러 시각이 모인 모자이크이다. 언어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을 잃는 것이다.
- 아린 달리냐 로드리게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누이트(에스키모) 하면 연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글루이다. 그들의 주거 시설에는 빙설을 이용한 집 외에도 목재나 가죽으로 만든 천막 등이 있다. 이글루라는 말은 이러한 주거 시설의 총칭이었으나, 눈으로 만든 집이 외지인의 시선을 끌어서 그것만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글루는 눈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반구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얼음집으로 될까? 이글루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할까?

일단 눈 벽돌로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다.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으면서 벽의 틈을 메워 준다. 어느 정도 눈이 녹으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 ㉠ 벽돌집을 얼음집으로 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 이글루가 뿌옇게 보이는 것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에 부딪힌 빛의 산란 때문이다.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든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이글루 안이 추울 때 이누이트는 바닥에 물을 뿌린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바닥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느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누이트가 융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또한 물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 이글루에는 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 이글루라는 말은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다.
- ② 태양 빛은 이글루의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 ③ 이누이트는 물의 화학적 변화를 난방에 이용하는 지혜를 지녔다.
- ④ 극지방의 지면과 이글루는 같은 면적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
- ⑤ 이글루의 얼음과 온실의 유리는 방출되는 복사파를 차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상반된 관점을 절충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 ② 과학적 근거를 들어 통념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④ 실험 결과로부터 특정한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구체적 현상에 들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다.

37. 위 글로 미루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호수가 어느 날씨에도 바다는 왜 얼지 않는가?
 ㄴ. 냉동실에서 얼린 얼음의 가운데 부분은 왜 뿌옇게 보이는가?
 ㄷ. 겨울에 세차를 위해 자동차에 온수를 뿌리면 왜 바로 어는가?
 ㄹ. 겨울에 실외에 놓은 음료수가 얼면서 병이 깨지는 것은 왜일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8.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과 다른 것은? [1점]

—<보 기>—

‘벽돌집’은 ‘재료 + 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다.

- ① 두부콩 ② 유리창 ③ 보리밥
- ④ 비단옷 ⑤ 밀짚모자

3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글루의 건축 과정에서 ㉡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글루 안에 피운 불
- ②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
- ③ 얼음벽을 통과한 태양 빛
- ④ 불의 열에 의해 융해되는 눈
- ⑤ 이글루 안에서 발생한 복사파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10년 전에 금강산을 유람하여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돌아왔다. 바다는 출렁이고 산은 높이 솟아 그 광경은 무어라 말로 형용할 길이 없었다. 유람하는 이들은 줄지어 이어지고 안개와 구름은 무심하였다. 여기저기 신령스런 골짜기와 신비한 전각들, 이런 것들이 마침내 일대 장관으로 다가왔다. 구룡연·만물상·수미봉·옥경대 같은 여러 뛰어난 경치는 금강산에서도 특히 이름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기이하고 그윽한 언덕과 골짜기가 또 있어, 만일 이름을 붙여 널리 전파한다면 명승의 대열에 끼일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모두 ㉡거친 수풀과 우거진 넝쿨 사이에 가려지고 묻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건대 사람 또한 이와 같다. 관각(館閣)*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문화를 빛내고, 낭묘(廊廟)**에서 예복을 입고 왕정(王政)을 보좌하여, 육경(六經)의 참뜻이 못 백성에게 파급되게 하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여항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기릴 만한 경술(經術)이나 공적은 없지만, ㉢그 언행에 혹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 시문에 혹 전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적막한 구석에서 초목처럼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 아아, 슬프도다! 내가 『호산외기(壺山外記)』를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친구인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傳)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제목을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나라 수천 리 안에 인물이 번성하니 언행이나 시문으로써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마는 인멸되어 아는 이가 없게 되었다. 겸산은 흥금이 바다 갈아 남의 좋은 점을 즐거워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물질하듯 끌어 모았다. 또한 그 언행이나 시문 외에도 한 가지 기예, 한 가지 재능이라도 있으면 모두 기록하였다. 그 부지런한 뜻이 어찌 헛되겠는가?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감동하고 분발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다만 한 사람의 글에 그치겠는가? 세상의 교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 뜻은 내가 명산(名山)에서 깨달아서 겸산의 글에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아아! ㉥숨은 빛을 찾아내어 찬연히 세상에 나오게 하였도다.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석실(石室)에 보관한 역사 기록 이외에 태평한 시절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책에 있으리라.

- 조희룡, 「이향견문록 서(里鄉見聞錄序)」 -

* 관각: 조선 시대에,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을 통틀어 이르던 말.
 ** 낭묘: 조정의 정무(政務)를 돌보던 궁전(宮殿).

40.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사 기록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 ② 당대의 정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저술의 교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겸산’의 인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여항 사람들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41. ㉠~㉥ 중, 문맥상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수록되었을 인물의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보 기>

『이향견문록』은 조선 후기 중인(中人)들의 전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중인은 여항인(閭巷人)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사대부보다 낮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포부를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다.

- ①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위하나이다
- ②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터라
- ③ 삼동(三冬)에 배웃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쥘 적이 없건마는
서산(西山)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④ 농암(壟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가 변한들 산천(山川)이야 변할까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某丘)가 어제 본 듯하여라
- ⑤ 형산(荊山)의 박옥(璞玉) 얻어 세상 사람 보이러 가니
걸이 돌이니 속 알 이 뉘 있으리
두어라 알 인들 없으랴 돌인 듯이 있거라

43. 위 글로 보아 ‘유재건’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지지지우(知己之友)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 ③ 근묵자흑(近墨者黑)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에 새로운 경향의 공연 예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춤과 연극의 경계를 허무는 한편, 기승전결을 지닌 기존의 작품 구조를 해체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논리와 이성이 투영되지 않은, **신체의 언어**를 중요하게 사용함으로써, 춤에서는 연극처럼 배우들이 말을 하고, 연극에서는 춤처럼 배우들의 몸짓 표현을 강조하게 되었다. 연출가들은 극장의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극장이 아닌 길거리나 들판 혹은 공장과 같은 일상 공간을 무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출가들은 문자로 쓰인 대본에 의존하기보다는 배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즉흥적인 연출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자신들의 공연을 영화로 옮기기도 하였다.

‘춤연극’으로 잘 알려진 피나 바우쉬의 영화 ㉠ 「황후의 탄식」에는 각 장면들이 연극 무대처럼 펼쳐진다. 이 작품은 **일정한 줄거리가 없는 대신, 상이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장면들로 구성된 몽타주***와 같다. 연출가는 배우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그들의 표정과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도시와 숲 속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다. 도시와 자연 배경은 주위와의 연관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원래의 지리적 공간이 아닌 낯설고 새로운 추상적인 공간이 된다. 그 공간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낮과 밤의 구별이 없는 도시의 거리, 마른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숲 속의 빈터, 너른 풀밭, 어두운 숲 등은 그 빛과 어둠으로 우리 존재의 슬픈 내면을 비춘다. 밝음 속에서 소외되는 것과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은 본원적으로 같다. 이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연출가는 작품을 고정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 속의 작품’으로 만들게 된다.

위와 같이 현대 공연 예술의 연출가들은 **극적 사건**이라는 허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몸이 겪는 고통과 상처의 느낌을 관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 연출가들은 오브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일상 생활에서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구·가방·책·옷 등이 무대 위에서는 전혀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어 공연에 시적(詩的)인 특질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오브제를 무대 장치에 필요한 소품(小品) 정도로 여겨 온 것과 크게 다르다. 상대적으로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은 이제 마네킹처럼 오브제로 변형되어 존재한다. 기존의 **공연 예술의 관습**이었던 인간과 사물 사이의 위계질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장면들을 자유롭게 ㉡ **뒤엎어** 놓음으로써 공연은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제의적(祭儀的), 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대 공연 예술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표현 주체의 행위와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언어이자, 기승전결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은 현존의 언어가 된다. ㉢ **이미지의 표면이 이야기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 몽타주: 둘 이상의 장면을 하나로 편집하는 영화나 사진 등의 기법.
** 오브제: 예술 작품에서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

44. 위 글에 나타난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출의 즉흥성을 중시한다.
- ② 전통적인 작품 구조를 해체한다.
- ③ 공연 예술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 ④ 인물과 오브제 간의 위계가 사라진다.
- ⑤ 고정된 대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5. <보기>가 ㉠에 대한 비평문이라고 할 때, 위 글의 논지와 다른 것은?

— < 보 기 > —

「황후의 탄식」은 ㉠ **이미지의 나열로 일관한다.** ㉡ **모든 장면은 하나의 서사적 구조에 종속되지 않으며,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지닌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 **인과적인 플롯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이 영화에서는 ㉣ **자연의 구체적 묘사와 배우의 사실적 연기가 중요하다.** 결국 ㉤ **자연과 인간은 시적 의미를 갖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6. ㉡의 ‘뒤’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주례사에 **뒤**이어 축가가 있겠습니다.
- ② 술래가 도망가는 아이들을 **뒤**쫓았다.
- ③ 배추에 갖은 양념을 **뒤**섞어 버무린다.
- ④ 시대의 변화에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
- ⑤ 고향을 자꾸 **뒤**돌아보며 산마루를 넘었다.

47.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신체의 언어 ② 일정한 줄거리
- ③ 극적 사건 ④ 공연 예술의 관습
- ⑤ 단순한 재현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에게 여쭙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르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희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하시니라.

이때 유 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어가 엎드려 주왈,

“듣사오니 폐하게옵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이까?”

천자 왈,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쭙오되,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낱 새알이 천 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장(沙場)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적악(積惡)이리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일시에 합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게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라.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용이 된 듯하니 유심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가 허락하니,

한림 학사 왕공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왈,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목으로 보오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울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쭙오되,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 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예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옳다.”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중간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냐?”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빠 올라 산호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얼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매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달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넋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쏘냐.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땀던 말 돌려 타고 도망하여 가려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청천 구름 속에 번개칼이 번쩍 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 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 기절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된 후에 엎드려 주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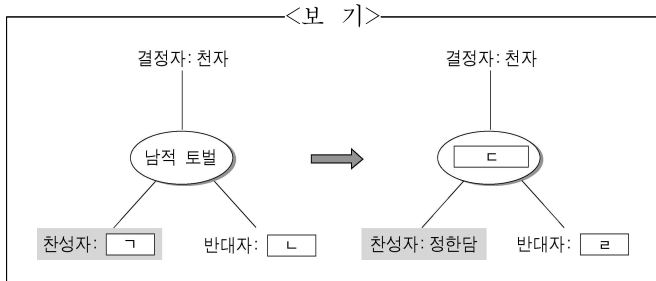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48. (가)와 (나)를 대비할 때,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②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배경이 되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	배경이 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⑤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주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을 드러낸다.

49.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ㄱ~르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유심 | 정한담 | 유심 처벌 | 왕공렬 |
| ② 유심 | 정한담 | 사당 참배 | 최일귀 |
| ③ 정한담 | 유심 | 유심 처벌 | 왕공렬 |
| ④ 정한담 | 유심 | 사당 참배 | 왕공렬 |
| ⑤ 정한담 | 유심 | 조공 징수 | 최일귀 |

50.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리려고 한다. <보기>에서 (나)의 내용을 잘 반영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유충렬이 천기를 살펴보는 호산대의 배경을 밝고 명량한 분위기로 표현하여 앞으로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쓰러져 있는 천자에게서 무력함 또는 나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ㄷ. 정한담을 향해 달려가는 천사마는 역동적이면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그린다.

ㄹ. 장성검을 들고 진격하는 유충렬의 모습에서 천자를 구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이도록 한다.

ㄹ. 달려오는 유충렬을 보고 도망가는 정한담의 표정에서 여유와 의연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린다.

- | | | |
|-----------|-----------|-----------|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ㄹ | |

51. (가)를 고려할 때, (나)의 '천자'의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점]

-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군.
- ② 목마른 늪이 샘 판다더니.
- ③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 ④ 되로 주고 말로 받았군.
- ⑤ 그 나물에 그 밥이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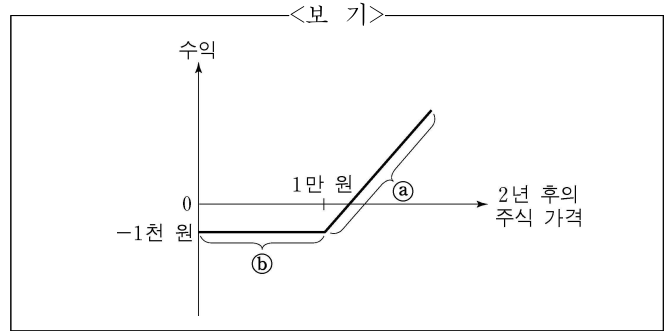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② b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b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a와 b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짝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밟

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우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 북도로 나선다. 북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밝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 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프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별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거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포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테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킨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 최인훈, 「광장」 -

* 콜호스: 구소련의 집단 농장.

** 사복: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쩌귀처럼 쓰이는 물건.

*** 마스트: 돛대.

5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풍자적 어조를 통해 이야기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ㄴ.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ㄷ.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ㄹ.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7. 위 글의 '사복 자리', '삶의 광장', '푸른 광장'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펼쳐진 부채에 비유된 '삶의 광장'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군.
 ② '사복 자리'는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로 표현될 만큼 삶의 위기감이 고조된 공간이군.
 ③ '사복 자리'에서, 주인공은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④ '사복 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에서 '푸른 광장'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군.
 ⑤ 주인공은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와 '딸'을 '푸른 광장'에 연결 짓고 있군.

5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의미를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 한다. 이것은 그 작품을 낳게 한 계기이기도 하며, 또 그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구체적 상황의 의미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보편적 의미라 한다. 몇백 년 전의 작품의 가치를 오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의미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 ① 이명준이 활동한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답사하여 현장 체험을 한다.
- ② 이명준이 은혜와 함께 있던 동굴이 우리 신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 ③ 이명준의 삶과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 ④ 이명준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이명준의 일대기를 작성해 본다.
- ⑤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5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어질 내용에서 그림의 소재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 준다.
- ③ ㉢: 상념에서 현실 세계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드러난다.
- ⑤ ㉤: 경쾌하게 날고 있는 새의 모습에 주인공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

60. ㉠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유사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불-타다 1. 불이 붙어서 타다. ㉠ 화재로 집이 불타다.
2. (비유적으로) 매우 붉은빛으로 빛나다. ㉡ 불타는 노을.

- ① 오늘 한창 물오른 싱싱한 생선이 나왔다.
- ② 어린 동생은 자기의 나이를 손꼽아 세었다.
- ③ 분홍색 메꽃이 군데군데 두렁을 수놓고 있다.
- ④ 바람 소리도 잡들고 짐승들 울음소리마저 사라졌다.
- ⑤ 오월의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가 부슬거리고 있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1	16	④	3	31	③	1	46	③	1
2	①	2	17	⑤	2	32	④	1	47	①	1
3	①	1	18	①	1	33	⑤	2	48	②	2
4	②	2	19	②	1	34	⑤	3	49	③	2
5	④	1	20	②	2	35	③	2	50	④	2
6	②	2	21	②	2	36	⑤	1	51	①	1
7	③	1	22	③	2	37	③	2	52	②	2
8	④	2	23	①	1	38	①	1	53	⑤	1
9	②	2	24	④	2	39	④	1	54	③	2
10	①	1	25	③	2	40	②	2	55	②	1
11	④	2	26	④	1	41	②	2	56	③	2
12	④	2	27	①	2	42	⑤	2	57	③	2
13	④	2	28	⑤	2	43	①	1	58	⑤	2
14	③	3	29	⑤	1	44	⑤	2	59	④	2
15	②	2	30	②	1	45	④	2	60	②	1

제 1 교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행복하다 말하면 맑아지는 마음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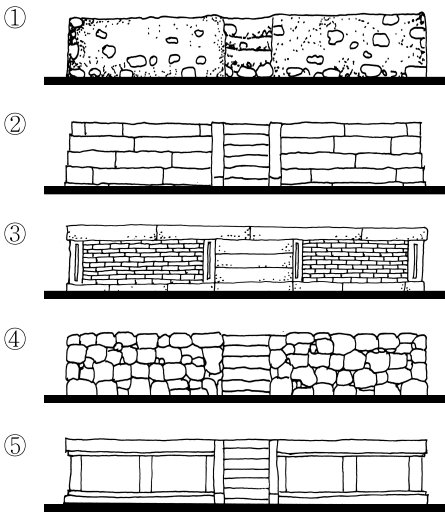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사가 제시한 자료가 아닌 것은? [1점]



2. (물음) 발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성덕대왕신종의 과학성
- ② 성덕대왕신종의 종교적 의미
- ③ 성덕대왕신종 보존의 필요성
- ④ 성덕대왕신종에 담긴 실험 정신
- ⑤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감상 방법

3. (물음) 강연을 듣고 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생활도 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겠군.
- ② 인체에서의 기능에 따라 뼈의 형태가 다르겠군.
- ③ 뼈의 성장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더욱 촉진되겠어.
- ④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일도 뼈의 중요한 기능이겠군.
- ⑤ 뼈는 밀도가 낮아질수록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어.

4. (물음) 토론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간의 심리 관찰은 꼭 필요한가?
- ② 실험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알 수 있는가?
- ③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는 차이가 있는가?
- ④ 동양의 심리학은 서양의 심리학보다 유용한가?
- ⑤ 인간의 행동을 계량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대담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담자는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피하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② 대담자는 진행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대담자는 전문가의 이론에 근거하여 진행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전문가의 비판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진행자는 대담자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충 설명을 유도하고 있다.

6. (물음) 대담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눔을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고 있군.
- ② 나눔을 위한 청소년 봉사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군.
- ③ 나눔 경영이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군.
- ④ 나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실적이 관건이라는 것이군.
- ⑤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복지 예산이 중요하다고 보군.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의 자료를 모두 제시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신문 기획 기사를 쓰려고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자료 1>

<자료 2>

<자료 3>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도리라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짐이 너무 무겁네요. 저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텐데 사회적으로 전혀 배려가 없더군요.”
- 주부 ○○○

“효도할 효?” 한국인 평균 수명 변화 추이 치매 노인 부양 가족 인터뷰
(통계청 2004년 자료)

	<표제>	<부제>
①	효도, 최고의 보험	- 효 윤리 여전히 유효하다
②	장수의 꿈, 눈앞의 현실로	- 의료계,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전망 내놓아
③	의료 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 치매 관련 부문 특히 부실
④	노인 봉양, 자식만의 몫인가	-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지원 장치 절실
⑤	인생은 60부터? 노후는 20부터!	- 행복한 노년 준비를 위한 건강 관리 10계명

8. 정부 기관과 대기업을 예상 독자로,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모둠 토의를 하였다. 스크린에 제시된 자료를 보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이지만 여전히 일부 정부 기관과 대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2004.12.)

장애인 고용률 하위 정부 기관 및 기업(단위%)				2004년 4/4분기 임금대별 장애인 취업자 수 현황(명, %)		
	정부 기관	기업		구 분	취업자 수	비율
K청	0.44	0.26	S사	200만 원 이상	12	0.9
D청	0.75	0.29	S사	200만 원 미만	22	1.6
K위원회	1.00	0.31	H사	150만 원 미만	308	22.3
S부	1.09	0.35	H사	100만 원 미만	1,035	75.2
J위원회	1.15	0.36	E사	계	1,377	100

- ① 고용의 양적 측면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는 게 좋겠군.
- ② 정부 기관 스스로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논지에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

- ③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준수되지 않는 원인과 고용된 장애인들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여 논지를 더 강화하는 게 좋겠군.
- ④ 장애인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 ⑤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장애인의 취업을 배려하는 정책보다 장애인 스스로의 취업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

9.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메모를 작성한 후, 관련 자료 ㉠~㉣을 추가하여 개요를 완성하려고 한다. 자료 활용 및 개요 완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메모>

- *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밝히기
- *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규명할 것
- 익명성, 상업적 악용
- *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볼 것
- 인터넷 실명제, 법적 처벌, 누리꾼의 자정
- * 앞으로의 방향 제시

<자료>

- ㉠ 2004년도 사이버 폭력 신고 건수가 20만 건에 달했다.
- ㉡ 한 남성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방과 사생활 침해에 못 이겨 직장을 그만두고 잠적하였다.
- ㉢ 최근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누리꾼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 ㉣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 원인은 익명성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는 특성, 즉 비대면성(非對面性)에 있으므로 익명성 해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률적 처벌 근거는 이미 존재하나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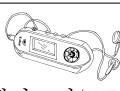

1. 문제 제기
가. 사이버 폭력의 실태
나.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2. 사이버 폭력의 원인
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나. 인터넷 공간의 상업적 악용
다.
3.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가. 인터넷 실명제 실시
나.
4. 누리꾼의 자정 능력 제고
5.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립의 필요성

- ① 개요 ‘1-가’에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함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료 ㉠을 활용한다.
- ② 개요 ‘1-나’에서 자료 ㉡을 활용하여, 사이버 폭력이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자료 ㉢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 의식 부재’를 개요 ‘2-다’ 항목으로 설정한다.
- ④ 개요 ‘3-가’에서 자료 ㉣을 활용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⑤ 자료 ㉤을 활용하여, 개요 ‘3-나’ 항목의 내용을 ‘법 조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설정한다.

10. 제시된 사물을 이용하여 문학적인 글쓰기를 해 본 것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1점]

<보기>

- 지나침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쓸 것.
- 대상을 의인화할 것.
- 대조의 표현 기법을 사용할 것.

①		이 기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우리는 그 힘에 이끌려 한없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이용하면 보물 창고지만 제대로 이용하면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②		내 품 안에 들어와 포근히 안긴 당신이 무척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 행복은 멈추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실천할 때에만 지켜 집니다. 행복은 지킬 것을 지킬 때 지켜집니다.
③		내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애지중지 어루만져 주고 속삭여 주는 당신이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내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영원히 속삭여 주세요.
④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매혹된 당신은 오직 아름다운 소리에만 귀 기울입니다. 이제 세상에 귀를 닫아도 되는 당신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동반자이지만 내 힘을 남용하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즐겨 쓰지만 나는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11~12] 수업 시간에 수행 평가로 제출한 학생의 글이다. 11번과 12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제목: 개발이나 보존이나

최근 들어 나라 곳곳에서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연 개발’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연에 손을 대는 일은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부 손실은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이에 대하여 다른 쪽은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자연에 손을 대어 편의 시설을 만들면 지금 당장은 편리하겠지만, 나중에는 ㉠ 인간이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연 생태계가 교란되면 나중 어떤 결과가 생길지 ㉡ 예측할 수 없으며, 그것이 재해로 이어지면 자연 재해의 특성상 차츰 인류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그런데 그러한 재앙이 훗날 다음 세대에게 닥친다면,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애먼 사람이 뒷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 두 주장 모두 편향적인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 인간이 편하기 위하여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나중엔 인류에게 재앙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막상 그 대상인 자연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자연물, 더 나아가 자연 환경 전체도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권리의 범위가 인간에서 자연으로 ㉤ 증대되는 셈이다.

11. [A]에 뒷받침 문장을 추가하여 논지를 보강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구는 많고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높아졌는데, 이를 충족해 줄 자원이나 주거 공간, 사회 기반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자연을 개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 ② 현대 사회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를 치유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 ③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가 조금 오염되어도 오래지 않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인간이 이 점을 잘 활용하면 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자연은 생명이 있어서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성질을 인간이 명확히 밝혀내어 잘 활용하면 식량을 획기적으로 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⑤ 자연의 힘은 크고 인간의 능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연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나아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인간에게’로 바꾼다.
- ② ㉡은 ‘어떤 결과가’가 주어이므로 ‘예측될 수 없으며’로 고친다.
- ③ ㉣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추가한 경우이니 ‘더 나아가’로 바꾼다.
- ④ ㉤은 문장의 호응 관계에 맞게 ‘~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 ⑤ ㉤은 ‘범위’가 넓이의 개념이므로 호응을 고려하여 ‘확장되는’으로 바꾼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助詞)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ㄷ.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 ① ㄱ의 '께서, 에'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14.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 구조가 다름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보 기>—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놓다'는 '...에 ...을 놓다' 구조로 쓰이느냐, '...을 놓다'의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어떤 장소에 무엇을) 두다(置)"의 뜻에 가까우나, 후자는 "(잡고 있던 것을) 풀다(放)"에 가깝다.

- ① ㄱ 우리 형은 세상 물정에 밝다.
ㄴ 오늘밤은 유난히 달이 밝다.
- ② ㄱ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ㄴ 그 설명은 수궁이 간다.
- ③ ㄱ 우리 팀은 상대 팀에 깨지고 말았다.
ㄴ 둘 사이의 약속이 깨진 원인은 무엇일까?
- ④ ㄱ 철수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ㄴ 이 집안에는 딸의 행동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 ⑤ ㄱ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ㄴ 커피 잔을 기울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15~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풍이 건똥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의 달이 쫓아 ㉡ 배개 말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五色線) 풀어 내어
㉣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

(나)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
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갈단들 어느 때고
㉡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
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
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
리가 만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 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에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A]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B]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별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 ④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 ⑤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6. <보기>는 (가)의 작가가 쓴 한시(漢詩)이다.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궁궐 담 남쪽 언덕에 나무는 푸르고 푸르리니
 돌아가는 꿈이 멀리멀리 옥당(玉堂)에 오른다
 두견새 슬피 울자 산에 대나무가 떨어지니
 고신(孤臣)의 머리털이 이때에 더욱 세어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7.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기대감의 이유	현실의 확인	현실 극복을 위한 행위
봄	동풍	(ㄱ)	저 매화를 꺾어 임 계신 데 보내고자 함
여름	새 잎	나뭇지마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음	(ㄴ)

(ㄱ)

(ㄴ)

- ① 녹음이 깔림 제도를 잘 갖추
- ② 암향이 일어남 백옥함에 담아 둠
- ③ 산과 구름이 험함 오색실을 풀어 냄
- ④ 적설을 헤쳐 냄 부용을 건어 놓음
- ⑤ 가뭇 냉담함 임의 옷을 지어 냄

18. (나)에서 ㉠과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파악으로 올바른 것은? [1점]

㉠

㉡

- ① 생산과 풍요 죽음과 상실
- ② 순수한 사랑 죽음과 상실
- ③ 인생무상 재회에 대한 믿음
- ④ 생산과 풍요 윤회에 대한 확신
- ⑤ 순수한 사랑 재회에 대한 믿음

19. <보기>를 (나)로 바꿔 썼다고 할 때,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갈까 부다, 갈까 부다, 임 따라서 갈까 부다. 천 리라도 따라가고 만 리라도 갈까 부다.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수지니, 날지니, 해동청, 보라매 다 쉬어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 갈까 부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제비 되어, 임 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노니다가, 밤중이면 입을 만나 만단 정회를 허고 지고, 뉘 년의 꼬임 듣고 영영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 ①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다.
- ② 해학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 ③ 음악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 ④ 우화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 ⑤ 관용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20. (나)와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어적인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설화적 인물과 사건을 빌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어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21. (다)에서, [B]에 비추어 [A]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세계로 몰입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② 낮은 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③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군.
- ④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⑤ 이상과 현실이 타협하는 계기가 되는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왕조는 유교 정치를 표방하여 오래도록 문(文)을 숭상하였다. 규장각은 이러한 전통 아래 정조(正祖) 때 왕실 도서관 겸 학술 연구 기관으로 출발하여, 나중에 정책 연구의 기능까지 발휘한 특별 기구였다.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하던 해(1776년)에 창설되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발족이 아니라, 정조가 동궁(東宮) 시절에 경희궁에 살면서 설치·운영해 온 기구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정조는 즉위한 다음날 창덕궁 후원의 연지(蓮池) 북쪽 언덕에 이층 건물을 새로 짓도록 하고 이름을 주합루(宙合樓)라 하였다. 이 건물 1층의 이름을 처음에는 어제존각(御製尊閣)이라

하였다가 얼마 후 규장각(奎章閣)으로 개칭하여 자신의 왕위(王威), 즉 국왕으로서의 위엄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규장’이란 본래 제왕이 지은 시문이나 조칙 등의 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원래 규장각은 ㉠ 국왕 관련 자료들을 봉안하는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정조가 직접 정사를 주재하면서부터 정치적 선도 기구로 일신되었다. 이때부터 규장각의 제학(提學) 이하 관리 6인으로 하여금 다른 관직을 겸하게 하였다. 이들 대부분을 홍문관(弘文館)의 관직을 겸하게 함으로써, ㉡ 이들 중심으로 근시직(近侍職), 즉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관직을 일원화 하다가피 하였다. 이들은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였을 뿐 아니라, ㉢ 과거 시험과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를 함께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반 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비행을 저지른 관원을 탄핵하는 권한도 가졌다.

문(文)을 숭상하던 조선 왕조의 국왕은 ㉣ 도서의 수집·관리를 중시하였다. 이 업무가 규장각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였다. 정조는 세손(世孫) 시절부터 도서를 수집하였는데, 이들 장서는 즉위 후에 주합루 옆의 서재로 옮겨졌다. 정조가 자신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청나라로 가는 사신들에게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사 오라고 명령한 것은 그의 도서 수집열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이다. 청나라의 『사고전서』 편찬 사업은 이때 아직 진행 중이었으며, 실령 그것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규장각의 장서 규모는 정조 20년 무렵 8만여 권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규장각에는 부속 기관으로 교서관(校書館)이 있어서 서적 출판을 전담하였다. 조선 시대 정부 인쇄소라고 할 수 있는 교서관은 본래 예조 소속이었는데,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국왕의 거처인 창덕궁 가까이로 옮긴 것이다. 정조는 인쇄술에도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 최소한 5종 100만 자 가량의 활자를 만들어 ㉢ 새 저술을 간행하였다.

규장각은 정조 왕정 체제의 중심 기구였기 때문에, 정조의 죽음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규장각 관리들에게 부여되었던 특별한 권한이 정조 사후 모두 철회되면서, 정치적 선도 기구로서의 기능은 유지될 수 없었다. 규장각은 역대 왕들의 글과 도서를 관리하는 기능만 가지는 기구로 남게 되었다.

* 초계문신 제도: 젊은 문신들을 뽑아 재교육시키던 제도.

22.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규장각의 위치
- ② 규장각의 창설 목적
- ③ 규장각의 변모 과정
- ④ 규장각 관리들의 권한
- ⑤ 규장각의 장서 보관 방법

23. ㉠~㉣에서 <보기>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을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승정원이나 홍문관은 그 인선 방식이 해이해져 종래의 타성을 조속히 지양할 수 없으니, 짐이 의도하는 혁신 정치의 중추로서 규장각을 세웠노라.” - 정조(正祖)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4. 위 글의 설명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글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ㄴ. 어려운 용어를 풀어 써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ㄷ.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핵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ㄹ. 대조와 유추의 방법으로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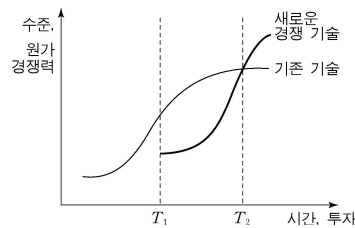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5. ㉠의 문맥적 의미와 같은 것은? [1점]

- ① 그는 포위망을 뚫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 ② 학생들이 빠져나간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 ③ 기업 정보가 경쟁 기업에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 ④ 나는 너무 오랫동안 걸어서인지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 ⑤ 동네 처녀들은 이 시골구석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경쟁과 대체 과정을 S 곡선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그림에 나타난 S 곡선은 기술의 수준 및 원가 경쟁력이 시간의 경과와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시장의 입지를 확보한 기존 기술은 그림에서 왼쪽에 위치하며 경쟁 기술을 나타내는 S 곡선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기존 기술의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

는지 곡선의 모양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곡선은 처음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상승한다. 경쟁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T₁) 기존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성숙기에 다다른 상태이다. 성숙기에 이르면 기술 수준의 개선 속도가 현저히 둔화된다. 그 이유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개선이 반복되면서 원가 절감과 기술 수준 향상의 기회를 대부분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악한 편이며, 미해결 문제도 많이 남아 있다(T₁ 부근). 이러한 약점 때문에 기존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경쟁 기술

을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들 역시 경쟁 기술의 수준이 떨어지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를 무시한다. 조지 이스트먼이 19세기 후반에 개발한 카메라용 롤필름은 당시의 표준 기술이었던 화학 코팅 유리판이 만들어 ㉠ 내는 뛰어난 영상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사진 전문가는 물론 아마추어까지 롤필름을 완강히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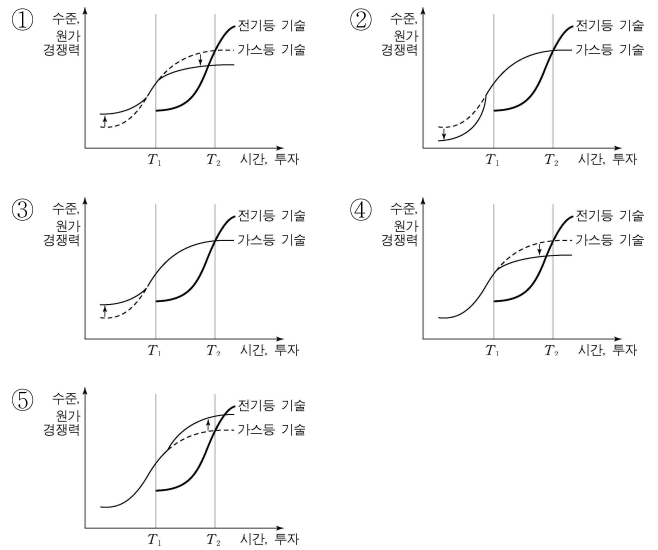
그러나 경쟁 기술의 초기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해결된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원가도 떨어진다. 즉, 경쟁 기술의 수준이나 원가는 처음에는 개선의 속도가 느리지만 점점 그 가속도가 붙는다. 특정 시점(T_2)에 이르면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의 수준과 원가를 모두 따라잡는다. 그리고 기존 기술과 달리 경쟁 기술은 개선될 기회가 여전히 많다. 꾸준히 개선된 경쟁 기술은 마침내 기존 기술을 밀어내고 주역을 차지한다. 오늘날 롤필름 사진은 다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영상의 도전을 받고 있다. 롤필름은 개선의 한계에 이른 상태이지만, 디지털 영상은 지속적인 기술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경쟁 기술은 처음부터 기존의 기술과 전면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다. 그 대신 경쟁 기술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선도 사용자를 파고든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엔진 기술은 혁신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고속 주행의 성능은 없었다. 그러나 연비와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일부 운전자는 전통적인 성능상의 특징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고객들은 신기술의 위험과 비싼 차량 가격도 꺼려 하지 않았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S 곡선 이론에 따라 성능과 원가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판매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어떤 방법으로 기존 기술을 몰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8. <보기>의 상황을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 점선은 변화되기 이전의 곡선이고, 실선은 변화된 이후의 곡선이며, 화살표는 변화 방향이다.) [3점]

<보 기>

전기등(電氣燈)의 보급이 시작되어 가스등(gas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무렵, 발명가 벨스바크는 가스등의 효율을 다섯 배 개선하고 가스 사용량도 3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 하나가 초기 단계에 있는 전기등 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었다. 그로 인해 에디슨은 전기등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데 12년이나 걸렸다.



29. S 곡선 이론을 공부한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쟁 기술에 투자를 늘리면 기존 기술을 더 빨리 따라잡겠군.
- ② S 곡선의 구체적인 형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어.
- ③ 기존 기술과 경쟁 기술의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은 T_2 시점부터일 거야.
- ④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데 실패한 경쟁 기술은 이 이론으로 분석될 수 없군.
- ⑤ 기술의 대체 과정을 일반화한 것이어서 실제 적용상에는 주의할 점이 있을 거야.

30. ㉠과 쓰임이 다른 것은? [1점]

- ① 이순신은 적의 침공을 막아 내었다.
- ② 김 선생은 시험 문제를 이틀에 걸쳐 내었다.
- ③ 오빠는 유리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 내려고 애썼다.
- ④ 어떻게 해서든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고야 말겠다.
- ⑤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

26.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기존 기술은 성숙기를 지나면서 기술의 개선이 어려워진다.
- ② 경쟁 기술은 초기에 선도 사용자들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된다.
- ③ 경쟁 기술은 가격을 높임으로써 기존 기술과 경쟁하려고 한다.
- ④ 경쟁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경쟁 기술의 도전을 받는다.
- ⑤ 기존 기술의 수준은 특정 시점에 이르러 경쟁 기술에 의해 추월된다.

27. 위 글에서 중심 화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개념의 정의와 설명 대상의 유형화
- ② 이론의 변모 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
- ③ 통계 수치를 활용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
- ④ 실제 사례와 시각 자료를 통한 구체적 설명
- ⑤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 원리 도출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 한림의 아버지 유공은 이윽고 주파를 보내 사 급사 부인에게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다. 사 급사 부인이 주파를 불러 보았다. 주파는 먼저 유공의 가문이 대대로 부귀하며 한림의 문체와 풍류가 빼어남을 칭찬했다.

주파는 이어서 다시 말했다.

“어느 재상인들 유공에게 혼인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유공께서는 ‘소저의 자태가 국색(國色)이요 재덕이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이에 소인으로 하여금 중매를 서게 한 것입니다. 소저께서는 유공 덕의 폐백을 받는 날 바로 명부(命婦)*가 되실 것입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그렇지만 소저와 의논하고자 하여 주파를 기다리게 하고 손수 소저의 침소로 갔다. 부인은 주파가 말한 대로 전하고 소저의 뜻을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을 숨기지 말아라.”

그러자 소저가 대답했다.

“소녀가 들으니 유공은 당대의 어진 재상이라 합니다. 혼인을 맺음에 불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파의 말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가 듣건대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되 색(色)을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을 가지고 시집을 가되 색으로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파가 먼저 소녀의 색을 칭찬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공 덕의 부귀함은 크게 자랑하면서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성덕(盛德)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파가 미천한 사람이라서 유공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소위 ‘유공이 어진 사람이다.’고 하는 말은 헛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녀는 그 덕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 급사 부인은 평소 딸을 몹시 사랑했다.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었겠는가? 부인은 밖으로 나가 주파에게 말했다.

“유공께서는 소녀의 재색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것이오, 소녀는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였소. 손으로 직접 방적(紡績)하면서 여공(女工)이나 조금 익혔을 따름이러오. [A] 어찌 부귀한 집안의 부인에 걸맞은 화용 성식(華容盛飾)이 있을 리가 있겠소. 혼사를 맺은 후에는 필시 소문과 다르다 하여 죄를 얻을 것이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청컨대 그렇게 회보해 주시기 바라오.”

주파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재삼 흔쾌한 승낙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 부인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었다. 주파는 돌아가 그대로 유공에게 아뢰었다.

유공은 자못 불쾌했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다시 주파에게 물었다.

“애초 자네가 무엇이러 말씀을 하셨던가?”

주파는 자신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전했다. 그제야 유공은 깨닫고서 웃었다.

“내가 일에 소홀하여 자네를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일세. 잠시 물러나 계시게.”

유공은 그 이튿날 친히 신성현으로 가서 지현(知縣)을 만났다. 사 급사 덕에 청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일찍이 주파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저 덕의 대답이 이리이러했습니다. 필시 주파가 실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고롭겠지만 선생께서 한번 사 급사 덕을 방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현이 대답했다.

“유공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 급사의 청명(淸名)을 흠모하며 또한 소저가 부덕(婦德)을 갖추었다고 들었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덕에서 의당 허락하실 것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지현은 마침내 아전을 사씨 덕으로 보내어 ‘지현 상공께서 장차 찾아오실 것이다.’고 전하게 했다. 부인은 그 행차가 혼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객당을 청소하고 지현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지현이 도착했다.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희랑을 품에 안고 나아가 지현을 영접했다. 유모는 객당 마루로 지현을 안내하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린 주인께서도 나이가 어려 아직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르십니다. 지현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지현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지. 어제 유공께서 관아로 오셔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네. ‘아들 혼사 때문에 처자가 있는 집을 찾은 바가 적지 않았으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듣건대 사 급사 덕의 처자는 유한하고 요조하여 여사(女士)의 풍모가 있다 합니다. 이는 진정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 사 급사의 청명(淸名)과 직절(直節)은 평소 흠양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파를 보냈으나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파가 실언하여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고 말이지. 이제 나를 중매로 삼아 혼인을 맺으려 하신다네. 이는 좋은 일이지. 바라건대 부인에게 아뢰어 한 마디 승낙하신다는 말씀을 얻고자 하네.” 유모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지현께서 제 딸의 혼사를 위하여 누실(陋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바 유공 덕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공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유공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유 한림이 육례(六禮)*를 갖추어 친히 신부를 맞이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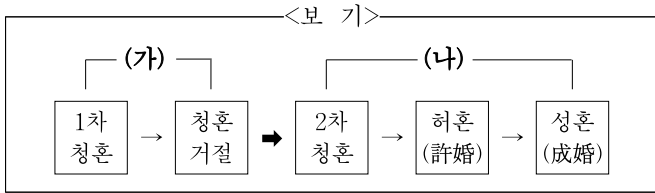
* 명부(命婦): 국가로부터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

* 육례(六禮): 혼인의 여섯 단계 절차.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와 과거 장면의 교차가 빈번하다.
- ② 사건 전개가 전기적(傳奇的)이고 우연적이다.
- ③ 등장인물들 사이에 생겨났던 오해가 해소된다.
- ④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 잘 드러난다.
- ⑤ 환상적 장면 묘사를 통해 탈속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32. <보기>는 위 글의 혼인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와 (나)의 차이점을 잘못 정리한 것은? [3점]



- | | |
|---------------------------|----------------|
| (가) | (나) |
| ① 청혼하는 자 : 경솔하게 생각한다. | 신중하게 행동한다. |
| ② 전달하는 자 : 용모와 부귀를 강조한다. | 덕성과 가풍을 강조한다. |
| ③ 접대의 양상 : 사 급사 부인이 맞이한다. | 소공자(유모)가 맞이한다. |
| ④ 혼인 당사자 : 자기 주장을 펼친다. | 혼인 의사를 직접 밝힌다. |
| ⑤ 사건의 결과 : 혼인이 성사되지 않는다. | 혼인이 성사된다. |

33. 문맥을 고려할 때, [A]의 말하기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요점을 반복하여 말한다.
- ②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완곡하게 말한다.
- ③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익살과 기지를 섞어 말한다.
- ④ 상대방과 대립될 때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말한다.
- 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한다.

34. ㉠에 나타난 부인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요지부동(搖之不動) ② 오불관연(吾不關焉)
- ③ 삼고초려(三顧草廬) ④ 노심초사(勞心焦思)
- ⑤ 유구무언(有口無言)

35. ㉡으로 보아 '사 급사'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렁침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서 천년만년(千年萬年) 지내리라
- ②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남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매라

- ③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④ 재 너머 성 권농(成勸農) 집의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글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鄭座首) 왔다 하여라
- ⑤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예 들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뜯 맑은 물에 산영(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는 엔가 하노라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A]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 ②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 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 ③ 50달러와 25달러로 나누어 받는 것보다 75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데 반해, 150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100달러를 내고 다음에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 ④ '1×2×3×4×5×6×7×8'이라고 칠판에 쓰면서 5초 이내에 답하라고 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낸 답의 중앙값은 512였으나, '8×7×6×5×4×3×2×1'이라고 쓴 경우에는 2,250이었다. 정답은 40,320이다.
- ⑤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데 반해, 12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2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 ②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 ③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 ④ 확률 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 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

37.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1점]

- ①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 ②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 ③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비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 ④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 ⑤ 과학의 장점은 우리 인간을 미혹으로 이끄는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는

38.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전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다섯 번 연이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39. [A]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실험자들에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버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앞의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댓값(3,200달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80%가 확실하게 3,000달러를 버는 쪽을 선택하였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한 것이다.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물었다. 이 실험에서는 92%의 응답자가 손실의 기댓값이 더 큰 도박 쪽을 택했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한 것이다.

- ①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은.
-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군.
- ③ 경제학적 합리성에는 위배되더라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군.
- ④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군.
- ⑤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 값이 기댓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하는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쌍의 단어를 열거할 때 화자에게 더 가까운 것을 먼저 들고 더 먼 것을 나중에 든다. ‘내일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이라 하고 ‘저기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 하는 것은 ‘나’에게 가까운 ‘오늘’과 ‘여기’를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에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엄마를 먼저 표현하기 때문이다.

[A] 이른바 사은유(死隱喻)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바늘귀’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B]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단순한 개념은 그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그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인 ‘사람들’을 표현하지, 어떤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일정한 형태소를 첨가하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하다’에 ‘안’을 더해 ‘안 하다’라는 표현을 형성하거나 ‘do’에 ‘not’을 더해 ‘not do’라는 표현을 만들지만, 그 반대의 표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그 단위를 분리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끼어들고 싶을 때, 사람들은 화자가 말하는 중간에 아무데서나 끼어들지 않고, 적어도 한 문장이 끝났을 때를 기다려 자기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문장 중간이 아닌 주어와 술어의 경계에서 휴지(休止)를 갖고, 단어의 중간이 아닌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서 “어-, 어-”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한 단위를 분리 혹은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청색과 녹색을 ‘푸르디’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색채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색채어가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색에 대해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심리 작용이 언어의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40. 위 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1점]

- ① 언어가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가?
- ② 언어와 인간의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③ 언어 표현이 사고력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④ 인간의 의식이 언어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언어 구조가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41. [A]의 논지로 볼 때,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입방아를 쪼다.
- ② 말허리를 자르다.
- ③ 상다리가 부러지다.
- ④ 병목 현상이 생기다.
- ⑤ 치마가 버선코를 가리다.

42. [B]의 논지를 보강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대명사 ‘너, 저’에 ‘-회’가 붙어 ‘너회, 저회’가 만들어진다.
- ② 양수사 ‘셋, 넷’에 ‘-째’가 붙어 서수사 ‘셋째, 넷째’가 만들어진다.
- ③ 예사말 ‘사장, 과장’에 ‘-님’이 붙어 높임말 ‘사장님, 과장님’이 만들어진다.
- ④ 동사 어간 ‘오-, 가-’에 ‘-라, -자’가 붙어 활용형 ‘오라, 가자’가 만들어진다.
- ⑤ 능동사 ‘보다, 막다’에 ‘-이-, -히-’가 붙어 피동사 ‘보이다, 막히다’가 만들어진다.

43.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 ②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③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며,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④ 언어가 갖는 현실의 창조와 사람됨의 창조, 이 두 기능은 서로 불가분의 필연적인 보충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로 이루어지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속담은 화용론적 부차 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 왜냐하면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다 하여 특정한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만으로 속담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4~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필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쇠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寺內)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찬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물 것이 푹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 **수작**이다.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 보시려우?”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낸다. 게다가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 **촌뜨기**를 쾀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 뿐이겠나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 오는 수작이다.
 “그러나 밀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 하여야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제 판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 주는 듯 싶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에 속으로 헤에 하는 ㉢ **기색**이다.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데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필자는 더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데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의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옥탕에서 시뻘겍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 **그자**도 물 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불러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苦力)*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 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낸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중략)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 하구 못 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는 데다가 샅전이 험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품삯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 **놈**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췌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타는지, 별안간에 옥객의 한 떼가 또 왈차하고 들이 밀러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흠치기 시작하였다.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언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려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 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나도 열 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
 * 생번: 교화되지 않은 야만인.
 * 요보: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얕잡아 부르던 말.
 * 쿨리: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중국인·인도인 노동자.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 ②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45. 위 글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다. 판단의 내용과 근거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	판단 내용	판단의 근거
①	시골자	어수룩함	자신을 충동하는 '그'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②	시골자	어리석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의 부하라도 되겠다고 결심한다.
③	그	눈치 없음	주변 사람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떠든다.
④	그	용의주도함	질문을 통해 '시골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간다.
⑤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	소심함	확자하게 들어온 '육객'을 의식해 말을 멈춘다.

46.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 처음 간다', '승객'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인물들은 여행 중인 것 같다. 이 작품에서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② 지식인인 '나'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세계관이 '나'에 투영되었을 수 있겠군. 작가의 생애를 조사해 보아야겠어.
- ③ 작가는 풍자적인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청년들의 윤리 의식의 부재를 고발하는 것 같아.
- ④ 농민들의 어려움을 서술한 부분들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궁핍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어. 당시의 신문을 통해 실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어.
- ⑤ 조선인 노동자를 잔값에 일본으로 팔아넘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인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비인간적 행태를 납득할 수 없었어.

47. [A]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③ 자기 정체성에 대해 책상물림이라고 자조(自嘲)하고 있다.
- ④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이상과 가족들의 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48. ㉠~㉣에서 낮잠이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성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취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해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A]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思考)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事故)가 난 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한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화된다. 잠시 후 새 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만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장녀 (관객들에게) ㉡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교수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교수 (하품을 하며) 그래, 읽어다오.

[B] 장녀 (신문을 읽는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요.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요. 아버지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 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씨가 또 당선됐답니다.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끔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대요.

교수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장녀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장녀 뭘 번역을 하세요?

교수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장녀 ㉠ 아버지두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교수 (신문을 보더니) ㉡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시계가 여덟 번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쇄를 바꾸어 맨다.

- 이근삼, 「원고지」 -

51. [B]에 대한 독자(관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의 부조리한 상황을 풍자하고 있군.
- ② 정보를 전달하는 인물의 감정도 섞여 있군.
- ③ 실제로 발생하기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군.
- ④ 사건들이 서로 긴밀한 인과 관계를 맺고 있군.
- ⑤ 짧은 문장을 써서 대사의 속도감이 느껴지는군.

52.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대사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점]

<보 기>

희곡에서 대사는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며, 무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물학을 비롯한 다른 과학 분야에는 물리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 질문'이라고 해 두자. 만일 우리가 생물학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지구 위에 그런 생물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궁금해질 것이다. 이 의문에 부분적인 해답을 주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인데, 이는 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이론이다. 지질학의 경우에도 우리는 산의 생성 과정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의 생성 과정, 더 나아가서는 은하계의 기원까지도 알고 싶어한다. 물론 이러한 의문은, "이 세상은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별들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별이 처음 생성되던 시기의 초기 조건은 어떠했는가?" 이것은 또 천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역사적 질문'이다. 별과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으며,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우주의 기원도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물리학은 '역사적 질문'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여기 물리학 법칙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법칙이어야 하는가?" 물리학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이 없다. 물리학자는 하나의 물리 법칙을 발견했을 때, "이 법칙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이 되었을까?", "변하기 전의 법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등등의 의문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는다. 물론 물리 법칙은 시간과 함께 변할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물리학의 '역사적 질문'은 곧 우주의 역사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때부터 물리학자는 천문학자나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과 동일한 주제를 놓고 대화하게 될 것이다.

49. 위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도구를 활용하여 주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② 무대 장치의 전환 없이 조명을 통해 장면이 바뀌고 있다.
- ③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통명사로 제시함으로써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장녀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 ⑤ 천사와 감독관이 대립하는 장면을 통해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을 비판하고 있다.

50.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교수는 잃어버린 희망과 정열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 ② 교수는 천사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교수는 꿈과 정열을 잃어버린 책임을 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④ 천사는 언어유희를 통해 교수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있다.
- ⑤ 천사는 절망한 교수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나) 생물학자가 “왜 구대륙에는 벌새가 없는가?” 또는 “인간 종은 어디서 유래했는가?”와 같은 특수한 사건에 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할 때, 보편적 법칙에 의존할 수는 없다. 생물학자는 특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사실들을 연구해야 하고, 재구성된 한 무리의 요인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결과들을 추론해야 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의 관찰 사실들을 설명할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역사적 서술’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인과 법칙적 설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논리학, 수학 또는 물리학에서 출발한 고전 과학철학자들은 그것을 아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고전적 관점이 편협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 ‘역사적 서술’의 접근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유일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역사적 서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과학이 포괄하는 체계가 복잡할수록 그 체계 내의 상호 작용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이들 상호 작용은 관찰만으로 그 인과 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단지 추론만이 가능하다. 그러한 추론은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학자의 배경과 경험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훌륭한’ 설명을 두고 종종 논쟁이 야기된다. 또한 모든 ‘역사적 서술’은 반증이 가능하고 언제라도 또다시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5. (나)의 글쓴이가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과 같은 견해는 공룡 멸종 이후 포유류가 번성한 이유에 대한 생물학계의 설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역사적 서술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기 말기에 공룡이 멸종했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가졌던 역할 및 지위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 틈을 타 포유류가 눈부시게 번성하였다.

- ① 이 시나리오는 고전 과학철학자들에게는 수용되지 않겠군.
- ② 생물학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명이므로 반증 가능성이 없겠군.
- ③ 포유류 번성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알맞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겠군.
- ④ 연구자의 배경과 경험에 의존한 추론으로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겠군.
- ⑤ 이 시나리오의 구성을 위해 포유류 번성과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사실들을 연구하였겠군.

56. 위 글의 논지로 보아 ㉠과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별의 구성 물질
- ② 별의 진화 과정
- ③ 산맥의 생성 과정
- ④ 구대륙에 벌새가 없는 이유
- ⑤ 지구 위에 존재하는 생물의 유래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불리는 가곡의 종류는 모두 41곡으로 남자가 부르는 남창(男唱)에 26곡, 여자가 부르는 여창(女唱)에 15곡이 있다. 그러나 그 레퍼토리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조시(時調詩)를 ㉠ 얹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초삭대엽(初數大葉)’이라는 곡이 있다면, 그것의 선율에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를 얹어 부르기도 하고, 다른 시조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가사를 얹어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 바꾸기’와 유사하다.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맨 첫 곡인 ‘초삭대엽’부터 끝 곡인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부르는 연창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연창의 무대를 ㉡ 접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래밍에 가곡을 한두 곡 정도 끼워 넣어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3.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 ② 진화론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 ③ 과학철학자 중에는 인과 법칙적 설명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
- ④ 지질학에서는 은하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 ⑤ 복잡한 체계일수록 관찰만으로 그 상호 작용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54. (가)의 글쓴이와 (나)의 글쓴이가 말을 주고받았다고 할 때, 각자의 관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물리학자는 현재 ‘역사적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② (나): 생물학자는 보편적 법칙으로 특수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③ (가): 그 특수한 문제는 ‘역사적 질문’과 상통하는 것이겠지요.
- ④ (나): 그것은 ‘역사적 서술’이라는 접근 방법으로 타당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 ⑤ (가): ‘역사적 질문’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할 것 같군요.

가곡의 장단에는 16박(拍)과 10박의 두 가지가 있다. 장단은 장구로 치는데, 복판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다른 악기들과의 음량을 조절한다. 16박과 10박 모두 10점(點)으로 장단을 친다. 그래서 '10점 16박', '10점 10박' 등으로 일컫는다. 10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에 손이 가서 소리를 내는 타점(打點)이 10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박과 10박에는 장단의 기본 형태인 덩(㉠), 쿵(○), 덕(ㅣ), 기덕(ㅣ), 더러러러(∴) 등이 10번 들어 간다는 말이다.

10점 16박 장단의 보기 (1칸 20~40 빠르기)

㉠ ∴ ○ ㅣ ㅣ ○ ○ ㉠ ∴ ○

10점 10박 장단의 보기 (1칸 75~80 빠르기)

㉠ ∴ ○ ㅣ ㅣ ○ ㅣ ㉠ ∴ ○

위의 그림에서 10점 16박의 빠르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칸이 서양 음악의 빠르기를 기준해서 20~40이다. 음악의 빠르기는 특정 음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 연주하라는 것이다. 빠르기가 20이라면 1박은 3초가 소요되고, 30이라면 1박은 2초가 된다. 보통 빠르기가 90~110 정도인 서양 음악과 비교하면 가곡은 너무 **㉠ 느리다**. 그래서 실제 가곡을 들어 보면, 그 가사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처럼 가곡의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운 데는 노래 가사에 한문구(漢文句)가 종종 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래 가사가 모음 변화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아'는 '아으'로, '에'는 '어으이' 등으로 발음한다. '청석령'이라는 노래 가사는 '청서—호—억려—'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쫓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가곡이 성행하던 시대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가곡이란 명칭도 가사를 노래한다기보다, 곡조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 인내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첫 곡인 '초삭대엽'을 한번 끝까지 감상해 보라. 곡의 중반부를 **㉠ 지나기**도 전에 시시콜콜한 일상의 잡념들은 사라지고, 해질녘의 고즈넉한 평온이 조용히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곡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 감흥에 **㉠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58. 위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장단과 연주 시간을 나타내면? [1점]

<보 기>
(1칸 60 빠르기)

㉠ ○ ㅣ

	장단	연주 시간
①	3점 3박	3초
②	3점 3박	4초
③	3점 5박	4초
④	3점 5박	5초
⑤	5점 3박	5초

59.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곡은 동일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많구나.
- ② 가곡을 한두 번 듣게 되면 가사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③ 가곡은 가사가 시조시인 것으로 봐서 식자층이 많이 향유했겠구나.
- ④ 성격이 급한 사람이 가곡을 들으려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겠구나.
- ⑤ 현대인은 가곡이 연창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겠구나.

60. ㉠~㉠을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붙여
- ② ㉠: 만나기
- ③ ㉠: 더디다
- ④ ㉠: 넘어가기
- ⑤ ㉠: 잠겨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57.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악 속에 담긴 선인들의 여유
 - ② 소재로 살펴본 시조와 가곡의 관계
 - ③ 우리 가곡에 끼친 서양 음악의 영향
 - ④ 장단과 가창 방식으로 본 가곡의 특징
 - ⑤ 자유로운 변주가 가능한 우리 음악의 속성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1	③	16	③	31	③	46	③
2	①	17	⑤	32	④	47	⑤
3	③	18	⑤	33	②	48	③
4	②	19	①	34	①	49	⑤
5	⑤	20	③	35	③	50	⑤
6	①	21	③	36	④	51	④
7	④	22	⑤	37	④	52	②
8	⑤	23	③	38	②	53	④
9	④	24	①	39	①	54	②
10	⑤	25	③	40	②	55	②
11	①	26	③	41	①	56	①
12	②	27	④	42	④	57	④
13	④	28	⑤	43	②	58	④
14	④	29	③	44	⑤	59	②
15	⑤	30	②	45	①	60	③

제 1 교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 됩시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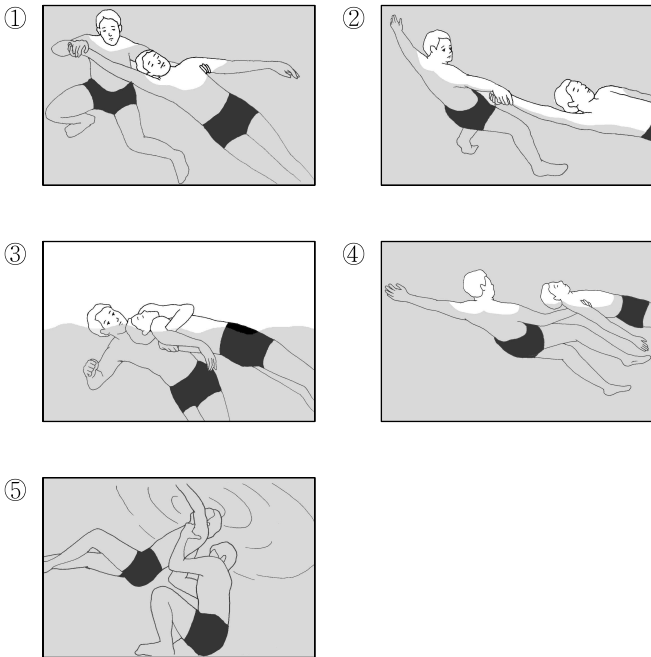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강의에서 활용한 그림 자료가 아닌 것은? [1점]



2. (물음) 이 뉴스를 들은 청취자가 보도 내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은?

- ① 새 은행권의 규격과 도안은 어떻게 될까?
- ② 왜 도안 인물을 교체하지 않기로 하였을까?
- ③ 왜 오천 원권만을 먼저 발행하기로 하였을까?
- ④ 왜 최근 들어 위폐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을까?
- ⑤ 위폐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3. (물음)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했을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첫째 답변 ② 둘째 답변 ③ 셋째 답변
- ④ 넷째 답변 ⑤ 다섯째 답변

4. (물음) 학생이 발표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 ① 초가집에 사용된 재료의 다양성
- ② 초가집에 숨어 있는 수학적 원리
- ③ 초가집에서 발견되는 예술적 가치
- ④ 초가집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지혜
- ⑤ 초가집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5~6]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청취자의 반응 중, 대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나는 낮잠을 많이 자서 불면증에 걸렸구나.
- ②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겠구나.
- ③ 잠을 적게 자는 것보다 불규칙하게 자는 것이 더 해롭구나.
- ④ 요즘 내가 멍하고 예민한 게 수면 부족과도 관련이 있겠구나.
- ⑤ 몸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주말에도 잠을 적당히 자야겠구나.

6. (물음)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청취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② 전문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답변을 요약하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④ 진행자 개인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대담에 설명을 덧붙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할 때, <보기>에 따라 생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사물 B가 사물 A에 대해 갖는 의미를 고려한다.
- 두 사물 A와 B의 관계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한다.

A - B	↓		
도로 - 중앙선	⇨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정책 집행에서 일정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①
책상 - 책상 다리	⇨	정책을 펼 때에도 경제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여성 등의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퍼즐 - 퍼즐 조각	⇨	사회 구성원은 저마다 다른 능력과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배척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③
담 - 벽돌	⇨	또한 이해 관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④
꽃밭 - 꽃	⇨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가 아름다운 존재이며,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⑤

8.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을 소개하는 글 쓰기'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과제 수행을 위해 논의한 내용 중,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제목: ○○○의 생각을 찾아서
- 독자: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예상 독자로 설정할 것.
- 형식: 관광 안내 소책자에 실을 글로 작성할 것.
- 내용: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게 구성할 것.
- 표현: 내용을 흥미롭게 진술하되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
- 자료: 시각적 자료를 첨부할 것.

- ① 인물의 일화와 관련 있는 장소를 소개하여 인물의 자취를 느낄 수 있게 해야겠어.
- ② 글의 초점인 생각의 문화제적 가치를 밝히고, 보존 현황도 자세하게 소개해야겠어.
- ③ 인물의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진이나 삽화 등을 활용해야겠어.
- ④ 우리 고장 사람 중에 다른 고장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
- ⑤ 인물에 관련된 미담이나 난관을 극복한 내용이 포함된 이야기가 있다면 감동적으로 구성해야겠어.

9. '의료 복지 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의 (가)~(다)를 모두 활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년도 자료에 따르면 계층 간 보건 의료비 지출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격차는 2.8배로 외환 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이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의료 서비스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신문 기사에서 -

(나)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

(다) 암,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 환자는 입원 치료 시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과목이 많아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률이 50%를 넘고 있다.
- ○○신문 기사에서 -

- ① 계층 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②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 ③ 계층 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빈곤층에게 세계 혜택을 주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의료비 지출액을 산정하여 보험 적용 진료 과목의 범위를 확정할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⑤ 특정 계층의 의료비 지출 비용의 증가가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10. 일상 생활의 소재를 활용하여 쓴 짧은 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보 기>

- 선택된 제재를 1인칭 서술자로 설정한다.
- 적절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한다.
-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전시킨다.

- ① 지우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고통이 따르지만, 내 실수와 잘못을 덮어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 ② 수건: 햇빛이 나의 온몸에 스며든다. 바람이 불어 산들산들 흔들린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기운을 맛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 ③ 비누: 흐르는 물에 몸을 적신다. 부글부글 거품이 되어 누군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살아가지만, 정작 작아져 가는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

- ④ 분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철판 위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 때로는 딱딱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도 있지만, 삶의 기쁨을 전해 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 ⑤ 축구공: 드넓은 대지에서 뛰고 달리고 구르고 있다. 테굴테굴 굴러서 그물에 가 닿으면, 나를 보고 외치는 환호성에 들뜨면서도 다른 쪽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낀다.

11.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감상문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모양 도구 표 창 도움말

① 미술관에 다녀와서



지난 주말 '도미에(Daumier) 특별전'에 다녀왔다. 인터넷에서 미리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림을 보니 ㉠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컸고 세밀한 부분과 질감까지 느낄 수 있어 무척 신기했다.

전시작 가운데 인상깊게 본 것은 도미에의 특징적인 화풍이 잘 드러나 있다는 <삼등 열차>라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열차에 탑승한 서민들을 그린 것인데,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모습, 같은 표정이었다. 이웃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얼굴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마치 국어 시간에 배운 어느 시의 풍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 떠올라졌다. 아마 화가는 그림을 통해 삶에 찌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화가는 생활고로 인해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 도미에(Daumier, 1808~1879)는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를 풍자한 시사 만화가이자 화가이다. 그는 명암의 대조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상세히 묘사하는, 그 당시로서는 이색적인 화풍을 보였다고 한다.

㉣ 숙제라서 억지로 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뜻깊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이런 체험을 자주 해야겠다.

- ① ㉠: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도미에 특별전 - <삼등 열차>를 관람하고'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② ㉠: 문맥을 고려해서 '상상했던 것만큼'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떠올랐다.'로 고치는 것이 맞겠어.
- ④ ㉢: 화가에 대한 소개가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앞 문단에 화가의 화풍이 언급되었으니, 앞 문단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 상투적인 표현은 삭제하고, 감상 소감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어.

12. <가>와 <나>는 '자원 위기와 해양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협동 작문을 하는 과정에서 두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나>를 활용하며 <가>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 주제문: 미래 사회와 해양 개발 I. 서론: 해양 개발의 중요성 II. 본론 ㉡ 1. 해양 개발의 현황 2. 해양 개발의 필요성 가. 청정 대체 에너지원 확보 ㉢ 나. 해양 개발을 둘러싼 국제 분쟁 ㉣ 3. 해양 개발의 대안 ㉤ 가. 해양 자원과 개발 방향 나.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을 위한 과제 III. 결론: 해양 개발의 의의와 전망	㉠ 주제문: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로 자원 위기 시대에 대비하자. 1. 필요성 ㉡ 가. 해양 오염 방지 나. 관련 법안 마련 ㉢ 2. 사례 가. 동해 가스 유전 개발 나. 해저 광물질 발견 3. 대상과 방안 ㉣ 가.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나. 해수 자원과 생물 자원 4. 문제점과 대책 가. 무분별한 개발 나. 해양 자원 고갈

- ① ㉠은 관점과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로 대체하자.
- ② ㉡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 항목으로 '해양 개발의 실태'와 ㉢를 추가하자.
- ③ ㉣은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로 대체하자.
- ④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해양 개발의 방향과 과제'로 고치자.
- ⑤ ㉤의 내용으로 ㉣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도 함께 제시하자.

13.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재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14.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을 위하여 언어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한 작업 결과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에 뜻풀이를 추가할 때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그들도 서로 약혼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는 내 말을 완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
 사냥 갔다가 그만 혼났다는 이야기는 석림이도 {듣고} 왔었다.
 나무 장수는 여편네의 목소리를 {듣고} “여보 사람이
 조카 만주 갔다 온 이야기를 수천 양반이 자세히 {듣고} 아마 직접
 새 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앞 강을 스쳐오는
 바보같이 그까짓 소리를 고깝게 {듣고} 그래.
 :

<국어사전>

듣다 [-따] [들어, 들으니, 듣는[듣-]] ㉠

㉠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
 ㉡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다.
 ㉢ _____

- ① 주로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
- ②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 ③ 기계나 장치 따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 ④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
- 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이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 대가리를 말한 썸이다.
 한 궤의 ㉡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벵어리를 말한 썸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 눈,
 북어들의 뺨뺨한 ㉣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멍멍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北魚)」 -

(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나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꿰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휘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흑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1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16. 시인이 시를 창작하면서 시상을 떠올린 과정을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청무우밭'은 '바다'의 색채와 형태에서 연상된 걸 거야.
 - ㄴ. '물결'과 맞서고 있는 '나비'의 모습에서 '공주'의 속성을 떠올렸을 거야.
 - ㄷ. '꽃이 피지 않아서'는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의 모습에서 연상되었을 거야.
 - ㄹ.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 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7. (나)의 주제 의식과 관련지어 볼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 ③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 ④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 작품의 내용과 정서를 고려할 때, (가)의 '나비'와 (다)의 화자가 나누었음직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의 화자: 우리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
- ② (가)의 '나비':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곳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 ③ (다)의 화자: 당신은 이미 그 곳에 가 보지 않았던가요? 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 ④ (가)의 '나비': 저는 너무 순진하게 덤벼들었다가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 ⑤ (다)의 화자: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들은 슬픈가 봅니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성인 문화에 비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 문화가 생산적 노동 관습에 순응하고 책임감을 갖는 데 비해, 청소년 문화는 소비에 열중하고 쾌락 추구적이며 기존 가치를 거부하려는 무책임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청소년을 경계에 놓인 존재이자 '정상적인' 문화로 계도해 가야 할 대상이라고 여긴다. 반면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그 나름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사는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의 문화도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문화를 ㉠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견해 차이는 청소년이 과연 고유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가치 있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에서 비롯된다. 현상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독자성을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 청소년의 행동 양식 속에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내려는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길거리 문화'이다.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는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누리는 생활을 근간으로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지만 여가 시간은 길거리라는 공간 속에서 걷고, 만나고, 놀고, 소비하며 보낸다. 이때 '길거리'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량이 다니는 거리만이 아니라 광장이나 공원, 음식점을 먹을 수 있는 곳,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곳, 각종 공연이나 문화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포함하는 공간 개념으로 사용된다.

학업 부담 때문에 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은 방과 후나 주말, 시험이 끝난 날 등 여유 있는 시간을 잡아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선다. 하지만 어떤 단일한 목적이 그들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패스트푸드점, PC방, 노래방, 공연장 같은 곳을 전전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행위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 보인다. 만나서 빈둥거리다가 물건을 구경하고, 웃고 떠들다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다시 길거리로 나선다.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일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학교나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차림새의 또래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들만의 연대 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길거리 문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들의 유대 관계가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여전히 그들의 문화는 '길거리'라는 상황과 결합되어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청소년들은 길

거리 문화를 소비 문화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나 관리가 아닌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 청소년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청소년은 학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 ② 청소년 문화는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 ③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연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 ④ '길거리'는 소비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청소년 문화를 계도 대상으로 보는 성인이 많다.

21.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유사한 것은? [1점]

- ① 잠시 일을 놓고 쉬는 중이다.
- ② 중매쟁이를 놓아 혼인을 주선했다.
- ③ 건강을 위해 밥에 콩을 놓아 먹는다.
- ④ 정신을 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 ⑤ 뒤편이만 놓고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22. ㉠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은? [1점]

- ① 문화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 ② 문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 ③ 문화는 세대를 이어 계승된다.
- ④ 문화는 사회 정책의 산물이다.
- ⑤ 문화는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23. 길거리 문화에 대한 반응 중, 위 글의 논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길거리 문화는 어른들도 겪을 수 있는 욕망의 표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인들도 향유할 수 있는 길거리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② 길거리 문화는 어른들의 문화를 모방하는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어른들의 퇴폐 향락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 ③ 청소년 문화는 잠재력과 창의성을 지닌 문화입니다. 미래의 문화를 위해서도 무엇이 그들을 길거리로 이끌어 내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 ④ 길거리 문화라는 불분명한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라는 불완전한 문화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길거리 문화는 전체 사회의 소비 문화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 ⑤ 우리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에도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이용 외에는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길거리 문화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백호산군이 왈,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쪽의 말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한 쪽의 말만 듣고 선불선(善不善)을 가버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야 종횡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쥐를 즉각 잡아 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하고,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졸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 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당한 쪽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서대쥐 고소를 당함에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쥐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쥐 호흡이 급해지고 땀이 배어 등을 적시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허둥지둥하거늘 서대쥐 왈,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헤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인하여 자손과 노복쥐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쥐 나음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 하는지라. 서대쥐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냐. 나는 층암절벽 한 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절승처에 산군을 모시니 유현(幽顯)*의 길이 다른지라. 마음은 항상 그윽하나 승안접사(承顔接事)*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추한 곳에 왕림하여 의외로 청안(淸眼)을 대하니 패자에차는 서서히 수작하려니와 일배 박주(薄酒)*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떠리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쥐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취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취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취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취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刑杖)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취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하매,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취 이처럼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너구리 가로되,

“그러면 ㉠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뇨.”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취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자취 화각(畫角) 모반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취 앞에 드리니, 서대취 황금을 가져 오소리 앞으로 밀어 놓으며 가로되,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매 마음에 심히 무정한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정을 표하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 웃으며 왈,

“서대취의 관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취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승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장(執杖)할 터이오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취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취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 소진, 장의: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달변의 정치가.
* 폐자: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글.
* 유현: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과 눈에 띄는 곳.
* 승안점사: 웃어른을 만나 뵙는 일.
* 박주: 맛이 좋지 못한 술.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④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로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5. 작중 인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취: 두 형졸에 대한 나의 대접이 소홀하여 부끄럽다.
- ② 백호산군: 다람쥐 말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③ 너구리: 이 기회에 서대취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
- ④ 장자취: 형편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⑤ 오소리: 평소 서대취의 행실이 불만스러웠다.

26. ㉠에 내포된 의미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죄를 자백하겠다고 하는가?
- ② 음식은 준비했다고 하는가?
- ③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는가?
- ④ 재판정에 나가겠다고 하는가?
- ⑤ 교만함을 사죄하겠다고 하는가?

27. 위 글을 읽고 나서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군.
- ② 관(官)의 힘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군.
- ③ 인정세태를 그리기 위해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기법을 사용했군.
- ④ 돈의 힘을 알고서 능란하게 쓸 줄 아는 인물의 처세를 보여주고 있군.
- ⑤ 질차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재판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청사기는 전통 도자 양식 중 하나로서 점토[청자토]로 만든 형상 위에 화장토[백토]를 칠한 전후에 바탕을 장식하고 유약을 발라 구워 낸 그릇을 말한다. 고려 말 퇴락해 가던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등장한 분청사기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 널리 쓰였다.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는 가장 순박하고 서민적이며, 일상의 생활 용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적 조형미도 매우 뛰어났다. ㉠

퇴락해 가는 예술로부터 태어나 실용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분청사기는 어떻게 해서 예술성을 얻게 되었을까? ㉡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는 국가에서 도자의 생산과 유통을 관장하였다.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관요(官窯)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 속에 상감청자 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도자들은 왕실과 사원, 귀족층을 위한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품질이 일정했다. 국가의 철저한 감독 아래 도공들은 독점적 생산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신분의 구속과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

14세기 후반 고려 왕조가 쇠운을 맞게 되자, 도공들은 정치적 혼란과 왜구의 침입을 피해 각지로 흩어져 살길을 찾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민간 가마터인 민요(民窯)가 만들어졌다. 민요의 등장은 관요에서 만들어 내던 상감청자가 근본적으로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된 도자기 수요에 부응하여 저렴한 생활 용기들을 제작하는 생산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고, 이전에 사용하던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일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조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숙련된 제조 기술을 보유한 도공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냈으며, 차츰 전통적인 도자 기술에 구애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분장 기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 새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서 서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상감청자와는 같지 않았다.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전통 도자 양식이 탄생한 것이다.

각 지방에서 ㉦ 이름을 얻은 분청사기들은 왕실이나 관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뛰어난 제품들은 토산 공물로서 중앙에 진상되었다. 그런데 상당수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간에서 착복되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세종 3년에 이르러 진상하는 분청사기 제품의 밑면에 ㉧ 장명(匠名)을 쓰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의 창작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지만, 이 조치는 도자 생산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도공들에게 두터운 전통의 경험 위에 그들 나름의 독특한 장인 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분청사기는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조형미를 갖춘 예술 형식으로 발전해 갔다.

28. 위 글에서 언급한 분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공예품으로서의 조형미가 뛰어났다.
- ② 여러 지역의 민간 가마터에서 만들어졌다.
- ③ 품질 관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 ④ 다양한 신분과 계층에서 사용한 생활 공예품이었다.
- ⑤ 상감청자를 계승하였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기법을 획득했다.

29.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여러 관점에서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 ②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였다.
- ③ 핵심적 문제를 제시한 다음,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해명하였다.
- ④ 비교되는 두 대상을 제시한 다음,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하였다.
- ⑤ 통념을 비판한 다음,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30. ㉠~㉣에 앞 문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뒷반침 문장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싼 게 비지떡이라고, 뛰어난 작품은 숙련된 제조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다.
- ② ㉡: 분청사기가 화룡점정(畫龍點睛)의 놀라운 예술성을 보여 줄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다.
- ③ ㉢: 국가의 간섭이 그들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 ④ ㉣: 도공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듯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
- ⑤ ㉤: 그들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새로운 도자 기술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31. ㉦의 문맥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이 고장은 도자기로 이름이 난 곳이다.
- ② 그 식당은 산채비빔밥으로 이름을 날렸다.
- ③ 그는 어릴 적 바둑 신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 ④ 농산물에 지역의 이름을 붙이자 판매량이 늘어났다.
- ⑤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선수들이 참여한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창작 욕구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분청사기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③ 국가에서 공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 ④ 도공들의 도자 생산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였다.
- ⑤ 도자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바탕이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공론장(公論場)이라는 용어는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場)을 말한다. 즉 사회적 의제(議題)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A]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건전한 여론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란 뜻이다.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분출되면서 공론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최근 방송 편성이 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론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모습의 공론장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공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중(公衆)의 관심을 오히려 떨어지게 하고, 특정 입장을 홍보하는 이른바 ‘유사 공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그들은 비판한다. 그들은 토론 프로그램이 ㉠ 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비슷한 시각에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전락시켜 합리적 판단과 비판적 의견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에 의하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에게 자신들이 공적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수용자로 계속 남아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진행 방법, 방송 시간대와 방송량, 토론자의 특성, 시청자의 참여, 사회자의 성향 등과 같은, ㉡ 방송사가 미리 설정해 놓은 형식과 구성 요소들이 토론의 진행 방향이나 논쟁의 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시청자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지한 성찰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인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공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비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송 관계자들의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논리를 끌어내고 있다.
- ③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글쓴이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③ 정보 제공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 ④ 사회 감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

35. 위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1점]

- ① 토론자의 많고 적음이 토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 ② 프로그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반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 ③ 시청자 참여의 폭과 정도가 토론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 ④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지.
- 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토론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논쟁을 기대하기 어렵겠지.

36. [A]에서 설명한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터넷 신문이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니까, 누리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더라.
- ② 반사회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정책을 잘 알게 되더라.
- ③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소수 전문가와의 대담으로 일관하더라.
- ④ 기존 안과 새로운 안을 설명하는 공청회에서, 주최측이 새로운 안이 돋보이도록 설명하더라.
- ⑤ 시민 토론회에서 합의된 의견에 대해, 정부 기관의 담당자가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더라.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발명의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TRIZ)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서, 구 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그는 4만 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수한 특허는 모두 모순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 후, 알츠슐러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모순을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진다.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여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가벼운 엔진을 장착하면 출력의 한계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트리즈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40가지 발명의 원리가 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 문제에 발명의 원리를 하나씩 적용한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비행기의 속도 문제 해결에 ①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는 40번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된 예가 있다. 당시, B1 폭격기의 무게를 줄여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항공기 제작 회사는 금속 재료 대신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 복합 재료로 비행기의 날개를 만들어 폭격기 전체 무게의 15%를 줄였으며 비용도 절감하였다. 이렇게 무게가 줄면 동일한 엔진으로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물리적 모순이란 하나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비행 중에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퀴가 없어야 하는 모순을 갖는다. 비행 중에도 바퀴가 동체에 그대로 붙어 있는 초창기 비행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날 초음속 비행기에서 동체의 바퀴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비행 중에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츠슐러는 ‘시간에 의한 분리’ 등 몇 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 시간에 의한 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비행기 바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륙하기 위하여 비행기는 바퀴로 ㉡ 활주로를 달린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면 바퀴를 동체에 접어 넣어 비행 중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누구나 쉽게 알아내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 모순이다. 그런데 기술적 모순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물리적 모순이 문제

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적 모순의 해결도 의미가 있지만 바탕에 깔린 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 길이다.

37.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물리적 모순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 ② 트리즈에는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여러 개의 원리가 있다.
- ③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은 하나의 문제 상황 속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 ④ 물리적 모순은 사물의 상태를 시간차를 두고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기도 한다.
- ⑤ 기술적 모순은 주로 복잡한 기계에서 발생하지만 물리적 모순은 그렇지 않다.

38. [A]를 읽고 <보기>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속도의 향상에는 [A]가 서로 충돌한다.

- ①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
- ②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
- ③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비행기 무게라는 변수
- ④ 엔진 무게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 ⑤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39. ㉠, ㉡을 적용한 결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점]

- | | |
|-------------|-----------|
| ㉠ | ㉡ |
| ① 무게의 감소 | 바퀴의 제거 |
| ② 무게의 감소 | 공기 저항의 감소 |
| ③ 무게의 감소 | 엔진 출력의 향상 |
| ④ 엔진 출력의 향상 | 바퀴의 제거 |
| ⑤ 엔진 출력의 향상 | 공기 저항의 감소 |

40. 위 글을 근거로 하여 만든,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명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트리즈로 발명왕, 특허왕에 도전하세요.
- ② 발명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트리즈 동아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세요.
- ③ 발명은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신입생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 ④ 발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의 끝없는 스카웃 행렬, 트리즈 동아리만의 자랑입니다.
- ⑤ 발명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트리즈 동아리가 새내기를 기다립니다.

41. ㉠, ㉡의 관계는 <보기>와 같다. 밑줄 친 단어들이 ㉠, ㉡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은 어떤 단어 W의 하위어이고, ㉡는 어떤 단어 W의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다.

- ① 동해를 지나가는 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 ②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 ③ 해바라기를 옮겨 심었다.
성실은 성공의 씨앗이다.
- ④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어.
내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야.
- ⑤ 오늘은 남풍이 불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평화롭게 사는 거야.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한다. 지능 지수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은 언어적 능력에서, 남성은 수학적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적 인 능력은 아니지만 공격성이라는 특성에서도 성차(性差)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나)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들은 그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유전적 설명에서는 남녀가 몇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적 설명에서는 성차가 사회적·교육적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적인 설명 자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다) 그러나 적어도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적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이런 설명들이 평등이라는 이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유전적 설명이 그런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차에 근거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 설명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그 시도 자체에 반대할 경우, 뜻밖에도 유전적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아주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해서 그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라) 성차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차이는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남성의 공간 지각 능력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전적 가설까지도 여성의 $\frac{1}{4}$ 이 남성의 절반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남성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 설명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너는 여자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든지 너는 남자니까 야구를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성차가 유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다 해도 그렇다. 하물며 단순히 편견에 의존해서 집단 간에 차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42.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 ①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가?
- ② 성별에 따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 ③ 성별에 따른 차별이 옹호될 수 있는가?
- ④ 성별에 따른 차별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4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인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나): 문제에 대한 대립적인 두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반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하고 있다.
- ⑤ (마): 주장을 요약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4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개개인의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 ②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③ 소속 집단보다는 개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 ④ 사람이 어느 한 집단에만 속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⑤ 집단은 개별체가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5. <보기>의 문맥을 고려할 때, ㉠~㉣에 적합한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점]

—< 보 기 >—

- 이 문제는 아직까지 (㉠)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 어떤 학설이든 (㉡)이 되기 전에는 정설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작품은 어려워져서 (㉢)을 듣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 모두 자신이 옳다는 (㉣)을 굽히지 않아서 합의하기가 어렵다.

- ① 거론 - 설명 - 입증 - 주장
- ② 거론 - 입증 - 설명 - 주장
- ③ 입증 - 주장 - 설명 - 거론
- ④ 주장 - 설명 - 거론 - 입증
- ⑤ 주장 - 입증 - 거론 - 설명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지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에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곧 열이 심하게 앓아 누웠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 치곤 했다.

서장(序章)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간을 읽다가 문득 긴장하여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 하며 노루의 핏자국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 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사실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형의 소설은 전반에 걸쳐서 무거운 긴장과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다.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해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 그리고 싫어졌다.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꽤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해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 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화필과 물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점은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여 에텐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아벨이라든지 카인, 또 그 인간들이 지니고 의미하는 속성들을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곤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전부를 긍정할 수는 없었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 사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에텐의 두 인간과 창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또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은 카인의 질투—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항상 의지로서 신을 두렵게 했을지도 모른다—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분화, 선과 악의 무한정한 배합 비율……. 그러나 감격으로 나의 화필이 ㉣ 떨리게 하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황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해인 이후 나는 벌써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둥그스름한, 그러나 튀어 나갈 듯이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떠 놓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 참 이상한 방법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을 것이다. 형이 불쑥 나의 화실에 나타났다. 그는 낮부터 취해 있었다. 숯제 나의 일은 **㉔** 제쳐 놓고 학생들에게 매달려 있는 나에게 형이 시비조로 말했다.

“흠!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합 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

㉕ 얼굴의 윤곽만 떠 놓은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형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시작인걸요.”

“뭘,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도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한테, 선생님은 어느 편이지?”

형은 그림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다.

“흠, 나를 무시하는군. 사람의 안팎은 합리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술가도 이 의사에게 동의해 줄 테지. 그렇다면 내 얘기도 조금은 맞는 데가 있을지 몰라. 어때, 말해 볼까?”

형은 도시 중잡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무엇인가 열심히라든,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A]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리고 입은 좀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은—이건 순전히 나의 생각이지만, 선(線)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야.”

이상하게도 형은 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

47.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보 기>

ㄱ. 형이 소설을 쓴다.
 ㄴ. 동생이 해인과 헤어진다.
 ㄷ. 동생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ㄹ.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ㄷ-ㄱ-ㄹ
- ④ ㄴ-ㄷ-ㄹ-ㄱ
- ⑤ ㄷ-ㄹ-ㄱ-ㄴ

48. ㉕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아직은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
- ② 종교적 깨달음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만, 아직은 인간적인 한계가 크다.
- ③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 ④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 ⑤ 그림에 몰두하여 해인과 이별한 상처를 치유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

4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의 예술적 견해를 집약해서 보여 준다.
- ②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형이 동생의 그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 ④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암시한다.
- ⑤ 동생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형의 의식을 암시한다.

50. 위 글과 <보기>의 ㉠~㉣를 각각 대응시켰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1점]

<보 기>

산을 한 굽이 돌아서자 날이 벌써 **㉠** 저물어 가고 있었다. 아침 해가 앞산 위에 뒀나 보다 하면 벌써 뒷산에서는 해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산골은 날씨 변화가 심해서 땅거미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비바람이 **㉡** 치기 시작했다. 친구가 **㉢** 그려 준 약도를 가지고 나는 산 너머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친구의 집을 찾아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 중턱을 지나면서 젖은 몸이 **㉣** 떨려 오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사를 **㉤** 제치고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은 산길을 타는 고통을 잊게 했고 한층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6.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 ④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51~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생성될까? 이에 대한 설명은 과학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 의해 과학적 진술의 의미를 판가름하는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언어의 회귀에 대한 연구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을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과학자들은 언어가 어떻게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지 알고 싶었다. 인디언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언어가 회귀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설명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은 시각 가설, 지구 자기장 가설, 후각 가설과 같은 설명 방법을 생각해 냈다.

시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두 하천인 이사과와 포크에 도착한 언어들을 각각 잡아 표시하였다. 그런 다음 잡은 언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눈을 가리고 다른 집단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인 담수에 방류하였다. 실험 결과, 포획된 곳으로 돌아오는 언어의 수는 두 집단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과학자들은 비둘기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여 집을 찾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언어도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가설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지구 자기장 가설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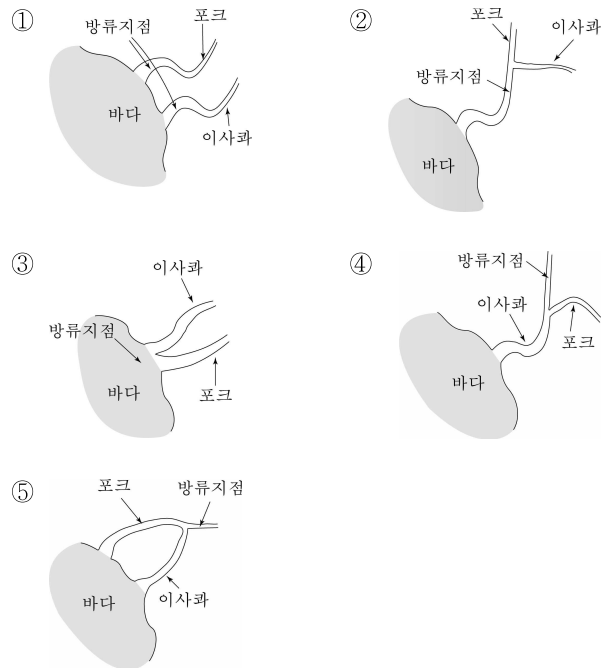
과학자들은 뱀장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후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각 가설을 검증한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두 하천에서 언어를 잡아, 한 집단은 코마개를 하고 다른 집단은 코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언어들을 방류한 후, 산란을 위해 담수를 거슬러 오르는 언어들을 처음 포획한 곳에서 재포획하였다. 그들은 코마개의 유무와 처음 포획한 장소에 따라 재포획된 언어들을 분류하였다. 과학자들은 연역된 결과와 이들을 비교한 뒤, 통계적으로 가설이 지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한다. 먼저 ㉠ 현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에 직면한다. 의문은 설명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사전 지식에 기초하여 잠정적 설명을 창안한다. 그 후, ㉢ 잠정적 설명에 대한 검증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 자료를 수집하고 ㉤ 이것을 잠정적 설명들로부터 연역된 결과들과 비교한다. 만일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며,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순환적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이때 가설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을 설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1.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 ② 배경 지식은 과학적 가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
- ③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과학적 지식의 생성이다.
- ④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문은 과학적 탐구의 동기를 유발한다.
- ⑤ 과학자들은 가설이 지지될 때까지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52. 위 글에서 언어의 회귀 방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지역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1점]



53. 논리 실증주의자가 <보기>의 글을 읽고 '○○ 이론'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이론은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다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 이론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하나의 검증과 가능한 예측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① 과학자가 이론으로 주장하였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②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비과학적 이론이다.
- ③ 다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믿고 있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④ 향후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으므로 비과학적 이론이다.

54. 언어의 회귀에 대한 과학자들의 모든 연구 과정을 녹화한 후, '후각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편집한다고 할 때, ㉠~㉣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언어가 회귀하는 이유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설명하는 인디언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취재 내용
- ② ㉡: 뱀장어가 매우 낮은 농도의 무기물을 후각으로 탐지한다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후각 가설을 만들었다는 과학자의 설명
- ③ ㉢: 시각 가설을 검증한 방법에서 눈을 가리는 데 착안하여, 언어에게 코마개를 부착하고 같은 장소에서 조사하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가 설명하는 내용
- ④ ㉣: 과학자들이 실험 계획에 따라 두 하천에서 회귀하는 언어를 잡아 표시하여 방류한 후, 재포획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녹화한 내용
- ⑤ ㉤: 과학자가 언어를 재포획하면서 얻은 실험 결과를 예상된 결과와 비교하면서, 실험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

[55~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다정가(多情歌)」 -

(나)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어 사창(紗窓) 여윈 잠을 ㉠ 살뜰히도 깨우는고야
㉡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 동방(無人洞房)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옛 사람이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를 그리려 하되, 향기가 형태 없기로 난(蘭)을 그렸던 것이다. 아리따운 여인의 빙옥(氷玉) 같은 심정을 그리려 하되, 형태 없으므로 매화(梅花)를 그렸던 것이다. 붓에 먹을 듬뿍 찍어 한 폭 대[竹]를 그리면 늠름한 장부, 불굴의 기개가 서릿발 같고, 다시 붓을 바꾸어 한 폭을 그리면 소슬(蕭瑟)한 바람이 상강(湘江)의 녀*를 실어 오는 듯했다. 갈대를 그리면 가을이 오고, 돌을 그리면 고박(古樸)한 음향이 그윽하니, 신기(神技)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기에 예술인 것이다.

[A] 종이 위에 그린 풀잎에서 어떻게 향기를 맡으며, 먹으로 그린 들에서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심안(心眼)이다. 문심(文心)과 문정(文情)이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백아(伯牙)가 있고, 또 종자기(鍾子期)*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뜻을 알면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결코 독자(讀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글을 잘 읽는 사람 또한 작가(作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작자와 독자 사이에 애뜻한 사랑이 맺어진다.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시대(時代)의 공민(共悶)이요, 사회(社會)의 공분(共憤)이요, 인생(人生)의 공명(共鳴)인 것이다.

문인(文人)들이 흔히 대단할 것도 없는 신변잡사(身邊雜事)를 즐겨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의 편모(片貌)와 생활의 정회(情懷)를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속악(俗惡)한 시정잡사(市井雜事)도 때로는 꺼리지 않고 쓰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생의 모순과 사회의 부조리를 여기서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요 내 프리즘을 통하여 재생된 자연인 까닭에 새롭고, 자신은 주관적인 자신이 아니요 응시(凝視)해서 얻은 객관적인 자신일 때 하나의 인간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감정은 여과된 감정이라야 아름답고, 사색은 발효된 사색이라야 정(情)이 서리나니, 여기서 비로소 사소하고 잡다한 모든 것이 모두 다 글이 되는 것이다.

의지가 강렬한 남이는 과묵한 속에 정열이 넘치고, 사랑이 깊은 여인은 밤새도록 하소연하던 사연도 만나서는 말이 적으니, 진실하고 깊이 있는 문장이 장황하고 산만할 수가 없다. 사진의부진(辭盡意不盡)*의 여운이 여기 있는 것이다.

깊은 못 위에 연꽃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도 바닥에 찬물과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물 밑의 흙과 같이 그림자 밑에 더 넓은 바닥이 있어 글의 배경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음미(吟味)에 음미를 거듭할 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고는 멀수록 맑은 향기가 은은히 퍼지며, 한 송이 뚜렷한 연꽃이 다시 우아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이런 글이 쓰고 싶고, 이런 글이 읽고 싶다.
- 윤오영,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

*상강의 녀: 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의 녀.
*백아와 종자기: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고사의 주인공들.
*사진의부진: 말은 다 하였으나 말하고 싶은 뜻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음.

5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화자의 독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②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③ (나), (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56. (가)에 대한 설명 내용 중,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이화’, ‘월백’은 군주에 대한 시인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② ‘이화’, ‘월백’, ‘은한’은 서로 어울려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 ③ ‘삼경’은 시간 배경이 되는 동시에 ‘은한’의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한다.
- ④ ‘일지춘심’은 ‘이화’나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 ⑤ ‘다정’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부단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57. (가)의 ‘자규’와 (나)의 ‘귀뚜리’, 그 어느 것의 시적 기능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은?

- ① 화자의 정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다.
- ② 소리로써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③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 ④ 화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 ⑤ 작품 내의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개입한다.

58. ㉠과 ㉡에 함축되어 있는 화자의 심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 한 것은? [1점]

- ① ㉠에는 ‘귀뚜리’를 찬미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귀뚜리’를 연민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귀뚜리’를 야속해 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귀뚜리’를 불신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귀뚜리’를 동정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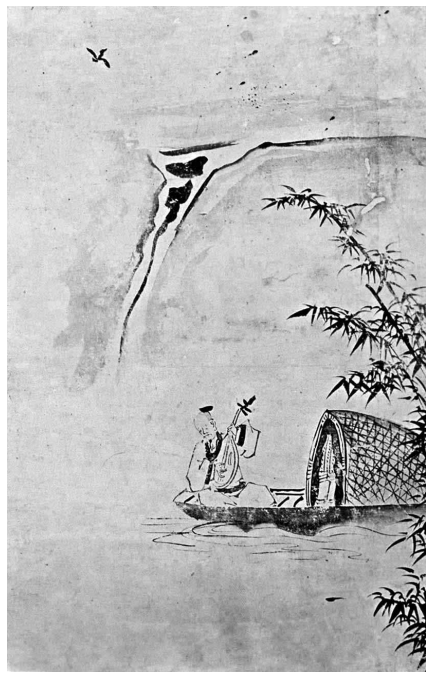
59. (다)를 읽고 글의 취지에 근거하여 모두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책을 읽고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글을 썼을지에 대해 토론한다.
- ② 각자 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자신이 글로써 드러내고자 한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 ③ 널리 알려진 작품을 쓴 소설가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④ 일상적인 소재를 즐겨 사용하는 시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알아본다.

⑤ 문헌 조사를 통해, 옛 문인들이 즐겨 선택한 소재와 오늘날의 작가가 선호하는 소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60. 다음은 <주상탄금도(舟上彈琴圖)>라는 그림이다. [A]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1점]



- ① 대나무 가지들이 배를 향해 뺨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군.
- ② 강과 산과 하늘의 경계를 두지 않은 독특한 필법(筆法)을 구사하고 있군.
- ③ 배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그려 탈속적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 있군.
- ④ 인물 뒤로, 가는 선의 폭포와 새 한 마리를 그려 배경을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군.
- ⑤ 배와 인물을 중심에 두고 대나무와 폭포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1	①	16	②	31	④	46	③
2	③	17	⑤	32	①	47	④
3	④	18	②	33	⑤	48	④
4	④	19	③	34	①	49	①
5	①	20	③	35	⑤	50	②
6	①	21	⑤	36	⑤	51	②
7	④	22	①	37	⑤	52	②
8	②	23	③	38	②	53	⑤
9	②	24	⑤	39	②	54	①
10	④	25	①	40	①	55	③
11	②	26	③	41	④	56	①
12	③	27	⑤	42	③	57	④
13	④	28	⑤	43	④	58	③
14	④	29	③	44	③	59	⑤
15	⑤	30	③	45	②	60	③

언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시간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출수형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 문형(출수/찍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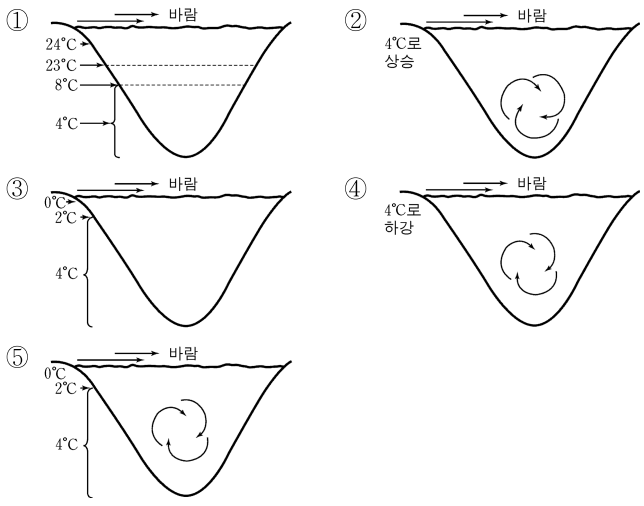
1. (물음) <보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말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할머니와 손녀가 서로 [㉠] 모습이 감동적이야.

- ① 배려하는 ② 공경하는 ③ 기다리는
- ④ 그리워하는 ⑤ 아쉬워하는

2. (물음) 강의에서 설명한 가을 호수를 나타내는 그림은? [1점]



3. (물음) 두 사람이 제출했을 과제물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유희의 개념과 가치
- ② 세대 간 정보화 격차
- ③ 디지털 글쓰기와 정보화
- ④ 디지털 글쓰기의 장단점
- ⑤ 디지털 글쓰기와 의사소통의 관계

4. (물음) 강연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한국어 노랫말에 나타난 일본의 영향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두 나라 만화 영화의 노랫말을 상업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 ③ 두 나라 만화 영화의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관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두 나라 만화 영화의 노랫말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대비하고 있다.
- ⑤ 한국어 노랫말은 긍정적으로, 일본어 노랫말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 작가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바는?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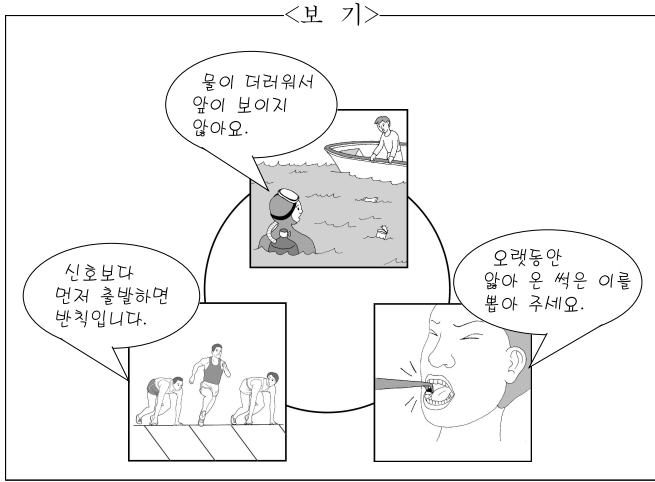
- ① 인물의 영웅적 면모 형상화
- ② 역사적 사건의 철저한 고증
- ③ 시대 상황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상 묘사
- ④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관계 재해석
- ⑤ 다양한 인간형 탐구를 통한 삶의 좌표 제시

6. (물음)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작가와 다른 관점에서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작가는 작품의 주제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자신의 집필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작가는 원작의 집필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작가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중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를 모두 활용하여 '바람직한 우리 사회'에 관한 공익 광고를 만들고자 한다. 광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사회, 부정부패 척결에서 시작됩니다.
- ② 맹목적인 경쟁 사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 ③ 밝고 따뜻한 사회,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 ④ 효율적인 기업 경영, 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입니다.
- ⑤ 맑고 깨끗한 물 만들기, 후손을 위한 투자입니다.

8. <보기>의 개요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제문: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I. 서론: 유가가 급등하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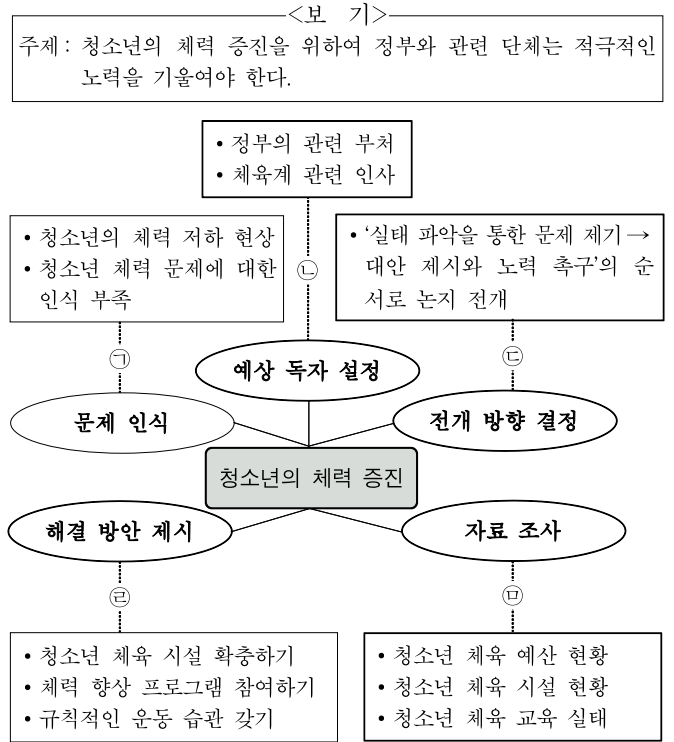
II. 본론

1. 고유가 시대의 수출 전략
2.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
 - 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국민 실질 소득 감소
3. [㉠]
 - 가. 에너지 자원 확보
 - 1)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
 - 2)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 확보
 - 나.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 1) 대체 에너지 개발
 -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III. 결론: 실천 촉구

- ① 주제문이 추상적이므로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을 에너지 자원 확보와 에너지 절약 생활화로 극복하자.'로 수정한다.
- ② 'II-1'은 논지 전개상 어색하므로 삭제한다.
- ③ [㉠]은 논지를 발전시키면서 하위 항목을 포괄하기 위해 '에너지난 극복 대책'으로 진술한다.
- ④ 'II-3-나-1'은 내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II-2'로 옮긴다.
- ⑤ 결론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 촉구'로 수정한다.

9. <보기>의 주제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표현은?

<보 기>

- 상대방의 의견: 낙서는 인간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며 집단 구성원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문화이다. 공공시설에 낙서하는 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낙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조건
 -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론을 시작한다.
 -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힌다.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

- ① 낙서는 자유로운 정서 표현의 한 방법이다. 낙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낙서는 감정을 분출하는 자유로운 통로라고 할 만하다.
- ② 낙서로 우리의 소중한 공공시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낙서 같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③ 낙서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문화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개인의 표현 욕구보다 공공의 윤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얼굴을 더럽히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④ 낙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⑤ 자유와 방종이 다르듯이 절제된 표현과 무절제한 낙서는 다르다. 공공시설에 낙서하는 것은 무절제한 행위이다. 더러워진 공공시설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11. <보기>의 우화를 바꿔 쓰기 위해 토의해 보았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꿔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참나무가 갈대에게 힘자랑을 하고 있었다.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는 참나무의 놀림에 갈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닦쳤다.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람을 이겨 냈지만, 제 힘만 믿고 바람에 맞서 버티던 참나무는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 『이솝 우화』 -

- ① 나는 이 우화의 서술 시점을 바꿔 보겠어. 갈대를 서술자로 만들어, 갈대가 직접 사건을 진술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도록 해야지.
- ② 나는 이 우화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보겠어. 비판적인 관점에서 갈대를 평가하여, 강한 힘 앞에서 쉽게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로 나타낼 거야.
- ③ 나는 이 우화를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겠어.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물과 유연한 자세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을 찾아, 이야기를 꾸며 볼 거야.
- ④ 나는 이 우화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어. 참나무와 갈대가 삶의 방식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을 설정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 닦치는 장면도 자세히 묘사할 거야.
- ⑤ 나는 이 우화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추가해 보겠어. 부러진 참나무가 튼튼한 건축재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보태어, 참나무가 지닌 삶의 방식에 가치를 부여해 봐야지.

12.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 기>—

말다툼하는 친구들을 말린다고 ㉠ 끼어들었다가 말을 잘못해서 되레 친구들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 틀림없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먼저 “아무러면 내가 너를 ㉢ 미워서 그랬겠니?”라고 말 한마디를 건네 친구의 오해가 ㉣ 풀려지도록 해 보자. ㉤ 물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말을 가려 쓰는 것이 가장 좋다.

- ① ㉠은 ‘끼다’와 ‘들다’가 결합된 말이므로 ‘끼어들었다가’로 바꿔야겠어.
- ② ㉡은 문장 안에서 호응이 되지 않으니 ‘틀림없이’를 빼는 것이 좋겠어.
- ③ ㉢은 ‘미다’가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미워해서’로 바꿔야겠어.
- ④ ㉣은 피동 표현이 두 번 사용되었으니 ‘풀리도록’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 ⑤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데도’로 바꿔야겠어.

13.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답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답정’입니다.
-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잘못된 것은? [1점]

- 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급방 갈게.]
[요즘에는 방글 전에 읽은 것도 자꾸 잊어버려.]
- ② [매몰됐던 광부를 열흘 만에 구조했다.]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야.]
- ③ [그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고 겁이 나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이야기는 허황되고 황당한 것이었다.]
- ④ [눈은 빛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한다.]
[지난 50년간 변천해 온 여성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 ⑤ [우리 선조들은 남녀 간에 식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밝아서 멀리 있는 사람도 흐릿하게나마 분별이 가능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동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뇌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짜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A]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레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짓두광주리: '반진고리'의 방언.

** 글거리: '그루터기'의 방언.

(나) ┌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 ㉠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 ┌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 ㉡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잎사귀마다 적힌
- ┌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 ㉢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 ┌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 ㉣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내 걸고
└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 ㉤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광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도롱이나방의 집.

1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 ③ (가)는 (나)에 비해 당시의 사회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이 실감 나게 그려져 있다.

16. ㉠~㉤ 중 <보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1점]

<보 기>

(가)의 '찾길'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신작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찾길'은 이 시의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어감을 띠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가)에 대한 감상문을 쓰기 위해 <보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발표 연도: 1938년
- 작가 소개: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객사(客死)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던 이용악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품팔이로 학비를 조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면 으레 귀국하여 동포들이 모여 사는 간도 등지를 돌며 유이민(流移民)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기도 했다.

- ①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 ②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이 시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작가의 실제 삶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
- ④ 유이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털보네 가족의 삶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여.
- ⑤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18. [A]를 <보기>와 같이 회곡으로 구성할 때, 시의 맥락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않은 대사는?

<보 기>

털보네 안방
(갓 출산한 털보 처와 산파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파: 아들이야. 애아버지를 쫓 빼달았구먼.

Ⓐ **털보 처:** (기운 없는 목소리로) 어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마을 빨래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주머니 1: 털보네, 아들 낳았다면서요?

Ⓑ **아주머니 2:** 그러게요. 자식새끼만 줄줄이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원…….

Ⓒ **아주머니 3:**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쫓쫓.

털보네 안방
(등불이 가물거리는 어두운 방. 털보와 털보 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털보 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없는 살림에 입만 자꾸 늘고……. 어떡해요, 앞으로…….

Ⓔ **털보:** 걱정 말구려. 저 먹을 건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잖소. (아기를 들여다보며) 고놈, 참 잘도 자네. 이놈이 다 자랐을 때면 세상도 달라져 있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빛나는 눈썹',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은 은행나무 잎을 비유한 것이다.
- ② '노래할 수 없다',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 ③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
- ④ '노오란 우산깃'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⑤ '불타는 형상'은 '희망'을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진 최치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에게 글을 배운다. 최치원이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신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함에 달걀을 넣고 봉한 다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 한다.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리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장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왕에게 조서를 보내 중국으로 부른다.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낙양 성문에 들어서니, 어떤 학사가 치원에게 묻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가?”
하니, 치원이 말했다.

“산과 내는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린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매달린 곳을 말하겠소.”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최 문장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이고자 삼문(三門) 안에 몇 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판 후, 악공들을 그 안에 매복시키고 경계하여 말했다.

“만약 최 문장이 들어오면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사문(四門) 안에는 ㉠ 장막을 설치하여 코끼리와 사람을 장막 안에 매복시킨 다음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궤문(軌門)에 들어서니 쓰고 있던 모자가 문 꼭대기에 닿았다.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 “비록 우리 소국의 궤문이라도 내 모자가 닿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궤문에 내 모자가 닿는단 말인가?”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궤문을 부수게 한 연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치원이 궤문을 지나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치원이 즉시 청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그쳤다. 삼문에 들어서니 또 음악 소리가 들려 흰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곧 그쳤다. 사문에 들어서니 흰 코끼리가 장막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치원이 황색 부적을 던지자 그 부적이 변해 누런 벌이 되어 코끼리 입을 둘러싸니,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황제는 치원이 여러 문을 아무런 탈이 없이 태연하게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

“이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치원이 오문(五門)에 들어서니 학사들이 좌우로 쭉 늘어서서 서로 경쟁하듯 질문을 던졌다. 치원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직 시를 지어 주었는데,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는지라 학사들이 그 시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사들이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했다.

치원이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이내 인사말을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소?”

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황제가 물었다.

“어떻게 알고 시를 지었소?”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무릇 현자는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통달해 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 짓는 것쯤 못하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음 속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또 물었다.

“경이 삼문 안으로 들어올 때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소?”

치원이 대답하길,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삼문 안에 매복해 있던 악공들을 불러들여 꾸짖으니, 악공들이 모두 아뢰었다.

“우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 청의와 백의를 입은 자들 수천 명이 와서 우리를 묶으며, ‘대빈(大賓)께서 오시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에 감히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니 구덩이 안에는 큰 구렁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가 감탄하여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㉔ 장막을 쳐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중 드는 관리들을 배치하는 등 모두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20. **해결 수단**의 ㄱ~ㄹ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ㄱ	ㄴ	ㄷ	ㄹ
① 50자 모자	구렁이	누런 벌	시	
② 50자 모자	누런 벌	시	용상	
③ 구렁이	악공	50자 모자	누런 벌	
④ 구렁이	50자 모자	용상	시	
⑤ 누런 벌	악공	용상	구렁이	

21.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버려진 영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 ② 대국에 대한 소국의 자존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 ③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다.
- ④ 학식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 ⑤ 개인이 부당한 위협에 맞서 가는 과정이다.

22. ㉔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환히 알고	神策究天文
오묘한 헤아림은 지리를 꿰뚫었네.	妙算窮地理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戰勝功既高
만족할 줄을 알고 부디 그만두시오.	知足願云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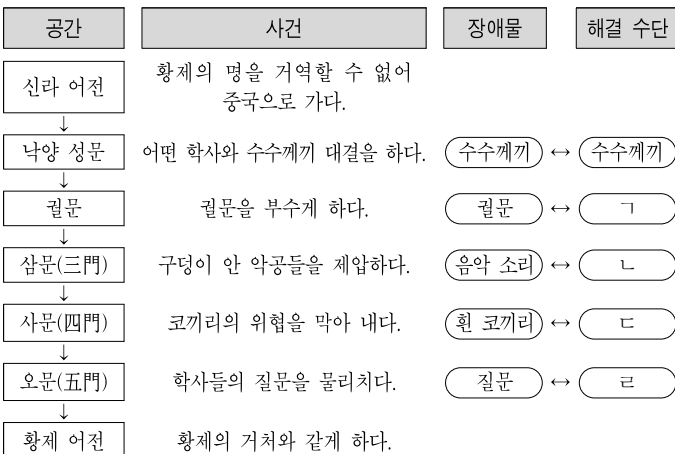
- 을지문덕,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

- ① 상대를 높이는 듯하면서 우회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② 사실을 과장하여 상대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있다.
- ③ 재치를 발휘해 상대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웅적인 기개로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 ⑤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

23. 황제가 최치원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㉔와 ㉕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㉔는 열등감을, ㉕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 ② ㉔는 보호의 효과가, ㉕는 은폐의 효과가 있다.
- ③ ㉔는 시험의 의미를, ㉕는 예우의 의미를 띤다.
- ④ ㉔는 상대에 대한 포용을, ㉕는 회유를 뜻한다.
- ⑤ ㉔는 상대에 대한 위협을, ㉕는 용서를 뜻한다.

※ 위 작품의 서사 구조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20번과 21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구상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 중의 한 명이 목에 걸린 음식물 때문에 질식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호흡 기관[기도]과 소화 기관[식도]이 목구멍 부위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과 달리, 곤충이나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동물은 교차 구조가 아니어서 음식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없다. 인간의 호흡 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다 속에 서식했던 척추동물의 조상형 동물들은 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물 속의 미생물을 걸러 먹었다. 이들은 몸집이 아주 작아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몸 깊숙한 곳까지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호흡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몸집이 커지면서 먹이를 거르던 체와 같은 구조가 호흡 기능까지 갖게 되어 마침내 아가미 형태로 변형되었다. 즉, 소화계의 일부가 호흡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호흡계의 일부가 변형되어 허파로 발달하고, 그 허파는 위장으로 이어지는 식도 아래쪽으로 뻗어 나갔다. 한편,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는 콧구멍에서 입천장을 뚫고 들어가 입과 아가미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폐어(肺魚) 단계의 호흡계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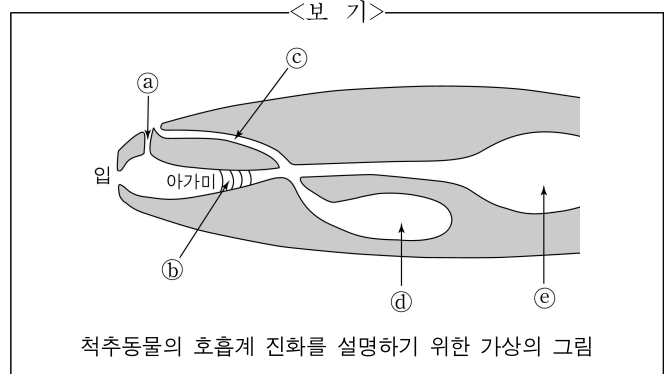
이후 진화 과정이 거듭되면서 호흡계와 소화계가 접하는 지점이 콧구멍 바로 아래로부터 목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머리와 목구멍의 구조가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흡계와 소화계가 점차 분리되었다. 즉, 처음에는 길게 이어져 있던 호흡계와 소화계의 접친 부위가 점차 짧아졌고,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포함한 고등 척추동물에서 볼 수 있는 호흡계의 기본 구조이다. 따라서 음식물로 인한 인간의 질식 현상은 척추동물 조상형 단계를 지나 자리 잡게 된 허파의 위치 —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 때문에 생겨난 진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진화는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가 선택되지만, 그 구조는 기존의 구조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낸 최상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진화는 ㉠ 불가피하게 타협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순간순간의 필요에 대응한 결과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질식의 원인이 되는 교차된 기도와 식도의 경우처럼, 진화의 산물이 우리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4. 위 글에서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인간이 진화 과정을 통하여 얻은 이익과 손해는 무엇일까?
- ②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의 호흡계 구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③ 인간의 호흡계와 소화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은 무엇일까?
- ④ 질식사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⑤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호흡계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5. 위 글에 따라,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호흡계 구조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① a, b, c ② a, b, d ③ b, d, e
- ④ a, b, c, d ⑤ a, c, d, e

26. ㉠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충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것
- ② 초보 운동 선수가 훈련을 통하여 숙련된 프로 선수가 되는 것
- ③ 두통약으로 개발된 아스피린이 혈전 용해제로도 쓰이는 것
- ④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하여 나중에는 큰돈을 모으는 것
- ⑤ 단순한 기본 곡조를 가지고 복잡한 교향곡을 만드는 것

27.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곤충이나 연체동물은 음식물로 인한 질식은 없겠군.
- ② 인간은 진화 단계의 최정점에 있는 동물답게 호흡계 구조가 이상적이군.
- ③ 진화가 항상 완전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군.
- ④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체내의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호흡계의 발달이 필요했겠군.
- ⑤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진화한다는 것이 때로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는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문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전통적으로 이 신문들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그것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전통은 적잖은 ㉠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또는 공정한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

[A] 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이 언론의 공정성을 ㉡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언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선점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신문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 표명이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지지 선언의 ㉤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28.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점]

- ① 보강 효과 이론은 개인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 ② 선별 효과 이론은 개인의 인지 작용과 관련이 있다.
- ③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 문제는 보도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 ④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선거 결과와 항상 관련 없는 것은 아니었다.
- ⑤ 신문은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유권자의 표심을 분석하여 지지 후보를 선택한다.

29.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사례를 든 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ㄴ. 이론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ㄷ.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ㄹ.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0. 위 글에 따를 때,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치 세력의 신문 지배
- ② 후보에 대한 판단의 선점
- ③ 정치 선전의 도구화
- ④ 후보 지지 선언의 영향력
- ⑤ 언론 권력의 강화

31. [A]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카가 원래 좁 거친 편인데 폭력 영화를 보더니 더 거칠어졌다.
- ② 언론이 야간 범죄의 위험성을 보도하니까 아무도 문밖으로 나오지 않더라.
- ③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아도 역시 멋있기만 하더라.
- ④ 나는 ‘가’ 후보를 지지하는데, 텔레비전 토론을 보니 역시 ‘가’ 후보가 설득력 있게 잘 하더라.
- ⑤ 아내가 나한테 금연 광고를 보여 주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 90세가 넘으신 우리 할머니는 하루에 두 갑을 피우면서도 아직 정정하셔.

3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 ② ㉢: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
- ③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 ④ ㉤: 말이나 글 속에 들어 있는 뜻.
- ⑤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업 기술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제조 공정의 일부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대폭적인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혁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7세기에는 유럽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온갖 진열장에서 고층 건물의 외장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판유리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초창기 판유리의 제조 공정은 '원료 배합 → 용융 → 성형 → 서랭* → 연마 → 광택'의 과정을 거쳤다. 이 제조 방법은 각 공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숙련공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생산 비용 또한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880년경 탱크가마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판유리 제조 공정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판유리 제조에서 최초의 기술 혁신으로 손꼽히는 이 기술은 한 쪽에서 판유리의 원료를 주입하면 다른 쪽으로 액체 유리가 나와 주형(鑄型)으로 가도록 탱크가마를 설계함으로써, 원료 배합과 용융을 ㉠ 하나의 공정으로 묶어 버렸다. 그 결과 생산성은 두 배로 향상되었고, 숙련공 의존도도 그만큼 감소하였다.

1959년경에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었는데, 필킹턴이라는 유리 제조 업체가 개발한 플로트 공정이 그것이다. ㉡ 이 공정에서는 탱크가마에서 나온 녹은 유리가 곧바로 주석 욕탕 위를 지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주석 욕탕 위를 통과하는 녹은 유리는 판유리 모양으로 성형되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 서랭 터널 속에서 롤러에 의하여 운반되어 절단되기 전의 상태로 배출된다. 주석 욕탕 덕분에 연마나 광택 과정이 필요 없어진 이 혁신적인 공정에서는 원료 배합 및 용융, 성형, 서랭의 세 단계가 연속적인 하나의 공정이 되었다. 그 결과 생산성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생산 라인의 길이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고, 노동 비용의 80%, 에너지 비용의 50%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도가 곧바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 과정에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필킹턴 사 경영 [A]진이 플로트 공정의 총개발비를 사전에 알았다라면 기술 혁신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필킹턴 경(卿)의 회고는 이를 잘 보여 준다.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의 즉각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엄청난 투자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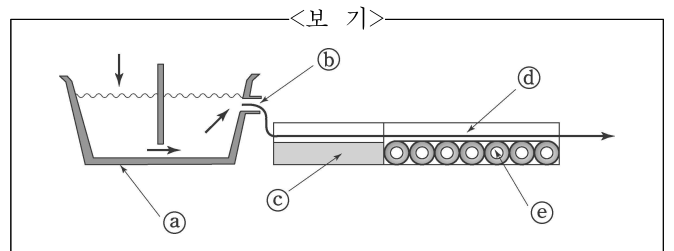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술 혁신의 과정은 과다한 비용 지출이나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술 혁신에 도전했던 기업가와 기술자의 노력 덕분에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 기술 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유는,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예측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 서랭(徐冷): 서서히 냉각시킴.

33.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기를 예로 들어 ㉠을 설명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로 쓸고 쓰레박기로 담는 일을 진공 청소기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② 물을 뿌린 뒤에 옷을 다리는 일을 스팀 다리미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③ 버를 베고 탈곡하여 자루에 담는 일을 콤바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④ 작은 트럭으로 여러 번 옮겨야 할 일을 큰 트럭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⑤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하고 빵을 굽는 일을 자동 제빵기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34. <보기>는 ㉡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주석 욕탕'에 해당하는 부분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5. [A]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플로트 공정 활용이 곧바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과다한 투자비 때문이다.
- ② 플로트 공정이 개발되자 필킹턴 사는 곧바로 기존의 공정을 플로트 공정으로 교체했다.
- ③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 개발비를 회수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 ④ 기술 혁신 비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필킹턴 사는 아마 플로트 공정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필킹턴 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유리 제조 공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플로트 공정을 개발했을 것이다.

36.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점]

- ① 온고지신(溫故知新)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37~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초벌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 어젯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마리 밥과 산나물로 죽히 목숨을 이우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죽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단이 있고 밭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 유위전변(有爲轉變): 세상이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A]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뇌
└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 흘가.

[B]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리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훈디
[C]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흘고.

[D] 청산(靑山)은 옛제(訖)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訖)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논고
└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허리라.

[E] 우부(愚夫)도 알며 흥거니 괴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 다 흥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기운이 맑고 깨끗함.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글쓴이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③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④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38. (나)의 화자가 (가)의 글에 <보기>와 같이 발문(跋文)을 써 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지훈의 글에 부쳐

나의 제자인 지훈은 시인이자 수필가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오랫동안 왕래가 소원하던 중 자신이 지은 글을 한 편 가져와 나에게 발문(跋文)을 청하기에 읽어 보니, 내용과 뜻에서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나 또한 느낀 바가 있었으니,

아마도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나의 생각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지금 나는 늙어 향리로 돌아와 한가롭게 살고 있지만, 제자의 깊은 뜻이 담긴 글을 틈틈이 대하며 소일거리로 삼겠노라.

갑신년 늦가을에 도산 노인 쓰다.

- ① 세상살이에 변화와 굴곡(屈曲)이 많음에도 집착함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자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② 인간의 이욕(利慾)에 매여 살면서도 그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적었으니, 이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날 교훈을 얻게 된다.
- ③ 홀륭하다. 내가 젊었을 적에 그런 멋진 생각을 했으면 이리 곤궁(困窮)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실천이 없이 말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 ④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하며 모범적인 삶을 좇아가되, 즐겁고 따져 봄의 균형 맞추기를 권하고 있어 삶의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 ⑤ 사람들은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하나 지훈은 평범함 속에서도 지조(志操)를 잃지 않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후세들도 그 성정(性情)을 따르기를 바란다.

39. (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40. (가)의 내용으로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 ②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 ③ 마음의 흐름대로 따르는 것
- ④ 세상 이치를 알아 가는 것
- ⑤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것

41. (나)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자연물로 보이고, [D]의 ‘청산(靑山)’과 ‘유수(流水)’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로 보여.
- ② [B]의 ‘허다영재(許多英才)’는 [A]의 ‘허물이나 업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비판할 것 같아.
- ③ [C]의 ‘낙사(樂事) | 무궁(無窮)’에는 자족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이는 [E]에 나타나듯이 ‘늙는 줄’도 잊고 학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봐.
- ④ [D]에서 말하는 ‘그치지 마라’의 내용은 [C]의 ‘만권생애(萬卷生涯)’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

- ⑤ [E]의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는 [B]의 중장처럼 누구나 ‘어진 인성(人性)’을 지니고 있으니 그로부터 자기 수양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42.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과 임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둥에 일 업슨 니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그리라.
- 성혼 -
- ③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늙들은 웃는다 흥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흐노라.
- 윤선도, 「만흥 1」 -
- ④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흐고,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진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 정극인, 「상춘곡」 -
- ⑤ ㄹ울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흐며, 주머니 뷘겼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라. 빈곤(貧困)흔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 박인로, 「누항사」 -

43.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와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상황에 따라 답변을 이리저리해 대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 ②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요.
- ③ 항간에선 그가 나라일을 좌지우지한단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④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 ⑤ 설명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며,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표음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에는 일본의 가나나, 음운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다.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셉'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질 문자'란 명칭은 자질 자체를 글자로 만든 것에 붙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셉'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을 완전한 의미의 자질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사실 각 문자 부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의 문자는 음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을, 음절 문자는 실제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더욱이 한글처럼 자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형끼리의 유사성에 의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까지 추가로 가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 부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는 흔히 발견된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씀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각 단계 문자 부류들이 보여 주는 장점들을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운 문자이므로 효율적이고,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쉬울 뿐 아니라,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표음 문자는 그림 문자보다 발달된 문자다.
- ② 음절 문자는 음운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
- ③ 한글은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④ 한자는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한다.
- ⑤ 문자 발달사 단계와 문자의 우수성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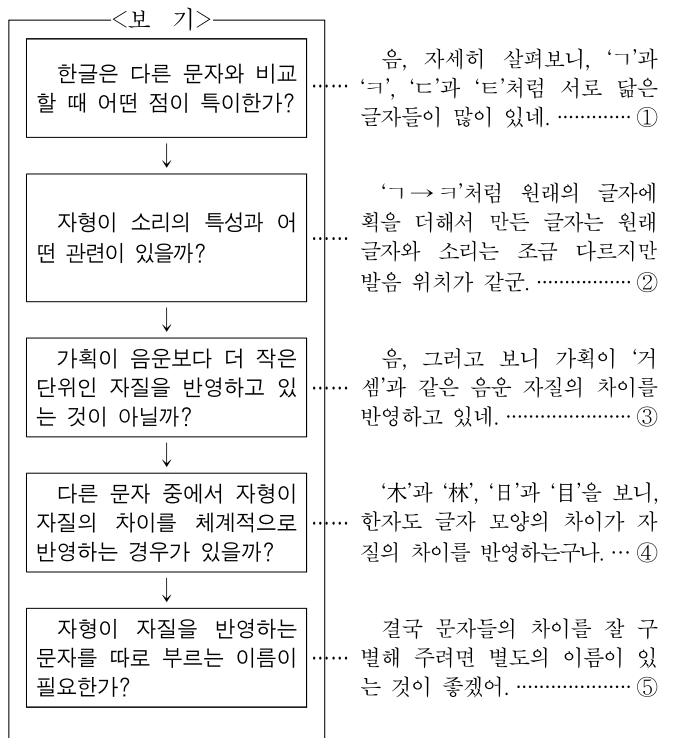
45. 한자와 한글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ㄷ에 들어갈 말은?

<보 기>

비교 항목	한자	한글
문자 분류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음운 문자)
자형에 반영된 특성	언급 없음	(ㄱ)
문자 운용에 이용된 특성	(ㄴ)	(ㄷ)

- | | | |
|---------|-------|-------|
| ㄱ | ㄴ | ㄷ |
| ① 자질 문자 | 음운 문자 | 음절 문자 |
| ② 음절 문자 | 음운 문자 | 자질 문자 |
| ③ 자질 문자 | 음절 문자 | 음절 문자 |
| ④ 음운 문자 | 자질 문자 | 음절 문자 |
| ⑤ 자질 문자 | 음운 문자 | 음운 문자 |

46. <보기>는 ㉠과 같이 한글을 자질 문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기했음직한 의문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점]



4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도토리]라는 발음을 적어 보았다. 알맞은 것은? [1점]

<보 기>

-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할 것.
- 모아쓰기를 할 것.

- ① □ □ △
- ②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천운 우습 깊은 밤에 모진 광풍이 일어나 바람은 우루루 루루루루 쉼…….”

「춘향가」 가운데 춘향이 갇혀 있는 옥방(獄房)의 광경을 묘사한 ‘옥중가’의 한 대목이다. 이 ㉠ 소리를 듣고 바람이 천장을 휘몰아쳐 마룻바닥을 스쳐 가는 음산한 옥방의 분위기가 느껴져 청중이 공감하게 되었다면, 창자(唱者)는 이 대목의 ‘이면’을 잘 그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이면을 그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린다’는 말은 소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창자의 음악 행위를 나타내므로, 이면은 당연히 음악 행위에 의해 구현된 그 무엇에 해당한다. 창자는 ㉡ 소리를 통해 사실의 내용인 옥방의 광경을 묘사했으니, 이면이란 사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옥방의 광경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그 음산하고 비감한 분위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까지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이면을 잘 파악한 후 성음[음색], 조[음계], 장단 등을 복잡하게 선택하고 구성하여 사실 내용을 실감 나게 ㉢ 소리해야 이면에 맞는다는 평을 들을 수 있으니, 이면에 맞게 잘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면 찾다가 소리 못한다.”라는 말이 괜한 ㉣ 소리가 아니다.

사실 내용 그대로를 음악으로 표현해야만 이면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 음악적 표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떤 ‘권위’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면, 이면을 그리는 일이란 이미 고정되어 있는 해석을 음악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된다. 창자가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이면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판소리 유파나 계보의 음악적 특성을 의미하는 ‘제’나 ‘바디’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사실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면을 그린다’는 말에는 창자의 주체적 해석을 허용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창자는 사실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판소리 전승상에 없던 독창적인 창법을 의미하는 ‘더늠’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칫 자신의 미숙한 ㉤ 소리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사실 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든,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이면이란 [㉠]을/를 의미한다. 모든 판소리 창자들은 “이면을 잘 그렸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하지만 ㉠ 이 말을 듣기란 쉽지 않다. 이면을 잘 그렸다는 찬사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명창(名唱)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대화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람: 질문을 던지면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 ② 나래: 예시를 통해서 화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지.
- ③ 다희: 한편,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어.
- ④ 하늘: 그 과정에서 각각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하고 있군.
- ⑤ 아영: 전체적으로는 화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49.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① 창자가 가장 즐겨 부르는 판소리
- ② 창자가 소리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바탕
- ③ 창자가 최고의 경지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목소리
- ④ 창자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판소리의 한 대목
- ⑤ 창자가 부르는 판소리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

50.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② 독창적 창법을 개발하려는 창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 ③ 분위기까지 음악적으로 표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④ 창자가 사실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사실 내용에 음악적 표현을 그대로 들어맞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51.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주변에는 나처럼 생기고 나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들도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가령, 나는 손가락을 베이면 아프다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추리하지 않고 직접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아야!”라는 말과 움츠리는 행동을 통해 그가 아픔을 느꼈으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때 그가 느낀 아픔은 내가 느낀 아픔과 같은 것일까?

(나) 물론 이 물음은 다른 사람이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 거짓으로 아픈 척했다거나, 그가 아픔을 느꼈을 것이라는 나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말에서처럼, 나는 다른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그의 말이나 행동으로 알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아픔이 정말로 나의 아픔과 같은 것인지 묻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해결책은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손가락을 베었을 때 느끼는 아픔을 “아야!”라는 말이나 움츠리는 행동을 통해 나타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하리라 전제하고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 친구도 나와 같은 아픔을 느꼈겠군.’ 하고 추론한다. 말이나 행동의 동일성이 느낌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 논증의 결정적인 단점은 내가 아는 단 하나의 사례, 곧 나의 경험에만 의지하여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느낌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만일 다른 사람의 느낌 자체를 관찰할 방법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놀랍게 발달하여 두뇌 속 뉴런의 발화(發火)*를 통해 인간의 모든 심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 치자. 그러면 제 삼자가 나와 다른 사람의 뉴런 발화를 비교하여 그것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나는 특정한 뉴런 발화가 나의 ‘이런’ 느낌과 관련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관련이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다.

(마) 일부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아예 ‘느낌’을 ‘관찰할 수 있는 모습과 행동 바로 그것’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행동 너머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느낌을 행동과 같다고 정의해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해소인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는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으로 범위를 좁혀 가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 발화(發火):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것.

5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나): 화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문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③ (다): 제기된 의문에 대한 고전적인 해결책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라): 제기된 의문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마): 제기된 의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53.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 기>—

A: 이 영화 참 슬프지? 슬픈 영화는 언제나 날 울게 만들어.
 B: 슬프니? 나도 슬퍼. 하지만 나는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같은지 확인할 수가 없어.

- ① B는 자신이 정말로 슬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 ② B는 A가 B의 슬픔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B는 A가 슬플 때 하는 말이 행동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B는 자신이 슬플 때 하는 행동과 A가 슬플 때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B는 A의 울음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의 슬픔은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54. ㉠을 보충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은?

- ① 이것은 똑같이 생긴 상자 더미에서 책이 든 상자 하나만을 열어 보고는 다른 상자에도 책이 있다고 추리하는 것과 다름없다.
- ② 이것은 우리 집 소가 이번에 수소를 낳았으니까 다음 번에는 암소를 낳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과 다름없다.
- ③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훌륭한 인재들이므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이라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
- ④ 이것은 그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 ⑤ 이것은 피고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곧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

55.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너까지 치면 전부 열 명이다.
- ② 이 사과까지 전부 쳐서 얼마죠?
- ③ 그만하면 값을 잘 쳐서 판 것이다.
- ④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그만 화해하자.
- ⑤ 큰아버지는 손수로 치면 나와 삼촌 간이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드림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쪽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견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 생원은 번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놓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꿎은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 집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집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 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숙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곳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춧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눈썹이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애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잖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쭈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터어졌다.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56.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 ① (가)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의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은 이후에 서술될 '인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다)의 '단 한 번'은 '오늘 밤도 또'와 대비되면서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④ (라)의 '물방앗간'은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 ⑤ (마)의 인물 간 대화는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굳은 결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57. <보기>는 위 글을 읽고 '허 생원'에게 '봉평'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토론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묶은 것은?

<보 기>

- ㄱ. 허 생원은 줄곧 봉평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어. 심지어 고향인 청주에도 가 보지 않은 것 같아. 허 생원에게 봉평은 마음의 구심점인 셈이지.
- ㄴ. 허 생원은 달밤이면 언제나 봉평에서 겪었던 무섭고도 기막힌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달밤의 분위기가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봉평은 허 생원을 현실 너머로 이어 주는 상상의 통로야.
- ㄷ. 허 생원은 젊었을 때 모았던 돈을 투전으로 다 날리고 평생토록 가정도 꾸리지 못했어. 허 생원에게 봉평은 젊은 시절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곳이지.
- ㄹ. 허 생원은 봉평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맺었어. 허 생원에게 봉평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견디게 해 주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58. <보기>에 따라 '이효석 문학제'를 알리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한다.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A]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그것을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데 활용한다.
-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 ① 역사와 전통 위에 지은 터전, 이효석 문학 마을로 오세요.
- ② 지친 현대인에게 소박한 농촌의 맛과 인심을 돌려드립니다.
- ③ 이효석, 그 서정과 낭만으로 빛은 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④ 서도(西道)의 애수와 가락이 있는 제전, 당신의 의자를 비워 두었습니다.
- ⑤ 우리들의 잃어버린 고향, 다시 못 갈 그 서러운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59.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길'은 장돌뱅이로 유랑해 온 허 생원의 삶의 여정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② ㉡의 '길'은 허 생원이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공간이다.
- ③ ㉢의 '밤길'은 장돌뱅이 생활을 하는 세 인물의 어려움과 암담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④ ㉣의 '길'은 동이가 대화에서 배제되어 허 생원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 ⑤ ㉤의 '길'은 허 생원의 과거와 현재가 길을 매개로 하여 미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60. ㉠~㉣ 중 '는'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①	1	16	④	1	31	②	2	46	④	3
2	④	1	17	②	2	32	②	1	47	③	1
3	④	2	18	⑤	2	33	④	2	48	⑤	1
4	④	2	19	③	2	34	③	1	49	②	2
5	③	1	20	①	1	35	⑤	2	50	②	2
6	②	2	21	①	2	36	①	1	51	④	1
7	①	1	22	①	2	37	④	1	52	④	1
8	④	2	23	③	2	38	①	3	53	⑤	2
9	④	2	24	⑤	1	39	④	2	54	①	2
10	③	2	25	②	1	40	①	2	55	④	1
11	⑤	3	26	①	2	41	②	2	56	②	2
12	⑤	2	27	②	2	42	⑤	2	57	②	2
13	③	2	28	⑤	1	43	③	1	58	③	1
14	⑤	1	29	①	2	44	②	1	59	③	2
15	⑤	2	30	①	2	45	③	2	60	⑤	1

제 1 교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희망은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굵은 동아줄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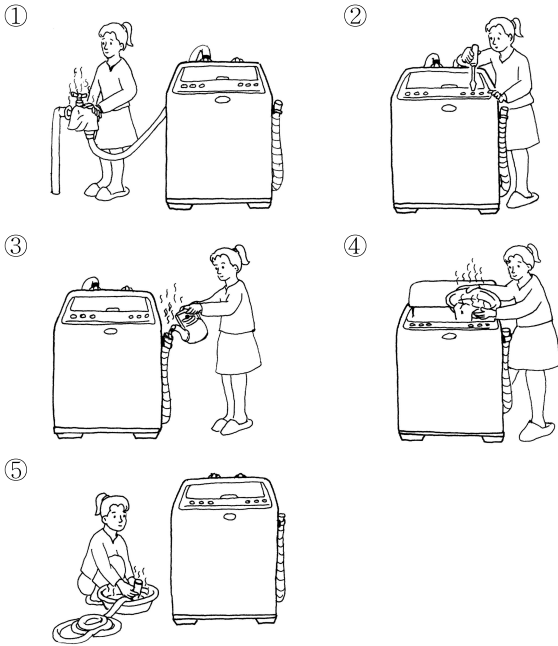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답을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대화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점]



2. (물음) 두 학생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 작품의 정의 ② 예술 작품의 전시
- ③ 예술 작품의 비평 ④ 예술 작품의 표현
- ⑤ 예술 작품의 효과

3. (물음) 이 혼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학생 ② 두 번째 학생 ③ 세 번째 학생
- ④ 네 번째 학생 ⑤ 다섯 번째 학생

4. (물음) 청취자의 전화 반응 중, 대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맞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사육되는 소나 돼지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 ② 동물끼리도 서로 잡아먹는데 왜 인간만 동물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죠?
- ③ 맛있는 고기를 원한다면 좁은 축사에서 사육하기보다는 방목을 해야 합니다.
- ④ 식물도 생명을 지닌 존재인데 동물만 먹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닌가요?
- ⑤ 자신의 배려로 동물들이 고통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먹는 즐거움 정도는 포기해야 합니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이 뉴스의 핵심 내용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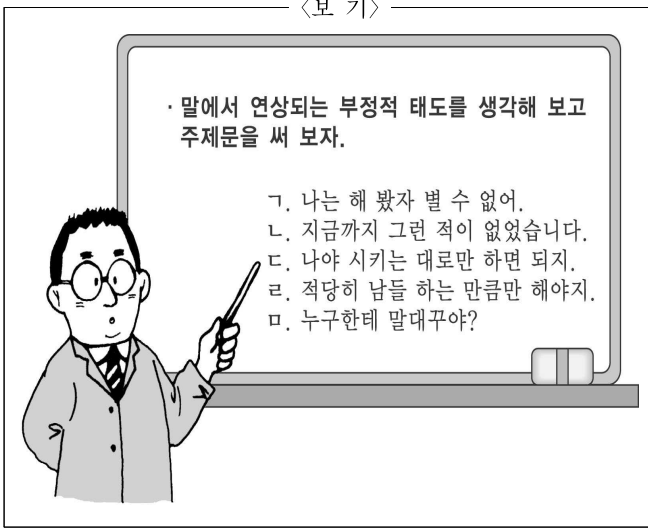
- ① 고구려사와 중국사의 관계와 의미
- ② 중국에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 유적의 실태
- ③ 북한 내 고구려 유적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
- ④ 고구려 유적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의 의미와 과제
- ⑤ 세계 문화 유산에 지정된 고구려 유적의 보존과 관리

6. (물음) 이 뉴스에 나오는 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위적인 어조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외래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고 있다.
- ④ 화제와 대조되는 사례를 들어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견해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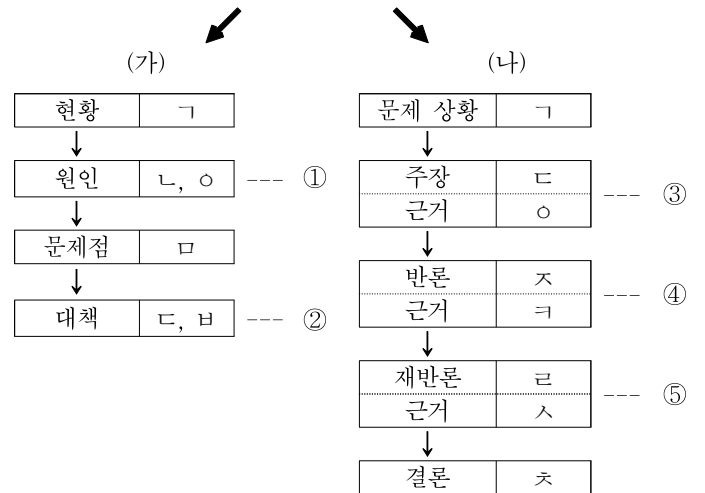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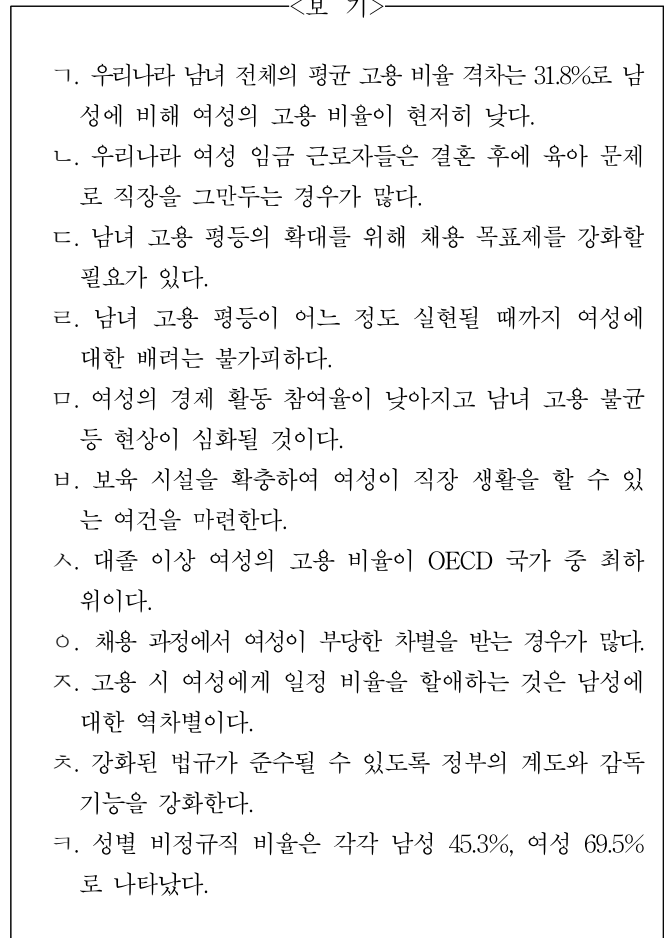
7. <보기> 그림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활 자세’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를 보고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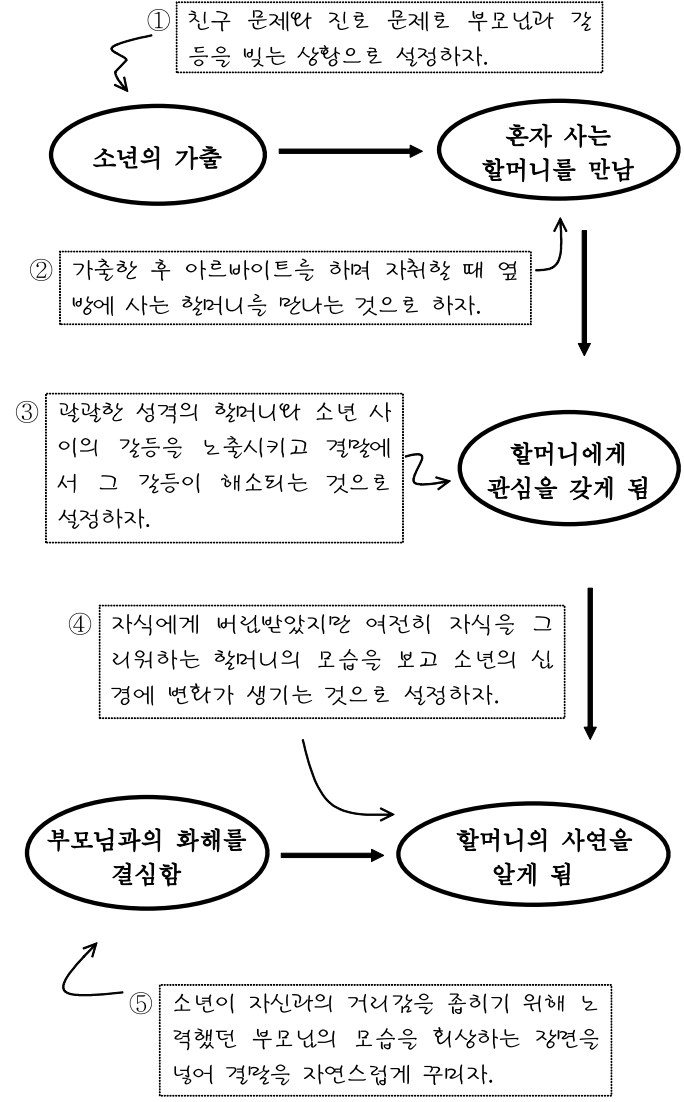
	태도	주제문
ㄱ	㉠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ㄴ	융통성 없는 태도	㉡
ㄷ	㉢	맡은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ㄹ	무사 안일한 태도	㉣
ㅁ	㉤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① ㉠: 소극적인 태도
- ② ㉡: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③ ㉢: 독선적인 태도
- ④ ㉣: 의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⑤ ㉤: 권위적인 태도

8.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의 글감을 활용하여 (가)와 (나)의 과정으로 사고를 전개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9.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소설을 쓰기 위해 모둠 토의를 했다. 기본 줄거리의 긴밀성을 고려하여 구상을 보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새로운 글감을 접하였다. 새로 접한 글감의 활용 및 개요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 요>	<새로 접한 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문: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 서론: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금액, 기부 빈도의 저조 본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식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 기부에 대한 인식 부족 나. 제도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미비 - 대중 매체 위주의 모금 방식 기부 문화 활성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부의 참된 가치 홍보 나. 공동체 의식의 강화 다. 다양한 모금 방법 강구 결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 	<p>ㄱ.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를 연말연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p> <p>ㄴ. 기부는 부의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원동력이다.</p> <p>ㄷ. 미국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10%까지, 일본은 25%까지 공제 혜택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5%까지만 면세 혜택을 준다.</p> <p>ㄹ. 커피 한 잔당 수익의 일부를 빈민 구호 기금으로 내놓는 '○○회사'는 좋은 이미지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p> <p>ㅁ.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접대비 총액은 늘어나고 있다.</p>

- ① '서론'에서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한 지출은 많이 하지만, 이윤의 사회적 환원에는 인색함을 'ㄱ'을 통해 지적한다.
- ② '본론 1-가'의 하위 항목 '기부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ㄱ'을 활용하여 잘못된 기부 문화 의식을 지적한다.
- ③ '본론 2-가'에서 'ㄷ'을 사례로 들어 기업의 성장에 기부 행위가 전략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본론 2'의 세 항목도 '본론 1'에 맞춰 '의식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의 두 항목으로 묶고 'ㄷ'을 '제도적 개선'의 글감으로 활용한다.
- ⑤ '결론' 부분에서 'ㄴ'을 활용하여 '기부 문화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11. 다음은 도시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늪을 보존하기 위해 시장에게 쓰는 건의문이다. <보기>의 조건을 따를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보 기>
-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살릴 것.
 - 공익적 가치를 드러낼 것.
 - 부탁하는 내용을 완곡한 어조로 쓸 것.

행복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

글쓴이 **풀빛**

제목 **'두꺼비 늪'을 살려 주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푸른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풀빛' 학생들입니다. 시정을 돌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줄 알지만 저희들의 간절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두꺼비의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 늪'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두꺼비 늪'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택지 개발을 위해 주변의 산림을 밀어낸 건설 기계가 이제는 '두꺼비 늪' 바로 앞에서 요란한 기계음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연은 인간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배움터라고 생각합니다. ㉠

부디 저희의 간곡한 바람대로 '두꺼비 늪'이 제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풀빛' 올림

- ① 이 '두꺼비 늪'은 생태계의 중요한 보고입니다. 시에서는 하루바빠 조사단을 파견해서 개발 이익이 생태계 보존에 따른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지 따져 보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② 도시의 삭막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 곳은 어머니의 품처럼 소중한 곳입니다. 저 흉물스런 건설 기계가 쉴 새 없이 매연을 뿜어내며 도시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③ 시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야만 지역 주민들도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신다면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쌓아 오신 시장님의 지지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 ④ 당장이라도 흙으로 메워져 사라질 운명에 놓인 '두꺼비 늪'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이번 기회에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⑤ 이 '두꺼비 늪'은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공간으로서 저희들의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이 곳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아래 글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점]

우리들 대부분은 거절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이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인의 인간 관계는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이라는 어느 외국인의 말은 이런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우리의 정서상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 더군다나 그 일이 내게 벅찰 것 같으니 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 어렵다. ㉢ 웬만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부탁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무리를 해 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신의(信義)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탁 받은 일이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 판단하면 그 즉시 거절하는 게 좋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였건, 일단 시작한 이상, 그 일의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라. ㉤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 ① ㉠은 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② ㉡은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오히려'로 고치는 것이 좋다.
- ③ ㉢은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웬만큼'으로 고쳐야 한다.
- ④ ㉣은 '아닌 다음에야'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할 때, “누가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로 고쳐야 한다.
- ⑤ ㉤은 '따져 보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부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의 부탁이라도'와 같이 고쳐야 한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들끼리 만나 새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어근 '날다'가 어근 '가다'를 만나 '날아가다'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꽃'이 어근 '사과' 앞에 붙어 '덜 익은'의 뜻을 더하면서 '꽃사과'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강'은 '마르다' 앞에 붙어 '심하게'의 뜻을 더하면서 '강마르다'를 만든다.
- ② '첫'은 '사랑' 앞에 붙어 '처음의'의 뜻을 더하면서 '첫사랑'을 만든다.
- ③ '새'는 '색시'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면서 '새색시'를 만든다.
- ④ '얇'은 '보다' 앞에 붙어 '얇게'의 뜻을 더하면서 '얇보다'를 만든다.
- ⑤ '굳'은 '밥' 앞에 붙어 '구운'의 뜻을 더하면서 '굳밥'을 만든다.

14.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의 국민답게 질서를 잘 지킵시다.
- ② 험한 말을 하는 그를 보고, 동료들은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 ③ 선생님 말씀이야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통하거나 하겠어요?
- ④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나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곤혹스럽기만 했다.
- ⑤ 모두들 편안하게 잠든 와중에도 일터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이 범죄를 취재감으로 찾아내기가 쉽고 편의에 따라 기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범죄 보도는 범죄자나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A] 일반적으로 초상권은 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타인이 함부로 촬영하여 공표할 수 없다는 인격권과 이를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재산권을 포괄한다.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촬영·보도,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보도,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촬영·보도 등을 들 수 있다.

[B]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내에서 불법으로 개인 지도를 하던 대학 교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현장을 방송 기자가 경찰과 동행하여 취재하던 중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습실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취재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의 자유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사적인 장소는 수사 관계자의 동의 없이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무시한 취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례는 법원이 언론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의 갈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사적 공간에서의 취재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노출된 범죄 피의자는 경제적, 직업적, 가정적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심지

어는 생명을 버리기까지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은 개인의 초상권을 존중하고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범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범죄 보도가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논란은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범죄가 언론에는 매혹적인 보도 소재이지만, 자칫 [가]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15.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하고 있다.
- ② 개념 정의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주장을 펴고 있다.
- ③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④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6. [A]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를 작성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권리의 내용	침해의 유형	법적 구제(救濟)
초상권	인격권	㉠	정신적 고통	㉡
	재산권	㉢	경제적 손실	손해 배상·부당 이득 반환

-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명예 회복 청구
-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초상 사용의 독점
- ㉤ 명예 회복 청구 초상 사용의 독점 무단 촬영·공표 금지
- ㉥ 초상 사용의 독점 무단 촬영·공표 금지 명예 회복 청구
- ㉦ 초상 사용의 독점 명예 회복 청구 무단 촬영·공표 금지

17. [B]의 법원 판결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알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권에 항상 우선할 수는 없다.
- ②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초상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③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④ 범죄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범죄 행위가 사적 공간인 연습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연습실이 법적 보호 대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18. [가]에 들어갈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부메랑 ② 아킬레스건 ③ 뜨거운 감자
- ④ 악어의 눈물 ⑤ 시금석

19.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범죄 보도와 언론 윤리
- ② 범죄 보도의 사회적 기능
- ③ 언론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
- ④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유형
- ⑤ 범죄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책임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 사이 떠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낮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피로움도 ㉠ 달게 받으라.

[A] 피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향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낮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나)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

(다)

남녘 들판에 곡식이 ㉤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 김광규, 때 -

* 이적진: '이제까지는'의 방언.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⑤ 자연과 거리를 둬으로써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21. (가)~(다)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다)는 시간의 역전(逆轉)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22. ㉠~㉣ 중에서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가)의 [원광]과 (다)의 [무엇]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매개물이다.
- ② 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③ 시적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 ④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준다.
- ⑤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적 긴장을 높여 준다.

24. (가)를 읽고 시 창작 활동을 하였다. [A]연의 내용과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3점]

- ①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으면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뜻한 털옷 되지 않으리
- ②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
들이리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이득한 철조망
- ③ 이제 나는 너그럽게 사람과 세상을 받아들여리
내 마음의 겸손과 원만함이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퍼지게 하리
겸손하게 빛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얘기하리라
- ④ 이제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
삶은 험난한 길,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가시밭길
설사 돌아오는 것이 허망한 것이더라도 삶은 원래 그런 것
- ⑤ 이제 나는 발끝의 작은 것도 사랑하리라
내가 먼 곳만 바라본다면, 나의 발 디딘 곳 아픔을 어떻게 알리
이제 남은 내 삶은 이웃의 아픔, 슬픔과 함께 하리라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던테?”

“몰라서 묻니? 개성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복에 두고 온 눈발 저당잡고 돈도 꿰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 일종의 목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탄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여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걸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됐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 누가 뭐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주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발머리에 ㉤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 간 날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지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 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면만 그런 기세 속에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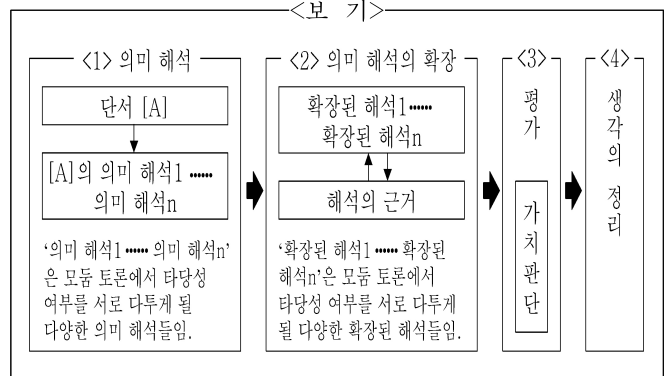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恨)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A]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제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

29. 위 글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모둠 토론을 준비하려고 한다. [A]를 단서로 하여 정리한 생각 중에서 <보기>에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상처 받은 우리 민족 모두를 뜻하지. 한 역사학자는 분단을 우리 민족이 여전히 겪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어. 위 글은 ‘어머니’를 통해 아직도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하는 민족의 한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한 대목이야.
- ②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어머니’는 분단을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축소시키는 소시민에 속하지. 소시민의 현실 인식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주장된 바 있어. 위 글은 소시민이 그 점을 극복할 때에만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야.
- ③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임을 알 수 있어. ‘어머니’라는 개인과 대결하는 분단이 거대한 적이라는 뜻이지. 그러나 분단이 아무리 거대한 적일지라도 개인은 그것과 대결하게 되지. 위 글은 거대한 적인 분단 상황과 맞서 싸우는 것이 개인이 가지게 될 태도라는 사실을 형상화한 대목이야.
- ④ [A]를 보면 ‘어머니’는 죽음으로써 분단과 대결하고 있어. 분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서도 묘지에 묻히기를 거부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죽은 자가 결코 현실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진실이지. 위 글은 분단의 극복을 관념적인 문제로 축소시킨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야.
- ⑤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인물로 나오지. 비극적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 속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역사와 개인이 상호 작용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야. 위 글은 그 사실을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제시하면서 있어야 할 올바른 우리 역사의 모습을 암시한 대목인 셈이지.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감각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6. ㉠~㉡ 중에서 ㉠의 심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7. ㉠과 같이 말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체험의 동질성 ② 성격의 동질성 ③ 신념의 동질성
 - ④ 심리의 동질성 ⑤ 생사관(生死觀)의 동질성
28. ㉠과 ㉡을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묘를 쓰고 싶어 한다.
 - ② ‘나’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 ③ ‘어머니’는 고향을 떠난 일을 후회하고 있다.
 - ④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떠나보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
 - ⑤ ‘어머니’와 ‘나’는 내심 오빠를 화장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장(萬章)이 물었다. “공자께서 진(陳)나라에 계실 적에 ㉔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마을의 선비들은 광간(狂簡)하고 진취적이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진나라에 계시면서 어찌하여 노나라의 광견(狂獫)한 선비들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어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광견(狂獫)한 자와 함께하리라. 광(狂)한 자는 진취적이고, 견(獫)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고 싶지 않으셨겠느냐마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기에 차선의 인물을 생각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광한 자인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는 금장과 증석 그리고 목피와 같은 사람들을 광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광한 자라고 합니까?”

“뜻이 높고 커서 ㉕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지만, 그의 평소 행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이러한 광한 자를 얻지 못하면, 더러운 것은 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견한 자이니, 광한 자 다음가는 사람이다.”

“공자께서는 ‘내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감스러워 하지 않을 자는 바로 향원(鄉原)이다. 향원은 덕(德)을 헤치는 자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향원이라 합니까?”

[A] “ [‘광한 자는] 왜 저렇게 잘난 척하는가? 말은 행실을 외면하고, 행실은 말을 외면하는데도 입을 열었다 하면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는가.’ 하고 [견한 자는] 어찌 혼자서만 도도하게 살아가는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자신은 음흉하게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

만장이 말했다.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㉖ ‘점잖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디서든 ‘점잖은 사람’이라고 인정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 그를 일컬어 왜 ‘덕을 헤치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까?”

“비난하려 해도 비난할 것이 없고, 풍자하려 해도 풍자할 것이 없다. 유행하는 풍속에 동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면서도 충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굴고 청렴결백한 듯이 행동하여 여러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지만 ㉗ ‘더불어 요순(堯舜)의 도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덕을 헤치는 자’라고 하신 것이다. 공자께서는 ㉘ ‘같은 듯하면서 아닌 것[사이비(似而非)]’을 싫어하셨으니, 강아지풀을 싫어하는 것은 벼싹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아첨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의(義)를 어지럽힐까 걱정해서다.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정(鄭)나라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바른 음악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다. 자주색을 싫어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향원을 싫어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㉙ ‘군자라면 뿔뿔한 도로 돌아갈 뿐이다.’ 뿔뿔한 도가 바르게 되면 못 백성이 흥기(興起)하고, 못 백성이 흥기하면 사특함이 없어질 것이다.”

* 정(鄭)나라 소리: 음란하고 야비한 음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0. 위 글의 인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민호: ‘만장(萬章)’은 공손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겠군.
- ② 은혜: ‘중도(中道)의 인물’이란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유형의 인물이겠군.
- ③ 철수: ‘향원(鄉原)’은 시류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아.
- ④ 영희: ‘광(狂)한 자’는 이상은 높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 ⑤ 수영: ‘견(獫)한 자’는 간간해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

31. [A]에는 여러 층위의 화자가 존재한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맹자는 향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맹자는 광한 자를 조롱하고 있다.
- ③ 향원은 광한 자를 흠모하고 있다.
- ④ 향원은 견한 자를 칭찬하고 있다.
- ⑤ 광한 자는 옛사람을 비난하고 있다.

32. ㉙의 의미가 삶의 자세로 가장 잘 표현된 시조는?

- 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령췌이 엮어진 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엮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 ② 공명도 나는 몰라 부귀도 나는 몰라/ 허량한 인생이 세상일도 나는 몰라/ 아마도 이 강산 아니면 내 몸 둘 데 없으라.
- ③ 흥로 가운데 타는 밭에서 중일 일하는 저 농부야/ 네 고생이 저러하거늘 내 놓고 먹음은 어인 일인가/ 우리도 군자를 길러 내는 노력을 하여 백성을 사랑하기 바라노라.
- ④ 북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휘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으라.
- ⑤ 옛 성인도 날 못 보고 나도 옛 성인을 못 배/ 옛 성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쩔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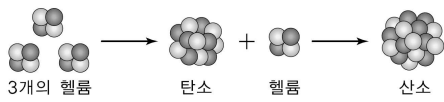
3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이유는 진나라에 중도의 인물은 없고 광견한 이들만 있기 때문이다.
- ② ㉡의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얽매어 현실을 개혁하려는 마음을 잃은 자들이다.
- ③ ㉢을 공자가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원칙에 사로잡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④ ㉠과 같은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다.
- ⑤ ㉢을 공자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올바른 기준을 흐려 놓기 때문이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주의 만물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00여 종이다. 흔히 이들은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소에 따라 그 생성 기원이 다르다.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이 있다.

우주가 생성될 때 일어난 대폭발로 수소와 일부의 헬륨이 생겼다.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헬륨과 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생성 초기에는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천만 도(10⁷K)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고온에서 원자핵이 반응하여 더 큰 원자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한다. 수소가 핵융합을 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단계가 끝난 후, 별의 중심부 온도가 일억 도(10⁸K) 정도로 올라가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헬륨 3개가 결합하여 탄소가 만들어지며, 탄소에



만들어진다. 별의 중심부 온도가 십억 도(10⁹K) 이상이 되면 탄소와 산소가 다시 작은 원소로 깨어지고 서로 합쳐져 질량이 더 큰 마그네슘, 규소, 황 등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원소 중 철보다 무거운 것은 단순히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록 철 원소가 만들어지는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도 곧 다시 분해되어 안정된 철로 되돌아간다. ㉠ 이것은 철의 원자핵 내 핵자 결합 에너지가 원소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핵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이며, 그 결합 에너지는 핵으로부터 핵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크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작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철

이 많아질수록 별의 수축이 일어난다. 별 중심부로의 수축이 진행될수록 온도가 높아지다가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별은 폭발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이 폭발할 때 생기는 높은 밀도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전에 만들어진 원소와 결합하여 순간적으로 만들어진다. 라듐이나 우라늄 등이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이다.

결국 수소와 일부의 헬륨을 제외한 원소들은 오래 전에 존재하였던 별의 잔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소들도 우주에서 태어난 탄생 순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4. 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산소는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 ② 헬륨 중에는 별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 ③ 우주가 생성될 때 대부분의 원소도 같이 만들어졌다.
- ④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일억 도(10⁸K)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 ⑤ 현재 존재하는 원소 중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3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묶은 것은? [1점]

<보 기>

ㄱ.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ㄴ. 대상을 몇 가지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ㄷ.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ㄹ. 대립적인 견해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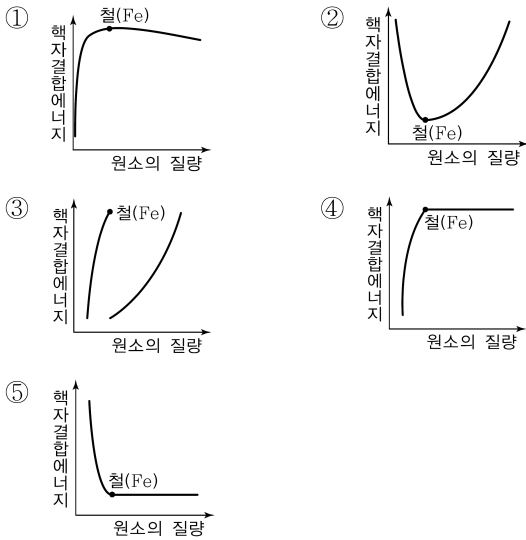
36. 위 글로 보아 온도가 약 일천 오백만 도(1.5×10⁷K)인 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원소는? [1점]

- ① 수소 ② 헬륨 ③ 탄소 ④ 황 ⑤ 우라늄

37. 위 글에 나타난 사실의 인과 관계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

- ① 철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헬륨의 생성
- ② 헬륨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수소의 생성
- ③ 마그네슘의 생성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탄소의 생성
- ④ 별의 내부에 철 축적 → 별의 수축 →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⑤ 핵융합에 의한 별의 중심부 온도 상승 → 라듐의 생성 → 별의 폭발

38. ㉠의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낸 그래프는?



환유가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면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거나 ㉠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인간 인지의 융통성 때문이다. ‘차를 열다’ 또는 ‘차를 수리하다’의 경우, 이를 차의 문이나 트렁크를 열거나 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실제의 사물을 구성하는 여러 다른 면을 자유자재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는 전체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유의 지칭 기능이 모든 조건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환유의 지칭 기능은 다분히 상황 의존적이다. ㉡ 동일한 낱말이 환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 환유적으로 쓰인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환유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려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유(共有)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 수사학에서는 환유(換喩)를 비유법의 한 종류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유와 같은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이 지닌 인지(認知)의 기본적 특성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비유법은 여러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비유법을 활용할 줄 아는 인지 기제(機制)가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환유적 표현을 무리 없이 이해하거나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환유는 인접성(隣接性)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관념을 지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령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에서 실제 끓고 있는 것은 주전자의 물이지만, ‘주전자’라는 용기(容器)의 이름이 그 내용물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칭 기능은 지시물 사이의 인접성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물이 끓고 있다’로 이해하는 것은 ‘주전자’와 ‘물’ 사이에 ㉠ 밀접한 인접성이 있어서 의미 연상을 통한 의미 전이(意味轉移)가 신속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접성에 의한 의미 전이로 인해서 환유는 일상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확대 지칭’과 ‘축소 지칭’으로 구별된다. 확대 지칭은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축소 지칭은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 ‘손이 모자라다’에서는 신체의 부분인 ‘손’으로 ‘일꾼’을 확대 지칭하며, ‘온 동네가 기뻐했다’에서는 전체인 ‘동네’로 ‘동네 사람’을 축소 지칭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 이러한 환유 표현을 사용할까? 언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우리가 전체로 부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분으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가 훨씬 쉽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39.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를 들어 중심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화제를 나열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을 통해 통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40. 위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1점]

- ① 영희: 환유의 예는 일상 언어 표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 ② 병근: 환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은 인지적 융통성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 ③ 철수: ‘아침을 먹다’나 ‘새 얼굴이 등장했다’는 표현에도 환유가 사용됐구나.
- ④ 민정: 특정 사물이나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환유의 효과가 클 거야.
- ⑤ 명현: 환유를 사용할 때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겠군.

41. [A]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점]

- ①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자의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 ② 언어는 소리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로 분리되어 있다.
- ③ 인간은 연속적인 세계를 분절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한다.
- ④ 인간은 언어를 좀더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는 성향이 있다.
- ⑤ 언어는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42.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그릇'이 '용기'라는 뜻과 '담긴 내용물'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② ㉡으로 보면 '비둘기'가 '평화'의 환유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부분'은 대상 전체로 인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나 특징이어야 한다.
- ④ ㉣의 예로는 '김 과장은 자리를 옮겼다'를 들 수 있다.
- ⑤ ㉣으로 보면 '손'이 상황에 따라 식당에서는 '요리사', 병원에서는 '의사'를 지칭할 수 있다.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찰찰하신* 노(老)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孫兒)**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 간호 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별별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룩누룩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 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었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랑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우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겹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층 나무도 되고 오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다도다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 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회한해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 재공(才功)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층 나무 오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

인의 ㉤ 일고지혜(一顧之惠)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줄자,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이태준, 화단(花壇) -

- * 찰찰하다: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다.
- ** 손아(孫兒): 손주를 일컫는 말.
- *** 별별: 식물의 가지 따위가 옆으로 벌어진 모양.
- **** 채반(-盤): 껌질을 빚던 찌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를 엮어 만든 바구니.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생활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예스러운 어투가 사용되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체험을 상징화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 ⑤ 화초를 가꾸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분명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44.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삼아 - 뜻하던 일은 못 하고
- ② 어정거릴 - 주의 깊게 살필
- ③ 순조로 - 세차게
- ④ 약이 오르고 - 은근히 화가 나고
- ⑤ 안손님 - 여자 손님

45.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집]

- ①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 ② 자연은 그것 자체로 최선이다.
- ③ 자신을 망치는 것은 욕심이다.
- ④ 인생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 ⑤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작품을 접하였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6번, 47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 기>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돌렸으니,
 천손운금(天孫雲錦)*을 그 누가 베어 내어
 있는 듯 펼치는 듯 헌사토 헌사할사.**
 산중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퍼진 경치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매화 창 아침 별에 향기에 잠을 깨니,
 선옹(仙翁)의 하실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울 밑 양지쪽에 외씨를 뿌려 두고
 김 매거니 북 주거니 빗길에 손질하니,
 청문(靑門) 고사***를 이제도 있다 할까?
 망혜(芒鞋)를 죄어 신고 죽장(竹杖)을 흔들으니
 도화(桃花) 핀 시냇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어 있다.
 잘 닦은 명경(明鏡) 중에 그림 같은 돌 병풍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西河)로 함께 가니
 도원(桃源)은 어디인가?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 * 천손운금(天孫雲錦): 직녀가 짠 아름다운 비단으로, 은하수를 가리킴.
- ** 헌사토 헌사할사: 매우 호화스럽고 아름답다는 뜻.
- *** 청문(靑門) 고사: 중국 한나라 때 소평(邵平)이라는 사람이 창문 밖에 오이를 심었다는 고사.
- **** 방초주(芳草洲): 꽃다운 풀이 우거진 물가의 작은 섬.

46.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으로 의미가 상통하는 것은?

- ① ㉠ 간호 ② ㉡ 기적 ③ ㉢ 비방
- ④ ㉣ 재공 ⑤ ㉤ 일고지혜

47. <보기>의 화자가 '선옹(仙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위 글의 '노인'에게 노래를 들려준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무상(無常)한 이몸에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을 다 무겨 더더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 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 ② 봉(峰)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뭇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뭇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人傑)을 몬들고자.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사.
- ③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스럽다.

④ 강산풍월(江山風月) 다 거늘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렇 굽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내니, 창(窓) 밖기 심근 매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꺾듯 냉담(冷淡)한디 암향(暗香)은 무스 일고. 황혼(黃昏)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말 대신에 예술 작품을 향유(enjoyment)한다고 하기도 하며, 예술 작품을 평가(appreciation)한다고 하기도 한다. 향유한다거나 평가한다는 것은 곧 예술 작품에서 쾌감을 얻거나 예술 작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 속에는 예술 작품은 감상의 주체인 감상자의 수용을 기다리는 존재이며, 고정된 채 가치를 측정당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은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거나 감상자의 수용을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술 작품은 창작자와 창작된 시간,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창작되는데, 예술 작품의 창작과 관계되는 이 요소들에는 사회 규범과 예술 전통, 작가의 개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예술 작품의 의미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은 창작자에 의해 텍스트로 조직되면서 변형되어 단지 참조 체계로서의 배경으로만 존재할 따름이다.

예술 작품의 의미는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감상자에 의해 해석된다. 그런데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준거틀이 있어야 한다. 준거틀이 없다면 해석은 감상자의 주관적 이해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석의 준거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조 체계이다. 감상자가 예술 작품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의 참조 체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새로운 관계에 의거해 감상자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낸다.

따라서 예술 작품이 계속 전해지지만 한다면, 그것은 끊임 없이 새로운 참조 체계를 통해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근본적으로 예술 작품의 의미는 무궁하다. 이것은 ㉠ “셰익스피어는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같다. 이때 ‘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예술 작품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작품의 의미는 예술 작품 밖에 존재하는 참조 체계의 무궁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끊임없이 새로운 (㉡)를 찾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를 획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를 형성하며 새로운 (㉤)를 생산한다.

감상의 과정은 주체와 주체의 대화이다. 감상 과정에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개성을 지닌 두 명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묻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교정해

가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자신의 ㉠ **시계(視界)** 속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진리로 나아간다. 감상자는 예술 작품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 방식의 감상을 통해 예술 작품과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낸다. 예술 작품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전이해(前理解)**의 예증(例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외재(外在)**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 이를 초월·확대·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야(視野)**를 획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 작품도 자신과는 다른 감상자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초월**하게 된다.

감상은 감상자와 예술 작품이 양방향으로 초월하는 미적 체험의 과정이다. 예술 작품은 감상자를 향하여,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향하여 서로 열려 있는 것이다.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閔)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 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략)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 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오. 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거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토끼가 두꺼비더러, ‘내가 팽조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말로 후생(後生)*이다.’

하고 말하니,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읊는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왜 그리 슬퍼하나?’

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합디다.

‘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와 동갑인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는 아득한 옛날 천황씨(天皇氏) 때에 태어나서 인년(寅年) 역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王)과 제(帝)를 거쳤으며, 주(周)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冊曆)** 하나를 이루었지. 진(秦)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漢) 당(唐)을 거쳐 아침엔 송(宋)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明)나라가 되었지. 모든 사변을 겪으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저 아이처럼 나이 많게 살았던 자는 없을 거야. 그런데 팽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찍 사라졌단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거지.’

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

‘네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합디다. ㉢ 이로서 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오.”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거려?”

“보았지. ㉣ 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흠을 평평하게 해서 염전을 만들거든.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그러자 모두들 말하였다.

“좋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죠?”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

[A]

㉠ 참조 체계 - 감상자 - 의미 - 관계
 ㉡ 감상자 - 참조 체계 - 관계 - 의미
 ㉢ 참조 체계 - 감상자 - 관계 - 의미
 ㉣ 감상자 - 참조 체계 - 의미 - 관계
 ㉤ 참조 체계 - 관계 - 감상자 - 의미

48. 위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예술 작품 감상의 의의
- ② 예술 작품 감상의 배경
- ③ 예술 작품의 창작과 감상
- ④ 향유로서의 예술 작품 감상
- ⑤ 소통으로서의 예술 작품 감상

49. [A]의 내용으로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 | | | |
|---------|---------|-------|------|
| ㉠ | ㉡ | ㉢ | ㉣ |
| ① 참조 체계 | - 감상자 | - 의미 | - 관계 |
| ② 감상자 | - 참조 체계 | - 관계 | - 의미 |
| ③ 참조 체계 | - 감상자 | - 관계 | - 의미 |
| ④ 감상자 | - 참조 체계 | - 의미 | - 관계 |
| ⑤ 참조 체계 | - 관계 | - 감상자 | - 의미 |

50. ㉠ “셰익스피어는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 ① 셰익스피어 작품의 의미는 준거틀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
- ② 셰익스피어는 모든 것을 말해 버려서 더 이상 할 말이 남아 있지 않았다.
- ③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새로운 감상자들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의미로 다가간다.
- ④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에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
- 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감상자들은 셰익스피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두 읽어 내지 못했다.

51. 위 글의 문맥으로 보아 ㉠ **시계(視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 ① 과정
- ② 전이해
- ③ 외재
- ④ 시야
- ⑤ 초월

겠소? 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천 년만에 복령(茯苓)이 되지. 인삼 가운데는 신라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정한 모양 붉은 빛에 사지가 갖추어진 데다, 쌍갈래로 뚫은 머리는 아이처럼 생겼지. 구기자가 천 년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다우. 내가 일찍이 이 세 가지 약을 먹고는 백 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숨결이 가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이웃집 할미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네 병은 굶주렸기 때문에 생겼지. 옛날에 신농씨(神農氏)가 온갖 풀을 다 맛보고 비로소 오곡(五穀)을 뿌렸으니, 병을 다스리려면 약을 쓰고 굶주림을 고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네. 이 병은 오곡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겠네.’

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우. ㉠ 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썸이지.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먹고, 이제 벌써 일흔이 넘었다우.”

(중략)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디다.”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 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는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이놈이 날면 명(螟)이 되고, 붙으면 모(蠹)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디다.”

민 영감이 말했다.

“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 내 보기에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이야.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닿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지. 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는데,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

* 후생(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책력(冊曆): 일 년 동안의 월일,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적은 책.

*** 황충(蝗蟲): 풀무치. 메뚜기과의 곤충.

52. 위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②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 ④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간결한 문체로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53.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민 영감은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민 영감은 신선이나 불사약이 헛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③ 손님들은 당시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민 영감은 당시 현실이 옛사람의 도(道)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있다.
- ⑤ 손님들의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4. [A]의 내용에 착안해서 도서 광고 문안을 작성해 보았다. 민 영감이 말하고자 한 의도를 가장 잘 살린 것은?

- ① 어린이를 위한 『중국사 오천 년』, 초등학교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 쉽게 풀어썼습니다.
- ② 생각을 키우는 『중국사 오천 년』, 오천 년의 경험과 지혜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 ③ 시대 구분이 새로운 『중국사 오천 년』, 고대사와 중세사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했습니다.
- ④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오천 년』, 한국인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제적인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 ⑤ 한 권에 담은 『중국사 오천 년』, 선사 시대부터 명나라까지 시대별 주요 사항을 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55. <보기>는 가상해서 쓴 글쓴이의 회고록이다.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측면 공격이나 역습’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보 기>

돌아보건대 민 영감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나고도 기이하고, 능청스럽고도 걸쭉했다. 민 영감은 말 속에 단단한 속 뜻을 담아 생각을 펼치곤 했다. 민 영감은 언제나 말을 길게 늘어놓았지만, 끝에 가서는 모두 이치에 맞았다. 게다가 속속들이 풍자를 머금었으니, 변사(辯士)라고 할 만했다. 마치 전투에 나선 장수가 작전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듯 했는데, 자주 측면 공격이나 역습을 펼쳤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6. ㉠에 나타난 민 영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은? [1점]

- ① 비분강개(悲憤慷慨)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③ 망양지탄(亡羊之嘆) ④ 후생가외(後生可畏)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와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터 사이에 오고가는 정보를 읽어서 내가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를 ㉠ 빼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 이외에는 그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절대로 겹치는 법이 없는 한 쌍의 키를 준비한다. 내 컴퓨터가 준비한 키 쌍을 각각 공개키 A와 비밀키 a라고 하자.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주는 데에 사용하고 비밀키 a는 내 컴퓨터에만 보관한다. 공개키 A로 암호화된 정보는 오직 비밀키 a가 있어야만 해독되어 원래의 정보로 만들 수 있으며, 공개키 A를 가지고도 해독될 수 없다. 따라서 비밀키 a만 내 컴퓨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 주어도 무방하다.

(다) 이제 인터넷 서점 '책마을'에 접속하여 책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책마을 컴퓨터가 공개키 B와 비밀키 b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컴퓨터가 책마을 컴퓨터에 접속하자마자 두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공개키를 교환한다. 즉 내 컴퓨터는 B를, 책마을 컴퓨터는 A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내 컴퓨터에 입력하면 내 컴퓨터는 이것을 책마을 컴퓨터의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정보를 자신의 비밀키 b로 해독하여 원래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는다.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보내진 정보는 비밀키 b를 갖고 있는 책마을 컴퓨터만 해독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내 신용카드 정보를 해독하기는 불가능하다.

(라) 내 컴퓨터의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인 척하고 자기 컴퓨터에서 공개키 A를 알려주고 책을 주문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마을 컴퓨터가 받고 있는 정보의 송신자가 내 컴퓨터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책마을 컴퓨터는 내 컴퓨터에 '책마을만세'와 같은 임의의 단어를 보내면서 이 단어를 내 컴퓨터의 비밀키 a로 암호화한 후, 원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비밀키 a로 암호화된 정보가 공개키 A로만 해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 내 컴퓨터는 원래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전송하고, 이 두 정보를 전송 받은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단어를 공개키 A로 해독한 후에 전송 받은 원래 단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들이 일치한다면 공개키 A를 가진 컴퓨터(내 컴퓨터)가 보낸 정보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어떤 사람은 자기 컴퓨터가 가르쳐 준 공개키 A에서 비밀키 a를 알아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비밀키 a에서는 간단한 계산만으로 공개키 A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개키 A에서 비밀키 a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른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계산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고 할 수 있다.

57. 각 단락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효용성
- ② (나):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방법
- ③ (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동작 원리
- ④ (라): 송신자 컴퓨터를 확인하는 원리
- ⑤ (마):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안전성

58. 위 글에 나타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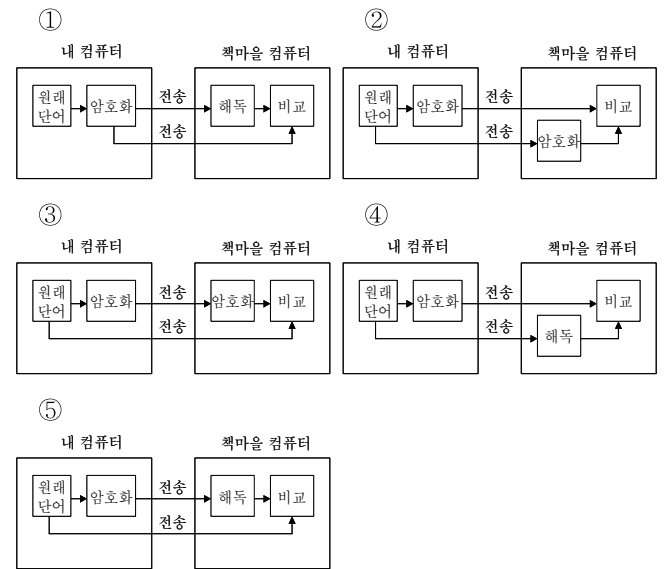
- ①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끼리는 공통의 비밀키를 사용한다.
- ②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보내는 정보는 비밀키로 해독될 수 없다.
- ③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면 공개키 암호화의 안전성은 높아진다.
- ④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끼리는 상대방 컴퓨터의 비밀키를 모르고 있다.
- ⑤ 공개키로 암호화된 정보는 암호화에 사용된 공개키를 알면 해독될 수 있다.

59. 국어 사전에서 ㉠의 의미를 바르게 찾은 것은? [1점]

빼-내다 [빼 : --] [-내어(-내), -내니] ㉠ (...에서 ...을)
 (1) 박혀 있거나 끼워져 있는 것을 뽑다. (2) 여럿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 혹은 불필요한 것만을 골라내다. (3) 남의 물건 따위를 돌려내다. (4) 남을 피어서 나오게 하다. (5) 얽매인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다.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60. ㉡의 내용을 그림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3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1	②	16	①	31	①	46	②
2	①	17	③	32	⑤	47	③
3	④	18	①	33	⑤	48	⑤
4	③	19	⑤	34	③	49	②
5	④	20	③	35	③	50	①
6	⑤	21	⑤	36	②	51	②
7	③	22	②	37	④	52	④
8	④	23	③	38	①	53	③
9	③	24	①	39	①	54	②
10	③	25	④	40	④	55	③
11	⑤	26	⑤	41	④	56	①
12	②	27	①	42	②	57	②
13	①	28	④	43	④	58	④
14	⑤	29	③	44	⑤	59	③
15	②	30	②	45	②	60	⑤

제 1 교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언제나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은가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홀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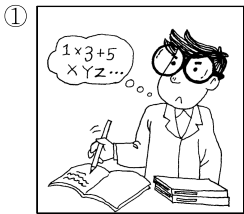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답을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홍보물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2. (물음) 방송 출연자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여 우리말의 고유성을 해치고 있다.
- ②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비속한 어휘와 반말을 사용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④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터넷상의 용어 사용으로 특정 청취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력이 떨어진다.

3. (물음) 수업에서 설명한 원리를 적용할 때, 친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도 책이 당장 필요해서 그래. 내 사정도 이해해 줘.
- ② 네 기분도 이해는 하지만 책을 던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 ③ 그러면 나만 야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상하잖아.
- ④ 책을 미리 돌려 달라는 건 미안하지만 너의 행동도 문제가 있어.
- ⑤ 그렇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나도 기분이 나빠. 그만 오해 풀자.

4. (물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 불안'을 진단하는 점검 표를 만들려고 한다.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말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 ②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는다.
- ③ 나는 처음 접한 상황에서도 말을 잘 한다.
- ④ 나는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⑤ 나는 부모님, 선생님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교수의 질문 성격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① 문제 제기 → 논거 확인 → 상세화 요구 → 반론 제시 → 해결 방안 요구
- ② 문제 제기 → 논거 확인 → 상세화 요구 → 해결 방안 요구 → 반론 제시
- ③ 문제 제기 → 논거 확인 → 반론 제시 → 상세화 요구 → 해결 방안 요구
- ④ 문제 제기 → 반론 제시 → 논거 확인 → 해결 방안 요구 → 상세화 요구
- ⑤ 문제 제기 → 반론 제시 → 논거 확인 → 상세화 요구 → 해결 방안 요구

6. (물음) 학생의 대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자기 주장과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다.
- ③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외국의 사례를 들어 핵심적 논거를 보완하고 있다.
- ⑤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논점에서 어긋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11.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쓴 쪽지 글이다. <보기>의 조건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보 기>

1. 희망적인 내용을 담을 것.
2. 적절한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할 것.
3. 직유나 은유의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많이 아프지?
몇 주 동안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니?
문득 '하면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반 친구들도 네 안부를 물었어.
- ② 친구가 떠나서 무척이나 섭섭하겠구나.
축 처져 있는 모습, 너답지 않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
너무 아파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렴. 봄의 새싹같이.
- ③ 선생님께 혼나서 많이 속상하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
괜찮지? 수업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 ④ 동생이 아픈데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다며?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엷친 데 덮친 격'이 되었구나.
힘내! 우리는 젊잖아?
햇빛처럼 환한 너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다, 친구야.
- 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쉽다.
너무 절망하지 마. 사실 나도 떨어졌거든.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말도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12.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자기 평가표에 따라 표시하여 보았다. 바르게 표시한 것은?

<보 기>

행복한 사람의 특성과 조건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첫째, 물질적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행복이다. 이에 비해 정신적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그만큼 적극적, 능동적인 행복이다. 둘째, 물질적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신적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다. 비교의 대상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능동적인 행복은 인간의 수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다.

셋째, 물질적인 행복은 제한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신적인 행복은 무제한적인 행복이다. 정신적 가치는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유산이다.

	평가 항목	그렇다	아니다
①	제목과 글의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
②	주요 개념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
③	문단은 적절히 구별되어 있는가?	✓	
④	앞뒤 문장의 연결은 자연스러운가?	✓	
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적절한가?	✓	

13. <보기>의 ㉠~㉣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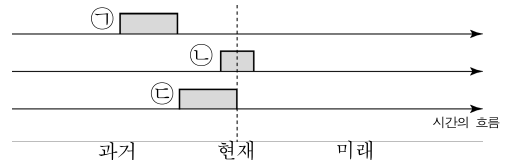
- ㉠ 할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신다.
- ㉡ 영수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
- ㉢ 할머니께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 | | | |
|-----------|--------|------------|
| ① ㉠-말하는 이 | ㉡-주체 | ㉢-주체 |
| ② ㉠-듣는 이 | ㉡-주체 | ㉢-주체 |
| ③ ㉠-듣는 이 | ㉡-대상 | ㉢-듣는 이 |
| ④ ㉠-주체 | ㉡-듣는 이 | ㉢-주체, 듣는 이 |
| ⑤ ㉠-주체 | ㉡-대상 | ㉢-주체, 듣는 이 |

14. <보기>의 ㉠~㉣를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점]

<보 기>

사람들은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을 한 시점을 비교하여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인식한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 '진행', '완료'로 구분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시간 표현의 예]

- 나는 밥을 ㉠ 먹고 있다.
- 어제 나는 박물관에 ㉡ 갔었다.
- 우리는 한글을 오랫동안 ㉢ 사용해 왔다.

- | | |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15. <보기>의 ㉠, ㉡과 의미 중복 유형이 가장 유사한 단어는?

—<보 기>—

㉠ ‘저희들’이나 ㉡ ‘너희들’은 ‘-희’가 복수성을 가지고 있어 ‘저희’, ‘너희’만으로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다 다시 ‘-들’을 붙여 ‘저희들’, ‘너희들’처럼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뺏골 ② 외갓집 ③ 씹씹이
- ④ 단웃날 ⑤ 교차로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는 주로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만 가끔 ‘매직펜’으로 줄을 긋거나 글씨를 쓸 일이 생깁니다. 이 매직펜은 매직잉크가 든 작은 병을 병째 펜처럼 들고 사용하도록 만든 편리한 문방구(文房具)입니다. 이것은 붓글씨와 달라 특별한 ㉠ 숙련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초보자가 따로 없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나 눌러도 정해진 음이 울리듯, 매직펜은 ㉡ 누가 긋더라도 정해진 너비대로 줄을 칠 수 있습니다. 먹을 갈거나 붓끝을 가누는 수고가 없어도 좋고, 필법(筆法)의 수련 같은 귀찮은 노력은 더구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발성이 높아 건조를 기다릴 것까지 없고 보면 가히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편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를 지날 때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기계와 기계의 틈새에 끼인 문명의 비명 같은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달려들 듯 다가오는 그 ㉢ 자극성의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붓은 결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약손같이 부드러운 감촉이, 수줍은 듯 은근한 그 묵향(墨香)이, 묵의 깊이가 좋습니다. 추호(秋毫)처럼 가는 획에서 필관(筆管)보다 굵은 글자에 이르기까지 흡사 피리 소리처럼 이어지는 그 폭과 유연성이 좋습니다. 붓은 그 사용자에게 상당한 양의 노력과 수련을 요구하지만 그러기에 그만큼의 애착과 사랑을 갖게 해 줍니다. 붓은 좀체 호락호락하지 않은 매운 지조의 선비 같습니다.

매직펜이 실용과 편의라는 서양적 사고의 산물이라면 붓은 동양의 정신을 담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버릇집 속에는 이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소위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절충의 논리를 수긍하는 뜻이 아닙니다.

절충이나 종합은 흔히 은폐와 호도(糊塗)의 다른 이름일 뿐,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 사회,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제 조건에 비추어, 비록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중, 선후를 준별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실천적 파당성(派黨性)이 도리어 ‘시중(時中)’의 진의이며 중용의 본도(本道)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역시 붓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주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아온 저에게 있어서 붓은 단순한 취미나 여기(餘技)라는 공연한 사치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신영복, 매직펜과 붓 -

(나)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쩌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 창조의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 이어령, 폭포와 분수 -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글쓴이의 선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서로 관련되는 대상을 대비하여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대상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17. ㉠~㉥ 중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8. ㉡의 ‘누(구)’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1점]

- ①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②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할래?
- ③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 ④ 그에게 누구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 ⑤ 누구든 나한테 한 명만 보내 줄래?

24. 위 글의 관점에서, 식사 장애를 겪고 있는 <보기>의 화자에
게 증상의 원인을 진단하여 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항상 무능하다는 느낌에 압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외모가 매력적이고 날씬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연예인처럼 날씬해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내 체중은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다. 나의 체중 감소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선은 기쁘다. 체중이 줄수록 내가 서서히 아이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 좋다.

- ① 당신의 증상은 정신 병리적인 것이며 신경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당신의 증상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③ 당신의 증상은 일종의 음식물 섭취 혼란 증후군으로 먹는 것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 ④ 당신의 증상은 양육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유대를 단절하는 반항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당신의 증상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획일화된 몸 이미지에 깊이 종속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영화 한 편에 천만 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영화 초창기인 1930년대에 발터 벤야민(W. Benjamin)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니는 ㉠ 아우라(Aura)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우라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대상과 ㉢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은 심연에 있는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파괴되는데, 벤야민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를 든다.

벤야민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관객의 자리에 카메라가 대신 들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극의 경우 배우와 관객은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출해 보이고 관중의 호흡에 맞추어 연기를 할 수 있다. 관객은 연극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를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카메라가 개입된다.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지만, 카메라라는 기계가 갖는 비인간적 요소로 인해 ㉣ 시선의 교감을 나눌 수 없게 된다. 관객은 ㉤ 스크린에 비친 영상만을 접하기 때문에 배우와 교감할 수 없고, 다만 카메라와 일치감을 느낄 때만 배우와 일치감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객은 카메라처럼 배우를 시각적으로 시험하고 비평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 배우는 모든 교감의 관계가 차단된 유배지 같은 곳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배우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도, 배우가 그려내는 인물의 아우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영화 배우의 연기는 하나의 통일된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적 작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이는 연기자의 연기를 일련의 조립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쪼개어 놓는 카메라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카메라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촬영되고 편집된 한 편의 완성된 영화에 담긴 동작의 순간들은 카메라 자체의 그것일 뿐이다. 영화 배우는 각 동작의 순간순간에 선별적으로 배치된 여러 소도구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카메라에 의해 조립된 영상들에 아우라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런 점들을 들어, 벤야민은 전통적인 예술이 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 아름다운 가상(假像)의 왕국으로부터 예술과 그 수용층이 멀어지고 있음을 영화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비판한다. 영화 초창기에 대두된 벤야민의 이러한 비판이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5. 위 글에 나타난 벤야민의 견해와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연극 배우는 관객과 호흡을 맞추어 연기한다.
- ② 영화 배우는 카메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③ 영화에서 배우는 살아 있는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는다.
- ④ 영화 관객은 배우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 ⑤ 기계적 장치들이 예술 영역에 침투하면서 수용층의 태도가 변한다.

26. 문맥상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화원의 장미꽃이 예뻐서 화병에 한 다발을 꽂아 두고 늘 가까이했다.
- ② 한적한 시골에 가서 며칠 폭 쉬다 보니 세상만사 온갖 시름이 다 잊혀졌다.
- ③ 조용한 카페에 홀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상념을 떠올렸다.
- ④ 따뜻한 봄날,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그윽이 바라보자 그 꽃이 내게 미소로 답했다.
- ⑤ 방안이 너무 어둡고 칙칙한 것 같아서 화사한 색채를 지닌 그림을 벽에 걸어 두었다.

27. ㉠~㉥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위 글에 나타난 벤야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즘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화려하면서도 눈부신 영상미는 영화만이 갖는 큰 강점이지.
- ② 벤야민이 살던 시대의 영화 배우들은 연기를 못했나 봐. 요즘 영화 배우들은 연기를 정말 잘하잖아.
- ③ 우리나라 영화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데, 제작비만 하더라도 몇 십 억이 들잖아? 그리고 영화관에 몰리는 관객 수도 엄청나.
- ④ 요즘 카메라 촬영 기법이 아주 좋아졌어.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은 물론이고 세밀한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 놓잖아.
- ⑤ 영화를 두고 예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변하잖아.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臣) 부식은 아뢰입니다. 옛날 열국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일을 적었기에, 『맹자』에 “신의 승, 초의 도율, 노의 춘추는 한 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해동 삼국은 역사가 오래되어 그 사실이 응당 ㉠ 책에 밝혀져야 되겠기에, 늙은 신에게 명하여 이를 편집토록 하셨으나, 스스로 돌아봐도 부족할 따름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 중략 ...) “오늘날 학사·대부들이 오경·제자의 글 및 진한·역대의 사서(史書)에 대하여는 간혹 환하게 알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탄할 노릇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열어 솔밭처럼 맞서면서도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하였기에, 『한서』와 『당서』에 모두 그 열전이 있기는 하나, 국내는 상세히 하고 외국은 간략히 하는 ㉡ 바람에 그 일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습니니다. 또 그 고기(古記)란 것도 문자는 거칠고 불합리하며 사적(史蹟)은 빠지고 없어져서, 임금의 선함과 악함, 신하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평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러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훌륭한 사서를 이름으로써, 이를 만세토록 남기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과 같은 자는 본래 뛰어난 인재도 아니고 깊은 지식도 없을 뿐더러,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날로 혼미해져서, 글을 부지런히 읽어도 책을 덮으면 바로 잊어버리고 붓을 잡아도 힘이 없어 종이를 대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의 학술은 이렇게 짧고 얕은데 옛 사적은 저렇게 깊고 아득합니다. 이 때문에 온 정력을 쏟아 겨우 책을 얻었으나, 끝내 보잘 것이 없어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두서 없이 간추린 솜씨를 양해하시고 되는데로 만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비록 명산에 간직할 거리는 못 될지라도, 장독 덮개로 쓰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구구히 망령된 뜻은 밝은 해가 굽어 비출 것입니다.

- 김부식, 진삼국사기표 -

(나)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어리석은 남녀도 흔히들 말한다. 내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우리 스승 공자께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였다. ㉣ 나중에 『위서』와 『통전』을 보매 역시 그 일이 자세하지 못하니, 국내는 자세히 하고 외국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보니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되풀이 읽어 점점 ㉤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는 사실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랴. 김부식 공이 국사를 증찬하면서 그 일을 자못 생략하였으니,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므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와 「양귀비전」에는 방사(方士)**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두려워 노래로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데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시로써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 이규보, 동명왕편 서(序) -

* 괴력난신(怪力亂神):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나 현상.
** 방사(方士): 신선의 도술을 익히는 사람.

29. (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점]

- ① 왕명으로 사서를 편찬하여 널리 보급시켰다.
- ② 글쓴이는 평생에 걸쳐 사서 편찬에 종사하였다.
- ③ 우리나라 삼국을 다룬 고기(古記)는 길이 후세에 전할 만하다.
- ④ 당시의 학사·대부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잘 몰랐다.
- ⑤ 중국의 역사서에는 우리나라 삼국의 사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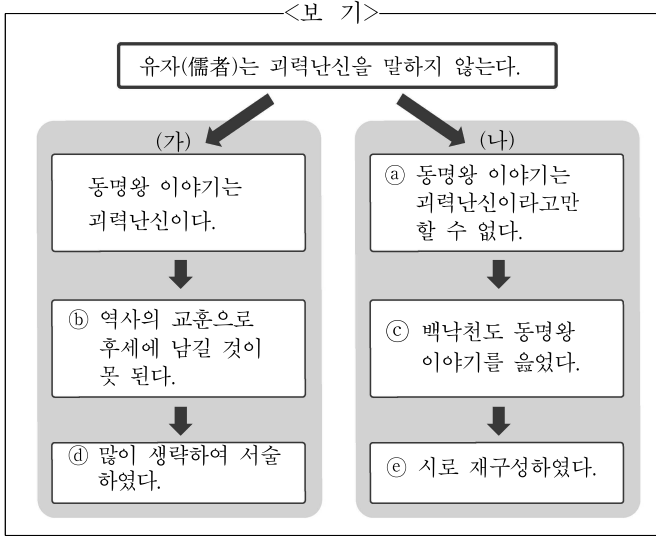
- ① (가), (나)는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 (나)는 옛일을 끌어들이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 ③ (가)는 왕을, (나)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대화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가)는 공순(恭順)한 태도를, (나)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1. ㉠~㉤ 중, <보기>의 ‘에서’와 쓰임이 가장 비슷한 것은? [1점]

<보 기>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 ① ㉠ 책에 ② ㉡ 바람에 ③ ㉢ 후세에
- ④ ㉣ 나중에 ⑤ ㉤ 근원에

32. <보기>는 (나)를 바탕으로 (가), (나)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 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서를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한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계고장,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긴 처음 내본 인감 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마당가 팬지 꽃 앞에 앉아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 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어머니가 십오만 원을 갚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올려 눈물을 닦았다.

“에유, 정이란 게 뭔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거래우.”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매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톤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봐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

“몰라요.”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깥 마른 물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눌러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예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줄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 주마.”

㉣ “없지?”

“네.”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어디 가 있었니?”

나는 돌맹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33. 위 글의 창작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아버지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를 달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② 지섭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③ 철거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저항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④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 가운데에서도 철거되는 집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집을 비워 주어야 할 시기와 영희의 가출 시기를 맞물리게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질적인 장면을 삽입하여 비극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 ② ㉡: 서술 시점을 바꿔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준다.
- ③ ㉢: 책을 매개로 하여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④ ㉣: 장면을 전환하여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여 준다.
- ⑤ ㉣: 생각이 흘러가는 동안 행동도 함께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3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집을 파는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 ② 가족이 무력한 존재로 살아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집을 파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함을 보여 준다.
- ④ 떠돌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가족의 숙명을 보여 준다.
- ⑤ 가족의 기억을 담고 있는 집이 표찰과 서류로 대체됨을 보여 준다.

36.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해석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 비판의 표시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대항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이미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되거나 현실을 극복해 가는 힘이 된다.

- ① ‘달’은 현실의 모습을 개혁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② ‘달’은 아버지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달’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현실 개혁의 방법을 제시한다.
- ④ ‘행복동’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 세계가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임을 암시한다.
- ⑤ ‘행복동’은 현실 비판적 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7. [B]를 <보기>와 같은 시나리오로 각색했을 때, 고려했을 내용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S# 73. 김불이 집 마당(저녁)

마당가 팬지 꽃 앞에 있던 영희, 슬픔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집 밖으로 뛰어나간다.

어머니, 사나이가 돈을 헤아리는 것을 바라본다. 돈을 헤아리는 모습 위에 O.L.*

남편과 아이들이 도랑에서 돌을 지고 와서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어 벽에 시멘트를 치던 모습.

“여기 있습니다.” 하는 소리에 다시 O.L.

사나이가 돈을 내민다.

어머니, 자신이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난다.

아버지가 돈을 받는다. 아버지, 잠깐 돈을 들여다본다.

여기에 덮이는 지섭의 소리 —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어머니에게 돈을 넘겨주자 어머니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는다.

어머니, 잠시 멍해진다. F.O.**

* O.L.(overlap): 화면이 겹치지며 장면이 바뀌는 수법.
** F.O.(fade out):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것.

- ① 영희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집이 팔리는 상황에서 영희가 느끼는 감정을 더욱 강조한다.
- ② 집을 파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심경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 집을 짓던 때의 행복했던 모습을 끼워 넣는다.
- ③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당시의 행복했던 모습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환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나이의 목소리로 회상 장면에서 돌아오도록 한다.
- ④ 돈을 받는 상황에서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섭의 말을 끼워 넣는다.
- ⑤ 어머니의 허탈하고 슬픈 표정을 어둡게 처리하여, 집의 매매가 끝났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38~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라.

- * 만경파(萬頃波): 넓은 바다 물결.
- ** 홍진(紅塵):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제세현(濟世賢):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활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다)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의에는
아니 어느 ㉡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은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家庭) -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점]

- ①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
- ③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39.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 ②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마지막 연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속세와의 거리감을 수(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지막 구의 '제세현(濟世賢)'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40. (가)와 <보기>의 작가가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와 저물어 간다 연식(宴息)*이 마땅토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興)치며 걸어가서
 지국충(至菊叢) 지국충(至菊叢) 어사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峰)에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껴 있자.

* 연식(宴息): 편안하게 쉬.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① 윤선도: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시를 보면 푸른색, 흰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 ② 이현보: 윤 선생님의 시에도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분명하던데, 제가 잘못 읽었나요?
- ③ 윤선도: 저는 이 선생님처럼 어부를 등장시키고,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 했지요.
- ④ 이현보: 윤 선생님은 흥(興)이라는 정서를 끌어냈는데, 저는 아직도 무심(無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⑤ 윤선도: 이 선생님의 시에 나타나는 ‘없으니’, ‘있었거니’, ‘더욱’, ‘없으랴’ 등의 시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군요.

41. (나)와 (다)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나)와 (다) 모두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각각 ‘독’과 ‘신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에 비해 내면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 있다.
- ④ (다)는 (나)에 비해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나)는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2. <보기>를 참조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영랑의 시심(詩心)은 아름다운 남도(南道)의 자연과 소박하고 따스한 인정 속에서 짝튼 것이다. 세속의 명리(名利)를 탐하여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고향 집 뜰에 곱게 피는 모란을 어루만지면서 시심을 가꾸는 것이 일제 감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에게는 훨씬 떳떳한 길이었다.

- ① ‘내 마음을 노리매’라는 시어에서 작가의 고통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 ② 마음 속에 ‘독’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③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가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향 집을 떠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④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다.
- ⑤ 작가가 고향 집에서 시심을 가꾸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43.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시적 화자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을 의미한다.
- ② ㉡: 막내동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③ ㉢: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슬픔이 나타나고 있다.
- ④ ㉣: 어미처럼 보살피 주어야 할 어리고 귀여운 자식들을 비유한다.
- ⑤ ㉤: 반복을 통해 아버지의 등장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책임감을 부각하고 있다.

44. (나)의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에 나타난 시적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어테로 가야 하나/ 어테로 날아가야 하나/ 피흘리며 찾아온 땅/ 꽃도 없다/ 이슬도 없다/ 녹슨 철조망가에/ 나비는/ 바람에 날린다 - 박봉우, 휴전선의 나비 -
- ② 올해도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작년 이맘때 오른/ 산마루 옛 성(城)터 바위 모서리./ 작년처럼 단풍은 붉고// 작년처럼 / 가을 들판은 저물어간다. - 김종길, 단풍 -
- ③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는 해의 힘없는 햇빛 한 가닥에도/ 날카로운 풀잎이 땅에 처지는 것을//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제 입술로 훑아주는 가녀린 풀잎 - 이성복,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
- ④ 막차는 줌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 광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
- ⑤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겨울강 강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으스스 내 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 정호승, 겨울강에서 -

[45~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34년 7월 1일. 조선 왕조는 자격루(自擊漏)라고 불리는 자동 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각을 측정하는 잣대의 길이를 4배 가량 키워 눈금을 세밀하게 새겨 넣고, 물받이 통을 비울 때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잴 수 있게 통을 2개로 늘렸다. 여기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더하여 자격루를 완성하였다.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연결해 주는 방목(方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만 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항아리인 파수호에서 물을 흘려 보내면 물받이 통인 수수호에 물이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호에 띄워 놓은 잣대가 고인 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낸다.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수호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 자격루의 수수호는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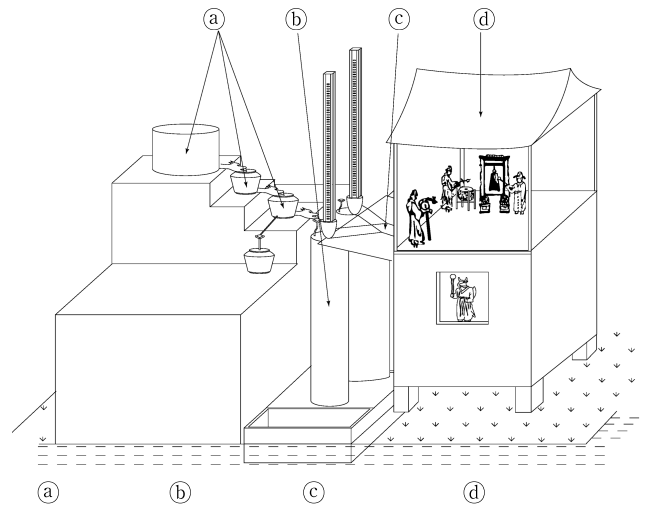
시보 장치의 상단에 설치된 3개의 시보 인형은 시(時), 경(更), 점(點)마다 각각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린다. 시보 인형 가운데 하나는 시를 알려 준다. 매 시각마다 인형의 팔뚝과 연결된 제어 장치가 작동하여 인형의 팔뚝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종을 울리게 한다. 시를 담당한 인형이 종을 울리면 곧이어 시보 장치 하단에서 12지신 가운데 그 시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 자시(子時)에는 쥐 인형이 ‘자(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지금 울린 종소리가 자시라고 알려 준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은 시보 장치 안에 있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경과 점을 알려 주는 다른 2개의 인형은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려 준다.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기의 원리가 들어 있는 방목은 시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즉, 수수호에 물이 차올라 잣대가 떠오르면서 방목 안에 설치된 장치가 구리로 만든 작은 구슬을 차레대로 떨어뜨린다.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인 아날로그 신호가 일정한 간격마다 구슬이 떨어지는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시보 장치에 전달되어 시간을 알려 주는 데 사용된다. ㉠한마디로 말해 자격루는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 시계인 셈이다.

한편, 조선 왕조에는 자격루가 제작되기 전부터 시간을 측

정하고 알려 주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다. 물시계를 맡은 관리는 밤낮으로 물시계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알려 주었는데, 가끔씩 제때를 놓쳐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 시보 장치를 가진 정확한 물시계의 제작은 모든 시계 제작 기술자의 꿈이었으며, 예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알려 줄 책무를 지닌 왕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자격루는 그 꿈을 실현시킨 15세기의 첨단 기술이었던 것이다.

45. 아래 그림은 위 글을 읽고 자격루의 구조를 추정하여 그린 것이다. ㉠~㉤의 명칭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1점]



- | | | | | |
|---|-----|-----|-------|-------|
| ㉠ | 수수호 | 파수호 | 잣대 | 시보 장치 |
| ㉡ | 물시계 | 파수호 | 방목 | 시보 장치 |
| ㉢ | 물시계 | 잣대 | 시보 장치 | 방목 |
| ㉣ | 파수호 | 수수호 | 방목 | 시보 장치 |
| ㉤ | 파수호 | 수수호 | 잣대 | 방목 |

46. <보기>를 이용하여 자격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 경점법이란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하룻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누고, 1경은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매일 조금씩 변하므로 경과 점의 길이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

- ① 경과 점을 알리는 시보 인형은 밤에만 작동한다.
- ②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항상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 ③ 밤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눈금이 다르게 새겨진 잣대를 사용한다.
- ④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리는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 ⑤ 시보 인형 3개의 역할은 각각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한다.

47.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시계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해.
- ② 자격루는 기계식이라서 오늘날의 전자식 시계와는 차이가 있어.
- ③ 자격루를 자동 물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이겠군.
- ④ 자격루에서 방목의 디지털 신호를 받아 작동되는 부분은 시보 장치야.
- ⑤ 시보 장치 안의 복잡한 기계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동력이 필요하구나.

48. 위 글을 읽고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했을까?
-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되었을까?
-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했을까?
-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지금 새삼스럽게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 진부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래방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노래방에서 '방'은 두세 평 남짓한 ㉡ 밀폐된 공간이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이 밀폐된 방을 찾아가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밀폐된 '방'을 나와 탁 트인 사회의 '광장'으로 나오면 청소년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광장'에는 기성세대의 문화만이 존재할 뿐 청소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불순하고 병든 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각종 금기가 청소년을 ㉢ 억압한다.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광장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노래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 역시 청소년들만의 온전한 문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란 매우 어렵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에, 언뜻 보면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상업주의에 물든 기성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도 상업 논리에 지배된다. 대중 음악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중파 방송에서 유행하는 십대 취향의 노래에서 잘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상업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그 문화에 ㉣ 침윤되어 가고

있다. 실험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 청소년들이 상업화된 노래를 부르며 창의성을 상실해 가는 자리가 바로 노래방인 것이다.

자신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어 노래방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상업적 문화에 몰들어 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화가 갖는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이 어둡고 밀폐된 '방'에서 밝고 환한 '광장'으로 나와 자유롭게 그들만의 문화를 ㉥ 향유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 계발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 또한 보여 준다. 청소년은 기성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빛깔에 물드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기성세대에게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존재도 아니다. 청소년의 창의성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면, 청소년 문화는 활성화되어 건강하게 꽃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보호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며, 청소년 문화는 우리 문화에 새로운 기운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특정 사례를 통해 문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②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③ 시간과 공간을 대비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④ 현상의 원인을 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다.
- ⑤ 대조되는 관점을 소개하고 그 중 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50. <보기>는 ㉠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청소년이 노래를 직접 만들어내야 청소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 예술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업 예술의 생산자는 □ 이러한 이유로, 노래방에서 불리는 노래에도 청소년들의 삶이 어느 정도는 담길 수 있다. 청소년들은 돈을 내고 문화 상품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주체성을 어느 정도 실현시킨다고 할 수 있다.

- ① 상품을 고르는 구매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 ② 구매자의 욕구와 욕망과 처지를 짐작하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 ③ 구매자가 상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 ④ 구매자가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 ⑤ 상업적 목적을 드러내면 구매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51. 위 글의 논지에 따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점]

- ①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 ② 청소년에게 기성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 ③ 청소년에게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길러 준다.
- ④ 청소년이 노래방 출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⑤ 학교 음악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삶을 다룬 작품의 비중을 높인다.

52. ㉠~㉡의 사전적인 의미가 잘못된 것은?

- ① ㉠ 진부(陳腐)하다: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
- ② ㉡ 밀폐(密閉)되다: 셀 틈이 없이 막히거나 닫혀 있다.
- ③ ㉢ 억압(抑壓)하다: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
- ④ ㉣ 침윤(浸潤)되다: 병 따위가 들어 시들다.
- ⑤ ㉤ 향유(享有)하다: 누리어 가지다.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전후 지낸 일이 다 정한 운명인 줄 알고, 더욱 슬퍼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전생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 지나간 고생과 지금 병든 아버지가 굶주리고 슬퍼하여 죽게 될 일을 생각하니 간장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이제는 너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후에 ㉡ 무궁한 복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내와서 먹이라 하니, 얼마 후에 시녀가 붉은 소반에 차를 내오는데 백옥 잔에 안개 같은 차와 대추 같은 과일이었다. 청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맑아져서 전생의 일이 분명히 기억났다. 부왕(父王)의 용안을 새롭게 알아보고, 좌우 시녀가 전생에 자기 앞에서 심부름하던 무리인 줄 아니 반감이 그지없었다. 자기가 본디 천일주를 맡아보다가 ㉢ 노균을 불쌍히 여겨 술을 훔쳐 먹이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니, 슬픈 마음이 새로워 부인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인간 세상에서 고초를 겪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도로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면 전생의 고초는 일장춘몽이 될 것이니 어찌 ㉣ 천명을 어기겠느냐?”

하고, 시녀를 명하여,

“청을 후원 별당으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라.”

하였다.

청이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벌여놓은 것

들이 모두 전날에 보던 것이었다.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기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 형편을 참혹히 여겨 붙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더운물을 입에 떠 넣어 구호하니,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 손으로 벽을 치며 통곡했다.

“불쌍하다 내 딸아, 세 살에 어미를 잃고 가련한 어린 아기 어미를 부르짖어 울 적에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목숨이 모질어 죽지 못하고 사는 중에 ㉠ 앞 못 보는 병신까지 되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집안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 하루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 추위와 더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벌어다가 잠 시도 배고프지 않게 해 주더니, 이제 아버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네 정성은 지극하나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아아, 하늘이여, 집안 살림이 어렵거든 눈이나 성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넉넉하거나 할 일이지, 제 어찌 애타도록 태우며 죽을 곳에 나아갔단 말이나? 슬프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참혹한데 나는 오랜 병에 성한 자식을 눈앞에서 비명원사(非命冤死)케 하니, 설령 천지귀신이 그릇되게 여기지 아니하여 눈이 뜨인들 어찌 홀로 살아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

하며, 이렇듯 밤낮으로 청을 부르며 통곡하니 이웃 사람이 그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애통해 하다가 스스로 위로하여 더듬어 보니, 청이 벌어다 모아 둔 양식과 마른 고기 반찬과 익힌 음식이 그릇마다 담겼거늘, 만지는 족족 가슴이 막히고 간장이 녹는 듯하여 아무리 슬픔을 억제하려 하나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다시금 딸을 부르짖어,

“불쌍하다, 너는 병신 아버를 이같이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너를 죽을 곳에 보내고도 태연하니 이게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하며, 밤낮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눈바람이 몰아쳐 뼈에 사무치고 적막한 빈집에 인적이 끊어지니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청이뿐이었고, 얼굴은 핏색하여 뼈만 남아 있었다.

- 심청전 (경판본) -

53. 위 글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인물간의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④ 비장미와 골계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 ⑤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한다.

54. <보기>를 참조할 때, ㉠~㉣ 중 ㉠과 거리가 먼 것은? [1점]

— < 보 기 > —

고전소설에 형상화된 세계에는 옥황상제라는 주재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옥황상제의 뜻이 ‘천명(天命)’이며 모든 존재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5.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현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 ②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서글퍼하고 있다.
- ③ 남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 ④ 심청의 고달팠던 삶에 대해 통탄하고 있다.
- ⑤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

56. 위 글을 읽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지는 않았군.
- ② 용궁의 신비한 다과는 심청이 지상에서 살았던 삶을 잊게 하는군.
- ③ 용궁은 심청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군.
- ④ 용궁은 심청이 다른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는군.
- ⑤ 심청은 심현에 대한 걱정과 용궁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군.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원래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種)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각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사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 생태적 봉사 기능을 들 수 있다. 생물은 생태계의 엔지니어라 불릴 정도로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숲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나무들은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 올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숲이 사라지면 수분 배분 능력이 떨어져 우기에는 홍수가 나고 건기에는 토양이 완전히 말라 버

린다. 이로 인해 생물 서식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마침내 상당수의 종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물, 흙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태계의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품 개발을 꼽을 수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 중에서 인류는 약 20,000여 종의 식물을 약재로 사용해 왔다. 그 가운데 특정 약효 성분을 추출하여 상용화한 것이 이제 겨우 100여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부전나비의 날개와 사슴벌레의 다리 등에서 항암 물질을 추출한 경우나 야생의 미생물에서 페니실린, 마이신 등 약 3,000여 가지의 항생제를 추출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과 미생물 역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의약품 개발 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화장품과 같은 상품 개발에 이용되고 있으며, 생태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 생물다양성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윈(Darwin)은 현존하는 여러 동물들의 상이한 눈을 비교하여,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눈이 진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눈은 해파리에서 나타나는 원시적 빛 감지 세포로부터, 불가사리처럼 빛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오목한 원시 형태의 눈을 거친 다음, 빛에 대한 수용력과 민감도를 높인 초기 수정체 형태의 눈을 지나, 선명한 상을 제공하는 현재의 눈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생물종은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 진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형태적 특성 외에도 각각의 생물종이 지닌 독특한 생리적,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생물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오늘날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생물다양성에 기초하여 무한한 생태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과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자연 파괴로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기관을 건립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7. 위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1점]

- ① 생물다양성의 정의
- ② 생물다양성의 가치
- ③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유
- ④ 생물다양성의 보존 방안
- ⑤ 생물다양성 훼손의 정도와 양태

58. ㉠~㉣과 <보기>의 예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1점]

<보 기>

㉠ 미생물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 식물에서 향료나 감미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들을 분리하여 상품화한다.
 ㉢ 동물에서 새로운 원료를 채취하여 부작용이 없는 화장품을 만든다.
 ㉣ 생물종의 분포 양상을 대륙이동설과 연결하여 특정 생물종의 출현 시기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동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한다.
 ㉥ 리보솜 디엔에이(DNA)의 염기 서열 비교 연구로 생물이 진정세균, 시원세균, 진핵생물 등 세 영역으로 대별됨을 알게 되었다.

- | | | |
|--------|------|------|
| ㉠ | ㉡ | ㉢ |
| ① a, e | b, c | d, f |
| ② a, e | b, d | c, f |
| ③ a, f | b, c | d, e |
| ④ b, c | a, f | d, e |
| ⑤ b, e | a, d | c, f |

59. 위 글과 <보기>를 읽고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생태계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대갈못 가설’을 주장한다. 이 가설에서는 생태계를 마치 금속 조각판을 못으로 이어 만든 하나의 비행기에 비유한다. 만약 못이 하나씩 빠져 나가면 비행기 동체는 점점 약해지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비행기는 폭삭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못은 비행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이른바 ‘주춧돌 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 ① 비행기 동체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야.
- ② 생태계의 네트워크를 명확히 파악하면 ‘주춧돌 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 ③ 비행기의 못 하나가 빠진다는 것은 생물종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는 거야.
- ④ ‘주춧돌 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겠어.
- ⑤ 생태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60. 글쓴이의 태도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가 전혀 없다.
- ②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③ 생물다양성 문제를 주로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④ 자연을 우선시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⑤ 인간과 자연을 대립 관계로 보면서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문항 번호	정 답
1	③	16	⑤	31	①	46	⑤
2	②	17	③	32	③	47	③
3	③	18	⑤	33	②	48	①
4	①	19	②	34	②	49	①
5	②	20	⑤	35	④	50	②
6	①	21	③	36	②	51	①
7	⑤	22	②	37	④	52	④
8	⑤	23	①	38	④	53	⑤
9	②	24	⑤	39	②	54	③
10	④	25	④	40	③	55	①
11	④	26	④	41	①	56	②
12	①	27	④	42	③	57	⑤
13	⑤	28	⑤	43	③	58	①
14	③	29	④	44	⑤	59	④
15	②	30	④	45	④	60	③

제 1 교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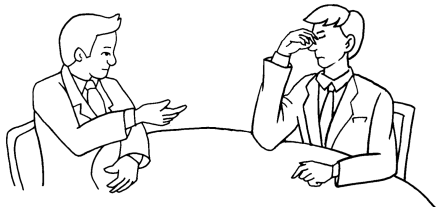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응시 계열, 문형,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안내원이 설명하고 있는 자기에 해당하는 것은? [1점]



2. (물음) 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장면의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자네가 그 일 좀 대신 맡아 주는 게 어떤가?
B : 글썄, 만만치 않은 일이라 좀더 생각해 봐야겠어.
- ② A : 김 과장, 어제 건네준 내 제안서는 읽어 보았나?
B : 아, 요즘 경황이 없어서 미처 읽어 보지 못했는데요.
- ③ A : 소문 들었어? 이번에 휴가가 삼 일로 늘었대.
B : 어,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는데.
- ④ A : 그 회의에 가서 우리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와.
B : 그럼, 점심 먹고 오후쯤 갔다와도 될까요?

- ⑤ A : 이번에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여행이나 함께 떠나자.
B : 음,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날까 모르겠어.

3. (물음) 강연에서 설명한 원리를 적용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의사 선생, 내 오른쪽 무릎이 왜 이리 쭈시지?
B : 할아버님, 그건 다 연세 때문입니다.
A : _____ ㉠ _____

- ① 하필 무릎으로 나이를 먹다니!
- ② 연세만 고치면 무릎이 다 낫겠군.
- ③ 의사 선생도 오른쪽 무릎이 쭈시겠네?
- ④ 아니, 연세가 내 무릎에 어떻게 들어갔지?
- ⑤ 그럼, 내 왼쪽 무릎은 왜 이렇게 멀쩡한가?

4. (물음) 점원이 사용하고 있는 판매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다른 매장에 대한 비교 우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격 인하로 얻을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고객의 기대 수준을 높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 ④ 제품의 내구성이 구매의 중요한 기준임을 내비치고 있다.
- ⑤ 남자 고객과 여자 고객의 구매 심리 차이를 이용하고 있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ARS 모금 방송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좌담 내용을 정리하였다. 잘못 정리한 부분은? [1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회의 확대 ① · 공동체 의식의 함양 ② · 봉사 정신의 확립 ③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간의 지나친 경쟁 ④ · 사생활 침해 우려 ⑤

6. (물음) 청취자의 전화 반응 중, 'ARS 모금 방송의 개선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첫 번째 청취자
- ② 두 번째 청취자
- ③ 세 번째 청취자
- ④ 네 번째 청취자
- ⑤ 다섯 번째 청취자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청소년의 사이버 문학 수용 실태'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보았다.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계획>	<수정 보완 방안>
조사 내용	1. 사이버 문학의 특성 2. 수용 실태 3. 외국의 사례 4. 전문가 의견	⇒ · 청소년의 일반 독서 실태를 포함할 것. · <u>사이버 문학 사이트의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것.</u> ①
조사 방법	1. 사이버 문학의 특성 - 서적(단행본, 잡지, 백서 등) 참조 2. 수용 실태 - 설문 조사 3. 외국의 사례 - 서적과 인터넷 참조 4. 전문가 의견 - 탐방(작가 ○○○, 평론가 ○○○)	⇒ · <u>외국의 사례는 사이버 문학의 형성 과정과 양상이 우리와 유사한 나라를 포함할 것.</u> ② · 전문가 탐방이 어려우면 서적에 소개된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할 것.
결과 정리	1. 사이버 문학의 특성 - 한 쪽 정도로 정리 2. 설문 - 성별, 장르별, 접속 시간 별로 정리 3. 외국의 사례는 나라별로 정리 4. 전문가 의견은 대담 형식으로 정리	⇒ · <u>설문 결과는 통계표와 그래프로 정리할 것.</u> ③ · 전문가 의견은 대담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적으로 서술할 것.
보고서 구성	1. 조사 방법 2. 조사 배경과 목적 3. 설문 결과의 분석 4. 외국의 사례 5. 전문가 의견 6. 요약, 정리	⇒ · <u>'1. 조사 방법'과 '2. 조사 배경과 목적'의 순서를 바꿀 것.</u> ④ · <u>조사 배경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도록 할 것.</u> ⑤

8. 다음 만화를 보고 떠오른 생각을 글로 쓰려고 한다. 글의 주제에 관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곳에 안주하기보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내용이 좋지 않을까?
- ② 때로는 편리함보다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글도 좋겠지.
- ③ 목표 달성에만 신경 쓰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무시하기 쉬운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 보는 글은 어때?
- ④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글도 좋을 거야.
- ⑤ 자동차 여행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글은 어떨까?

9.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메모를 작성하였다. 주제와 조건에 맞게 메모를 활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 : 속담의 특성과 기능을 알고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조건 : 본론을 세 문단으로 구성한다.

1. 속담의 개념
 -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짧게 나타낸 관용 표현
2. 속담의 형성 과정
 - 의미 있는 사건 발생 → 사건의 묘사 → 묘사가 다듬어짐 → 언중의 공감 → 속담으로 정착, 전파
3. 속담의 표현 형식
 - 군더더기가 없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언어
 -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조와 대구
4. 속담의 기능
 - 교화 :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풍자 :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라?"
5.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속담의 짝
 - "모르는 게 약이다." ↔ "아는 게 힘이다."
 - "공든 탑이 무너지라." ↔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
6. 속담 활용이 줄어드는 이유
 - 농경 사회의 여취가 대부분임
 - 전근대적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주로 담고 있음

- ① '1'은 서론에서 활용하되, 속담에는 생활에 유용한 내용이 들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음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한다.
- ② '2'와 '3'을 본론의 첫째 문단으로 함께 묶어 서술하여 속담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③ '4'는 본론의 둘째 문단으로 삼되, 보다 다양한 기능을 밝히고 그에 해당하는 예를 충분히 제시한다.
- ④ '5'는 본론의 셋째 문단으로 삼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속담을 제대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힌다.
- ⑤ '6'은 결론에서 활용하되, 이 때문에 속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속담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예를 들어 제시한다.

10. (가)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나)의 광고를 만들었다. ㉠에 들어갈 표제어로 적절한 것은?

(가)

- 예상 독자와 목적 : 일반 대중, 설득
- 구성 : ‘표제어 → 그림 → 내용’ 순으로 배치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 내용 :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인 헌혈 카드 갖게 하기
- 표현 : 비교를 통해 예상 독자의 자긍심을 강조하기

(나)

㉠

신용 카드, 전화 카드, 현금 카드, 회원 카드……
당신의 지갑을 채우고 있는 카드 중,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있나요?

대한적십자사

- ① 당신만의 자랑, 사랑을 담고 있는 헌혈 카드를 만드십시오.
- ② 온갖 카드 다 버려도 사랑의 헌혈 카드는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 ③ 수많은 카드보다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진짜 카드가 있습니다.
- ④ 다른 사람을 위한 카드보다 나만을 위한 카드가 많은 것은 아닙니까?
- ⑤ 다른 카드보다 가치 있는 헌혈 카드,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11. <보기>의 글을 읽고 협의하기를 통한 글다듬기를 하고 있다. 협의 내용 중 타당한 지적이 아닌 것은?

<보 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 환경 오염, 쓰레기 처리 시설 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 부족 문제. 우리 나라는 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이’ 한다. 대체제가 없는 물이 석유보다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는 환경 오염 문제이다. 오염의 정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이다. 별 타당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단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고친다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협의 내용>

동준 : 다 읽었으면 얘기 좀 해 봐. 부탁한다.
 헤란 : 내가 먼저 말할까? 문제 의식은 좋은 것 같아. 정말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잖아. 그런데 글을 읽어 보니까 ①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동준 : 그래?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 쓰려고 했는데…….
 윤서 : 그러면 ② 글 첫 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혔어야지.
 호재 : 그리고 내 생각에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③ 왜 그것이 문제인지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헤란 : 하나 덧붙이면, 이런 글을 쓸 때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좋은데, ④ 이 글은 감정이 너무 개입되어 있어.
 윤서 : 말 나온 김에, 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문제별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어때?
 동준 : 야, 무슨 지적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다 사람 잡겠다.

12. 문장 성분상, <보기>와 같은 유형의 잘못을 범한 것은?

<보 기>

나는 어제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 ① 대통령은 선수촌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치하했다.
- ② 집회는 관중도 못 미친 데다 관중들의 이타이 이타이 한 분위기였다.
- ③ 남자가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 피부 관리로 아름다움을 가졌다.
- ④ 그 수업장은 수강생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수강생들이 오면 건강에 따라 조정해 줘.
- ⑤ 지현이가 친구를 만나 길거리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도 없이 떠나가 버렸다.

13. 다음 사진의 내용을 참고할 때 ‘길항’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은?

길항근(拮抗筋) ㉠[의] 같은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동시에 하는 한 쌍의 근육.
길항 신경(拮抗神經) ㉡[의]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길항 작용(拮抗作用) ㉢[생] ①생물체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로 그 효과를 줄이는 작용. ② 어떤 종류의 균은 잘 증식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균은 발육이 억제되는 작용.

- ① 따르지 않고 맞서서 반항함.
- ② 서로 버티면서 대등하게 맞섬.
- ③ 어떤 것에 대하여 거스르는 움직임.
- ④ 한 물체의 힘이 다른 물체에 미치어 영향을 줌.
- ⑤ 어떠한 행위 결과의 반응을 보아 행동을 변화시킴.

14. <보기>의 ㉠~㉣에 들어갈 낱말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점]

<보 기>

- 네가 (㉠)이 미천한 만큼 남들이 업신여기기 쉬우나 남이야 업신여기든 말든 내 앞만 닦으면 그만이니.....
- 홍명희, 임격정 -
- 단 열흘 만에 대정 고을 유생들을 (㉡)으로 하여 자위단이 결성되었으니, 이롭게하여 상무사라 하였다.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 그 소년의 몸을 흐르는 피가 자신과 (㉢)을 같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은 용서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 이문열, 영웅시대 -

- | | | |
|------|----|----|
| ㉠ | ㉡ | ㉢ |
| ① 근본 | 근간 | 근원 |
| ② 근본 | 근원 | 근간 |
| ③ 근원 | 근간 | 근본 |
| ④ 근원 | 근본 | 근간 |
| ⑤ 근간 | 근본 | 근원 |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A] —————
아늑한 이 항구—L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땀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 대일 ㉡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 결정한다

[B] —————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기록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황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함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다) 때때로 머리 들어 ㉣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에 지게 한다.
우리 동방 문물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해추(海醜) 흉모(兇謀)*에 큰 수치를 안
고 있어

백분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리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자(臣子) 되어 있었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지만
㉣ 우국(憂國) 단심(丹心)이야 어느 각(刻)에 잊을런고.
강개(慷慨) 겨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마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이 갖춰 있고 명맥(命脈)이 있었으니
서질구투(鼠竊狗偷)***를 조금이나 두려워할까.

㉣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 해추 흉모 :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
** 설분신원 :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씻음.
*** 서질구투 :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화자의 무력감과 환멸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청년기 시인의 낭만적 열정이 투영되어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암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역설과 반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 [A]와 [B]가 작품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 ① [A]는 화자가 떠나고 싶어 하는 공간을 드러내고, [B]는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을 보여 준다.
- ② [A]는 화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B]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③ [A]는 화자의 소중했던 과거를 함축하고, [B]는 밝은 미래를 암시한다.
- ④ [A]는 화자를 상상에 몰입하게 하고, [B]는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 ⑤ [A]는 화자의 감상성을 드러내고, [B]는 힘찬 의지를 나타낸다.

17. ㉠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 유치환, 생명의 서 -
- ②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③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짹짹 서울길/ 몸팔러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땀기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 김지하, 서울길 -
- ④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방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한 발작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18. <보기>는 (나)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작품과 비평문을 함께 읽고 토론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이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이다. 시인은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하거나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를 배치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침투해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줌으로써,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 ①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의 맥락으로 보아 이 작품은 상황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 ② 이 작품이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정작 시인은 현실을 풍자하려고 한 게 아닐까?
- ③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는데, 시 전체가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닐까?
- ④ 영화 관람을 일상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사건을 비유한 것이 아닐까?
- ⑤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작품은 어느 시대에도 있는 보편적 인간의 모순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19.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들어갈 시구를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전체 시상의 흐름에 맞게 구성한다.
- 화자의 신분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다.
- 가급적 현대어로 쓰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 ① 적의 배에 달려 들어 선봉을 무찌르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다.
- ② 같은 배이지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 ③ 가을 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 있어
바다 물결 없는 평안함을 다시 보려 하노라.
- ④ 이 강산 부평 같은 어부의 삶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붙어 다닐런고.
- ⑤ 바람 좇은 구름은 원근(遠近)에 쌓여 있고
아득한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일세.

20. ㉠~㉣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점]

- ① ㉠은 떠나는 자신을 받아 줄 알맞은 조건을 의미한다.
- ② ㉡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상징한다.
- ⑤ ㉤는 시의 주제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들어가두 괜찮으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로 오른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아마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소년이 책 ㉠ 나부랭이를 챙겨 가지고 나온다. 부러진 연필 토막이 희미한 남포 불빛을 받아 눈에 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냄새가 고약하다.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벽 중간계에 있는 못에다가 건다. 호야가 양철에 부딪치면서 소리를 낸다. 소년이 나간다. 그는 불 건너편 벽에 기대앉아서 담배를 피워 문다. 연기를 내뿜는다.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 하는구나.”

“예. 점때두 일등했어요.”

아, 이걸 뻔뻔스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네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이 집은요, 월출리예요. 여기서 삼십 리나 들어가요.”

가난한 대학생. 털커덩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천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뺏어 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 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들썩 골

[A] 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아, 이럴 때 짹짹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들려 온다. 식모의 고무신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배 속으로 쑥 가라앉는다.

“학관 여기서 다니니?”

그는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다. 심지를 줄인 남뿔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방바닥이 뜨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일등을 했다구?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푼 안 들이고 나랏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혼란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에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 온 셈이다. 차라리 천재이었을 때 삼십 리 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뿔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 누구나 다 템스 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허영계 색이 바랜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 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이모 집이나 고모 집이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픈 배를 즐라매고 낡고 무거운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는 출세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것도 주임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따라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는 그가 처음 출발할 때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아—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임이여!

- 서정인, 강 -

21. ‘그’와 소년의 만남이 갖는 서사적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그’와 소년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 ② ‘그’로 하여금 행복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한다.
- ③ ‘그’가 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
- ④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⑤ ‘그’가 자신의 과거에 자부심을 갖는 동기를 마련해 준다.

22. [A]의 표현 방식이 주는 효과를 잘못 지적한 것은?

- ① 현재형 서술로 삶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 주는 듯해.
- ② 밤 풍경을 주관적으로 묘사하여 고단한 일상을 암시하는 듯해.
- ③ 사물을 활유적으로 표현하여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듯해.
- ④ ‘짹짹 두드릴다/ 어루만지듯 흔든다’의 대비에서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것 같아.
- ⑤ 빠른 장면 전환은 단절되면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보여 주는 것 같아.

23. <보기>를 참고할 때, ㉠과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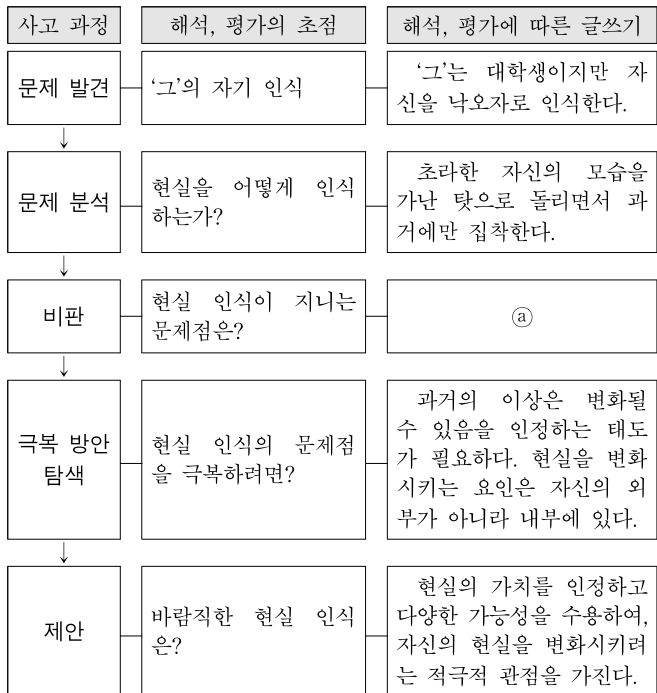
나부랭이 ㉠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낮잡아 이르는 말. ㉡양반 나부랭이/ 관료 나부랭이.

- ① 동우회라는 것은 일선인(日鮮人)의 동화(同化)를 표방하고 귀족 떨거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둑, 장기로 세월을 보내고 저녁때면 술추렴이나 다니는 회이다. - 염상섭, 만세전 -
- ② 조롱게 생긴 계집애한테루 장가를 들랴면서 기생 넛을 끌어차구 다니니 하늘이 알아보실 일이지. - 채만식, 탁류 -
- ③ 주체 넘은 기자 녀석을 내쫓자, 이놈이 제일 말쑥이다. - 김성환, 무명로 -
- ④ 관청 주변에서 턱찌끼 먹고 살아온 여자라 벌써 친정 동생에 조카에 일가 푸네기가 네댓 명이나 되었다. - 송기숙, 녹두장군 -
- ⑤ 그의 오른쪽으로 놓인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 한 떼가 높은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다. - 김승옥, 차나 한 잔 -

24. ㉠의 함축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② 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슬픔과 고통을 포용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 ④ 삶에는 흘러가 버린 강물처럼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 ⑤ 현실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늘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 ‘그’의 현실 인식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모듈별 토의를 하였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거에 사로잡혀 현실을 편협하게 바라본다.
- ② 자신의 문제를 상황 탓으로 돌린 채 책임을 회피한다.
- ③ 자신의 현실에 담긴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 ④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한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때 6·25 직후
 곳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최 노인의 집

최 노인 (넋두리 외우듯) 나 원…… 일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비투러지다니 정말 집을 옮기든지 해야지…… 자식 놈이라고 벌어 대기를 하는가, 장사가 제대로 되는가…… 나 원…… 게다가 가게문을 닫은 지가 두 달이나 되었는데 무슨 놈의 세금은 세금이야! 설상가상으로 저 빌어먹을 낮도깨비 때문에 화초밭이 망쳐지는 것은 고사하고 집 기둥까지 썩게 되었으니…… 에이 참!

어머니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최 노인의 눈치를 봐 가며) 여보 영감…….

최 노인 뭐요?

어머니 내 생각 같아서는……. (사이)

최 노인 뭣이 어쨌어?

어머니 다른 집으로 갈아 잡는 게 상책일 것 같오만…….

최 노인 (㉠ 말없이 눈만 부릅뜬다.)

어머니 애들하고는 여러 번 의논도 했어요.

최 노인 아까 경제 얘기 말이오?

어머니 예.

최 노인 내가 싫다면 안 되는 일이야…….

어머니 그러니까 여태 말을 못 꺼냈죠.

최 노인 이건 내 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머니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이 있지, 사람 죽고 집만 있으면 뭘 해요 글썄…….

최 노인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이 집뿐이야.

어머니 누가 그걸 모르나요. 허지만 이 집을 영영 없애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좀 작은 집으로 갈자는 게죠.

최 노인 이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 주신 집이야!

어머니 그렇다고 자식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기도 못 피는 꼴을 보고만 있겠어요?

최 노인 뭐라고?

어머니 경수만 하드래도 빈손으로 취직을 하자는 것이 틀린 재산이죠. 요즘 세상에 공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있담 데까?

최 노인 그래 경수 취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집을 팔자는 거야?

어머니 그것뿐이 아니죠. 경애도 시집 보내야겠고 내년이면 경제가 대학에 가야 하고…… 앞으로 돈으로 메꾸어야 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최 노인 (㉡ 긴 한숨을 내뿜는다.)

어머니 나도 무엇이 좋아서 오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자고 하겠우…… 허지만 참대 같은 자식들을 위해선…….

최 노인 (㉞ 말없이 일어서 화초밭으로 가서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만 있다.)

어머니 우리야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젊은 애들이 불쌍하지……. (㉠ 하며 눈시울을 누른다.)

경운이가 어느새 나와 마루에 서 있다. 최 노인은 좌우의 건물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서서히 대문 쪽으로 나간다.

(… 중략 …)

경운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어떻게 되겠죠.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어머니 (눈물지며) 굶는 게 두려우겠니? 사는 일이 두렵지.

이때 화려한 양장을 한 경애가 방에서 나온다.

경운 (갑탄을 하며) 언니! 그렇게 차려 놓고 보니까 진짜 배우 같군요!

경애 언젠는 가짜였니!

경운 김칫국 먼저 마시네요. 호…….

경애 요 계집애가……. (㉢ 하며 구두를 신는다.)

어머니 일찍 좀 들어오너라.

경애 일이 끝나야죠. 참 어머니 오늘 일이 해결만 되면 염려 없으셔…… 이보다 더 좋은 집도, 자가용도 그리고 오빠 취직도 만사 오케로 척척박사일 테니까요.

어머니 잔소리 말고 시집이나 가! 그까짓 영화배우를 평생 할 테냐!

경애 어머니 남의 인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는 지금 나의 일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인생의 위기에서 있는 거예요.

경운 아이…… 언니두, 그런 말을 어머니께서 알아들으셔야죠!

경애 (명랑하게 웃으며) 나의 유일한 협력자요 후원인은 경운이 너뿐이구나!

- 차범석, 불모지 -

26. <보기>는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배경 : 고층 건물. 무대 전면을 제외한 삼면에 설치.
- ㄴ. 조명 : 등장인물에 집중. 주변으로는 어두운 조명.
- ㄷ. 의상 : 1950년대의 의상. 오래되어 헤어진 옷.
- ㄹ. 집 : 서울의 전통적 가옥. 넓고 초라한 상태.
- ㅁ. 화초밭 : 아담한 크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든 화초.

① ㄱ : 집이 도시 한복판에 있고 최 노인이 좌우를 쳐다보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이다.

② ㄴ : 서울 변화가가 배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③ ㄷ : 경애는 배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달리 화려한 의상을 입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④ ㄹ : 과거에는 번듯한 집이었겠지만 현재는 기둥이 썩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이다.

⑤ ㅁ : 최 노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화초밭이 망쳐진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이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문제 상황에 대해 난처해 하고 있다.
- ③ ㉢ : 착잡한 심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28. 어머니가 최 노인을 설득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집이 점점 낡아 가고 있다.
- ②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 ③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④ 집이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 ⑤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9. 위 글에 나타난 상황과 인물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어질 장면을 가상하여 써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때 경수가 술에 취해 등장.

어머니 (반갑게) 경수 오니? 아침은…….

경수 (힘없이) 친구 집에서 먹었어요.

경운 (일부러 농조로) 서울 인심은 아니군요? 아휴 술 냄새.

어머니 술 좀 그만 해라. 몸을 생각해야지!

경애 오빠, 너무 상심 말아요 다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봐! ①

경수 (고개를 숙인 채) 응…….

경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나 다녀올게요! (퇴장)

어머니 어유 언젠나 속이 들러는지 원. (경수의 손을 잡으며) 경수야, 너무 걱정 마라. …………… ②

경수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년이면 경제 대학도…….

경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쏘아보며) 오빠가 언제부터 동생울…… 오빠도 언니도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③

어머니 아니야. 다 집이 문제야, 집이.

이때 최 노인 등장.

최 노인 (화난 표정으로) 아니, 넌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거야! 염치가 있어야지! 어런애도 아니고…… 취직 안 된다고 놀고만 있으면 돼? …………… ④

경수 (말은 못한 채 한숨만 내뿜다.)

어머니 당신도 참. 애가 무슨 잘못이 있대구요. 이 집을……. ⑤

최 노인 뭐라고? 집…… 또 그 얘이야? 저런 놈을 위해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어?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의 줄거리]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은 수성궁에서 김생을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한다. 두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서 금지된 사랑을 속삭이지만, 결국 탄로나 운영은 자살하고 김생도 뒤따라 죽는다. 천상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옛일을 생각하며 수성궁에서 노닐던 중, 마침 유영을 만나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김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례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풀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그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낙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슬피한 것은, ㉡ 대군이 한 번 돌아가시자, 고궁에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兵火)를 겪은 후로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 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봄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 옛날의 모습이 바뀌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사(人事)의 변화가 쉬움이 이와 같거늘 ㉢ 다시 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입니까?”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仙人)으로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제께서 태청궁(太淸宮)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실을 따 오라 하시기로, ㉣ 제가 반도(蟠桃)를 많이 따 가지고 와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어 진세(塵世)에 적하(謫下)되어 인간의 피로움을 끌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허물을 용서하사 삼청궁(三淸宮)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香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삽기로, 돌아가서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김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하였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 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들의 원한은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 오늘 저녁에 존군(尊君)과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으려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이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 주시옵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중략 ...)

[A]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 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만이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책을 감추고 때때로 내어 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하였다.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미친 바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30.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김생과 운영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고고자 한다.
- ② 김생과 운영은 전생부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 ③ 김생과 운영은 안평대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김생과 운영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성취하였다.
- ⑤ 김생과 운영은 인간 세상에 다시 내려오고 싶어 한다.

31. ㉠~㉣를 시간 순으로 배열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보기>의 설씨네가 운영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설씨네를 흠모하던 가실은 그녀의 아버지가 징집되자 혼인을 약조하고 대신 군대에 지원한다. 기한이 지나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내려 한다. 약속을 지키려 시집가기를 거부하다 집 안에 갇힌 설씨네 앞에 마침내 남루한 차림의 가실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사랑을 이룬다.

- ① 이상 세계로 도피하려 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이유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 ③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 ⑤ 친한 이들도 결국 자신의 이해대로 행동하니, 사람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33. <보기>와 비교할 때, [A]가 주는 표현상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때 유영도 잠깐 누워 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만이 있었다. 유영은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 보고는, 이야기에 착오가 있으면 바로잡고, 빠진 대목은 보태었다. 제목을 ‘운영전’이라고 하고, 널리 세상에 알려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하였다.

- ① 김생과 운영이 앞으로 취할 행동을 암시한다.
- ② 김생과 운영의 이야기에 담긴 비극성을 강화한다.
- ③ 김생과 운영에게 일어난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④ 김생과 운영의 이야기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부여한다.
- ⑤ 김생과 운영이 처한 상황을 좀더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우리말 단어의 발음 기호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길동'이라는 지명을 적기 위하여 '吉'[길]과 '同'[동]을 끌어와 '吉同'으로 적고 [길동]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음차 표기'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뜻, 다시 말해서 훈(訓)을 빌려와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栗'(밤 울)의 훈으로 [밤]을 나타내고, '峴'(고개 현)의 훈으로 [고개]를 나타내어, '栗峴'으로써 우리말의 [밤고개]를 표기하는 것이다. '栗峴'을 [울현]이라 읽지 않고 [밤고개]로 읽는 이 방법은 한자의 뜻, 즉 훈(訓)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훈차 표기'라 한다.

이러한 단어 중심의 한자 차용 표기는 점차 두 단계에 걸쳐 문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문장 표기의 1단계는 '我愛汝'([아에여], 나 사랑 너)와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중국어식 어순을, '我汝愛'(나 너 사랑)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였다. 1단계는 점차 명사와 용언 어간에 각각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는 2단계로 이어졌다. 2단계에 속하는 향가 표기, 즉 향찰은 '我愛汝'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我隱 汝乙 愛爲隱如'([아은 여을 애위은여], 나는 너를 사랑하나다)와 같이 상당히 체계화된 문장 표기 모습을 보여준다. 향찰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대체로 뜻이 중요한 명사나 용언 어간은 '훈차'를 하고,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함으로써, 한 어절의 표기가 '훈차+음차'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역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새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자 차용 표기를 알고 있던 세종대왕은 왜 일본과 달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우리말이 갖는 음절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찾는다. 일본어는 음절이 간단하여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50개 정도면 충분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곳], [단]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개 이상이 필요하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34.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훈차에서 한자 한 글자는 우리말 음절 하나와 대응되었다.
- ② '愛爲隱如'(사랑하나다)의 '爲'(할 위)는 훈차 표기 방법을 따랐다.
- ③ [곳], [단]과 같은 음절은 한자 한 글자로 음차 표기할 수가 없었다.
- ④ '坪村'을 [평촌]으로 읽으면 음차가 되고, [벌말](벌마을)로 읽으면 훈차가 된다.

⑤ 한자 차용 표기는 '단어 표기 → 문장의 어순 조정 → 조사와 어미의 첨가' 순서로 전개되었다.

35.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향찰에서 보조 성분의 어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 ② 한자 차용 표기가 고려 시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 ③ 한자로든 조사나 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
- ④ 한자 차용 표기로는 우리말의 소리를 충분히 표기할 수 없어서
- ⑤ 한자 차용 표기에서 음차는 문제가 없었지만, 훈차는 문제가 많아서

36. <보기>의 설명 중, 위 글로 미루어 타당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고대에 우리말과 중국어의 발음은 달랐으나 어순은 비슷했다.

ㄴ. 어떤 언어 공동체의 문자와 표기는 그 공동체의 언어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ㄷ. 한자 차용 표기에서 '훈차+음차' 표기의 단위는 현대 국어 맞춤법의 띄어쓰기 단위와 관련이 깊다.

ㄹ. 현대 일본의 문자와 표기는 그들의 한자 차용 표기를 계승한 것이므로 향찰과는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보기>의 우리말을 영어와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활용하여 향찰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서 읽는다고 할 때, 쓰기와 읽기의 방법이 올바른 것은?

<보 기>

[나는 너를 사랑한다]

* 국어 로마자 표기법

ㄴ	ㄷ	ㄹ	ㅂ	ㅅ	ㅇ	ㅎ	ㅏ	ㅑ	ㅓ	ㅕ	ㅗ	ㅛ
n	d	r, l	b	s	ng	h	a	eo	yu	eu	i	

<쓰 기><읽 기>

- ① I-neun YOU-reul LOVE-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 ② na-neun neo-reul sarang-handa. [I-neun YOU-reul LOVE-handa]
- ③ I-neun LOVE-handa YOU-reul. [I-neun LOVE-handa YOU-reul]
- ④ ai-neun yu-reul reobeu-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 ⑤ I-neun YOU-reul LOVE-handa. [ai-neun yu-reul reobeu-handa]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흔히 ‘과학 기술’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론적 지식으로서의 과학과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기술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과학은 ㉠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이론을 만들어 내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기술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형하여 실용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데 ㉡ 중점을 둔다. 활동 성과를 평가할 때도 과학은 지식의 진위(眞僞)를 문제 삼지만, 기술은 결과의 성공 여부를 문제 삼는다. 또한 과학적 지식은 별 제약 없이 널리 보급되지만, 기술적인 발명은 특허로 보호되어 제한적으로 보급된다.

(나) 기술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태초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고대의 발명품 가운데 인류 문화의 각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되는 돌, 청동, 철 등은 ㉢ 과학과 상관없이 순수한 기술 분야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후 바퀴, 그릇, 선박, 인쇄술, 동력 등을 이용하면서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던 것도 사실상 기술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발명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도 기술자들은 많은 고안물들을 만들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다) 한편 회람 시대부터 자연 철학에 속해 있던 과학은 16~17세기의 과학 혁명을 거치면서 자연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과학은 기술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세계로 존재했다. 산업 혁명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기 기관과 면직기, 선반을 발명할 때도 당시의 과학은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라) 이와 같이 과학과 기술은 그 특성과 역사에서 구별되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즉, 기술 전체가 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과학 이론이 기술에서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과학과 기술은 호혜적이며 공생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제휴하게 되었다. 기술은 ㉣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는 실험적 수단을 제공하거나 ㉤ 새로운 과학적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과학은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법칙과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 기술자들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연구와 개발’의 절차를 강조하는 학문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응용 과학이다. 그리하여 응용 과학은 그 목적과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른 과학과 기술 사이에서 과학적 이론을 기술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기술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3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기술과 과학은 상호 보완적 특성이 있다.
- ② 응용 과학은 과학을 기술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과학은 기술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④ 기술은 실용적인 발명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⑤ 과학은 새로운 기술 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39. (가)~(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설명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 ① (가) : 과학과 기술의 특징을 차이점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 ② (나) : 기술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비판적으로 설명하였다.
- ③ (다) : 과학의 변천 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④ (라) :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비유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 ⑤ (마) : 응용 과학의 성립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다.

40. ㉠~㉥의 예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
- ② ㉡ : 펜식기와 간석기의 발명
- ③ ㉢ : 현미경을 이용한 생물학 이론의 검증
- ④ ㉤ : 병리학을 바탕으로 한 의학의 발전
- ⑤ ㉥ : 원자력 기술 개발에 대한 물리학의 기여

41.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주력(注力)한다.
- ② 정진(精進)한다.
- ③ 착안(着眼)한다.
- ④ 기여(寄與)한다.
- ⑤ 몰입(沒入)한다.

42. 글쓴이의 궁극적인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과학과 기술의 특징과 기원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 ② 과학의 합리성과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③ 과학자와 기술자의 연구 방법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④ 과학과 기술의 독자적 관심 영역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⑤ 과학과 기술의 제휴 가능성과 실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43. 위 글의 논증 과정을 잘못 정리한 것은?

(가) 내가 감각하는 사물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책상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혹시 이것들이 상상의 산물은 아닌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감각을 넘어서 물리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보여 주었던 이,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떤 ㉠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논리적 가능성이 ㉢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꿈의 가설을 굳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나) 꿈의 가설보다는, 나의 감각들은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이 나에게 작용하여 만들어 낸 것들이라는 ‘상식의 가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을 더 잘 설명한다. 개 한 마리가 한 순간 방 한편에서 보였다가 잠시 후 방의 다른 곳에 나타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 그것이 처음 위치에서 일련의 중간 지점들을 차례로 통과하여 나중 위치로 연속적인 궤적을 따라서 이동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개가 감각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면 내게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꿈의 가설에 따르면 그 개는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동안에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운 위치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고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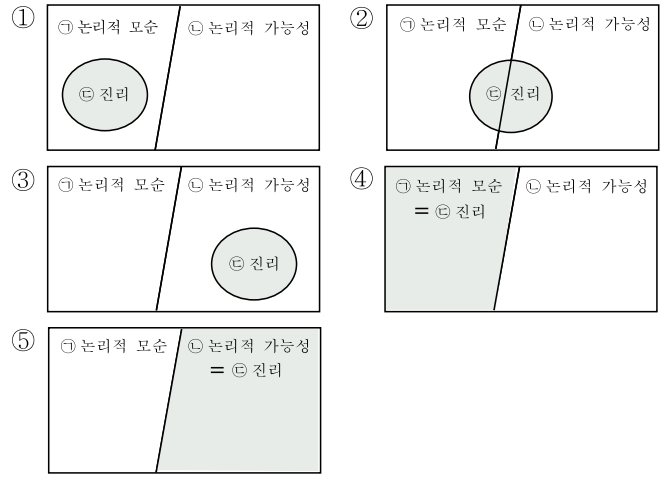
(다) ㉣ 그 개가 내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내 경우에 미루어 그 개가 한 끼를 먹고 나서 다음 끼니 때까지 어떻게 차츰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도 점점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따라서 나의 변화하는 감각 경험은, 실재하는 개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만, 단지 나에게 감각되는 색깔과 형태들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라) 사람의 경우 문제는 더 분명하다. ㉤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생각, 즉 내가 그러한 소리를 낼 때에 갖는 생각과 비슷한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는 원칙에 따르면, 나 자신과 나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 나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상식의 가설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 러셀, 철학의 문제들 -

- (가)로부터 → 상식의 가설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다. ㉠
- (나)~(라)로부터 → 꿈의 가설은 나의 감각 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
- (라)로부터 → 상식의 가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한다. ㉢
- 가설 선택의 원칙 →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 .. ㉣
- 결론 → 그러므로 상식의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

44. (가)의 설명에 따라 때,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점]



45. ㉣와 ㉤에 공통된 추론 방식은? [1점]

- ① 사람들의 말에 기대어 추측하였다.
- ②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하였다.
- ③ 가정을 세우고 그 귀결을 검토하였다.
- ④ 직관을 통하여 사례의 본질에 도달하였다.
- ⑤ 알려진 진리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연역하였다.

46. 위 글과 <보기>의 대비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 <보 기> —

인간은 본능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위 글의 논증을 접하기 전부터, 반성 능력을 갖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 ① 위 글은 감각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보기>는 감각을 본능적인 것으로 본다.
- ② 위 글은 감각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지만, <보기>는 믿음을 통하여 반성에 도달한다.
- ③ 위 글은 상식을 확고한 사실로 간주하지만, <보기>는 상식에 대하여 회의를 제기한다.
- ④ 위 글은 합당한 가설을 찾는 데 실패하지만, <보기>는 그러한 가설에 성공적으로 도달한다.
- ⑤ 위 글은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논하지만, <보기>는 그러한 믿음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미술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의 인상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인상파는 고전주의적 균형과 정확한 묘사를 중시하던 인습을 타파하고 색채 묘사의 혁명을 일으켰다. 인상파 화가들은 미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화와 같은 품위 있는 주제를 완벽한 구성으로 그려 내는 대신에, 밝게 빛나는 자기 주변의 세계를 생동감 있게 옮겨 놓으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의 행복한 생활 단면이나 해돋이와 같은 순간적 장면도 색채의 아름다운 배열만 지니고 있다면 그림의 소재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상파는 하나의 유파로서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세잔과 고흐, 고갱 등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한편으로 인상파가 이룩한 업적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상파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세 화가는 눈에 비친 자연을 인상파처럼 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상실했다고 느꼈고, 그것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인상파를 극복하려 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그 지향하는 방향은 서로 달랐다.

먼저 세잔은 인상파가 순간의 감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변함없는 형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색채의 밝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화면에 깊이와 거리감을 부여하려 했고, 이를 위해 '세계의 모방'이라는 전통적 목적을 버린 채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고흐는 인상파가 시각적인 인상만 너무 ㉠ 빠저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했다고 판단했다. 인상파의 미술이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예술가의 활기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란다고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친 붓자국으로 격정적 내면을 표출하였고 필요한 경우 형태의 왜곡까지도 감행하였다. 한편 고갱은 서구 문명이 축적한 근대적 학문과 예술 전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 을 열망했고, 그것은 복잡한 물질 문명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미련 없이 세련된 인상파적 요소를 버리고 원시적 가치를 찾아 나설 수 있었다.

현대 미술은 위에서 언급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인상파의 주제 접근 방식은 현대 미술의 폭을 넓혀 주었고 세잔, 고흐, 고갱이 제기한 문제 의식은 입체파, 표현주의, 원시주의, 야수파 등 현대 미술 사조가 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미술가들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7. 위 글을 바탕으로 '현대 미술'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를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형식미를 추구하였다.
- ③ 자연의 빛깔에 얽매이지 않고 강렬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 ④ 구(球), 원기둥, 원뿔, 육면체 등의 기본 요소들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 ⑤ 추상적 이론 대신 문명화되지 않은 토착민의 작품에서 창작 동기를 얻었다.

48. 세잔, 고흐, 고갱이 토론을 한다고 할 때,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세잔 :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하학을 더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 ② 고갱 : 수학적 지식이 그림 그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난 생물학에 매료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 ③ 고흐 : 그런 학문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마음 속의 열정을 표현하는 게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가 아닐까?
- ④ 세잔 : 그래도 사물들의 형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 ⑤ 고흐 :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을 약간 변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49. 세 화가가 인상파를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적인 전기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소	고려 사항
① 영화 배우	고흐 역은 열정적 성격이 걸로 드러나는 배우를, 세잔 역은 과학도의 분위기를 풍기는 배우를 섭외한다.
② 촬영 장소	미술의 도시 파리, 날씨가 쾌청한 프랑스 남부, 남태평양 어느 섬의 토착민 마을로 설정한다.
③ 촬영 기법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고흐의 창작 과정을 촬영할 때에는 클로즈업(close-up)과 같이, 표정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한다.
④ 의상과 소품	19세기 후반에 일반인들이 즐겨 입은 의상과 각종 그림 도구, 제도 용구 등을 준비한다.
⑤ 음악과 음향	잔잔하고 평탄한 곡조의 서정적인 주제 음악과 야외 장면에서 필요한 각종 효과음을 준비한다.

50. '빠진'이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1점]

- ① 차는 강가의 진흙 수렁에 빠진 상태였다.
- ② 새 왕은 먼저 빈곤에 빠진 농민들을 구제하였다.
- ③ 악마의 유혹에 빠진 주인공은 파멸의 길을 걸었다.
- ④ 어머니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들을 몹시 걱정하였다.
- ⑤ 그의 우정은 궁지에 빠진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확인되었다.

51. <보기>는 고갱을 계승한 작품과 그에 대한 해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말을 고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즐거운 어릿광대들’이라는 앙리 루소의 이 그림은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소재를 때묻지 않은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속의 동식물들은 실제 모습과 달리 꿈속에서처럼 불가사의하게 보인다. 이 그림은 취향이 까다롭고 격조 높은 사람에게서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한 색과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솔직한 정서는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 ① 고상하고 초월적인 것 ② 솔직하고 건강한 것
- ③ 신비하고 몽환적인 것 ④ 소박하고 순수한 것
- ⑤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것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세기 초반 천문학자 허블은 월슨 산의 망원경을 통해 먼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편이(赤色偏移)’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본래의 파장값보다도 큰 값으로 지구상에서 관측된 것인데, 이는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 주는 증거였다.

(나) 흥미로운 것은 지구와 관측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적색편이의 비율과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 ㉠을 결합시키면,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가 좁아지는 순간이 없이 간격을 1m만 큼 더 벌린다고 해 보자. 간단히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 사람부터 동시에 1m씩 이동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사람은 1m 이동하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2m, 세 번째 사람은 3m를 물러서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N 번째 사람이라면 Nm만큼 물러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이가 좁아지지 않아야 하므로, 기준으로 부터 먼 사람은 가까운 사람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라) 허블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은하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의 발견 이전에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정적(靜的)인 우주의 모습을 기술하려고 애썼다. 정적인 우주관이 당시의 지배적인 우주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하들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우주를 엮어 놓으면 중력에 의해 은하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정적인 모습은 바로 붕괴된다. 하지만 허블이 우주가 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마) 팽창우주에서 재미있는 점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어떤 은하에서 보더라도 주위의 다른 은하들이 그 은하를 향하여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팽창할 때 먼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모든 은하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 ‘태초’의 순간이 된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모여 있었으니 태초의 우주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뜨거웠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이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
- ② 과거에는 은하들이 지금보다 서로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 ③ 중력만 작용하는 은하들로는 정적인 우주를 만들 수 없다.
- ④ 먼 은하보다 가까운 은하에서 오는 빛의 파장값 변화가 크다.
- ⑤ 적색편이 현상은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려 준다.

53. ㉠을 참조할 때, <보기>의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이 동적인 우주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우주관에 따르기 위해 ‘우주론적 항’이라는 상수를 도입하여 방정식을 수정하였다. 5년 뒤 프리드먼이 우주론적 항을 제거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원래 방정식이 맞다고 지적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허블의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원래 방정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 ① 중력장 방정식을 만들어 동적인 우주의 타당성을 주장할 만큼 그는 앞서 가는 과학자였군.
- ② 정적인 우주관에 대해 반발하여 프리드먼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그의 커다란 실수야.
- ③ 방정식의 수정을 통해 동적인 우주관까지 수용하려 한 것은 그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④ 자신의 올바른 방정식을 수정할 만큼 그도 당시의 지배적 우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 ⑤ 당시의 지배적 우주관을 바꾸기 위해 그가 자신의 방정식을 수정했던 것은 다소 성급한 행동이었어.

※ 위 글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54번, 5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시작 : 학우들의 흥미를 끌 만한 자료 → 월슨 산의 망원경 사진 ㉠
전개 (가) : '적색편이'의 개념 설명 →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을 스펙트럼 위에 표시한 사진 ㉡
(나) : '적색편이, 속도, 거리'의 관계 설명 →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다) : 거리와 속도의 관계 설명 →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빠름을 보여 주는 삽화 ㉢
(라) : 정적인 우주와 중력의 관계 설명 → 은하들이 서로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을 담은 플래시 동영상 ㉣
(마) : 동적인 우주와 시간의 관계 설명 → 은하의 모습과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린 그림 ㉤
정리 : 글 내용에 관한 간단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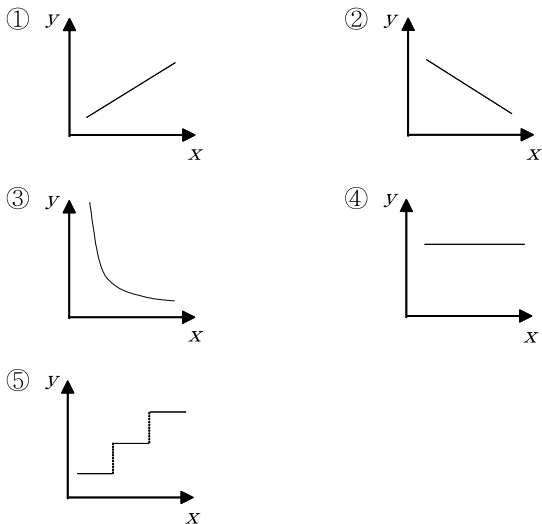
54. <보기>의 ㉠~㉤ 중, 발표를 위한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위 글의 ㉡에 들어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x : 적색편이의 비율, y : 멀어지는 은하의 속도)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기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의사 결정을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인간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며 성장 과정의 차이나 교육의 정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 등에 따라 욕구의 우선 순위나 성취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소비 욕구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화, 모방, 유행 등 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 인간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소비하는 품목과 방식은 성, 연령, 직업, 계층,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취향'은 가정 환경과 같은 개인의 성장 배경에서 길러진 것이지만 자신의 취향을 '타고난 성향'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 백안시(白眼視)함으로써 계층을 구분하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한다.

18세기 이전까지 영국에서 설탕은 이국적인 향신료이자 약품으로 귀족들만 향유하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에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져 설탕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설탕의 소비는 중산층과 노동자층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산층과 노동자층의 설탕 소비는 처음에는 귀족들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설탕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표시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다른 소비재를 선택하여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소비 방식에서 나타나는 모방과 차별화 전략은 한 사회 내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유행을 들 수 있다. 유행의 특징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소멸된다는 것이다. 유행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대비시키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개성화'에서 비롯되지만,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대중 심리를 자극하여 충분히 확산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만큼 유행이 소비에서 중요한 시대는 없었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는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유행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고, 광고나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발전된 판매 기술은 유행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백화점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소비의 순례 장소가 되었고, ㉢ 광고는 대중에게 신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되었다. 유행이 소비를 주도하면서 현대의 소비는 점차 상품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표상하는 이미지와 기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56. 위 글의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1점]

- ① 소비에서 유행의 중요성
- ② 문화적 시각에서 본 소비
- ③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
- ④ 소비 욕구의 보편성과 다양성
- 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형태

57. ㉠의 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유행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산다.
- ② 아토피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 야채 위주로 시장을 본다.
- ③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아바타를 꾸미는 데 용돈을 아끼지 않는다.
- ④ 1920년대의 신여성들은 그들의 부모와 달리 금시계를 즐겨 찾다.
- ⑤ 신입 사원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

58. ㉡과 같이 '-시(視)하다'를 붙인 말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동일시(同一視)하다 ② 당연시(當然視)하다
- ③ 문제시(問題視)하다 ④ 적대시(敵對視)하다
- ⑤ 달관시(達觀視)하다

59. ㉢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끌어 내려고 할 때,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비자들은 광고의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광고가 있으면 자기 감각에 맞게 독창적으로 받아들이며 주변으로 확산시킨다. 예컨대 글자를 깨치지 못한 어린이이라도 광고 내용을 일상 생활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 ① 광고는 개인적 성격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 ② 광고는 소비자와 상품을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③ 광고는 소비자의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 ④ 광고는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다.
- ⑤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구매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60. 위 글의 내용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소비', '유행', '자본주의'를 함께 입력하여 검색해 보았다. 학습에 활용하기에 가장 거리가 먼 사이트는? [3점]

통합검색	디렉토리	웹문서	이미지	뉴스	백과사전
통합검색 V 소비+유행+자본주의					검색
<p>웹페이지 [총 740개 중 1-5]</p> <p>① 소비와 여가 생활 [현재창] http://www.geen.pe.kr/content04.htm/...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여가 문화가 출현함에 따라 소비 형태도 특화... 같은 취미를 매개로 한 동호인 모임의 소비 형태를 소개...</p> <p>② 신세대 소비 문화 [현재창] http://seou.or.kr/ghstudy/... ...소위 신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 특정한 상표의 유행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p> <p>③ 유행의 필요성 [현재창] http://www.mbard.ac.kr/s17.htm/... ...산업 사회에서 유행이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대량 소비를 가능... 유행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p> <p>④ 유행 통신 [현재창] http://magazie.co.kr/section1/... ...최신 유행하는 국내외 제품의 가격 비교, 할인 판매... 뷰티 뉴스, 라이프 스타일, 연예인 소식 등 제공...</p> <p>⑤ 현대 자본주의와 소비 [현재창] http://owun.gr.kr/210.104.18.1/...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느끼는 여러 집단이 탄생... 기업들도 우리 현실에 맞는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p>					
⇨ 다음 페이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㉔	1	16	㉔	1	31	㉕	1	46	㉖	2
2	㉑	2	17	㉓	2	32	㉓	2	47	㉒	2
3	㉖	2	18	㉕	2	33	㉒	2	48	㉒	1
4	㉖	2	19	㉑	2	34	㉑	1	49	㉖	2
5	㉓	1	20	㉕	1	35	㉕	1	50	㉕	1
6	㉓	2	21	㉕	2	36	㉓	2	51	㉑	2
7	㉖	3	22	㉑	2	37	㉑	2	52	㉕	1
8	㉑	2	23	㉖	1	38	㉓	1	53	㉕	2
9	㉕	2	24	㉒	1	39	㉑	2	54	㉖	2
10	㉓	2	25	㉖	3	40	㉕	1	55	㉑	2
11	㉕	2	26	㉒	2	41	㉑	1	56	㉒	1
12	㉕	2	27	㉖	1	42	㉖	2	57	㉒	1
13	㉒	2	28	㉑	1	43	㉓	2	58	㉖	1
14	㉑	1	29	㉓	3	44	㉓	1	59	㉓	2
15	㉕	2	30	㉖	1	45	㉒	1	60	㉕	3

언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그대가 가는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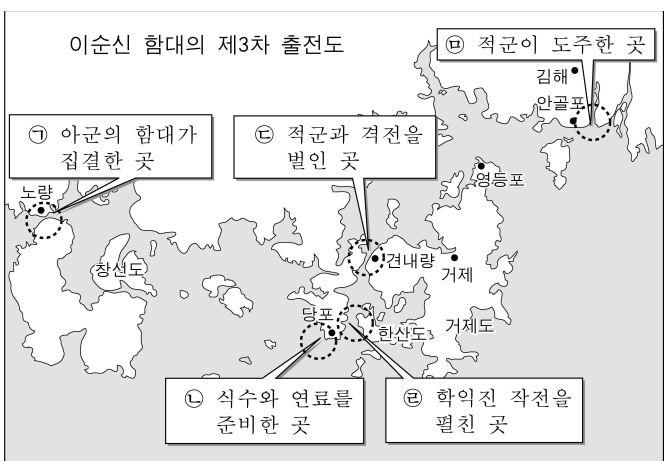
수험 번호

출수형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응시 계열, 문형,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드라마를 들으면서 주요 내용을 지도에 적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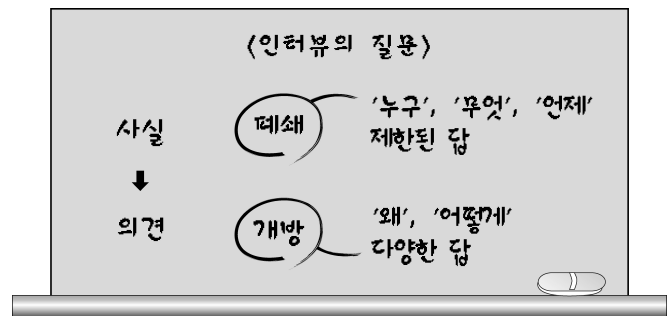
2. (물음) 심문의 쟁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강요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 ② 피고의 행동이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
- ③ 피고가 '그곳'에 갔는가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 ④ 피고가 협박을 받았는가에 대한 판단
- ⑤ 피고의 진술이 진실한가에 대한 판단

3. (물음) 발표에서 지적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닌 것은?

- ① 첫 번째 대화 ② 두 번째 대화
- ③ 세 번째 대화 ④ 네 번째 대화
- ⑤ 다섯 번째 대화

4. (물음) 인터뷰 질문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 번째 질문: 폐쇄형 질문으로 답변자에 관한 간단한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 ② 두 번째 질문: 수집한 사실에서 문제를 찾아 그 이유를 탐색하며 주요 화제로 접근하고 있어.
- ③ 세 번째 질문: 화제에 관한 의견을 본격적으로 듣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있군.
- ④ 네 번째 질문: 묻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군.
- ⑤ 다섯 번째 질문: 보충 답변의 기회를 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어.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좌담에서 드러나는 '인문학'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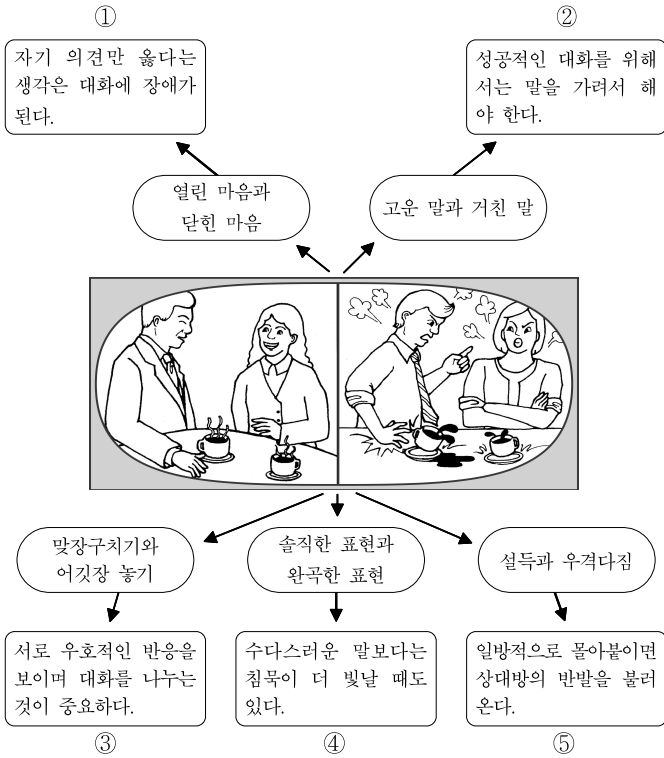
- 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 ② 인간이 남긴 모든 기록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글 읽기를 통하여 현상 배후의 작동 원리를 밝혀 낸다.
- ④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고 한다.
- ⑤ 사회가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삶에 대한 반성이다.

6. (물음) 좌담 참가자들의 태도는?

- ① 공감적 ② 감성적 ③ 권위적
- ④ 경쟁적 ⑤ 선동적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대화, 제대로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그림을 보고 단계적으로 연상한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 <보기>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쓸 때 세울 수 있는 논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질문: 청소년 공연 예술 단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답변
 -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
 - 상업적인 대중 문화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 ① 현대 사회에서는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학부모들에게 이해와 격려를 요청한다.
- ② 상업적인 대중 문화 추종은 청소년 공연 예술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음을 들어, 단체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 ③ 청소년 공연 예술 단체의 힘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④ 청소년 공연 예술의 가치에 대한 관객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들어, 청소년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청소년 공연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들어, 관련 정책 당국에 제도적 지원을 촉구한다.

9. '소의 계층 지원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 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논지 전개 과정으로 보아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지 전개 과정	주요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불경기로 기부금이 줄어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 복지 단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지원과 일부 대기업의 기부에 주로 의존하여 재원을 마련해 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마련 방법을 다양화한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A]

- ① 사회 복지 단체가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② 언론 매체들이 새로운 기부 문화 창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 ③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④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시민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기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10.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물을 작성하려 한다. [A]에 들어갈 문구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3점]

[A]

**밤하늘을 수놓는 헤아릴 수 없는 별.
 별은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곁으로 옵니다.
 태초 이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새겨진
 별처럼 많고 빛나는 신화와 전설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읽으며
 우주를 배우고 세상과 삶을 생각합니다.**

천문 동아리 '별 불 일 있는 사람'이 드립니다.

- <보 기>
- 동아리 이름의 묘미를 살린다.
 -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대조의 기법을 사용한다.

- ① 별 볼 일 있는 사람만이 우주와 인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 ② 도서관에서도 읽을 책을 찾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신비로운 우주 공간에서도 찾습니다.
- ③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달려온 별과 인생을 논해 보십시오.
- ④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태초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 ⑤ 밤에만 별을 볼 수 있다고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11.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연재 기사를 쓰기 위해 글감을 수집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집하기)

ㄱ. 평균 수명이 2001년 76.5세에서 2030년 83세가 된다.
 ㄴ. 노동 생산성의 감소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된다.
 ㄷ.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7.5%에서 30년 후 23%로 증가한다.
 ㄹ.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제2의 경력을 설계해야 한다.
 ㅁ.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에 비해 지출의 비율이 높아진다.
 ㅂ. 재취업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ㅅ. 30년 후에는 생산 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ㅇ. 노인들은 대체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성향이 강하다.
 ㅈ.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조직하기)

<1회>
 제목: 고령화 사회가 온다
 - ㄱ, ㄷ ㉠
 <2회>
 제목: 고령화 사회, 원인이 무엇인가 ㉡
 - 개인 차원: ㅁ
 - 사회 차원: ㄴ, ㅅ ㉢
 <3회>
 제목: 고령화 사회, 대책은 무엇인가
 - 개인 차원: ㄹ, ㅂ ㉣
 - 사회 차원: ㅇ, ㅈ ㉤

- ① ㉠: 'ㄱ'과 'ㄷ'은 내용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계하여 다룬다.
- ② ㉡: 제목이 하위 항목들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고령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로 바꾼다.
- ③ ㉢: 'ㅅ'은 30년 후의 현상에 대한 예측 통계이므로 <1회>에서도 활용한다.
- ④ ㉣: 'ㅂ'은 취업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내용이므로 <3회>의 '사회 차원'으로 옮긴다.
- ⑤ ㉤: 'ㅇ'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라는 전체 주제와 거리가 있으므로 삭제한다.

12. 다음은 어떤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과도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마음껏 소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 호화로운 집에서 비싼 차와 비싼 옷을 입으며 값비싼 전자 제품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는 삭막해지고 말았다. 자연 환경의 파괴도 문제다. ㉣ 파괴된 자연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욕망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 ① ㉠은 문장 성분들의 호응 관계를 바로잡아야 해.
- ② ㉡는 첫 문장의 내용을 반복했으니 삭제하는 게 좋아.
- ③ ㉢는 다른 말로 바꿔 앞뒤 문장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야 해.
- ④ ㉣는 문맥에 맞게 내용을 고쳐야 할 것 같아.
- ⑤ ㉤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그 뜻을 부연 설명하자.

13.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1점]

- ①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 ② 우리 모두의 바램은 가족의 건강이야.
- ③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 ④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 ⑤ 김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

14. <보기>는 웃음 상징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은?

————<보 기>————
 웃음 상징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그것이 모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 소리를 동반하느냐이다. 웃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웃음 상징어에는 소리만 주목하는 것, ㉡ 입을 주목하는 것, 입과 눈을 함께 주목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밖에 웃는 모양이나 소리의 크고 분명한 정도, 연속성(連續性) 또는 ㉢ 일회성(一回性) 여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 ① 피식 ② 실실 ③ 까르르 ④ 빙그레 ⑤ 하하하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

백석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 누어서
 어느 아침 ㉠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돌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집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테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시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나)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빛깔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이중섭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다)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서정주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큰한 먹오덧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
 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
 저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
 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열
 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부재나 결핍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가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비판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는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16. (나)의 이중섭에게 (다)의 거울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그 거울에 비칠 형상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아내, 이중섭 ② 이중섭, 길
- ③ 아내, 동경 ④ 아내, 바다
- ⑤ 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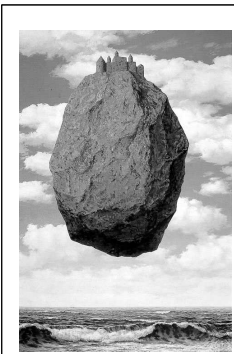
17. (가)의 ㉠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테세우스는 미궁으로 들어가 비밀의 방에 이르코자 한다. 비밀의 방에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있다. 미궁을 통과하는 길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미궁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 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열리는 문이다. 테세우스는 미궁의 문을 찾아 실 끝을 미궁의 문설주에 묶어 놓은 뒤 자신의 예지와 본능으로 미로를 더듬어 비밀의 방에 이른다.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인 후 실을 따라 무사히 밖으로 나온다. 이 ‘미궁의 신화’는 문학 예술 작품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테세우스 ② 미노타우로스
- ③ 미궁의 문 ④ 비밀의 방
- ⑤ 실

18.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나)의 ㉠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城)’입니다.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떠 있습니다.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바위 꼭대기에는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달걀 같기도 하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질적이고 비일상적인 사물들의 연계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같은 발상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림이야. ㉠과 같은 표현도 신비롭고 환상적이면서 ‘이중섭’의 그림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군.
- ②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와 ㉠이 가리키는 상황은 현실적이지 않아.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
- ③ 인간과 격리된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득한 바다 위의 성을 표현한 것 같아. ㉠ 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 ④ 떠 있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해의 몫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돌려 것 아닐까. 마찬가지로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아.
- ⑤ 바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도 인간의 시선으로 포착한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한 데서 나온 시적 발상이라고 생각해.

1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뿔마루’는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② ‘집 뒤안’과 ‘장독대’는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때겨울 뿔마루’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라는 구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④ ‘떡오디빛’은 ‘뿔마루’와 ‘오디 열매’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
- ⑤ ‘숨을 바로 합니다’는 치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 문화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관념을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여긴다. 나아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문화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믿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통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화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홉스봄과 레인저는 오래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통의 대부분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킬트(kilt)를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며, 이를 대표적인 전통문화라고 믿는다. 그러나 킬트는 1707년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된 후, 이곳에 온 한 잉글랜드 사업가에 의해 불편한 기존의 의상을 대신하여 작업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킬트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지만, 1745년의 반란 전까지만 해도 전통 의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반란 후, 영국 정부는 킬트를 입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가 몰래 집에서 킬트를 입기 시작했고, 킬트는 점차 전통 의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킬트의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22년에 영국 왕이 방포했을 때 성대한 환영 행사를 마련하면서 각 씨족장들에게 다른 무늬의 킬트를 입도록 중용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 자리를 잡게 되었다.



킬트의 사례는 전통이 특정 시기에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근대 국가의 출현 이후 ㉡ 국가에 의한 ‘전통의 발명’은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은 그 전통이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신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통은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정치·사회·경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을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신화화(神話化)하면 당시의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낯선 타(他) 문화를 통해 자기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듯이, 과거의 문화를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봄으로써 전통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신화화된 전통의 실체를 폭로하려는 데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화를 타 문화로 인식함으로써 신화 속에 묻혀 버린 당시의 사람들을 문화와 역사의 주체로 복원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전통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 위 글 전체의 논지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관된 개념들의 상호 관계를 밝혀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 ② 사례를 통해 사회적 통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후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논지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하여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사례의 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1. 위 글의 핵심 주장은? [1점]

- ① 신화화된 전통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넘나들이 가능하다.
- ②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과거의 문화를 낫선 타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
- ③ 전통은 근대 국가의 출현 이후 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④ 전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서 문화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 ⑤ 전통은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보아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김치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위 글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치 문화에 대한 조사 결과	개념 적용
◦ 한국인은 먼 옛날부터 새빨갛고 매운 김치를 먹어 온 것으로 여기고 있다.	전통의 신화화 ... ①
◦ 고추는 임진왜란 무렵에 들어왔고,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추의 품종은 100여 년 전에 들어왔다. ◦ 김치는 기본적인 음식이기는 했지만, 대표적인 민족 음식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다.	전통의 실체 ... ②
◦ 경제 성장과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김치는 환경 친화적이며 발효 건강 식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의 변화 ... ③
◦ 김치는 한국인이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 김치는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뚜렷하게 구별해 주는 문화 요소이다.	전통의 현재적 의미 ... ④
◦ 김치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통의 타 문화화 ... ⑤

23. ㉠과 바꿔 쓰기에 알맞은 것은?

- ① 정돈(整頓)되었다. ② 정비(整備)되었다.
- ③ 정제(精製)되었다. ④ 정리(整理)되었다.
- ⑤ 정착(定着)되었다.

24.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도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것으로 믿고 있는 현재의 카스트 제도는, 영국이 종교 지도층인 브라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식민 통치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이다.
- ② 멕시코가 스페인에 점령된 후, 원주민 앞에 나타난 갈색의 성모(聖母) ‘과달루페’는 오래된 민간 신앙과 서구 가톨릭 간의 문화 혼합의 상징으로, 원주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③ 남태평양의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는 가치재(價値財)로 여기는 조개 목걸이와 조개 팔찌를 선물 형태로 주고받는데, 이는 사회적 위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④ 프랑스에서 교사나 지식인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선호하지만, 노동자나 상인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곡을 선호하는데, 이는 계층 간의 문화 차이를 보여 준다.
- ⑤ 1930~40년대에 나치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당시 유럽인의 뿌리 깊은 정서를 이용하여 반유대주의 이념을 조직화하고 선전함으로써 독일 제3제국의 체제를 공고히 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쓰워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순간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설핏 보아도 절색이었다.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걷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배회하다가 이웃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회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유.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이라유.”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마다 거짓말을 꾸며 냈다.

“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피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훅!”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는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홀연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끈이듣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빙 돌아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나라. 밤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난다.”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마다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켜다. ㉠ 정적에 쌓여 잠이 깊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옥, 심생전(沈生傳) -

* 운종가, 소광통교, 소공주동: 서울의 지명.

* 계사: 회계원.

25. [A]의 주된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준다.
- ②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 ③ 여자 주인공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④ 전개될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 ⑤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바뀌어 변화의 묘미를 준다.

26. [B]에서 ‘처녀’의 언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음부터 차분하게 행동한 것은 ‘심생’에 대한 호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일 거야.
- ② ‘심생’이 붙잡았을 때 놀라지 않은 것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 ③ 겁이 난다고 한 것은 여종에게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기 위해서일 거야.
- ⑤ 문을 소리 내어 잠근 것은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일 거야.

27. ㉠의 상황에서 읊었을 만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음속의 끝없는 사연을 세세하게 읊겨다가
달빛 비친 사창과 비단 휘장에 너 계신 곳 전하고자
그제야 알뜰히 그리워하는 줄 짐작이나 하실까
- ② 꿈이 날 위하여 먼 데 너 데려왔거늘
간절하고 반갑게 여겨 꿈 깨어 일어나 보니
그 너미 성나서 갔는지 간 곳이 없어라
- ③ 각시네 꽃을 보소 피는 듯 시드나니
옥 같은 얼굴인들 청춘을 매었을까
늙은 후 찾은 이 없으면 뉘우칠까 하노라
- ④ 꿈에 다니는 길이 발자취 날작시면
너의 집 창밖이 돌길이라도 닳으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⑤ 아아 내 일이여 그릴 줄을 몰랐더니
있으라 하였더면 갔으랴만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28.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묘사가 돋보인다.
- ②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켜 박진감을 준다.
- ③ 당시에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④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남자 주인공의 순수한 집념과 성공이 지닌 교훈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가 봐야 노루 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 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A]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덜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음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엮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당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 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잦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찰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깡아지였다.

해안촌(海岸村) 혹은 중국인 거리라고도 불리어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낫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짚수세미에 아궁이에서 굵어 낸 고운 재를 문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넋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으레 나올 뒤엎말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느 독(毒)이 그렇게 퍼렇겠니.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엮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어리를 찰싹찰싹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들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옥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옥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옥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니를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펄럭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 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희게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옥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댈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희고 거대한 벽은 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쑥발을 만들어 버렸더니까.

치옥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쑥발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자른 드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옥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짹짹 침을 빨아 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뽀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옥이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느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새, 내가 이시(市)와 나는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29.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나'의 가족은 삼대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 ② '중국인 거리'는 '나'가 태어난 곳이 아니다.
- ③ 전쟁 후의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할머니'는 생활 환경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 ⑤ 아이들은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할 상황을 힘겨워 한다.

30. 위 글에서 '석탄'이 갖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분위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 ② 여러 장면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 ③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 ④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사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31. [A]를 <보기>와 같이 바꿔 썼을 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지금도 나는 가끔 그곳,
 제분 공장의 마당을 떠올리곤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높다란 굴뚝이 있는 제분 공장, 펼쳐진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있었지요. 나이 많은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털어 넣은 밀알……. 밀알은 울울이 흩어지고,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곤 했지요. 딱딱한 껍질이, 달고 따뜻한 침에 녹아, 속살을 풀 때……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던 밀알들.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 주던…… 밀알이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 우리는 철로에 닿곤 했습니다.

- ① 회고조의 목소리가 두드러져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잘 드러낸다.
- ② 중심 제재를 더 자세히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준다.
- ③ 호흡을 느리게 하여 과거의 경험을 음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독자가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친밀한 느낌을 주는 말투를 써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혀 준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의 '노란색(빛)' 이미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노란색: 병색(病色). 구역질. 기쁨, 에너지의 색. 경계·경고의 색.
- 노랑다(관용적 표현): 영양 결핍. 핏기 없음. 기력이 쇠함.
- 해인초: 홍조류의 해조. 회충약으로 쓰이거나 석회의 접착력을 높이는 데 쓰임. 끓일 때 냄새가 강함.
- 산토닌: 구충제. 부작용은 모든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증세, 두통, 구토.

- ① 겨울의 암울한 이미지와 대비되어, 동네 아이들의 소망을 상징한다.
- ② '중국어 거리'의 불안정한 분위기와 그에 대한 '나'의 낯섬을 표현한다.
- ③ 메스꺼움과 연관되면서 '나'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부적응 상태를 암시한다.
- ④ 해인초의 후각적인 이미지와 결합하여, '나'의 몽롱한 의식 상태를 드러낸다.
- ⑤ 공복과 산토닌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33.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선생님께서 상처에 약을 발라 주셨다.
- ② 아이의 방을 예쁜 벽지로 발라 주었다.
- ③ 그는 늘 몸가짐이 발라 누구나 좋아했다.
- ④ 그 아이는 인사성이 발라 칭찬을 듣는다.
- ⑤ 어머니께서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 주셨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어 기호는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언어의 체계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말소리나 단어들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체계를 이루는 각 항목이나 범주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가 변화를 입게 되면 다른 항목이나 체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 전까지 유지되어 있던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즉, ㉠ 체계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선택'이란 한 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언어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고자 할 때,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러한 각각의 세 항목을 두고 선택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곧 단어들의 체계이다. 즉 체계란,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선택 가능항(選擇可能項)의 집합이라 말할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한 단어의 수는 몇 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 수가 매우 많을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이것', '그것', '저것'은 3항이었지만, 이른바 ㉡ '능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 '단수'와 '복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 항목이 둘뿐이다. 이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선택을 폐쇄적인 선택이라 한다. 폐쇄적인 선택의 대표적인 것으로 문법 범주(文法範疇)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선택과는 달리 선택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도 있다. "철수가 ()을/를 보고 있다."와 같은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또는 명사 상당형은 무수하게 많다. 철수가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사건을 대표하는 언어 형식이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의 제한이 없는 선택을 개방적인 선택이라 한다. 대체로, 문법 범주의 경우에는 폐쇄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 어휘의 경우에는 개방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

언어를 살필 때에 구조라는 개념 또한 중요하다. 구조란 대체로 언어 형식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와의 관계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앞에서 ‘체계’를 선택 관계로 설명한 바 있는데, ‘구조’는 이와 달리 통합 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이지만, 그것은 음운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음운은 구성 요소가 되고, 형태소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동사 ‘떡다’의 어간 ‘떡-’은 ‘ㅁ, ㄷ, ㄱ’의 세 음운을 구성 요소로 가진다. 거꾸로 말하면 ‘ㅁ, ㄷ, ㄱ’ 세 구성 요소는 동사 ‘떡다’의 어간 ‘떡-’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형태소는 이처럼 몇 개의 음운을 구성 요소로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형태소는 다시 상위 구조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었-’과 ‘-고’는 각각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이 두 구성 요소는 ‘-있고’라는 어미가 됨으로써 다시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또, ‘사람은’, ‘착한가’는 “사람은 착한가?”와 같이 문장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된다. 문장을 언어 연구의 가장 큰 단위로 보던 때에는 문장이 가장 큰 구조이므로 더 이상 단위는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시야가 넓어져서 ㉠ ‘담화’니 ㉡ ‘이야기’니 하는 것을 언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문장이 이들의 구성 요소가 된다.

34. ㉠을 <보기>와 같이 설명할 때, <보기>와 가장 가까운 사례는? [3점]

<보 기>

예전에는 나이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말이 ‘젊은이’, ‘늙은이’뿐이었는데, 후에 ‘어린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이로 인해 이들 각 낱말들이 의미하는 범위가 달라짐으로써, 체계 전체에 변화가 생겼다.

젊은이	늙은이	
↓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 ① 고유어 ‘뫼’가 한자어 ‘산(山)’으로 대체되었다.
- ② ‘천연두’라는 병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말은 남아 있다.
- ③ 우리 학교에서는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던 것을 올해부터 ‘수-미-가’로 평가한다.
- ④ 예전에 없던 물건인 라디오가 서양에서 들어옴에 따라, ‘라디오’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 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계절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다.

35. ㉢은 구체적인 문맥에서는 선택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기도 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덩치가 매우 큰 편이야.
- ② 철수는 ()을/를 많이 먹었어.
- ③ 철수는 어제 ()에서 공부를 했어.
- ④ 철수는 그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 .
- ⑤ 철수는 오늘 식물원에서 () 꽃을 보았어.

36. <보기>는 ㉢의 한 예이다. 위 글에 나온 개념들을 활용하여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서둘러야 한다. 철수는 빠른 손놀림으로 ㉢ 책을 챙겨 가방에 넣는다. 어깨에 가방을 걸쳐 메고는 미끄러지듯 현관으로 달려간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운동화 끈을 조이며 생각한다.

“㉣ 지각이나 아니냐는 ㉤ 이 두 발에 달려 있다.”

- ① <보기> 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이다.
- ② ㉠은 <보기> 글의 ‘구성 요소’이다.
- ③ ㉠과 ㉡는 서로 ‘통합 관계’에 있다.
- ④ ㉢을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이 모여서 ‘체계’를 이룬다.
- ⑤ ㉣과 ㉤는 서로 ‘선택 관계’에 있다.

37. <보기>에서 설명한 ‘선택’ 개념에 따를 때,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은?

<보 기>

‘선택’이라는 말은 그 개념을 넓혀서 생각할 수 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은 ‘계층’, ‘지역’,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선택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서울 봉사 갖틀진디 문수(問數)하오 웨련만년, 시골 봉사라 문복(問卜)하오 하며 외고 가니
- ② 예전에는 주인을 찾는 방식이 “이리 오너라!”라 하였는데, 요즘은 “여보세요.”란 표현이 즐겨 쓰인다.
- ③ 종이 진지를 고희거든 ‘올니라’ 말고 ‘드리라’ 흐고, 숙녕을 먹으려 흐거든 ‘가져오라’ 말고 ‘진지흐라’ 흐느니라.
- ④ 어스 왈, “저 농군 여복시. 검은 소로 밭출 가니 킴킴흐지 아니흐지?” 농뉘 디답흐디, “그러키의 밭으라고 밧 다랏지오.”
- ⑤ 밥이라 하는 것이 나라에 오르면 수랏요, 양반이 잡수시면 진지요, 하인이 먹으면 입시요, 제배(濟輩)가 먹으면 밥이요

38. 다음 피동 표현 중, ㉠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 ①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 풀렸다.
- ②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
- ③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 ④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 ⑤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책의 그림은 순수 회화와 구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illustrate'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라는 뜻이다. 그림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책이 전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 오랫동안 그림책은 글자를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른이 읽어 주는 책이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책을 장식하는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도구였던 일러스트레이션이 오늘날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림책이 독자적인 장르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 오늘날 그림책 속에 담긴 일러스트레이션은 점점 회화적인 요소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목적 때문에 예술적 의의를 인정받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일수록 이야기가 풍부하다. 한 권의 그림책 속에 어우러지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작품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좋은 그림책이란 어떤 것인가? 회화의 공간성과 영화의 시간성이 간결한 언어와 입체적으로 만나서 풍부한 이미지를 주는 그림책이다. 글 속에 생략되어 있는 묘사와 서술을 세심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림을 엮은 책이다. 그러져 있는 것과 그러져 있지 않은 것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다리는 그림책 속에는 글과 그림의 조합 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숨어 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선으로 표현하여 어딘지 소극적이고 더듬거릴 것 같아 보이는 그림, 유창한 드로잉으로 힘 있게 날아오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림, 사인펜으로 북북 그어 놓은 선들 때문에 꼭 망친 것 같아서 인물의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림, 하얀 바탕에 묵탄을 문질러서 아련한 느낌을 주는 눈 쌓인 그림들은 들여다보면 불수록 재미가 있다. 그림 자체가 보는 사람에겐 전하는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배경들이 거의 흰색이거나 흰색에 얇은 색이 들어 있고, 물체를 표현하는 선들이 진하거나 날렵하면서도 많이 끊겨 있는 그림책도 있다. 그 끊겨진 선들마저 지워지는 곳에 빛이 있다. 그 빛은 그림 하나하나를 오로라처럼 둘러싸고 살아 있게 만든다. 이렇게 ㉠ 말이 줄어들어 생긴 빈 자리에 상상력과 사유가 깃든다. 이는 건축 설계시 형태, 장식, 공간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 공간을 다양하게 변용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좋은 그림책은 완성되어 있는 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책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책이다. 존재하는 물감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색이 만들어지고, 선과 선, 색과 색, 혹은 선과 색이 만나면 화폭에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문득 그림 그 자체와는 상관없이 바깥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리저러한 형태들과 방향들이 어찌어찌하여 그냥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책을 본다는 것은 글로 쓰여진 개념이나 대상을 넘어 미지의 영역과 서로 맞닿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3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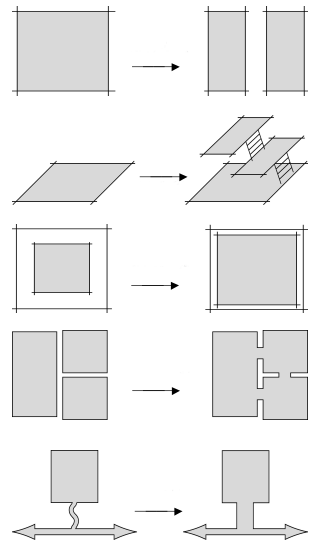
- ① 그림책의 글은 시적 언어와 같이 비유적이어야 한다.
- ②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책의 글은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 ③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 회화의 하나로 취급된다.
- ④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공간성보다 시간성을 강조한다.
- ⑤ 일러스트레이션과 글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그림책이 된다.

40. 위 글의 '일러스트레이션'이 겪은 변화와 유사한 것은?

- ① 뮤지컬은 오페라에 비해 다소 격이 떨어진다고 여겨졌으나, 이제는 오페라와 대등한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② 독립 영화는 최근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현재는 영화 예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③ 서양 고전 음악은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하던 예술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④ 행위 예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이제는 낮은 장르가 되었다.
- ⑤ 도자기는 처음에는 일상 용품으로 제작되었으나, 점차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41.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채를 둘로 나누어 자연 공간을 끌어들이다.
- ② 옥상을 다층적으로 설계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 ③ 건물 이외의 공간을 최소화해서 생활 공간을 넓힌다.
- ④ 건물들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서 삶의 편의를 도모한다.
- ⑤ 좁고 구부러진 길을 넓고 곧게 정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42. ㉡이 의미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는 우연한 요소가 작용한다.
- ② 좋은 화가일수록 작품에서 자신의 의도를 잘 구현한다.
- ③ 독자는 그림의 선과 색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④ 독자는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의 의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 ⑤ 그리는 과정에서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 =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 역학의 가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양자 역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양자 역학의 한계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양자 역학을 자연에 적용할 때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양자 현상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자 역학은 미래에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도 어떤 형태로든 설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43.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물리학의 계보
- ②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
- ③ 양자 역학의 운동량 측정
- ④ 고전 역학의 두 가지 가정
- ⑤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의 만남

44. ㉠, ㉡, ㉢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 ① ㉢는 ㉠이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② ㉢는 ㉡가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③ ㉢는 ㉠이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④ ㉢는 ㉡가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⑤ ㉢는 ㉠과 ㉡가 동시에 맞는 경우에만 당연한 결과이다.

45. <보기 1>의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양자 구슬 한 쌍을 생각하자. 이 두 구슬은 뜨겁거나 차갑고, ‘딩’ 소리나 ‘땡’ 소리가 난다. 구슬의 온도와 소리는 두 물리적 속성은 위 글에서 소개된 양자적 특징을 갖는다. 이제 구슬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주어 멀리 보냈다고 하자.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딩’ 소리가 났다. 그런 후 내 구슬을 만져 보니 뜨거웠다.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A)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드린다면 (B) 소리가 날 것이다.	<보기 2> <table style="margin: auto;"> <tr> <td style="padding: 5px;">A</td> <td style="padding: 5px;">B</td> </tr> <tr> <td style="padding: 5px;">ㄱ. ‘딩’</td> <td style="padding: 5px;">‘딩’</td> </tr> <tr> <td style="padding: 5px;">ㄴ. ‘딩’</td> <td style="padding: 5px;">‘땡’</td> </tr> <tr> <td style="padding: 5px;">ㄷ. ‘땡’</td> <td style="padding: 5px;">‘딩’</td> </tr> <tr> <td style="padding: 5px;">ㄹ. ‘땡’</td> <td style="padding: 5px;">‘땡’</td> </tr> </table>	A	B	ㄱ. ‘딩’	‘딩’	ㄴ. ‘딩’	‘땡’	ㄷ. ‘땡’	‘딩’	ㄹ. ‘땡’	‘땡’
A	B										
ㄱ. ‘딩’	‘딩’										
ㄴ. ‘딩’	‘땡’										
ㄷ. ‘땡’	‘딩’										
ㄹ. ‘땡’	‘땡’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6.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들은 고전 역학의 가정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 ② 물리학자들은 고전 역학이 양자 역학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③ 양자 역학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예측과 인과적 설명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
- ④ 양자 현상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니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 ⑤ 돌이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는 현상과 지구 입자와 금성 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

47. ㉠을 ‘금성(金星)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 셋별’ 처럼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 중에서 잘못된 것은?

- ① 유성(流星)은 빛을 내며 떨어진다. → 별뿔별
- ② 행성(行星)은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 → 잔별
- ③ 혜성(彗星)은 긴 꼬리를 끌면서 돈다. → 꼬리별
- ④ 항성(恒星)은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불박이별
- ⑤ 북극성(北極星)은 방위나 위도의 지침이 된다. → 길잡이별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연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모든 소질을 계발하도록 한다. 사회의 질서는 이 갈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갈등은 인간의 반사회적 사회성 때문에 초래된다.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반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어 살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성향은 분명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있다.

(나)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회화하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개별화하거나 고립시키려는 강한 성향도 있다. 이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는 행위하려는 반사회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항하려는 성향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도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게 되리라 예상한다.

(다) 이러한 저항을 통하여 인간은 모든 능력을 일깨우고, 나태해지려는 성향을 극복하며, 명예욕이나 지배욕, 소유욕 등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동시대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진정한 진보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능력이 점차 계발되고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도 형성된다. 나아가 자연적 소질에 의해 도덕성을 어렵פות하게 느끼기만 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든다. 그 결과 자연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결합된 사회를 도덕적인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사유 방식이 확립된다.

(라) ㉠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꽃피지 못하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양처럼 선량한 기질의 사람들은 가축 이상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부여하기 힘들 것이다. 자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연적 소질을 계발하여 창조의 공백을 메울 때, 인간의 가치는 상승되기 때문이다.

(마) 불화와 시기와 경쟁을 일삼는 허영심, 막힐 줄 모르는 소유욕과 지배욕을 있게 한 자연에 감사하라! 인간은 조화를 원한다. 그러나 자연은 불화를 원한다. 자연은 무엇이 인간을 위해 좋은 것인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락하고 만족스럽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이 나태와

수동적인 만족감으로부터 벗어나 노동과 고난 속으로 돌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은 인간이 노동과 고난으로부터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
- 칸트,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

4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논지와 주요 개념을 제시한다.
- ② (나): 제시된 개념을 부연하여 설명한다.
- ③ (다): 논지를 확대하고 심화한다.
- ④ (라): 다른 각도에서 논지를 강화한다.
- ⑤ (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49. <보기>의 내용 중, 위 글에 나타난 인간의 양면성을 설명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짝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예술가는 미리 존재하는 법칙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법칙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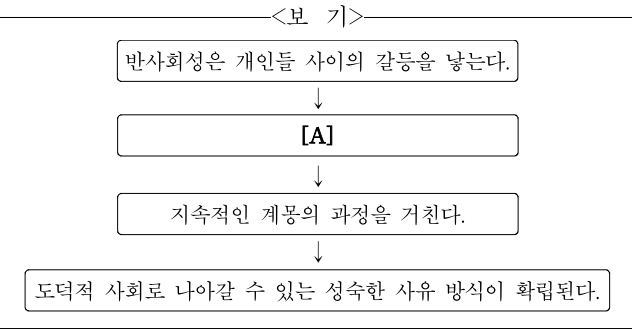
ㄴ.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영감을 표현할 따름이다.

ㄷ. 예술가의 임무는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ㄹ. 위대한 예술가는 그 시대의 표현 양식을 뛰어넘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표현 양식을 가장 잘 따르는 자이다.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ㄴ-ㄹ

50. 위 글에 제시된 ‘진보’의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성을 계발한다.
- ② 갈등을 계기로 조화롭고 목가적인 삶에 이른다.
- ③ 갈등을 극복할 도덕적 실천 원리를 인식한다.
- ④ 갈등의 과정 속에서 자연적 소질이 계발된다.
- ⑤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를 이룬다.

51.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 ①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없다.
- ② 동물도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 ③ 사회성만으로도 재능이 계발될 수 있다.
- ④ 반사회성만으로는 재능이 계발될 수 없다.
- ⑤ 목가적인 삶 속에서도 반사회성이 생겨날 수 있다.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千山鳥飛絕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萬徑人蹤滅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獨釣寒江雪
 - 유종원, 강설(江雪) -

(나) 일곡(一曲)은 어드메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건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메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

삼곡(三曲)은 어드메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 평무: 풀이 우거진 들판.
- * 녹준: 술잔.
- * 취병: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 하상기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귐.
- * 반송: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
 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
 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
 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
 띠(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싹싹,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
 石)으로 오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
 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
 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5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비해, (다)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멀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 ③ (다)와 달리, (나)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가), (다)와 달리, (나)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 ⑤ (나), (다)에 비해, (가)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5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 → 길 → 배 → 낚시질’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 ② ‘새’와 ‘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③ ‘날지 않고’와 ‘끊어졌네’는 시적 공간의 적막함을 강조한다.
 - ④ ‘사람 흔적’은 ‘늙은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의미한다.
 - ⑤ ‘눈만 내리고’는 ‘늙은이’의 고독을 심화한다.
54. <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우리는 흔히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고 감탄한다. 이러한 감탄은 우리가 은연중에 풍경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조선조 시가의 작가들은 실제 풍경뿐 아니라,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되었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까지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은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을 그려 내고자 했다는 점, 작가 자신마저도 그 풍경의 일부이고자 했다는 점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 ① ‘원근이 그림이로다’의 ‘그림’은 마음 안의 풍경을 의미하겠군.
 - ② ‘녹준’을 놓고 ‘벗’을 기다리는 화자도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야외’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겠군.
 - ④ ‘승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겠군.
 - ⑤ 당대 다른 작품에도 ‘취병’, ‘녹수’, ‘반송’ 등의 시어가 등장할 수 있겠군.
55. <보기>는 (나)를 배운 후, ‘시조의 정형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시조의 3장 형식(의미의 3단 구성)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 ‘말’로 지어지고 불려지는 상황에서, 정해진 형식이 표현의 부담을 줄여 줌. →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음.
- 왜 이런 형식이었을까?
 - 의미의 3단 구성은 고전 시가 장르 전반에서 두루 확인되는 특성임. → 이를 양식화한 것이 시조의 형식임. → 학습이 용이하고 적용 범위가 넓음.

- ①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겠군.
- ② 시조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작품을 통해 형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겠군.
- ③ 시조의 형식은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할 때도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겠군.
- ④ 시조 작가는 내용에 앞서 형식을 창안하느라 힘들었겠군.
- ⑤ 규칙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겠군.

56. (다)의 전개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애의 정서에서 유희의 정서로 나아가고 있다.
- ② 후반부로 가면서 3·4조의 율격이 파괴되고 있다.
- ③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 ④ 후반부에서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후반부로 갈수록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소남이란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묻지 아니하니 타죽에게 짓밟힌 땅에 개결(慨潔)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란다.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 환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노릇이리오마는 ㉠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長技)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淸高)한 심정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중략>

이 오죽잖은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시혹(時或) 그림 장이나 그려 달라는 부질없는 청을 받는 때가 많다. 내 변변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塗抹)해* 보내는 수도 없지 아니하니,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제(畵題)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계를 그리는 것이다.

계란 놈은 첫째, 그리기가 수월하다. 긴 양호(羊毫)에 수묵을 듬뿍 묻히고 호단(毫端)에 초묵을 약간 찍어 두어 붓 좌우로

휘두르면 앙버티고 엷드린 꼴에 여덟 개의 긴 발과 앙증스런 두 개의 집게발이 즉각에 하얀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그려 놓고 보아도 붓장난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다.

그리고는 화제를 쓴다.

뜰에 가득 차가운 비 내려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제 땅 얻어 종횡으로 마음껏 다니누나.
 창자 없는 계가 참으로 부럽도다.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네.

역대로 계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라만 내가 쓰는 화제는 십중팔구 운우당의 작이라는 이 시구를 인용하는 것이 항례다.

왕세정의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결국에는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인 것을.” 하는 대문도 묘하기는 하나 ㉡ 무장공자(無腸公子)로서 단장(斷腸)의 비애를 모른다는 대문이 더 내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人士)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맑은 동해변 바위틈에서 미끼를 실에 매어 달고 이 해공(蟹公)을 낚아 본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 채 앓다가 콩알만큼씩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곁두리를 보아 가면서 차츰차츰 큰 [A]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미끼를 뺏느라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추켜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利)가 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척 동정이 가고, 밉살스레 보면 가증(可憎)하기 짝이 없는 놈!

계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거니와 또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 김용준, 계 -

* 환을 친다: ‘그림을 그리다’를 낮추어 표현한 말.
 * 도말하다: 대충 그리다.

57.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재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동물에 빗대어 인간의 행동을 풍자하고 있다.
- ③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고사 성어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어리석게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 ⑤ 앞부분과 다른 이름을 써서 제재의 또 다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58. ㉠과 <보기>에 나타나 있는 예술관을 가장 잘 비교한 것은?

— <보 기> —

글씨와 그림은 모두 수예(手藝, 손의 예술)에 속하는 것이니, 그 솜씨가 없으면 비록 총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배울지라도 능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수(手)에 있는 것이지, 흉중(胸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 ① ㉠과 <보기>에서는 모두 예술을 삶과 동일시한다.
- ② ㉠과 <보기>에서는 모두 예술의 보편성을 추구한다.
- ③ ㉠에서는 예술을 감성적인 것으로, <보기>에서는 이성적인 것으로 본다.
- ④ ㉠에서는 예술적 자질이 길러지는 것으로, <보기>에서는 천부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 ⑤ ㉠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담느냐에, <보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에 중점을 둔다.

59. 글쓴이가 ㉡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가장 유사한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1점]

과 정	내 용
명명 동기	창자가 없다는 물리적 속성
일반적 인식	속이 없는 놈
새로운 의미 발견	창자가 없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모름
재인식	평생 아픔을 몰라 부러운 존재

- ① 그는 돈만 아는 ‘구두쇠’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독려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 ②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금촌댁’이라고 불렸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의 고향이 금촌이었다. 거기가 바로 내 고향이라 그 아주머니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 ③ 옆집 아이는 똑똑하고 영리하여 ‘똥똥이’라고 불렸다. 게다가 착하기도 하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 ④ ‘서생원(鼠生員)’은 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동물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붙어 만들어졌다. 결국 동물을 의인화한 것인데,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 ⑤ 행동이 느려 ‘느림보’라고 불리며 놀림을 받던 친구가 있었다. 행동이 느린 만큼 그는 서두르거나 실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60.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소남이 난초 그림으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것처럼, 글쓴이도 계 그림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고자 했겠지.
- ② 계를 그리기가 수월하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세상사에 얽히기를 꺼리는 글쓴이의 태도를 읽을 수 있어.
- ③ 글쓴이가 윤후당의 시를 인용한 것은 계의 형상만으로는 자신의 진의를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거야.
- ④ 계를 어리석은 미물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그런 계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글쓴이의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
- ⑤ 계를 그린 그림을 남에게 주는 데에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1	16	①	2	31	②	3	46	②	2
2	②	2	17	③,⑤	2	32	①	2	47	②	2
3	②	2	18	③	3	33	⑤	2	48	⑤	2
4	③	2	19	②	2	34	③	3	49	③	2
5	③	2	20	④	2	35	④	2	50	④	2
6	①	2	21	②	1	36	⑤	2	51	③	3
7	④	2	22	⑤	2	37	①	2	52	①	2
8	④	2	23	⑤	2	38	⑤	2	53	④	2
9	④	2	24	①	2	39	⑤	2	54	③	2
10	①	3	25	④	2	40	⑤	2	55	④	2
11	④	2	26	④	2	41	①	2	56	①	2
12	⑤	2	27	⑤	2	42	②	2	57	③	2
13	④	1	28	⑤	1	43	②	2	58	⑤	2
14	①	2	29	⑤	2	44	③	2	59	⑤	1
15	①	2	30	②	2	45	③	2	60	②	2

제 1 교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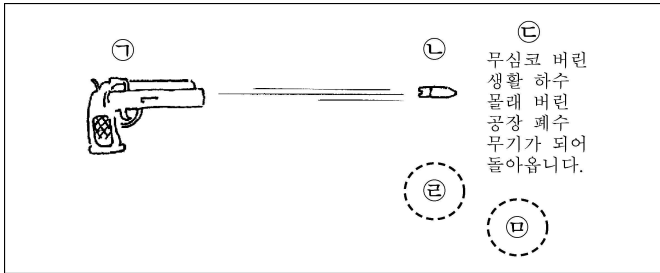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응시 계열,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팀장이 내린 결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물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 ② ㉡은 오염된 물로 나타내면 되겠고요.
- ③ ㉢의 문자들은 물총에서 발사된 오염된 물을 맞고 흐트러진 것으로 합시다.
- ④ ㉡에는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는 하수구를 그려 넣어야겠어요.
- ⑤ ㉢에는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상을 물방울로 표현하도록 하지요.

2. (물음) 두 학생이 혼동하고 있는 것은?

- ① 말과 문화의 개념
- ② 한글과 한국어의 개념
- ③ 성인과 아동의 어휘 수준 차이
- ④ 외국인용 교재와 한국인용 교재의 차이
- ⑤ 외국어 학습 과정과 모국어 습득 과정의 차이

3. (물음) 이후에 예상되는 취재 내용은?

- ① 흡연에 대한 정부의 대책
- ② 흡연율과 국민 건강의 관계
- ③ 담배 업계와 연구소 간의 분쟁
- ④ 간접 흡연과 발암물의 상관 관계
- ⑤ 간접 흡연에 대한 시민들의 대처 방안

4. (물음) 강의 내용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이 나아갈 주된 방향은?

- ① 외국의 캐릭터 기술을 하루빨리 도입한다.
- ② 관련된 캐릭터 산업 사이의 연계성을 높인다.
- ③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한다.
- ④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다.
- ⑤ 우리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여 시장 변화에 대처한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이 토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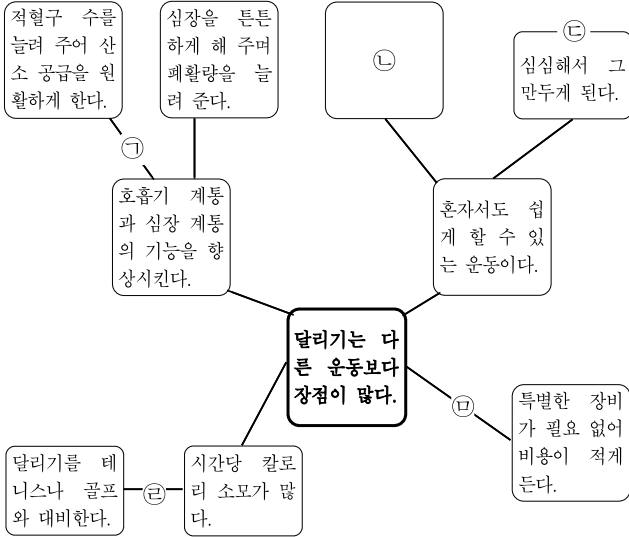
- ①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도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
- ② 인터넷 실명제는 공공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다.
- ③ 인터넷 실명제가 되면 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 ④ 인터넷에 익명이 많은 것은 비관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를 탓이다.
- ⑤ 인터넷의 익명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6. (물음) 이 토론의 사회자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한쪽의 의견에 동조하여 중립을 지키지 못하였다.
- ② 논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답변 유도에 실패하였다.
- ③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얽매어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 ④ 진행이 미숙하여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 ⑤ 토론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달리기는 다른 운동보다 장점이 많다.”라는 주제로 설득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에 관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이 방향의 전문가 소견을 소개한다.
- ② ㉡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를 넣는다.
- ③ ㉢은 글 전체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근거이므로 삭제한다.
- ④ ㉣에는 실험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덧붙인다.
- ⑤ ㉤에는 비용에 따른 장비의 효율성을 조사한다.

8. 개요를 작성하다가 새로운 글감을 접하였다. ㉠~㉣ 중에서 개요 수정 및 글감 활용 방안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 제목 :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 ◆ 개요 I. 서론 : 문제 제기 II. 본론 1. 청년 실업 문제의 실태 2.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 가. 사회적 차원 나. 개인적 차원 3.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 가. 장기간에 걸친 경기 불황 나. 일자리의 해외 유출 4.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 가. 정부에서 할 일 나. 청년 구직자가 할 일 III. 결론 : 요약 및 제언	[새로 접한 글감] · A :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B :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이 2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C :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요 수정 및 글감 활용] · ㉠-3에 ‘청년 구직자의 비현실적인 눈높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글감 A를 제시한다. ㉠ · ㉠-4에 ‘기업에서 할 일’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글감 B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 · ㉠-4-가에서 글감 A, C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청년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 · ㉠-4-나에서 글감 B, C를 바탕으로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9. <보기>의 자료에서 착안한 글쓰기 계획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회사의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한 설문 조사

- ▶ 설문 목적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장 분위기 쇄신
- ▶ 설문 내용 : 직장에서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 ▶ 설문 결과
 - 듣고 싶어하는 말 : “도와 줄까요?”, “일찍 퇴근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 듣기 싫어하는 말 : “이런 것도 몰라요?”, “내 일이 아닌데요.”, “벌써 퇴근합니까?”, “그렇게밖에 못해요?”
- ▶ 설문 결과에 따른 조치 : ‘듣고 싶어하는 말 많이 하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함

<글쓰기 계획>

- 자료 해석 : 직장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듣기 싫어하는 말의 특성을 찾고, 그것들이 일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 ----- ①
- 유추 적용 : 학생은 교사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꾸중을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 ②
- 문제 설정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칭찬과 꾸중이 학생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③
- 문제 해결 : 학생의 학습 활동을 칭찬하고 학습과 무관한 활동을 꾸중하면 학생의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 ④
- 제목 확정 : 글의 제목을 ‘학생의 학업 성적을 올리는 교사의 말 한 마디’로 확정한다. ----- ⑤

10. 글의 도입부를 <보기>의 단계에 따라 간단하게 써 보았다. 이 단계에 따른 글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보 기>

↓

-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
- 문제의 핵심을 찾는다.
- 글을 쓰는 목적(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① 식목일마다 산에 나무를 심는다. 그런데도 매년 홍수 피해가 되풀이된다. 또 공해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진다.
- ② 해마다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적지 않다. 이 피해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 ③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효과적인 산림 녹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④ 산림 녹화 사업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로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 ⑤ 울창한 산림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와 국토 미화의 효과는 크다. 이 두 가지는 나라 살림의 근본 문제와 직결된다. 이 점을 깊이 인식시키고, 가능한 한 등산을 자체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11. <보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삼아 창작한 문학 작품을 고등학생이 번역한 글이다. 이를 고쳐 써야 할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목이의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지게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지게란 나무로 된 뼈대가 밖으로 드러나는 배낭이다. 지게 위에는, 쌀을 담아 나를 때 흔히 사용되는, 짚으로 짠 큰 가마니가 있었다. 아저씨는 길 위에서 잠시 멈추더니 ㉡ 나무 지게의 성가신 무게를 등의 위쪽으로 옮겼다. 목이가 지켜보고 있는데, 가마니의 구멍에서 쌀알이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 쌀알의 줄기가 굵어지더니 줄 줄 흘러내렸다. 아저씨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걸었다. 짧은 순간, ㉣ 목이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뒤엉켜 싸웠다. ㉤ ‘아저씨에게 말하라, 빨리! 아저씨가 너무 많은 쌀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니,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아저씨가 길을 돌아가면 너는 땅에 흘린 쌀을 주울 수 있을 것이다.’

- ① ㉠ : 우리나라 사람은 ‘나무로 된 뼈대가 밖으로 드러나는 배낭이다.’에서 ‘지게’를 연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게’에 대한 설명을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 ② ㉡ : ‘물건의 무거운 정도’를 의미하는 ‘무게’를 ‘등의 위쪽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므로, 아예 ‘무거운 흘러내린 나무 지게를 추켜올렸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 ③ ㉢ : ‘쌀알의 줄기가 굵어지더니’는 쌀알의 수가 많아진다는 뜻으로 쓴 것이므로, 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 ④ ㉣ : 우리나라 사람은 사물이 주어라 되는 번역투의 말은 잘 쓰지 않으므로, 사람이 주어라 되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 ⑤ ㉤ :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명령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독백의 평서문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12. 수업 시간에 창작 연습을 하는 중이다. <보기>의 (가) 시를 (나)에 제시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낙엽
○○○ 지음
암갈색으로 물든 채 바람에 흔들리더니
계절이 엇갈리는 길목에서
두어 바퀴 공중을 맴돌며 소리 없이 지는 낙엽

(나)

- (가)는 대상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아. 대상을 통해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면 어떨까?
-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이 암시되도록 해 보자.
- 어떤 생각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 ‘낙엽’ 하면 흔히 떠오르는 우울한 느낌 말고, 긍정적인 생각이 암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 ① 계절이 엇갈리는 길목에서
암갈색으로 물든 몸을 움직여
두어 바퀴 원을 그리며 지는 그대
- ② 초록의 피부는 어디에 두고
두어 바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오늘은 암갈색으로 지고 있는 그대
- ③ 시간의 굴레를 어찌하지 못하고
오늘은 암갈색으로 지고 있는 낙엽
다시 볼 수 있을까, 초록의 잎으로 빛날 날을……
- ④ 시간의 굴레에 묶인 채로 두어 바퀴 원을 그리며
초록으로 숨 쉬던 어제가 그리운지
오늘은 저렇게 무거운 걸음으로 지고 있네
- ⑤ 두어 바퀴 약속의 원을 그리며 아래로 향하는 그대
다시 초록으로 숨 쉴 그 날을 위해
오늘은 묵묵히 지고 있나 보다

13. <보기>는 ‘아저씨’가 친척 관계와 친척이 아닌 관계에서 함께 쓰임을 보여 준다. 밑줄 친 말의 구체적 쓰임이 ㉠의 ‘아저씨’와 다른 것은?

—<보 기>—

- ㉠ (친척 결혼식에서 만난 사람에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아저씨 뵈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 ㉡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저씨가 들고 계신 짐 이리 주세요. 제가 들어 드릴게요.

- ① (공원에서 30대 남자가 20대 여자에게)
지금 아가씨 가방에서 손수건 떨어졌어요.
- ② (병원에서 50대 간호사가 70대 남자에게)
제가 할아버지 안내해 드릴까요?
- ③ (골목길에서 이웃집 어른이 옆집 아이들에게)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니?
- ④ (버스에서 30대 승객이 모르는 여자 승객에게)
저 내리는데, 아주머니께서 여기 앉으시죠.
- ⑤ (대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4학년 선배에게)
내일 쉬는 날인데, 형은 뭐 하실 거예요?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A]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나)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
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
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
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
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B]

①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때글은: 때에 전.

(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목가적인 서정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묘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
- ⑤ (가)~(다)에는 내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15. [A]와 [B]의 의미를 중심으로 비평문을 쓰고자 한다. 그 주제
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본질적 의미
- ② 삶의 고난과 좌절
- ③ 세속적 삶의 비판
- ④ 삶의 신비와 동경
- 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16. '흰 바람벽'을 영화 스크린으로 가정하고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자아가 '흰 바람벽'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은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시적 자아의 고립적 상황을 강화한다.
- ② '흰 바람벽'에 비친 '무명서츠'의 그림자는 스크린에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 ③ '또 어인 일인가'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의 영상이 스크린에 갑자기 나타나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려낸다.
- ④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병치의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⑤ '흰 바람벽' 위로 지나가는 '글자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움직이는 글자들을 연상시킨다.

17. <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다)의 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골 :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목상의 대상
 방 : 공포, 밀폐, 비밀, 몽상, 폐쇄적 환상
 어둠 :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정신적 힘의 교류
 바람 : 권능, 영감, 전달, 공기, 순수성과 열정
 개 : 감시, 충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매(靈媒)

- ① '백골'은 시적 자아의 빈약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 ② '방'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깊숙히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 ③ '어둠'은 시적 자아의 고통의 근원이자 영혼을 성숙시키는 존재이다.
- ④ '바람'은 시적 자아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의 힘을 의미한다.
- ⑤ '개'는 시적 자아의 영혼을 일깨워 우주로 안내하는 존재이다.

18. <보기>를 통해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화가 렘브란트가 가장 잘 이해하고 다루기 쉬운 모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화상을 통해 얼굴 표현 방식 등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고독한 내면과 삶의 비애, 자기 확신, 그리고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난으로 고통받았던 말년에 그린 두 폭의 자화상이 있다. 하나는 황금색 옷으로 치장하고 지팡이를 쥐고 앉아 있는 당당한 모습을 그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태와 회한으로 가득한 얼굴을 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두 자화상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화상을 보는 기준이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模寫)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는 화가의 삶의 역정과 영혼의 기록이 있다.

- ① (가)의 '갈대'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유사하다.
- ② 두 자화상의 묘사 기법의 차이는 (가)에서 '그'와 '갈대'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 ③ (나)에서 ㉠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그린 동기를 설명해 준다.
- ④ (나)의 시인의 생애는 한 폭의 자화상으로 응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
- ⑤ 자화상의 인물을 통해 렘브란트의 내면을 읽는 것은 (다)에서 '나'를 시인 윤동주와 동일한 인물로 설정하고 시를 읽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말에서 신경을 써서 가꾸고 다듬어야 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규범을 지키는 언어생활이다.

우리는 우리말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 표준 발음 규정, 외래어 표기법 같은 국가적 차원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언어생활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몇 번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철자를 잘못 적는 일은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 이에 반해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거리에 나가 거닐면서 각종 상업의 간판, 광고, 표지 등을 잠깐만 살펴보다도,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을 한두 건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표준어 규정이나 표준 발음에 어긋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심지어 ㉠ 영어 철자법에는 자신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은 어려워져 영 자신이 없다고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이야기하는 지식인을 본 적도 있다. 사실, ㉡ 영어의 철자는 너무나도 불규칙해서 송두리째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비하면, 우리말의 맞춤법은 영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쉽다. 그런데도 우리말의 맞춤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말을 소홀하게 생각해 온 데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나) 현재 한국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규정상으로 서울말이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과 같이 선포한 때다. 이것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처럼 좀 더 정밀하게 규정되었고,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는 다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얼마간 표현을 바꾸었다.

위의 세 규정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1933년과 1988년의 규정에서는 '대체로'와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으로 서울말이 그대로 전부, 또는 서울말만

언어 영역

표준어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돌과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중류사회’, ‘교양 있는 사람들’이란 조건은 ㉠ 사회 방언을 의식하여 궁중과 같은 특수 사회나 하층 계급의 말은 서울말일지라도 표준어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을 단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을 하지 않았어도 한국어의 표준어가 서울말이 아닌, 더 정확히 교양 있는 사람들의 서울말이 아닌 다른 지역(및 다른 계층)의 말이 표준어가 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서울은 600년 동안이나 한국의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조선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는 개성이 475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는데, 개성과 서울의 거리는 불과 73km로 두 도시는 언어적으로 동일한 방언권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서울말이 한국어의 표준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은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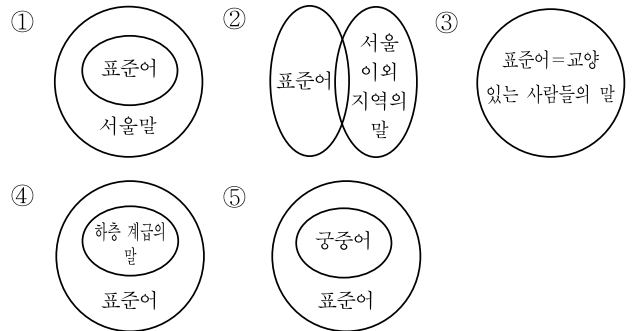
19. (가)를 통해 볼 때, 표준어 규정 및 맞춤법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 ① 정부의 정책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 ② 우리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다.
- ③ 새로 바뀐 맞춤법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새로운 규범이 사회에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 ⑤ 표준어 규정이나 맞춤법 규정 등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

20. ㉠을 논지로 하여 ㉡을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한글	로마자 알파벳
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
②	‘ㅎㅏㅑㅓㅕㅗㅛ’처럼 풀어서 쓰지 않고 ‘학교’처럼 모아서 쓰므로, 시각적으로 음절 단위를 알기 쉽다.	lato p d 처럼 모아서 쓰지 않고 ‘laptop’처럼 풀어서 쓰므로, 시각적으로 음절 단위를 알기 어렵다.
③	낱글자를 모아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틀려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낱글자를 풀어서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틀리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④	/o/로 발음되는 모음이 ‘곰, 손, 불’에서처럼 항상 ‘ㄱ’로 표기되어, 발음을 알면 표기를 예상하기 쉽다.	/ɔ/로 발음되는 모음이 ‘cough, daughter, sorry’에서처럼 다양하게 표기되어, 발음을 알아도 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
⑤	비슷한 발음의 글자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모양만 보고 비슷한 발음인지 예측하기 쉽다. (예: ‘ㄱ:ㅋ:ㆁ’ 또는 ‘ㅈ:ㅊ:ㅉ’)	비슷한 발음의 글자라도 모양의 관련이 없어서, 모양만 보고 비슷한 발음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 ‘d:t’ 또는 ‘g:k’)

21. 1933년과 1988년의 규정에 ‘대체로’나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이유를 보인 것 중, (나)의 논지에 맞는 것은?



22. ㉠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무속인들은 ‘머리’를 ‘석거리’, ‘놀라다’를 ‘노재다’라 한다.
- ② 재래 시장에서 상인들은 ‘1, 2, 3’을 ‘떡주, 대, 삼패’라 한다.
- ③ 군대에서 병사들은 “장군이 온다.”를 “별이 떴다.”라 한다.
- ④ 대학생들은 ‘단과대학’을 ‘단대’, ‘사범대학’을 ‘사대’라 한다.
- ⑤ 심마니들은 ‘산삼’을 ‘심’이나 ‘심메’, ‘호랑이’를 ‘산개’라 한다.

23. “행정 수도를 옮기면 표준어의 지역적 기준도 바꾸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기>를 이용하려고 한다. (가), (나)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가. 표준어를 바꾸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진다.
- 나. 표준어는 인구 비례로 결정해야 하는데, 서울 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다.
- 다. 행정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개념까지 포함해서 표준어를 결정해야 한다.
- 라. 표준어는 공적인 언어생활을 위해 정한 것이므로, 표준어를 방언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마. 언어생활의 혼란 방지가 표준어 제정의 취지인데, 행정 수도 이전에 따라 표준어가 바뀌면 혼란이 가중된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나, 마 ⑤ 다, 마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어찌 문장에만 해당하리오? 일체의 갖가지 일이 모두 그러하지요. 화담(花潭) 선생이 외출하였다가 ㉠ 집을 잃고 길에서 우는 자를 만났습니다. 화담 선생이 “너는 어째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저는 다섯 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왔다가 갑자기 천지만물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눈두렁 발두렁 갈림길은 많고, 집집마다 문은 똑같아서 어느 집이 우리 집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울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일러 주마.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지팡이로 땅을 ㉠ 두드려 보고 밭 가는 대로 따라가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빛깔과 형상에 정신이 뒤죽박죽 되고, 슬픔과 기쁨에 어지러워 그러한 망상을 일으킨 것이지요. 지팡이로 땅을 두드려 보고 밭 가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분수를 지키는 요체요, 집으로 ㉡ 돌아가는 비결입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나) 진실한 기쁨과 진실한 슬픔이 진실한 시를 만든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우는데, 울기를 그치면 웃는다. 여기에는 어떠한 허위도 없는데, 그 까닭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시의 근본이다. 동자가 두세 살이 되어서는, 밥을 많이 주면 웃고, 밥을 적게 주면 운다. 느끼는 대로 기쁨과 슬픔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이것이 시의 기미(幾微)*이다. 아이가 성장해서는, 귀인(貴人)에게 아첨하여 환심 사기에 애쓰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슬픈 척 조문한다. 이것이 시의 허위(虛僞)이다.

천하에는 슬픔이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시를 짓지 못할 사람이 없으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형(父兄)과 스승이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거짓된 시를 지을 리가 있겠는가? 아이는 마음으로는 깨달았으나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손으로는 썼으나 마음으로는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부형과 스승에게 질문하여 판단해 주기를 요청하면, 그들은 그 자체가 옛사람과 비슷하지 않게 될 것만을 염려한다. 억지로 옛사람을 모방한다고 해서 옛사람이 되지 않음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참으로 옛사람을 모르는 자들로, 빼어나고 기발한 글은 ㉢ 지우며 “이것은 요즘 것이고, 옛날 것이 아니다.”라 말하고, 진부하고 화려한 글은 비점(批點)*을 치며 “이것은 옛날 것이고, 요즘 것이 아니다.”라 말한다. 아이를 부귀로 유혹하고 가난으로 겁을 주고 나서는 ㉣ 끌어다가 과거(科擧) 문장을 익히게 한다. 그 뒤로 자제들은 저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면 회초리를 맞은 듯이 여기고, 저들에게 비점을 얻으면 떡이나 꿀을 얻은 듯이 여긴다. 날마다 허위에 ㉤ 빠지니, 시가 결국 슬픔이나 기쁨과는 무관하게 된다.

- 이덕무, 선서재시집(蘚書齋詩集)의 서문 -

* 기미: 일이 되어 가는 분위기.

* 비점: 시문 등을 비평하여 잘된 곳에 찍는 점.

24. (가)와 (나)의 공통적인 글쓰기 방식은?

- ① 표현의 측면에서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논리의 측면에서 역설(逆說)을 이용하고 있다.
- ③ 서술의 측면에서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구성의 측면에서 주제를 서두에 제시하고 있다.
- ⑤ 논지 전개에 측면에서 병렬의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25. ㉠이 처한 문제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 ① 물에서 노는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한다. 보이는 것이 모두 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 ② 소리와 빛깔은 외부의 사물이다. 외부의 사물은 항상 귀와 눈에 장애를 만든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보고 바로 듣게 하는 힘을 잃게 한다.
- ③ 사물에는 본래 정해진 색깔이 없는데, 내 눈이 사물을 보고 색깔을 결정한다. 눈으로 색깔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 속에서 미리 결정한다.
- ④ 물건을 찾는 사람이 앞을 보면 뒤가 보이지 않고, 원편을 보면 오른편이 보이지 않는다. 실내에서는 사물이 서로 섞여 있고 눈을 돌릴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 ⑤ 개미가 줄지어 나와 두 눈을 부릅뜨고 봐도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대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코끼리가 한쪽 눈을 뜨고 봐도 개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보려는 대상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26. <보기>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언어 문화적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나)의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수사적 세련미를 추구하였다.
 ㄴ. 창작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였다.
 ㄷ. 동시대 현실의 묘사를 지향하였다.
 ㄹ. 개성과 자아의 표현을 중시하였다.
 ㅁ. 문학적 규범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ㄹ, ㅁ

27. (나)의 글쓴이가 ‘좋은 시를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할 때, 청중들에게 해 줄 핵심적인 권고는? [1점]

- ① 꾸준히 습작을 하시오.
- ② 고전 작품을 많이 읽으시오.
- ③ 생생한 체험을 많이 하시오.
- ④ 감정을 꾸밈없이 표현하시오.
- ⑤ 새로운 형식을 시도해 보시오.

28. ㉠~㉣와 문맥적 의미가 같게 쓰인 것은?

- ① ㉠: 그 소리는 갑자기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이 되어 가슴을 두드렸다.
- ② ㉡: 자동차의 시동을 걸자 기관이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나기 시작했다.
- ③ ㉢: 의식 속에 끼어드는 그의 환영을 지우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 ④ ㉣: 우리 주방에선 안집 지하수를 끌어다가 편리하게 쓰고 있다.
- ⑤ ㉤: 사람은 오류에 빠지면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기 어렵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복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 그런 날은 황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낡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 새 어둠이 기어 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

(나) 서울에 와서 나는 문학에 눈을 떴다. 별로 읽은 책도 없고, 읽었다 해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작가는 특수한 인간처럼 우러러보였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 하나의 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작은 작가가 되고 싶었다. 내가 시인이 된다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다. 보들레르나 말라르메와 같은 시를 쓸 수만 있다면, 횡달린처럼 방황하다 미쳐 죽어도 상관없다고 믿었다. 어떤 직업에도 구애됨이 없이 작품을 내서 인쇄(印稅)로 살 수 있는 삶이 가장 부러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화려했던 사르트르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사회와 거의 단절하고 사는 괴벽(怪癖)스러운 셸링저 같은 작가의 생활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다.

그 후, 나는 차츰 무엇이 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나는 알고 싶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할 수 있게 되고 싶었다. 정서적 표현에 대한 충동에 앞서 지적 갈증에 물리게 됐다. 만족할 수 있는 시원한 지적 오아시스를 찾아, 나는 ㉢ 사막 같은 길을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골을 떠나 삭막한 서울의 뒷거리를 방황하던 나는, 어느덧 소르본 대학의 낯선 거리를 5년 동안이나 외롭게 서성거린다. 파리의 좁은 길이 로스앤젤레스의 황량한 길로 연결되고, 그 길은 다시 보스턴의 각박한 꼬부랑길로 통했다. 이처럼 나는 삶의 길을 찾아 30세가 넘어 40이 가깝도록 다시 학생 생활을 했고, 이제 60이 넘는 지금까지도 학교의 테두리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 박이문, 나의 길, 나의 삶 -

29. (가)의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대해 복합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다. 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① 서글픈 그리움 ② 고단한 행복감
③ 아늑한 우울 ④ 쓸쓸한 위안
⑤ 호젓한 기쁨

30.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육체적으로 허약한 체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
② 어린 몸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감기에 걸릴 만도 해.
③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볼 수 있겠지.
④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듯이, 내면의 울분을 쏟아내고 싶다는 뜻이겠지.
⑤ 어린아이가 아픔을 겪으며 자라듯이, 성장을 위해 고통을 겪었다는 뜻이 아닐까?

31. (나)를 읽은 후 '저자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글쓴이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문 탐구의 길을 가고 있는 후학들에게 충고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지요?
②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각 나라의 지적 풍토는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③ 학문 탐구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문학에 대한 꿈도 여전히 있을 거라 봐요. 혹 창작을 하고 계시는지요?
④ 시인이자 작가를 꿈꾸다가 지적 갈증에 물리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계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요?
⑤ 문학은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 비판적인 문학을 멀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32. ㉡와 ㉢의 대비적인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상실의 공간이고, ㉢는 추구의 공간이다.
② ㉡는 추상적인 공간이고, ㉢는 구체적인 공간이다.
③ ㉡는 폐쇄적인 공간이고, ㉢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④ ㉡는 곡선의 이미지이고, ㉢는 직선의 이미지이다.
⑤ ㉡는 혼자 걷는 길이고, ㉢는 여럿이 함께 걷는 길이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용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반응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외향적 활동이다. 즉 무용수는 관객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경험한 영감을 함께 느낄 생각으로 작품을 창조한다.

이러한 ㉣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자신이 창조한 신체의 동작을 보여준다. 동작에는 반드시 정서적 의미와 삶의 경험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삶의 경험이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는 손을 흔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상상의 대상을 포옹하는 등의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추상화된 몸짓의 형태로 보여줄 뿐이다.

무용수는 관객이 단순한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들 앞에 펼쳐지는 동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근육 조직

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무용수 자신을 움직였던 정서적 연상을 관객에게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이 무용수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관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느낌을 바꾸고 경험을 확대시키며, 습관적 반응으로부터 관객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하여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용수는 대부분 동작을 활용하겠지만 무대 배경, 음악 등 관객들의 정서적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도 함께 활용한다.

이러한 무용수의 기대와 노력에 관객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술 작품을 접할 때 대부분의 관객들은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마련이다. 과거의 미적 경험이나 지식,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 그 작품은 어떠한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상이 작품 감상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관객이 무용수의 동작 자체에 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용을 감상하면서 어떤 한 부분, 예를 들어 무용수의 팔 동작이 그리는 도형이나 배경이 되는 음악에만 관심을 갖는 관객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객은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 기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무용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용을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무용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농부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참조할 만하다. 농부가 말을 잃어버렸다. ㉡ 그 결과 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농부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관객은 반드시 무용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용에 접근할 때 비로소 무용을 예술로서 바르게 지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예상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분석하여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논의 대상을 두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의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34. ㉠을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끝말잇기' 방식의 낱말 연상 놀이를 해 보았다. ㉠~㉣ 중, '소통'과 관련된 어휘 가운데 의미상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소통 → ㉠ 통신(通信) → 신속(迅速) → ㉡ 속달(速達) → ㉢ 달성(達成) → 성문(城門) → 문서(文書) → ㉣ 서신(書信) → ㉤ 신호(信號) → 호소(呼訴)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어떤 무용을 관람한 관객의 소감 중, ㉠이 실현된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하늘을 향해 힘차게 치솟는 분수! 무용수는 그 분수처럼 생동하는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 ② 빠르게 마구 몰아대는 음악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직으로 상승하는 화려한 동작도 멋지게 보이더군요.
- ③ 무대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주변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지더군요.
- ④ 순식간에 모여들었다가 다시 힘차게 퍼져나가는 춤사위는 바다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떼 모습을 본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⑤ 순간적인 정지 동작에 이어지는 열정적인 상승의 몸짓!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매우 역동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36. ㉡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하여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이전에 말을 타고 갔던 곳을 찾아 다녀 보았다.
- ② 그는 이웃에서 다른 말을 빌려 타고 말을 찾아 나섰다.
- ③ 그는 자신이 말의 입장이 되어 말이 갈 만한 곳을 가 보았다.
- ④ 그는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부터 말을 찾기 시작했다.
- 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했다.

37. 글쓴이가 제시한 무용 감상법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적절한 의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배경 지식은 작품 감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 ② 작품은 여러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 ③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의사 소통이다. 무용수가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관객에게도 작품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 ④ 작품 감상 방법에는 작품에 몰입하는 것도 있지만,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다.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⑤ 무용수의 입장이 되려면 그들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관객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물 그리스와 유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둘 아으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흐디 너저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헛마리신더*
 슬웁든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 * 벼기더시니: 우기던 사람이.
- * 몰헛마리신더: 못 사람의 혈뜬는 말이로다.
- * 슬웁든더: 슬프구나.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A] [너 오는 길에 무쇠로 ㉡ 설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排目)*
 걸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
 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 날 와 볼 하루
 없으랴

- 작자 미상의 시조 -

- * 쌍배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버려도 내음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어 있어
 옥식진찬(玉食珍饈)* 어디 가고 맥반염장(麥飯鹽藏)* 되었으며
 금의화식(錦衣華飾)* 어디 가고 현순백결(懸鶉百結)* 되었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 되겠구나
 어와 보리가을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밤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에 쓸어내니
 일분(一分)은 밥쌀하고 일분(一分)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면
 꽃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 옥식진찬, 금의화식: 좋은 음식과 의복.
- * 맥반염장, 현순백결: 빈약한 음식과 누더기 옷.
- * 용정: 곡식을 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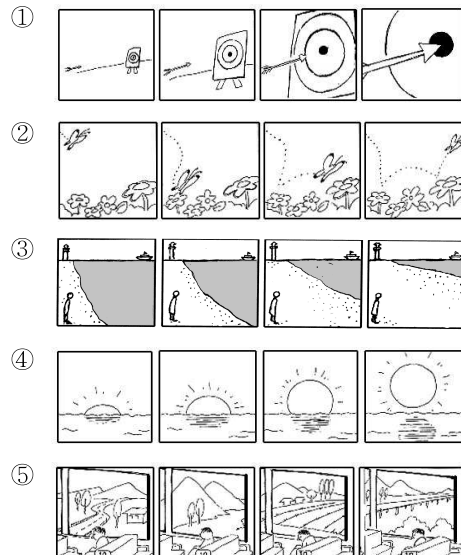
38.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는?

- ① 현실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을 원망(怨望)하고 있다.
- ③ 부당한 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39. (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와 대조를 통해 율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설명적 진술을 통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③ (나)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40. (나)의 [A]의 시상 전개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41.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상황을 고려할 때, 유배가사를 단순히 유배지에서의 삶을 그린 가사로 보기는 어렵다. 유배가사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

- ① 자신을 ‘별나비’에 빗댄 것은 자신의 죄를 유혹에 약한 인간 본성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 ②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은, 유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가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 ⑤ 공명(功名)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벼슬길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의 결백과 심적 상황을 암시한다.
- ② ㉡ : 화자와 ‘너’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의미한다.
- ③ ㉢ : ‘너’에 대한 그리움과 가벼운 책망이 공존한다.
- ④ ㉣ : 정신적, 물질적인 여유를 지닌 대화 상대자이다.
- ⑤ ㉣ : 안타까움과 후회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처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땀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뉘시꾼들을 쫓아 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불쭙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 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땡돌같이 앉아서서, 목이 터져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 가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도, 불쑥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러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 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경중경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성질이 염병을 앓아 귀머거리가 된 사람처럼 물렁해지고, 바보처럼 느물느물해진 거였다. 황소같이 힘이 세고 성같이 확실스럽던 그는, 도깨비 춤추듯 징을 두들다가도 방울재 사람들이 쫓아와서 한마디만 질러 대도 슬그머니 징채를 감추고 목을 움츠리는 거였다.

(중략)

“자네 정신 말짱허니까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히어.”
강촌 영감이 불뎨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거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것이 좋은겨.”

[A]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춰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 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 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대처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캐록캐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 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쑤셔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심쩍심쩍했다.

[B]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서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짹짹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게 들려 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 기침을 토해 내고 빼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

나 박을 틈도 없이 꼭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쭈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벌쭈 웃으면서 불쭉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깃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 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 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와도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 숲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린지, 징소린지.”

봉구는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담배를 찾아 성냥불을 붙였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인가 누웠다 앉았다 하며 담배만 피웠다. 자꾸만 컷바퀴를 후벼 파고 들려 오는 징소리가 오목가슴 깊숙이에 가지처럼 걸린 때문이었다.

이날 밤, 팔만이도, 덕칠이도, 강촌 영감도 다 같이 방울재 안통 여기저기서 설새없이 들려 오는 징소리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징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때로는 상여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은, 그게 어쩌면 그들한테 쫓겨난 칠복이의 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징소리가 더욱 무서워졌으며 아침을 맞기조차 두려웠다.

- 문순태, 징소리 -

43. <보기>의 ㉠~㉣ 중, 서사 전개상 기능이 위 글의 ‘칠복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힘이 장사였다. 하지만 그가 장성하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다. 예로부터 평민 중에 큰 장사가 나면 나라에 반역을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청년을 관가에 밀고하였다. ㉣군사들이 몰려왔고, 청년은 순순히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 그날 밤 청년 집 우물에서 한 마리 ㉤백마가 하늘로 올라가며 슬픈 소리로 울었다. 이후 마을의 모든 우물이 말라 버렸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그 원혼을 달래는 재를 지내주자 비로소 물이 다시 고였다. 그 연못을 말샘[馬泉]이라 불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4.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 ② 강촌 영감은 칠복이가 빨리 떠나기를 재촉하고 있다.
- ③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부당스러워하고 있다.
- ④ 강촌 영감은 인정에 이끌리면서도 현실을 따르고 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침묵으로 강촌 영감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45.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인물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인 어휘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을 통해 상황의 암울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명멸하는 불빛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심화된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46. 위 글을 읽고 ‘징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토론한 내용이 다. 적절한 의견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징소리에는 칠복이의 한이 담겨 있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뒤 힘들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쫓겨나야 하는 한이지.
- ② 칠복이의 징소리에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어.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춤추며 정을 치는 모습에서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③ 징소리의 음색은 깊고 묵직하잖아? 고향이 물에 잠기는 충격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럼에도 꺾을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의 꿈이 나직하게 퍼져 나오는 것 같아.
- ④ 내가 주목한 것은 칠복이가 쫓겨나 버스에 올라타며 하고자 했던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에 들은 징소리는 칠복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한 것이 아닐까?
- ⑤ 나는 징소리에는 사회적 울림도 담겨 있다고 봐. 댐이 만들 어지고 고향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꺾어야만 했던 방울재 사람들의 비극을 알리려는 소리로 들린다는 말이지.

47. 고향에 대한 ‘칠복이’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황폐화된 고향을 새로 일구고자 한다.
- ② 과거와 달라진 고향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 ③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고향을 찾으려 한다.
- ④ 변해 버린 고향에 어떻게든 적응해 살려고 한다.
- ⑤ 자신을 버린 고향이지만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이라는 개념은 유럽인들에게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유럽은 본래 동질성을 찾기 어려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실체였다. 중세에 유럽인들은 기독교 세계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세속적인 관념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야 생겼다.

㉠ 유럽인은 유럽을 비(非)유럽, 곧 '다른 세계'를 통해 정의하여 왔다. 유럽보다는 '유럽 이외의 사람들'이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들은 유럽인과 기원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무능할 뿐 아니라 영원히 정치적인 혼란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유럽인은 자신들의 기원을 그리스·로마에 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 이외의 세계는 유럽의 과거를 비추어 준다고 생각하였다. 수세기 동안 유럽이 거쳐 왔던 과거가 다른 세계를 통해 유럽인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유럽인은 아메리카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선사 시대를 알게 되었다. 아메리카 등은 그리스·로마 시대(고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성서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상상으로만 그려지던 지역이었다. 탐험가들이 석기만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아메리카나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퇴보론(退步論)이라는 관념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이라는 세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전의 문명 단계에서 더 낮은 단계로 퇴보하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로크(J. Locke, 1632~1704)가 전세계에 석기 시대가 존재하였고, 아직도 석기를 쓰는 사람들은 퇴보의 산물이라고 보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잔존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자 로크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

유럽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집트에 대한 유럽인의 생각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유럽인은 이집트를 유럽이 아닌 다른 세계에 귀속시켰다. 그들은 이집트가 문명의 원천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이집트가 지닌 지식은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이집트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근대에 들어서 유럽이 이집트를 지배한 것을 두고 유럽인들은 유럽의 우수성이 증명된 것으로 보았다. 유럽인들은 '진부한 유럽 밖의 세계'나 이류(二流)를 가리키는 데 '동양'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유럽인의 우수성을 드러내려 하였다. 유럽의 역동성과 비교하면, 동양은 본질적으로 정체된 구조였으며, 열등하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유럽인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유럽'을 창조하였다. 유럽은 언제나 사상이나 전쟁을 통해 도전 받은 실체지만, ㉡ 유럽이라는 개념은 '다른 세계'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유럽은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정당성을 찾았다. 유럽에 관한 진보와 우월성의 이미지는 19세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이같이 자기중심적 역사가 바로 오늘날 유럽의 정체(正體)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유럽인은 외부 세계를 열등한 세계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유럽인들은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여겼다. 그 명분은 문명 사회의 질서 잡힌 이성을 미개인들에게 부여하여, 발전의 가능성을 준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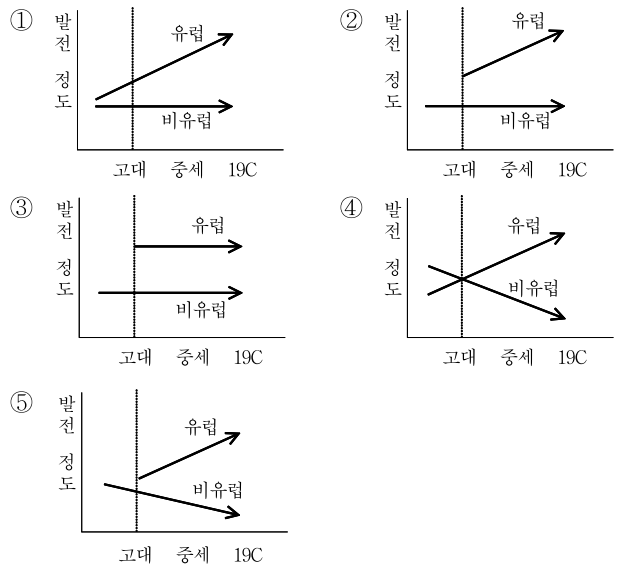
48. 위 글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퇴보론은 유럽의 선사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
- ② 유럽의 개념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 ③ 유럽인은 유럽 밖의 사람들과 기원이 같다고 생각하였다.
- ④ 유럽인은 그리스 문명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 ⑤ 유럽은 원래부터 여러 가지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49. 밑줄 친 ㉠과 ㉡에 나타난 의미를 '유럽'은 '나'로, '비유럽'은 '김철수'로 바꾸어 표현하고자 한다. 위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은?

- ① 김철수를 보니,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 ② 나는 나를 모르지만, 김철수는 나를 안다.
- ③ 나는 김철수를 알고, 김철수도 나를 안다.
- ④ 김철수는 나를 알지만, 나는 김철수를 모른다.
- ⑤ 김철수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50.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로크 이후 19세기까지의 유럽인이 생각하였던 유럽과 비유럽의 역사 발전 과정을 그림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51. 위 글을 읽고, '유럽인이 갖고 있는 역사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토론 내용이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유럽이 동양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은 곤란해. 모든 문명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장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
- ② 유럽인이 역사를 왜곡하여 잘못된 관념을 형성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어. 외부 세계를 침탈하면서 문명을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이 그 사례이지.
- ③ 유럽인들이 동양을 발달이 정체된 사회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각 나라나 민족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맞게 발전한 것이야.
- ④ 역사 발전을 보는 균형된 시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유럽의 눈으로만 동양을 바라보거나, 동양의 눈으로만 유럽을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없어.
- ⑤ 동양의 아름다움은 정적인 것이 특징이고, 동양은 서양에 비해 정신 문명이 발전하였어. 이를 유럽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방안을 개발하여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몇 종류의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이토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소 단위에 대한 개념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물질관은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미세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구조로 된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로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최소 단위, 즉 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68년에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운 쿼크’와 ‘업 쿼크’라고 명명된 두 가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더욱 강력한 기구를 발명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냈다.

도대체 자연계에는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입자들이 있는 것일까? 각각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값(질량)들 사이에는 왜 관상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다가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하면 의문은 더 커진다. 입자들 사이에는 중력(重力), 전자기력(電磁氣力), 강력(強力), 약력(弱力)*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이들은 그 크기와 성질이 모두 다르다. 도대체 왜 이런 네 종류의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할 만한 이론의 후보로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을 들 수 있다. 초끈이론의 기본 개념은 모든 물질이 진동하는 ㉡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초끈이론에 의하면 만물의 최소 단위인 끈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해 낸 입자들은 모두 ‘진동하는 끈의 여러 가지 얼굴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네 종류의 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입자는 그 입자를 이루는 끈이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으며, 가벼운 입자들은 끈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진동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저마다 고유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초끈이론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엎었다. 물질의 최소 단위인 끈들은 모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없이 많은 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 우주는, 하나의 웅장한 ‘우주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는 거대한 무대인 셈이다.

* 전자기력: 전하(電荷)를 띤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강력: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강하게 결합시켜 주는 힘.
 약력: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힘.

5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1점]

- ① 초끈이론은 우주 생성의 비밀을 해명해 주었다.
- ② 물질의 형태에 따라 그것이 보여주는 힘의 성질이 달라진다.
- ③ 초끈이론은 물질과 힘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 ④ 물리학자들이 발견해 낸 입자들의 존재는 그리스인들이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 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53. ㉠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이들은 블록 조각들을 적절히 짜 맞추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 낸다.
- ② 고무공은 힘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된다. 그러다가 힘을 빼면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온다.
- ③ 음계의 낮은 ‘도’와 높은 ‘도’ 사이는 12단계의 반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2단계의 진동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 ④ 나무는 자라면서 큰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더 작은 가지가 나온다. 다시 그 작은 가지에서 더 작은 가지가 나온다.
- ⑤ 알갱이들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 예컨대 모래 더미 위에 모래를 쏟아 부으면, 안쪽의 모래알들은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경사면의 모래알들은 흘러내린다.

54. 위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들을 알기 쉬운 예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② 과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부단한 상호 교섭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 글을 통해 과학과 다른 학문이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③ 과학은 끝없이 의문을 품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새로운 발견에 의하여 부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과학의 이러한 본질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 ④ 서양의 과학자들 중에는 그들의 과학적인 사고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동양의 철학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을 읽으면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⑤ 과학자들의 연구는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 그렇지 않다. 연구의 주체인 과학자들의 가치관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으면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언어 영역

55. 정확하고 풍부한 언어생활을 위하여 사전 찾기를 생활화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의 뜻풀이 및 관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끈 ㉠ ㉡ 물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 노, 줄, 실, 형겅 오리, 가죽 오리 따위가 있다. ㉢ 물건에 붙어서 잡아매거나 손잡이로 쓰는 물건. ㉣ 살아갈 방도 = 벌잇줄. ㉤ 의지할 만한 힘이나 연줄.
 노끈 ㉥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노내끈.
 꼬나풀 ㉦ ㉧ 길지 아니한 끈의 나부랭이. ㉨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

* ㉠ 명사, = 동의어, ≒ 비슷한 말

- ① ‘끈 떨어진 뒤웅박’에서 ‘끈’은 ㉡의 뜻으로 쓰였다.
- ② ‘형겅 오리’의 ‘오리’는 ‘실 한 오라기’의 ‘오라기’와 의미상 관련성이 느껴진다.
- ③ ‘끈이 없어 앞날이 막막하다.’에서 ‘끈’은 ㉢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취직을 위해 끈을 대는 것은 좋지 않다.’의 ‘끈’은 ‘노끈’으로 바꾸기 어렵다.
- ⑤ “그는 위원장의 꼬나풀이다.”에서 ‘꼬나풀’은 의미상 ‘끈’으로부터 파생된 말이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보의 마음씨는 저의 형과 아주 달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존경하며 이웃간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의 있어, 굶어서 죽게 된 사람에게 먹던 밥을 덜어 주고 얼어서 병든 사람 입었던 옷 벗어주기, 늙은이의 깊어진 짐 자청하여 저다 주고 장마 때 큰 물가에 샅 안 받고 건네주기, 남의 집에 불이 나면 세간살이 지켜 주고 길에 보물이 빠졌으면 지켜 섰다 입자 주기, 청산에서 백골을 보면 깊이 파고 묻어 주며 수절과부 보쌈 하면 쫓아가서 빼어놓기, 어진 사람 모함하면 대신 나서 발명하고 애잔한 늙은 황백 보면 달려들어 구원하기, 길 잃은 어린아이 저의 부모를 찾아 주고 주막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 기별하기, 계첩불살(啓蟄不殺)* 방장부절(方長不折)* 남의 일만 하느라고 돈 한 푼도 못 버니 놀보 오죽 미워하라.
 하루는 놀보가 홍보를 불러 “홍보야 네 듣거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 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너도 나이 장성하여 계집 자식이 있는 몸이 사람 생애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유의유식(遊衣遊食)*하는 거동을 보기 싫어 못하겠다. 부모의 세간살이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인데 하물며 이 세간은 나 혼자 장만했으니 네게는 부당(不當)이라. 네 처자를 데리고서 속거천리(速去千里) 떠나거라. 만일 지체하여서는 살육지환(殺戮之患)이 날 것이

니 어서 급히 나가거라.”

가련한 홍보 신세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다. 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빼면 둘 다 병신 될 것이니 외어기모(外禦其侮)*를 어이 하리. 동생 신세 고사하고 젊은 아내 어린 자식 뉘 집에 의탁하여 무엇 먹여 살리리까. 장공예(張公藝)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 구세(九世) 동거하였는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가라 하나이까. 척령(鶴鶴)*은 짐승이나 금란지의(金蘭之誼)를 알았고 상체(常棣)*는 꽃이로되 담락지정(澹樂之情)을 품었으니 형님 어찌 모르시오. 오류지의를 생각하여 십분 통촉하옵소서.”

놀보가 분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그런 야단이 없구나.

“아버지 계실 적에 나는 생판 일만 시키고서 작은아들이 사랑롭다 글공부만 시키더니 너 매우 유식하다. 당 태종은 성주(聖主)로되 천하를 다루어서 그 동생을 죽였으며, 조비(曹丕)는 영웅이나 재주를 시기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나 같은 초야 농부가 우애지정을 알겠느냐.”

구박 출문(出門) 쫓아내니 가련하다 홍보 신세 개구(開口) 다시 못 하고서 빈손으로 쫓겨나니 광대한 이 천지에 무가객(無家客)이 되었구나.

불쌍한 홍보 덕이 부자의 머느리로 먼 길 걸어 보았겠나. 어린 자식 업고 안고 울며며며 따라갈 제 아무리 시장하나 밥 줄 사람 뉘 있으며, 밤이 점점 깊어 간들 잠잘 집이 어디 있다. 저물도록 뺨뺨이 굶고 풀밭에서 자고 나니 죽을 밖에 수가 없어 염치가 차차 없어 가네. 이곳 저곳 빌어먹어 한두 달이 지나가니 발바닥이 단단하여 부르틀 법 아예 없고, 낮가 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움 하나 없네. 일년 이년 넘어가니 빌어먹기 수가 터져 홍보는 읍내에 가면 객사(客舍)에나 사정(射亭)에나 좌기(坐起)*를 높이 하고, 외촌(外村)을 갈 양이면 물방아집이든지 당산(堂山) 정자 밑에든지 사처를 정하고서 어린것을 옆에 놓고, 긴 담뱃대 붙여 물고 솔솔을 매든지, 또아리를 엮든지 냇가나 방죽이나 가까우면 뉘시질을 앓아 할 제, 홍보의 마누라는 어린것을 등에 붙여 새끼로 꼭 동이고 바가지엔 밥을 넣고 호박잎에 반찬 얻어 허위허위 찾아오면, 염치 없는 홍보 소견에 가장(家長) 태를 하느라고 가족(家屬)이 늦게 왔다고 질었던 지팡이로 매질도 하여 보고, 입에 맞는 반찬 없다 앓았던 물방아집에 불도 놓아 보려 하고, 별 수를 매양 부려 하루는 이 식구가 양달쪽에 늘어앉아 현 옷에 이 잡으며 홍보가 하는 말이 “우리 신세 이리 되어 이왕 빌어먹을 테면 전곡이 많은 데로 가 불 밖에 수 없으니 포구(浦口) 도방(道傍) 찾아가세.”

- 신재효, 박타령 -

- * 계첩불살: 경칩에 동면에서 깨어난 벌레를 죽이지 않음.
- * 방장부절: 자라는 초목을 꺾지 않음.
- * 유의유식: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입고 먹음.
- * 외어기모: 외부의 수모를 막음.
- * 척령: 할미새. 형제 사이에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함.
- * 상체: 꽃 이름. 여러 개의 꽃이 한 데 모여 피어 형제의 화합을 상징함.
- * 좌기: 관아의 으뜸 벼슬아치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5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이 암시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성격을 행동 묘사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일부가 생략되어도 [A]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④ 유사한 성격의 구절들을 반복하여 율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⑤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57. 놀보가 [B]와 같이 말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홍보가 내세우는 인물 도덕이 현실에서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님을 밝히려 하였다.
- ② 홍보가 아버지의 권위에 기댄다고 판단하여 역사적 인물의 권위에 기대어 반박하려 하였다.
- ③ 홍보의 글공부가 홍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려 하였다.
- ④ 홍보가 동정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현실의 냉정한 이해 관계가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 ⑤ 홍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고사를 인용하자, 놀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고사를 이용하여 반박하려 하였다.

58. 위 글에서 유추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홍보 가족은 구걸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삼았다.
- ② 홍보 아내는 구걸에 익숙해져 점차 후안무치(厚顏無恥)해졌다.
- ③ 집을 나가라는 놀보의 말에 홍보는 절치부심(切齒腐心)하였다.
- ④ 놀보는 홍보가 무위도식(無爲徒食)한다고 생각하여 쫓아냈다.
- ⑤ 집에서 쫓겨난 홍보 가족은 풍찬노숙(風餐露宿)하는 신세가 되었다.

59. 위 글을 읽은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홍보 아버지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도 어찌하여 장남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을까?
- ② 홍보를 내쫓은 것은 놀보가 아우의 자립심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 ③ 홍보가 남들에게는 선행을 베풀면서 어찌하여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까?
- ④ 홍보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찌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홍보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 ⑤ 홍보는 어찌하여 일년 이년이 지나도록 남에게 빌어먹는 방법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을까?

60.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놀부 심사가 터무니없어 부모 생전 나눠준 전답을 홀로 차지하고, 흥부 같은 어진 동생을 구박하여 건넌산 언덕 밑에 내뿜고, 나가며 조롱하고 들어가며 비양거리니 어찌 아니 무지하리. 놀부 심사를 불작시면 초상난 데 춤추기와 (중략) 이놈의 심술은 이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호식하는구나. 흥부는 집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집 재목을 구하러 갈 양이면 만첩청산 들어가서 작은 나무 큰 나무를 와드령 통탕 베어다가 안방 대청 행랑 몸채 내외분합 물림퇴에 살미살창 가로단이 입구[口] 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놈은 집 재목을 구하려고 수수밭 틈으로 들어가서 수수대 한 못을 베어다가 안방 대청 행랑 몸채 두루 짚어 말집[斗屋]을 짝 짓고 돌아보니 수수대 반 못이 그저 남았구나.

- 경판본 흥부전 -

	비교 항목	위 글	<보기>
①	홍보의 내면 심리	드러남	드러나지 않음
②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드러남	드러나지 않음
③	놀보 행위의 명분과 논리	제시됨	제시되지 않음
④	인물 간의 대립 원인	양쪽에 있음	한쪽에 있음
⑤	형상화 방식	말하기 + 보여주기	말하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④	2	16	①	2	31	⑤	2	46	③	2
2	②	2	17	④	2	32	①	2	47	⑤	2
3	③	2	18	②	3	33	③	1	48	②	1
4	③	2	19	②	2	34	③	2	49	①	2
5	③	2	20	④	3	35	⑤	2	50	①	2
6	①	1	21	②	2	36	③	2	51	⑤	2
7	⑤	2	22	④	2	37	②	2	52	③	1
8	②	2	23	⑤	2	38	④	2	53	①	2
9	④	2	24	④	2	39	⑤	2	54	③	2
10	④	2	25	②	3	40	①	2	55	①	2
11	⑤	3	26	②	2	41	⑤	3	56	①	2
12	⑤	2	27	④	1	42	④	2	57	②	2
13	③	2	28	⑤	2	43	③	2	58	③	2
14	⑤	2	29	①	2	44	①	2	59	②	2
15	①	2	30	⑤	2	45	⑤	2	60	②	2

제 1 교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아름다운 네 모습 잃지 않았으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응시 계열,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 점과 3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강연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석빙고 빙실 천장의 재료와 형태
 - ② 석빙고 빙실의 내부 모습 및 구조
 - ③ 석빙고 빙실에 있는 작은 문의 기능
 - ④ 석빙고와 냉장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 ⑤ 석빙고 빙실의 경사진 바닥과 배수구가 중요한 이유

2. (물음) 이 토론자가 비판하고 있는 '김 선생님의 의견'은?
- ①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다.
 - ② 외모에 집착하는 여성은 사고 방식이나 의식에 문제가 있다.
 - ③ 여성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성형 수술을 해야 한다.
 - ④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⑤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지속적인 현상이니 해결하기 어렵다.

3. (물음)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보기>와 같이 기사문을 쓴다고 할 때,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벨런타인데이와 같은 '신종 기념일'에 대해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신종 기념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달랐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날에는 ()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 ○ ○ ○ 기자

- 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
- ②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다
- ③ 부부나 연인 사이에 친밀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소원해진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⑤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4. (물음) 이 발표자에 대한 평가표이다. 평가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평가 항목	평가	
	그렇다	아니다
①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처음-중간-끝'의 절차를 밟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	
④ 다양한 비유를 통해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이 대담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알아봐야겠어.
 - ② 개인 정보 유출보다 국가 정보의 유출이 더 큰 문제야.
 - ③ 우선 나부터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 ④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꼭 필요해.
 - 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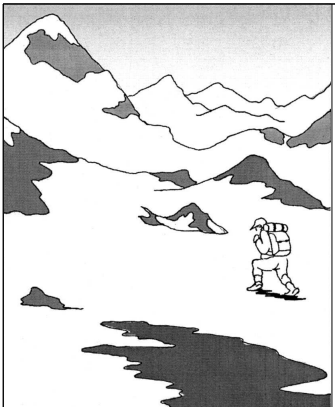
6. (물음) 두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자는 직설적으로, 여자는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② 남자는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만, 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③ 남자는 권위 있는 견해를, 여자는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다.
 - ④ 남자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반해, 여자는 감정에 호소하며 말하고 있다.
 - ⑤ 남자는 대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여자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과대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논의 대상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조사하여 과대광고의 특징과 속성에 대해 밝힌다.
- ② 어떠한 자료들을 활용할 것인가? —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통계 자료, 설문 조사 결과 등을 자료로 활용한다.
- ③ 글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텔레비전, 신문은 물론 인터넷, 휴대 전화를 통해서까지 무수한 과대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 ④ 어떤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할 것인가? — 과대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 ⑤ 글의 결론은 어떻게 맺을 것인가? — 다양한 방식의 광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끝맺는다.

8. 설정된 수신자에게 그림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여 그림과 함께 편지를 보내려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신자 :

내 용 :

- ① 수신자 : 학생회장 입후보를 망설이는 후배에게
내 용 : 정상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정상을 향해 용감하게 도전할 필요는 있는 거야.
- ② 수신자 : 낯선 타국에서 외롭게 공부하고 있는 형에게
내 용 : 고독한 생활일지라도 그 고독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 ③ 수신자 : 재수 생활로 힘들어 하는 누나에게
내 용 :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힘들고 고될수록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도 크다고 생각해요.
- ④ 수신자 : 졸업을 앞둔 선배에게
내 용 :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목표의 성취 시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 ⑤ 수신자 : 성적이 떨어져 실의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내 용 : 때로는 힘이 들더라도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9. <보기>의 개요를 검토 의견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목 : 대중 매체와 바람직한 언어 생활

I. 서론 : 대중 매체에 의해 언어가 오염되고 있는 현실

II. 본론

1. 대중 매체에 의한 언어 오염의 양상
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의 사용
나. 비속어와 유행어의 남용
2. 대중 매체에 의한 언어 오염의 원인
가. 대중 매체의 상업적인 속성
나. 대중 매체 종사자의 안이한 태도
다. 인터넷의 쌍방향적 특성
라. 언어 규범의 파괴
3. 매체 언어의 올바른 수용 방안
가. 매체 언어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나.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III. 결론 : 바람직한 언어 생활의 중요성

<검토 의견>

A. 실천적 차원의 논의가 되도록 내용을 보강한다.
B.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며 통일성 있는 글이 되도록 한다.

- ① A를 반영하여 본론 2의 '인터넷의 쌍방향적 특성'이라는 항목을 본론 1로 옮긴다.
- ② B를 반영하여 본론 2의 '언어 규범의 파괴'를 본론 1로 옮긴다.
- ③ B를 반영하여 본론 3의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삭제한다.
- ④ A를 반영하여 본론 3에 '수용자 입장에서의 감시와 조언'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B를 반영하여 결론을 '매체 언어의 올바른 수용을 위한 노력 촉구'로 수정한다.

10. <보기>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 문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의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설정할 수 있는 논지 전개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정부 통계 자료에서 : 노령화 지수 추이

연도	1990	2000	2010	2020	2030
노령화 지수	20.0	34.3	62.0	109.0	186.6

※ 노령화 지수 : 유년 인구 100명당 노령 인구

㉡ 신문 기사에서 : 경제 활동 인구 한 명당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건강 보험 재정도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인 요양 시설 및 재가(在家) 서비스를 위해 부담해야 할 투자 비용도 막대하다.

㉢ 정년 퇴직한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 “연금 보험이나 의료 보험 같은 혜택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작 중요하지 않을까?”

- ①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에 맞춰 노인 복지 예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②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 ③ 노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노인 복지 대책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복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 ④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노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 ⑤ 현재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11. 주어진 상황이나 느낌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 체증 때의 지루함과 답답함 → 사람들은 오징어로 시간을 썩는다.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차 안에서 오징어를 씹는 사람들의 입놀림은 수족관에 갇힌 붕어의 입질과 닮아 있다.
- ② 장마철의 무력감 → 비는 살아 있는 것들 속에 숨어 있던 냄새를 밖으로 우려내어 번지게 한다. 며칠씩 비가 내려 깨끗이 씻긴 도시의 거리에는 젖은 가로수들의 몸 냄새가 자욱이 배어 나온다.
- ③ 무리 지어 피어 있는 채송화의 생생함 → 채송화 무리는 여름 꽃들 중에서 가장 맹렬하다. 작은 단추 같은 것들이 존재의 밀도를 쟁쟁 울린다. 피어난 채송화 꽃들 속에서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 ④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느끼는 속도감 → 시야는 전방으로만 집중되고, 풍경은 자동차의 외곽을 돌아 백미러 뒤쪽으로 달음질쳐 사라진다. 질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사람은 정면의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 ⑤ 시골 길의 자연스러움 → 시골 길은 산하를 건너가지만 산하와 대결하지 않는다. 산맥을 넘어갈 때, 길은 산맥의 사나움을 건드리지 않는다. 시골 길은 땅의 가장 여러고 순한 곳을 찾아서 구불구불 돌아 나간다.

12. 밑줄 친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것은? [1점]

- ① 아직 문자 멧시지에 대한 회답이 오지 않았다.
- ② 그는 하고 싶은 말은 아무 말이나 마구 뵈는 성미이다.
- ③ 인터넷 동호회 계시판에는 밤새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 ④ 구름은 말짱히 걸쳐 버려 산마루 뒤로 물러앉아 있었다.
- 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땀을 치러야 하는 법이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벌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툇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A]

- 신경림, 목계 장터 -

(나)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한지(寒地)의 바람
바다 앞의 집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紙錢)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데로 내려간다.
 정박(碇泊) 중의 어두운 용골(龍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港口)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는 수삼 개(數三個)의 눈송이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 황동규, 기항지(寄港地) I -

(다)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 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
거릴 게다.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

13. (가)~(다)의 시적 공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나루'는 떠남과 돌아옴,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등 애환이 깃들여 있는 공간이다.
- ② (나)의 '항구'는 여정(旅程)의 종착지이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 ③ (나)의 '바다'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상이 실현되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희의 공간이다.
- ④ (다)의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이 담긴 공간이다.
- ⑤ (다)의 '정거장 가차운 언덕'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과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다.

14. (가)의 [A]를 바꾸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은?

—<보 기>—

- 원시(原詩)의 발상을 활용한다.
-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잘 살린다.

- ① 산은 날더러 나무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풀이 되라 하네 / 눈보라 몰아치면 숲 속에 몸 낮추고 / 바람 거세거든 강가에 누우라네
- ② 산은 날더러 별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달이 되라 하네 / 산등성이 넘어서 눈물을 글썽이고 / 강 언덕 지나서 해사하게 웃으라 하네
- ③ 산은 날더러 불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물이 되라 하네 / 고난의 때 오거든 어둠 속 불 밝히고 / 소생의 때 오거든 생명의 물 적시라네
- ④ 산은 날더러 새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갈대가 되라 하네 / 눈보라 시리거든 산 너머로 날아가고 / 비바람 드세거든 강물 속에 잠기라네
- ⑤ 산은 날더러 햇살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안개가 되라 하네 / 암흑의 때 오거든 어둠을 살라 먹고 / 새벽녘 피어오르는 강 안개가 되라네

15. (나)를 쓴 시인은 이후에 같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이를 (나)와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기항지(寄港地) II

다색(多色)의 새벽 하늘
두고 갈 것은 없다, 선창에 불빛 홀리는 낮익은 배의
구도(構圖)
बाट줄을 푸는 늙은 뱃군의 실루엣
출렁이며 끊기는 새벽 하늘
뱃고동이 운다
신짓국집 밖은 새벽 취기
누가 소리죽여 웃는다
축대에 바닷물이 튀어오른다
철새의 전부를 남북(南北)으로 당기는
마음의 마찰음(音) 끊기고
바람 받는 마스트의 검은 깃발
축대에 바닷물이 튀어오른다
누가 소리죽여 웃는다
아직 젊군
다색(多色)의 새벽 하늘.

- ① '기항지'라는 제목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관조적 어조에서 열정적인 어조로 바뀜으로써 시적 상황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어두운 하늘'이 '다색의 새벽 하늘'로 바뀜으로써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정박했던 배가 출항하고 있는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불안하고 우울했던 분위기가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뀜으로써 화자의 심리 변화가 암시되고 있다.

16. 다음은 (다)의 시인에 관한 평전의 일부이다. (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그는 이상을 추구하는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봄', '새벽', '아침' 등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시어가 많이 쓰인다.
- ② 그는 고뇌와 방황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시어들이 나타난다.
- ③ 그는 자기 희생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순교자적 희생을 통해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려는 실존적 결단의 태도가 자주 나타난다.
- ④ 그는 자아 성찰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종종 '부끄러움'이라는 반성적 자기 인식의 시어가 직접적이거나 반영적인 진술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 ⑤ 그는 상실감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인이었다. 고향인 북간도를 떠나 평양, 서울, 동경 등 객지로만 떠돌았던 그의 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17. (가)~(다)의 시를 모아 학교 교지에 특집으로 수록한다고 할 때, 세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에 공통적으로 어울리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향을 찾아가는 길 ② 사랑이 머무는 자리
- ③ 역사의 현장을 찾아 ④ 삶의 여로(旅路)에서
- ⑤ 우정, 그 영원한 동반자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기지학(爲己之學)이란 이른바 15세기의 초기 사림(士林)과 기묘 사림이 『소학(小學)』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부 태도를 가리킨다. 원래 이 말은 위인지학(爲人之學)과 함께 『논어(論語)』의 ‘헌문편(憲問篇)’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즉 공자는 공부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학자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북송 대의 유학자인 정이(程頤)는 다음과 같이 이 말의 의미를 부여했다. “위기(爲己)란 자아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고, 위인(爲人)이란 남들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으나, 결국은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이바지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그 귀결은 자아의 상실일 뿐이다.”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 중 이런 위기적(爲己的)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들은 ‘길재 - 김숙자 - 김종직 - 김굉필’로 이어지는 초기 사림이었다. 성종 대부터는 『소학(小學)』을 진지한 태도로 실천하려고 한 사람들은 소학계(小學契)라는 일종의 이념 서클을 ㉠ 만들어 자신들의 신념을 사대부 사회에 전파하려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성리학을 관통하는 정신은 바로 위기(爲己)에 있으며, 그것이 올바른 노선이라는 확신은 다음 세대인 ‘김재, 조광조, 박훈’ 등 기묘 사림에 이르러 더욱 뚜렷하게 표명되고 확산되었으며, 다시 명종·선조 대의 사림들로 이어졌다.

세 번째 세대에 속하는 이황(李滉)에게서 비로소 위기지학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전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위기지학이란,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도리(道理)이며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덕행(德行)이라고 믿고 가까운 데서부터 착수해 나가되 자신의 이해(심득(心得))를 통해서 몸소 실천하는 것[궁행(躬行)]을 목표로 삼는 공부이다. 위인지학이란, 심득과 궁행에 힘쓰는 대신 내면의 궁허함을 감추고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 지위와 명성을 취하는 공부이다.”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차이는 공부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있다기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의 일차적 관심과 태도가 자신을 내면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의 목적이 외재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사고 방식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방식의 출현은 당시 사대부들의 현실적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다시 말해

사대부로 하여금 치자층(治者層)의 일원으로서 출사(出仕)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외에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게 ㉢ 만들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학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관료 또는 정치가로서의 삶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기지학의 출현은 종래 과거제에 종속되어 있던 교육에 독자성을 부여했다는 점, 또 해석하고 외우는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경학(經學)이 교육의 힘을 가진 진정한 학문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위기적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은 자아의 성숙을 추구했다.
- ② 국가의 장려로 위기지학의 신봉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 ③ 위기지학의 정착으로 경학의 학문적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 ④ 위인지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외재적 가치를 중시했다.
- ⑤ 공자는 학문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학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19. 윗글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인용을 통해 대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추상적인 내용을 친숙한 사물에 빗대어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사적 전개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후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20. <보기>는 ‘이황(李滉)’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가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 가던 길 앞에 있네.
㉢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쩔고.

당시(當時)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오고.
이제나 돌아왔더니 ㉤ 땀 데 마음 말으리.

- ① ㉠은 본받고자 하는 도리와 덕행의 표상이다.
- ② ㉡은 자아 성숙을 목표로 한 위기지학의 길이다.
- ③ ㉢은 학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한 긍정이다.
- ④ ㉣은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조화에 대한 모색이다.
- ⑤ ㉤은 지위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21. 윗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탐구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의 실시 목적과 그 기원
- ② 조선 시대 교육과 과거제의 관계
- ③ 위기지학을 바라보는 위인지학의 입장
- ④ 이황 이후 위기지학의 전개 과정과 계보
- ⑤ 위기지학에서 『소학(小學)』을 중시한 이유

22. ㉠와 ㉡의 뜻을 알아보고 국어 사전에서 ‘만들다’의 항목을 찾아 보았다. <보기>로 보아 설명이 잘못된 것은?

—<보 기>—

만들다 ㉠ (1)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룬다. (2)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결성하다. (3)돈이나 일 따위를 마련하다. (4)틈, 시간 따위를 짜내다. (5)('...을 -게/도록'의 형태로) 그렇게 되게 하다. (6)새로운 상태를 이루어 내다.

- 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다’라고 할 때에는 (1)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 ② ㉠는 ‘협동조합을 만들다’의 경우와 같이 (2)의 뜻으로 쓰였다.
- ③ ‘여행 경비를 만들다’라고 할 때에는 (3)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 ④ ‘짬을 만들다’라고 할 때에는 (4)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 ⑤ ㉡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다’의 경우와 같이 (5)의 뜻으로 쓰였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때에 상서가 국사(國事)에 매이어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더니 상서의 부인이 생*의 행동거지(行動擧止)가 수상함을 보고 하인들을 ㉠ **힐문(詰問)**하였다. 이에 하인들이 부득이하어 사실대로 아뢰니 부인이 크게 놀라 즉시 상서께 기별하였다. 상서가 또한 통분하나 ‘누님께서 주혼(主婚)**하고 선이 몹시 사랑한다 하니 달리 금치 못하리라.’ 하고 낙양 태수에게 기별하되,

“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숙향이라는 계집이 가장 ㉡ **요악(妖惡)**하다 하니 잡아다가 죽이라.”

하였다. 이생은 고모 집에 있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 때 낙양 태수 김전이 상서의 말을 듣고 즉시 관원들을 풀어 숙향을 잡아 오니 숙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잡히어 관전(官前)에 이르니 태수가 물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창녀이기에 상서 님의 공자를 ㉢ **고혹(蠱惑)**하였느냐? 이제 처 죽이라는 기별이 왔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하고 아랫사람들에게 호령하여 형틀에 매고 치려 하니 낭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소녀는 다섯 살 때 피란 가던 중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구걸하며 다니다가 할미집에 의지하였는데, 이랑이 빙례(聘禮)***로 구혼하움에 상하 체면에 거스리지 못하여 성혼하였습시다. 이는 진실로 첩의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태수가 말하기를,

“나는 상서의 기별대로 할 뿐이다.”

하고 치기를 재촉하니 숙향의 화월(花月) 같은 용모에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눈물이 멍멍하여 슬피 우니 그 경상(景狀)을 차마 못 볼러라. 집장 사령이 매를 들어 치려 한즉 팔이 무거워 들지 못하였다. 태수가 크게 노하여 다른 사령으로 갈아 치웠으나 또한 매끝이 땅에 붙고 떨어지지 아니하니 태수가 고이히 여겨 말하기를,

“필시 애매한 사람이리라. 그러나 상서의 기별임에 나로서는 어찌 못하겠다.”

하고 동여매어 물에 넣으려 하였다. 이 때 태수의 부인인 장씨의 꿈에 숙향이 앞에 와 울며 말하기를,

“부친께서 저를 죽이려 하거늘 모친이 어찌 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부인이 놀라 깨어 시비로 하여금,

“상공이 무슨 공무를 보시는가 알아 오라.”

하였다. 시비가 되돌아 와 말하기를,

“상공이 이 상서의 영(令)으로 그 맥 머느리를 죽이려 하십니다.”

하니 장씨가 놀라 급히 태수를 청하여 말하기를,

“여아(女兒)를 잃은 지 십여 년에 한 번도 꿈에 보는 일이 없더니 아가 몽중에 숙향이 울며 여차저차하오니 매우 이상합니다. 오늘 보시는 공무(公務)는 어떤 일입니까?”

하였다. 태수가 말하기를,

“이 상서의 아들이 숙향에게 고향되어 부모를 속이고 장가 들었음에 제게 기별하여, ‘죽이라’ 하기에 이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장씨가 말하기를,

“몽사가 이상하고 이 상서의 머느리가 또한 피란 중에 부모를 잃었다 하니 그 근맥을 물어 보겠습니다. 일을 잠시만 미루어 주십시오.”

하였다. 태수가 이에 응낙하고 하령하여, 가두라 하니 낭자 약하디 약한 몸에 큰 칼을 쓰고 누수 만면(淚水滿面)****하여 옥에 들며 말하기를,

“이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 옥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낙양 옥중이다. 내일은 죽을 것이니 불쌍하구나.”

하거늘 낭자 헤아리되, ‘이랑은 내가 죽는 것을 모를 것이니 소식을 누가 전하리오?’ 하고 애통해 하더니 날이 밝음에 문득 청조(靑鳥) 날아와 울거늘 낭자가 적삼 소매를 떼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편지를 써 새의 발목에 매어 주며, ‘이랑께 전하라.’ 경계하니 청조가 두 번 울고 날아 갔다.

이 날 이랑이 고모 집에서 자는데 문득 이랑의 고모가 잠결에 대경 대로하여 말하기를,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 또한 길렀음에 주혼하였던 것인데,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어찌 이렇듯 걱정을 끼칠 수 있는가?”

하거늘 생이 부인을 흔들어 깨웠다. 부인이 정신을 차려 생에게 꿈 얘기를 이를 즈음에 문득 청조가 날아와 이랑의 앞에 앉거늘 자세히 보니 발목에 한 봉물이 매어 있는지라 끌러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A] “박명 첩 숙향은 삼가 글월을 이랑 좌하에 올립니다. 첩이 전생 죄를 차생(此生)에서 피하지 못하여 숙절없이 낙양 옥중의 흙이 되니 죽기는 싫지 아니하나 낭군을 다시 못 보니 지하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앞드러 비읍건대 낭군은 천첩을 생각지 말고 천금같이 귀한 몸을 ㉣ **보중(保重)**하십시오.”

하였거늘 이랑이 편지 글에 크게 놀라 그 글을 고모에게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 함께 죽고자 하니 고모가 말하기를,
 “내 몽사와 같으니 장차 어찌하리오? 그러나 경솔히 굴지 말고 활미 집에 사람을 시켜 자세히 알아오라.”
 하며 일변으로 상서 집 노복을 불러 물으니 노복 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부인이 알으시고 상서께 기별하여 여차저차한 것입니다.”
 하거늘,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내 주혼함을 업수이 여기고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사람을 죽이려 하는구나. 내 친히 경성으로 올라가 상서를 만나 결단하리라.”
 하고 ㉔ 치행(治行)하여 경성으로 갔다.

- 작자 미상, 속향전(淑香傳) -

- * 생 : 이 상서의 아들, 이름은 선.
- ** 주혼 : 혼사(婚事)를 맡아 주관함.
- *** 빙례 : 혼례.
- **** 누수 만면 : 눈물이 얼굴에 흘러 내림.

23. 윗글을 쓰기 위해 작가가 <보기>와 같은 구상을 했다고 할 때,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 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속향

-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인가?
 1. 상서로 하여금 이랑과 속향의 관계를 알게 함 ①
 2. 상서와 낙양 태수의 상하 관계를 이용함 ②
- 어떻게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1. 처형의 보류
 - 형장 장면의 이적(異蹟) ③
 - 태수 부인의 꿈
 - 동정적인 여론 조성 ④
 2. 상황 전환을 위한 공간 매개 - 청조 활용 ⑤
 3. 낙양과 경성의 연결 - 고모의 상경

24. ㉑~㉕의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㉑ 힐문(詰問) : 되받아 물음.
- ② ㉒ 요악(妖惡) : 요사하고 간사하며 악독함.
- ③ ㉓ 고혹(蠱惑) :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함.
- ④ ㉔ 보중(保重) : 몸의 관리를 잘하여 건강하게 유지함.
- ⑤ ㉕ 치행(治行) : 길 떠날 여장을 준비함.

25.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향’은 지순한 사랑의 소유자이다.
- ② ‘고모’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다.
- ③ ‘낙양 태수’는 위계 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 ④ ‘상서’는 가문과 신분을 중히 여기고 있다.
- ⑤ ‘이랑’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고 있다.

26. [A]에 나타난 속향의 심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낙동강에서 당신 처음 만났더니 보제원에서 다시 당신과 헤어지네. 이 도화(桃花)야 땅에 떨어져 흔적조차 없을지언정 달 밝으면 어느 때인들 당신 생각 않으리.
- 도화, 낙동강 -
- ②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네. 봉우리마다 단풍잎이 지네. 중이 물을 길어 돌아가니 문득 연기가 나무 끝에서 피어나네.
- 이이, 산속에서 -
- ③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나, 세상에 나를 알아 주는 이 없네. 창 밖에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 밖을 내닫네.
- 최치원, 가을 밤 비 내릴 때 -
- ④ 세상은 어지러운 시비(是非)뿐 십 년 동안 내 마음에 때만 묻혔네. 지는 꽃 우는 새 봄바람 속 어느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고 싶네.
- 김제연, 무설사에 부처다 -
- ⑤ 슬퍼도 참아야지, 세상사 이런 것을. 당신은 반평생을 그림을 공부했네. 내일이면 호연히 떠난 뒤에는 나는 몰라, 또 어디로 떠돌아다닐는지…….
- 계생, 이별에 부처 -

27. 윗글을 TV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자. 다음 회를 예고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상서와 고모의 만남, 아! 가없는 속향의 운명은 과연 어찌될 것인가? 또한 낙양 태수 부부와 속향의 관계는 밝혀질 것인가?
- ② 애뜻하게 헤어진 연인을 이어 주는 태수 부부의 활약상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애뜻하여라, 속향과 이랑은 다시 만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 ③ 사랑하는 연인의 가슴 아픈 이별, 이랑에 대한 속향의 애절한 그리움, 그러나 운명은 철저히 속향을 외면하고……. 홀로 남은 이랑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 ④ 속향에 대한 태수와 상서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는데……. 한편, 속향을 구하기 위한 태수 부인의 은밀한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과연 태수 부인은 속향을 구해 낼 수 있을 것인가?
- ⑤ 갈수록 깊어지는 상서 부인과 고모의 갈등……. 젊은 연인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안타까워라, 속향에 대한 태수 부부의 뜻밖의 호의도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인가?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은 하나의 고립된 이미지이다. 시간적으로 한 순간이 잡히고 공간적으로 일부분이 찍힐 뿐, 연속된 시간과 이어진 공간이 그대로 찍히지 않는다. 현실이 현실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한, 사진은 결국 한 개의 이미지, 즉 영상일 뿐이다. 따라서 사진에 대한 이해는 사진이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현실과 따로 떨어진 곳에서 홀로 저를 주장하는 독자적 영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에 ㉠ 벌어져 있는 이 틈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현실이 곧 사진이요, 사진이 곧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현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틈을 발견한 데서 출발한다. 그 틈을 정확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채색도 하고 두께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현대 사진인 것이다.

근대 사진은 현실이 그대로 사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사진으로 수용할 것인가가 유일한 문제였다. 근대 사진은 현실이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간파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야말로 사진이 포장해야 할 내용물로 간주하고 있었다. 사진이 현실 재현 수단이라는 기본 구도 아래,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현실을 골라 이를 영상화한 것이 근대 사진이었다. 따라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들의 능력을 집중시켰으며, 영상의 왜곡은 물론, 작가의 주관마저도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노력을 했다.

그에 비해 현대 사진은 현실을 포장지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의 주관적 사상이나 감정, 곧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현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현실 자체의 의미나 가치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진이 현실에 묶여 떠나지 못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한 찍히지 않고 실체로서의 현실을 떠나서 성립할 수 없는 사진의 메커니즘 탓이다. 작가의 주관적 사상이나 감정은 구체적 사물을 거치지 않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이 추구하는 바가 현실의 재현이 아니다 보니 현대 사진은 연출을 마음대로 하고, 온갖 기법을 동원해 현실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심지어 필름이나 인화지 위에 인위적으로 손질을 가해 현실성을 지워 버리기도 한다. 현실이 왜곡되는 것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물의 정확한 재현에만 익숙해 있던 눈에는 이런 현대 사진이 난해하기만 하다.

이러한 현대 사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창조적 사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눈이다. 이는 작가에게만 한정된 요구가 아니다. 사진을 현실로 생각하는 수용자 쪽의 고정관념 또한 현대 사진의 이해에 장애가 된다.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암호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수신자 쪽에서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작가나 수용자나 고정관념과 인습에서 벗어날 때, 현실과 영상 사이에 벌어진 커다란 틈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 때 비로소 사진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현대 사진에 대한 이해의 첫 관문은 그렇게 해서 통과할 수가 있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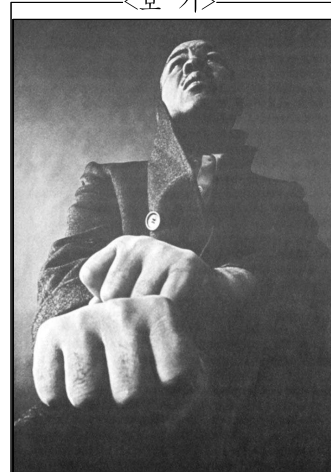
- ① 근대 사진은 현실의 재현이 사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 ② 현대 사진은 현실과 영상 사이의 틈을 좁히려고 노력해 왔다.
- ③ 사진에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된다.
- ④ 사진의 현실 왜곡은 사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 ⑤ 현대 사진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동원해서 현실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29. 윗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문을 쓰려고 한다.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조적 사진 찍기**
- 순간과 찰나를 보는 눈
- ② **현대 사진의 과제**
- 현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 ③ **사진이 추구하는 세계**
-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 ④ **사진 예술의 참된 출발**
-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의 만남
- ⑤ **사진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 외형적 모사에서 내면적 창조의 세계로

30. 윗글에서 언급한 '현대 사진'의 관점에서 <보기>의 사진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① 특수한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실물을 왜곡하고 있군.
- ② 일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어.
- ③ 이 사람에게 주먹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게 아닐까?
- ④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주먹이 머리보다 크게 찍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
- ⑤ 작품 속의 인물은 주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소재라고 봐야 해.

31. 현대 사진 작가와 <보기>의 샤갈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화가 샤갈이 거리에서 캔버스를 세워 놓고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행인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별난 사람도 다 있군. 세상에 날아다니는 여자를 그리는 사람 처음 보겠네.”

이때 샤갈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웃으며 던진 한 마디는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화가지.”

- ① 예술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써서 시대의 문제 의식을 표현한다.
- ② 예술은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조의 대상이 아니다.
- ③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창조적인 작가 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
- ④ 대중이 현대의 난해한 예술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⑤ 예술 작품이 현실을 모방하는 것은 현실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2.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괴리(乖離) ② 단절(斷絶) ③ 상충(相衝)
- ④ 격리(隔離) ⑤ 차별(差別)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국가의 힘은 한 국가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힘의 크기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힘이 국가 간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현실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위 강대국과 개도국의 협상에서는 강대국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강대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으로 개도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입장은 이와 다르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의 구조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강대국과 개도국이라는 일반적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협상의 주제와 관련된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이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아주 구체적인 협상의 대상과 관련된 힘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힘은 협상 대상과 관련된 자원(resources), 즉 해당 산업의 규모·고용·국가 경제상의 위치·상대국에 대한 시장 접근도 등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강대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개도국보다 월등할지 모르나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쿠바보다 훨씬 나라이지만 켈런의 생산에 있어서는 쿠바보다는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고무의 생산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에 떨어진다.

협상의 절차적인 면이란 협상의 전술을 의미한다. 협상의 전술이란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협상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연기하기, 다른 협상 의제와 연결시켜 처리할 것을 주장하기, 자국 내부의 사정을 내세워 호소하기 등과 같은 방법을 의미한다.

구조와 절차의 두 측면을 고려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은 “협상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구조적 요소로서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과 절차적 요소로서의 ‘협상 전술’이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에 따라 약소국도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스 로버트라는 학자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한 바 있다. 그는 자원과 전술을 적절히 조화시킬 경우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협상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적 입장대로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은 수긍할 만하다. 다만 자유주의적 입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과 강력한 전술은 단지 실제 협상에 임하는 협상가의 개인적 능력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협상 주제와 관계된 힘과 협상의 전술은 협상에 임하는 국가가 자신의 내부에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 혹은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요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협의 과정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③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론을 대비해 가며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를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다.

34. ㉢의 쓰임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그는 발을 헛디뎈서 구덩이로 떨어졌다.
- ② 이미 그 일에 정이 떨어진 지 꽤 되었다.
- ③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④ 그의 실력은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 ⑤ 그 성이 적의 손에 떨어졌다는 전갈이 왔다.

35.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기>와 같은 협상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보 기>—

약소국인 B국은 강대국인 A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수출하여 A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A국에서는 이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자국내에서 이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어 B국과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 한다.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통상 협상에 임하였다.

- ① B국은 약소국이므로 불리한 협상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② B국은 협상 전술을 잘 구사한다면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③ B국은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을 키우면 자국의 뜻대로 협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 ④ B국은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으므로 절충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 ⑤ B국은 협상 주제와 전술이 모두 우위에 있으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36. ①과 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협상 대표의 말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어제 회의에서 당신들이 제시한 협상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제 협상을 속개하도록 합시다.”
- ② “이제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될 것 같지 않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 후에 다시 협상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 ③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의제는 단독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조만간 있을 다른 협상과 관련지어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 ④ “당신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 국내 여론이 매우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현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 ⑤ “우리의 산업 구조에서 이 분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산업에 피해가 가는 결과가 초래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37.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에 비해 협상 전술이 훨씬 더 중요하겠군.
- ② 약소국에서는 강대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산업을 잘 육성해야 하겠군.
- ③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협상력을 키워야겠군.
- ④ 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협상 대표에게 무조건 책임을 추궁할 일은 아니군.
- ⑤ 강대국이라고 해서 협상에서 항상 유리한 결과만 얻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까운 부락들에는 안 갔었지만 먼 데 동냥을 나갔던 사람들은 계속 수상한 소문들을 듣고 왔다. 그만큼 했음 떠날 줄 알았던 문둥이들이 내쳐 버티고 있으니 이번에는 아주 밖으로 내쫓는다, 정 안 들으면 모조리 강에다 밀어 넣어 버리겠다고까지 버든다는 것이었다.

㉠ “미친놈들! 즈그만 살라는 땅인가? 어데 해보라지……?”

우중신 노인은 모두 들으란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써 구두덜거렸다.

밤에는 늦게까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놀았다. 그러면서 습격을 당한 이야기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찌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으레 나왔다. 속담에 문둥이가 풍은 대풍이라고, 모두 큰소리들을 쳤다.

맞서 싸우자는 정도가 아니었다. 정말 또 내쫓으러 온다면 놈들하고만 싸울 게 아니라 놈들이 사는 동네까지 마구 덮치자는 놈도 있었다. 나라가, 법이 못 지켜 줄 바에는 자기들의 힘으로써 그러한 불법을 막는 수밖에 도리가 있겠느냐는 주장들이었다.

그들은 의논한 결과 향토 예비군처럼 반을 나누고, 밤에는 제법 보초까지 다 세웠다.

그와 동시에 부근 주민들의 동정을 살피는 정보활동까지 개시했다.

하루는 동냥을 나갔던 한 패가 지레 돌아왔다. 온다는 것이었다.

“한 집에서 한 사람씩 꼭 나오게 대 있담더!”

“응…….”

우중신 노인은 무슨 계책이라도 서 있는 듯이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곧 ‘인간단지’에 비상소집이 내렸다. 모두 보통 때와 같이 일을 하다가 부락민들이 또 문둥이를 들고 올 때는 곧 한곳에 모이기로 했다.

“먼저 손을 대서는 안 댄테잇! 저쪽에서 기어이 덤빌 때는, 그때는 한번 해 보자 말이다. 알겠나? ㉡ 이기고 지고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중신 노인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친구를 시켜 몇 사람의, 손가락 없는 불구자만을 천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힘으로는 못 당할 테니 악으로써 대결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손가락이 없는 팔뚝들에 낫을 한 자루씩 동여매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자루씩 가진 셈이었다. 이것이 그날의 소위 특공대와 같은 것이었다.

“놈들이 간대로 때리 꺾이지는 문할 까다. 이래서 우리들의 결심을 비이자 말이다.”

“멋하면 한 놈 꺾이고 나도 죽을라요!”

이마가 몹시 까진 ‘소신랑’이 역시 표독스런 소릴 했다.

결국 올 것은 왔다.

2백여 명의 장정들이 백주에 갱이며 삼, 문둥이들을 들고 물이끈처럼 몰려왔다. 어느 얼굴을 보나 인간 백정이다.

50명 남짓한 ‘인간단지’의 식구들은 우선 손에 쥘 것 없이 그들의 천막 앞에 앉아 있었다.

부락민들은 천막들을 죽 에워쌌다.

구장인지 뭔지 얼굴이 넓적하고 입이 메기처럼 커다란 사람이 겁에 질려 있는 듯한 단지의 사람들을 보고 명령을 하듯 했다.

“여러 말 할 것도 들을 것도 없으니 곧 이곳을 떠나시오!”

목소리도 입 따라 우렁찼다.

경기까투리가 일등을 대표해서 따지려 들었다. 그러나 그는 두 마디도 못하고 구장인 듯한 사내의 발길에 채여 넘어졌다.

단지민들은 우뚝 하려다 말고 천막 안을 돌아보았다.

흰 수염을 덩달 떨며 우중신 노인이 예의 긴 지팡이를 짚고 경기까투리가 섰던 자리에 나타났다.

“자네 말마따나 여러 말 할 것 없네. 우릴 쫓아라. 우선 나부터!”

우중신 노인은 누더기 같은 윗도리를 확 찢어 찢히며 뼈만 남은 가슴을 쑥 내밀었다.

그러나 구장개나 해 먹을 만한 사람같이 보이는 메기아가리에겐 그까지 거리지들의 불평이나 위협 따위에 윈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

“자네? 이 자식이 머 이런 기 있노!”

메기아가리의 넓적한 손바닥이 우노인의 얼굴을 물강스럽게 맵다 갈겼다.

쓰러질 듯하다가 일어나는 우노인의 수염에 피가 별정계 흘러내렸다.

- 김정환, 인간단지(人間團地) -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가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사투리를 활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 사이의 대립 구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9. 우중신 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낙천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다.
- ②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 ③ 주위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다.
- ④ 대담하면서도 용의주도한 면이 있다.
- 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40. 윗글의 소재가 된 사건을 심층 취재하여 <보기>와 같은 기사를 쓴다고 할 때, ㉠~㉥ 중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보 기>

나환자촌 단지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 유혈 충돌

○일 오후 1시 경, △△군에 있는 무허가 나환자 천막촌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다가, 이를 지키려는 나환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주, 나환자 수용 시설인 ‘자유원’(원장 박○○)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한 나환자들은, 자유원을 떠나 ㉠이 곳에 ‘인간단지’라는 거처를 마련했다고 한다. 나환자들이 이 곳에 정착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극력 반발하였고, 급기야는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마을 구장은 “문둥이들이 우리의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지를 떠나지 않아 ㉡강압적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유원 박 원장은 ㉢자유원을 떠나 ‘인간단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간단지’의 대표격인 ㉣우중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할 뜻을 밝혔다. 한편 단지민들은 소외 계층인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나라와 법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의 생략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거야?
- ② 어찌서 방귀 핀 놈이 먼저 성을 내는 거야?
- ③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거야?
- ④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잣밤에만 맘이 있는 거 아냐?
- ⑤ 쥐 새끼도 급하면 고양이에게 접어드는 것도 모르냐?

42. 윗글을 희곡으로 각색하여 공연할 때, ㉧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동작이나 표정은?

- ① 이죽거리며
- ② 반색을 하며
- ③ 손사래를 치며
- ④ 비장한 표정으로
- ⑤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천 리라 내 고향은 점점 **봉우리** 저쪽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언제나 **꿈** 속이네.
 한송정 곁에는 외로운 **달빛**이요
 경포대 앞에는 한 때의 **바람**이리.
 모래밭의 백구는 모였다 흩어지고
 물결 위의 어선들은 왔다갔다 하였네.
 언제나 다시 임영(臨瀛)*의 **길**을 밟아
 때때우에 춤추며 슬하에서 옷 지을꼬.
 千里家山萬疊峰 歸心長在夢魂間
 寒松亭畔雙輪月 鏡浦台前一陣風
 沙上白鷗恒聚散 波頭漁艇海西東
 何時重踏臨瀛路 綵舞斑衣膝下縫

- 사임당 신씨, 사친(思親) -

* 임영 : 강릉의 옛 이름.

(나)

반중(盤中) 조홍(早紅)감* 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 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위하나이다.

- 박인로, 조홍시가(早紅柿歌) -

* 조홍감 : 일찍 익은 붉은 감.

** 유자가 ~ 하다마는 : 후한(後漢)의 육적이 남의 집에 갔다가
 대접 받은 귤[유자]을 먹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품고 왔다는
 고사에서 끌어온 표현.

(다)

님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오랴.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뒀**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가.
 산천이 어두운데 일월(日月)을 어찌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곱어보니,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
 반벽(半壁) 청등(靑燈)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해매며 바장이니,
 잠시 동안 역진(力盡)하여 뜻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옥(玉)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네.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되려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정(情)을 못 다 하여 목초차 메이는데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아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잠결에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져서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드시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님다히 : 임 계신 곳.

** 모침 : 초가집.

43.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② 이별의 상황에서 재회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다.

44. (가)와 (다)의 밑줄 친 시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봉우리'와 (다)의 '높은 뒀'는 탈속적 공간이다.
-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소망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
- ③ (가)의 '달빛'과 (다)의 '낙월'은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사물이다.
- ④ (가)의 '바람'과 (다)의 '바람'은 화자의 내면과 관련이 있다.
- ⑤ (가)의 '길'과 (다)의 '백길'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통로이다.

45. (가)의 시적 화자를 주인공으로 한 편의 소설을 쓰려고 한다. 이 소설에 필요한 장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고향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모습
- ② 마을 어귀에서 어머니와 이별하는 모습
- ③ 강릉 바닷가에서 백구를 바라보는 모습
- ④ 정답게 걷고 있는 모녀를 보며 부러워하는 모습
- ⑤ 밤새도록 언 손을 불어가며 바느질을 하는 모습

46. (나)에 대하여 학생이 스스로 탐구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는 중이다. <보기>에서 과제 해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중심 소재인 '조홍감'의 기능은?
 → 외적 기능 : 창작의 계기, 내적 기능 : 정서 환기 ①
- '유자(柚子)' 관련 고사(故事)를 인용한 효과는?
 →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킴 ②
- 표현 기법상의 특징은?
 → 표면과 이면의 의미가 다른 반어(反語) ③
- 주제와 관련된 한자 성어가 있을까?
 → 풍수지탄(風樹之嘆) ④
- 독자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게 될까?
 →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는 마음을 갖게 함 ⑤

47. <보기>를 (다)의 화자가 쓴 일기의 일부라고 할 때, 작품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은?

—<보 기>—

① 오늘도 나는 그의 소식을 기다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기진하여 밤길을 더듬어 돌아왔을 때, ② 나를 기다린 건 쓸쓸한 등불뿐이었다. 홀로 빈방에 앉아 있다가 ③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다. 꿈에 본 그이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④ 실컷 하소연하다가 꿈에서 깨어 보니 그저 허망할 뿐이었다. ⑤ 그의 곁에 가고 싶다. 아, 그 날이 언제 올까?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찍이 그라이스(Grice)는 ㉠ ‘협력 원리’라는 말로 대화에 내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사람들이 대화의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라이스가 말하는 대화의 협력 원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위 규칙인 네 가지 격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믿는 것, 혹은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質)의 격률>,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量)의 격률>, ‘관련성을 지니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 그리고 ‘모호성이나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 등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손님을 초대하여 잘 차린 음식상 앞에서)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 발화는 한국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인사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협력 원리를 준수한 발화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차린 것이 많다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 전달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청자에 대한 관계 유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협력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협력 원리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화의 원리를 ㉡ ‘공손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호 관계의 증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보다 공손 원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나)

인간은 사교적인 존재임을 자처한다.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언어 또한 그 주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 이러한 언어 활동에서는 언어 형식의 관습적인 의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사 중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등의 안부를 묻는 말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어른께 문안을 드리거나, 집 밖에서 친지를 만났을 때 피차에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이와 같은 의문 형식의 인사를 한다. 이러한 발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사이에서처럼 애초부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일상적인 인사의 경우에는 다만 친교를 확보하거나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다.

㉢ 이와 같은 종류의 언어는 대체로 피차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문제를 화제로 선택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언어는 서먹서먹한 관계를 개선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의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한 교섭에서,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기 쉬운 화제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본론에 접근하면, 단도직입으로 난제를 꺼내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48. (가), (나)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 ② 대화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 ③ 합리적인 사고는 곧 합리적인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다.
- ④ 말은 글과 달리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 ⑤ 언어의 의미는 언어 형식보다 발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49. (가)와 (나)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대화 요령’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한다. 강의안에 들어갈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근거가 없는 말은 하지 말라. 그러면 성공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②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대화를 시작하라. 그러면 대화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 ③ 어려운 문제일수록 급하게 말을 꺼내지 말라. 단계적으로 본론을 꺼내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 ④ 비유적이고 모호한 말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말을 사용하라.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상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쉽게 설득할 수 없다.

50. ㉠ ‘협력 원리’ : ㉡ ‘공손 원리’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자전 : 공전
- ② 협력자 : 구원자
- ③ 교차로 : 신호등
- ④ 일반법 : 특별법
- ⑤ 하수도 : 상수도

51. <보기>에서 ㉔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㉑ “오늘은 꼭 돈을 받고 말겠어.”
주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게로 들어섰다.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㉒ “안에 누구 없어요?”
주인은 가게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여자를 찾았다.
“아, 오셨군요. ㉓ 식사는 하셨어요?”
방 안에 있던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을 건넸다.

㉔ “사글세가 여러 달 밀려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㉕ 이번에도 형편이 안 되네요. 우선 밀린 거 한 달치만 받아 가지면 안 될까요?”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언젠가 행각하던 길에 날씨가 꺾어 남도(南道)의 한 포교당에서 며칠을 묵고 있을 때였다. 그 절 주지 스님은 노령인데도 새벽 예불이 끝나면 자기 방에 돌아가 ‘원각경(圓覺經)’을 독송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그 때 들은 몇 구절은 아직도 나의 기억의 컷전에 생생하게 묻어 있다. “心淸淨故로 見魔가 淸淨하고 見淸淨故로 眼根이 淸淨하고 眼根淸淨故로 眼識이 淸淨하고…”(마음이 맑으므로 보이는 것마다 맑고, 보이는 것이 맑으므로 눈이 맑으며, 눈이 맑으므로 눈의 작용이 맑다는 뜻이다.)

노장님은 몇 십 년째 ‘원각경’을 독송한다고 했다. 낭랑한 독경 소리를 객실에 앉아 들을 때 아무렇게나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는 독송의 일과에 이변이 생겼다. 갑자기 독경 소리가 멈추더니 “이놈, 이 버릇없는 이 고안 놈 같으니…” 하는 노장님의 노기에 섞이어 “이놈의 노장, 눈을 떠!” 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객실까지 크게 들려 왔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내가 급히 주지실로 가 보았더니, 그 전날 새로 온 젊은 객승이 주지 노장과 마주 앉아 서로 고향을 치고 있었다. 노장님은 화가 잔뜩 나 어쩔 바를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경전을 낯선 나그네는 한 손에 말아 쥔 채 웃음기마저 띠면서 노장의 이마를 툭툭 치고 있었던 것이다.

노장님은 오랜 세월 ㉑ 그저 경을 읽고 있을 따름이지 그 경전의 내용대로 살 줄은 몰랐다. 마음의 맑음을 입으로는 줄 줄 외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말할 줄을 몰랐던 것이다. 젊은 선승(禪僧)은 ㉒ 지묵(紙墨)의 경전에 얽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장을 풀어 주고 싶었던 것이다. 노장의 마음 속에 있는 노장 자신의 ㉓ 경전을 읽히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장은 ㉔ 지묵의 경전에만 팔려 경전으로 머리를 치던 그 뜻을 끝내 알아채지 못하고 화만 내었다. ㉕ 책에 가려 자신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이다.

- 범정, 서 있는 사람들 -

(나)

강을 건너는 위험이 이와 같은데도 강물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일행은 모두들 요동의 별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성난 듯 울어 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강을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이다. 요동의 강이라고 해서 울어 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다. 낮에는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광경(光景)을 보는 데에만 쫓려, 바야흐로 별벌 떨어면서 눈이 있는 것을 오히려 근심해야 할 판에 도대체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릴 것인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험한 광경을 보지 못하니 위험하다는 느낌이 오로지 청각(聽覺)으로만 쫓려, 귀로 듣는 것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근심을 견딜 수가 없다. 아, 나는 이제야 도(道)를 깨달았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사람은 귀와 눈이 그에게 장애(障礙)가 되지 않으나, 귀와 눈만을 믿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더욱 병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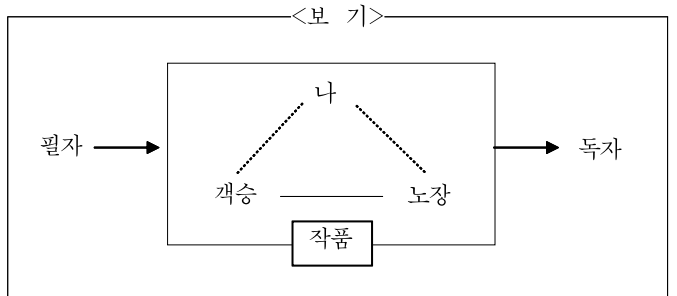
이제, 나의 마부(馬夫)가 말한테 밧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우고는, 마침내 말 재갈을 풀어 주고 강물에 둥둥 뜬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어 안장(鞍裝) 위에 앉았다. 한번 말에서 떨어지면 바로 강물이다. 강물을 땅으로 여기고, 강물을 나의 옷으로 여기며, 강물을 나의 몸으로 여기고, 강물을 나의 성정(性情)으로 여기리라. 이리하여 마음 속으로 한번 말에서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각오하자, 내 귓속에선 강물 소리가 마침내 그치고 말았다. 무려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마치 방 안의 안석(案席)과 자리가 있는 데에서 앉거나 누우며 지내는 것 같았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5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긍정하고 있다.
- ③ 실천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계절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⑤ 체현한 사실을 토대로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53. (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에 나타난 요소들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작품 속의 ‘나’는 필자 자신이야.
- ② ‘객승’과 ‘노장’은 갈등 관계에 있어.
- ③ ‘나’는 ‘객승’과 ‘노장’을 중재하고 있어.
- ④ ‘객승’은 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지.
- ⑤ ‘노장’은 필자가 일깨우려는 독자로 볼 수 있어.

54. (나)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편견 : 지형 때문에 강물이 울어 대지 않는다.

↓

II. 체험 : 1) 낮 -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 시각(눈)에 의존
2) 밤 - 강물 소리가 무섭게 들린다. - 청각(귀)에 의존

↓

III. 깨달음 : 감각(귀와 눈)에 의존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

IV-1. 태도 변화 : 큰 소리를 내며 흐르는 강물을 좋아하게 되었다.
IV-2. 심정 변화 :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했다.

- ① I ② II ③ III ④ IV-1 ⑤ IV-2

55. ㉠~㉢ 중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공생명론은 생명체의 행동을 보여 줄 수 있는 인공물의 개발을 겨냥하는 학문이다. 인공물이 ‘살아 있는 것 같은 (lifelike)’ 행동을 보여 주려면 반드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인공생명론에서는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의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나) 인공생명론에서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개념은 활력론(vitalism)과 혼동되기 쉽다. 활력론은, 뼈와 살 따위의 물질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물질적인 성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생명관이다. 활력론에서는 생명의 성립에 필요한 비물질적인 성분을 ‘생명력(life-force)’이라고 부르며, 무생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생물체는 비로소 생명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명력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활력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계기로 한 시대를 풍미한 유물론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고귀한 위치로부터 끌어내려 단순한 물질로 격하시킨 것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지난 2세기 동안 강력히 옹호되었다.

(다) 한편 생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 생물학에서는 활력론을 거부하고, 생명이 궁극적으로 생화학에 의하여 완전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생명체를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간주한다.

(라) 그러나 ㉡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체를 ‘하나의 복잡한 기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교적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으로 본다. 생명은 이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복잡한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산이나 아미노산 따위의 생체 분자는 살아 있지 않지만 그들의 집합체인 생물체는 살아 있다. 요컨대 생명은 수많은 무생물 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행동(emergent behavior)**이라 할 수 있다. 창발적 행동은 인공생명론의 핵심 개념이다.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을, 생물체를 조직하는 물질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물질을 정확한 방식으로 조직했을 때 물질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출현하는 특성으로 간주한다. 생체 분자들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생명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생체 분자들을 정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 인공생명론에서는 생명체의 행동을 구성 요소로 분석하는 방법 대신에 구성 요소를 모아서 행동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연구한다. 생물학은 생명을 다양한 계층 구조에 의하여 구성된 하나의 생화학적 기계로 보기 때문에, 상위 계층부터 하위 계층까지 더듬어 내려가는 ‘하향식(top-down) 방법’으로 물질을 분석하여 생명의 기제(機制)를 연구한다. 따라서 오로지 탄소 화합물의 생화학에 의존하는 생물학은,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이인 역동적인 형식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공생명론은 생명을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에서 생겨나는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 작용하는 간단한 구성 요소를 모아서 거대한 집합체를 만들어 내는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행동의 합성을 시도하여 생명의 역동적인 형식을 연구한다. ㉢ 아직까지는 아무도 규명해 내지 못한 생명의 역동적 과정을 인공생명론에서 설명하게 될 경우 생물학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6.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인공생명론의 개념과 핵심 과제
- ② (나) : 인공생명론의 대두 과정
- ③ (다) : 생명체에 대한 생물학의 관점
- ④ (라) : 생명체에 대한 인공생명론의 관점
- ⑤ (마) : 인공생명론의 연구 방법과 학문적 의의

57.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활력론’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물질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질 수 없다.
- ② 인간을 단순한 물질로 보아서는 안 된다.
- ③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의 위상을 격하시켰다.
- ④ 무생물도 생화학적 조합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 ⑤ 생명의 성립에는 비물질적 성분인 ‘생명력’이 필요하다.

58. <보기>를 이용하여 (라)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개개의 점'과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보 기>—

신문의 인물 사진은 수많은 개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문지를 눈앞에 가까이 대어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의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점들만 보이지만, 적당한 거리로 물러나서 점들의 집합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의 윤곽이 나타난다.

- ① 복잡한 기계 ② 생명
- ③ 생체 분자 ④ 생물체
- ⑤ 창발적 행동

5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하향식 방법'을, ㉡는 '상향식 방법'을 쓴다.
- ② ㉡보다는 ㉠이 생명체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다.
- ③ ㉡는 생명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은 생명을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보지만, ㉡는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으로 본다.
- ⑤ ㉠은 행동을 구성 요소로 분석하지만, ㉡는 구성 요소를 모아서 행동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연구한다.

60. ㉠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유일무이(唯一無二)
- ③ 진퇴유곡(進退維谷) ④ 절차탁마(切磋琢磨)
- ⑤ 전인미답(前人未踏)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㉓	2	16	㉓	2	31	㉓	2	46	㉓	2
2	㉒	2	17	㉔	2	32	㉑	2	47	㉔	2
3	㉕	2	18	㉒	2	33	㉒	2	48	㉕	2
4	㉔	2	19	㉒	2	34	㉔	1	49	㉕	3
5	㉒	2	20	㉔	2	35	㉒	2	50	㉔	2
6	㉓	2	21	㉑	2	36	㉑	2	51	㉓	2
7	㉕	2	22	㉑	2	37	㉑	2	52	㉕	2
8	㉔	2	23	㉔	2	38	㉒	2	53	㉓	2
9	㉑	3	24	㉑	2	39	㉑	2	54	㉔	2
10	㉓	2	25	㉕	2	40	㉓	2	55	㉓	1
11	㉒	2	26	㉑	2	41	㉕	2	56	㉒	2
12	㉒	1	27	㉑	2	42	㉔	2	57	㉔	2
13	㉓	2	28	㉒	2	43	㉔	2	58	㉓	2
14	㉑	2	29	㉕	2	44	㉑	2	59	㉒	2
15	㉒	3	30	㉔	2	45	㉕	2	60	㉕	2